

국립국어원 2011-01-12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335-01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2

- ▣ 연구책임자: 강 정 희(한남대학교)
연 구 원: 김 지 속(영남대학교)
- ▣ 조사 주제: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 ▣ 조사 지역: 동해안 북부
(강릉시, 평창군)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
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연구책임자: 강정희(한남대학교)

연구 기관: 한남대학교

연구책임자: 강정희

연구 원: 김지숙

제 1 부 사업 개요

제1장 연구 개요	3
1. 조사 개요	3
1.1.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_3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_4	
1.3. 조사 방법_5	
1.3.1. 조사의 의의	1.3.2. 조사 과정의 특징
1.3.3. 조사 시 고려 사항	
2. 조사 지침	6
2.1. 현장 조사 지침_7	
2.1.1. 일반 원칙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2.1.3. 제보자 선정 기준	
2.2. 전사 지침_10	
2.3. 올림말 선정 지침_12	
2.3.1. 일반 원칙	2.3.2. 세부 기준
2.4. 뜻풀이 지침_15	
2.4.1. 기본 원칙	2.4.2. 뜻풀이 형식
2.4.3. 뜻풀이 용어	
제2장 연구 추진 과정	16
1. 조사 계획	16
2. 조사 보고	18
2.1. 제보자_18	
2.2. 조사 기간 및 방법_20	
2.3. 조사 장소_21	
2.4. 조사 내용_23	

2.5. 조사 결과물_23

제 2 부	연구 내용
--------------	--------------

제3장 생애 구술	27
1. 명태 잡이	27
1.1. 배 이야기_27	
1.2. 미세기 이야기_57	
2. 덕장	67
2.1. 덕걸이 하는 사람 이야기_67	
2.2. 덕걸이 행위 이야기_74	
제4장 조사된 어휘	80
1.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란?	80
1.1. 명태 잡이_80	
1.2. 덕장_81	
2. 관용표현	82
2.1. 어로 생활과 관련한 표현_82	
2.1.1. 어업 행위	2.1.2. 기타 생활 관련한 표현
2.2. 명태의 상태와 맛에 관련한 표현_84	
2.2.1. 명태의 상태 변화 표현	2.2.2. 명태의 맛에 관한 표현
3. 행위자	86
3.1. 어부_86	
3.1.1. 능력에 따른 명칭	3.1.2. 역할에 따른 명칭
3.2. 덕장 사람_88	
3.2.1. 역할에 따른 명칭	
4. 장소	90
4.1. 바다_90	
4.1.1. 거리에 따른 명칭	4.1.2. 깊이에 따른 명칭
4.1.3. 날씨와 시기에 대한 표현	
4.2. 육지_95	
4.2.1. 장소에 따른 명칭	

5. 도구	96
5.1. 운송 도구_96	
5.1.1. 배 종류의 명칭	5.1.2. 배의 부분 명칭
5.2. 착용 도구_108	
5.2.1. 옷	5.2.2. 모자
5.2.3. 버선, 신	5.2.4. 기타류
5.3. 채집 도구_109	
5.3.1. 그물	5.3.2. 낚시
5.4. 덕걸이 도구_118	
5.4.1. 덕	5.4.2. 기타 도구
6. 명태의 명칭	122
6.1. 어촌에서 사용되는 명태의 명칭_122	
6.1.1. 크기에 따른 명칭	6.1.2. 상태에 따른 명칭
6.1.3. 장소에 따른 명칭	6.1.4. 어획 도구에 따른 명칭
6.1.5. 기타 명칭	
6.2. 덕장에서 사용되는 명태의 명칭_126	
6.2.1. 크기에 따른 명칭	6.2.2. 상태에 따른 명칭
6.2.3. 장소에 따른 명칭	6.2.4. 어획 도구에 따른 명칭
6.2.5. 기타 명칭	
7. 어로 행위	130
7.1. 어로 활동_130	
7.1.1. 그물 손질과 명태 잡이	7.1.2. 덕걸이 행위
8. 음식	135
8.1. 음식 재료와 음식명_135	
8.1.1. 재료	8.1.2. 음식명
9. 민속	137
9.1. 제의_137	
9.1.1. 고사 및 속설	

제 3 부 **연구 결과**

제5장 마무리 145

참고 문헌 153

부 록 155

찾 아 보 기 195

제 1 부

사 업 개 요

제 1 장 연구 개요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제 1 장 연구 개요

1. 조사 개요

1.1.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

본 조사는 2010년에 제1차 단계로 실시한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사업에 이어 2011년도에 실시하는 제2차 단계의 조사이다.

최근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생태주의 언어학은 언어와 자연생태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생학문이다. 생태주의 언어학자들은 언어가 소멸하는 것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들이 멸종하는 현상을 같은 차원에서 보고 있다. 현대 사회의 산업화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파괴로 인한 많은 생물종들의 멸종은 해당 생물종들과 관련된 어휘, 표현법들의 소멸이 바로 언어와 생태계의 상호 관련성을 말해준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하고 역동적인 생활 모형을 창조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인간 활동의 매개체는 바로 언어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축적된 문화를 전수하며, 또 언어를 이용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또한 시대, 문화가 변해가면서 언어가 또 다른 모습을 띄기도 한다. 새로운 언어가 생기고, 사용하던 언어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언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특히 언어의 소멸은 언어생태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그것은 언어의 소멸은 곧 그 언어를 사용하던 지역, 인간들의 정신문화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 인류 언어학자 데이비드 크리스털의 “문화란 주로 말과 글이라는 언어로 전달되고 있고 이 언어의 죽음으로 인해 언어 전달이 무너지면 지식 상속에 심각한 손실이 일어나고 이는 다시 개별 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말은 사라져 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은 바다라는 환경에 적응하여 그와 관련된 여러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지역이 많음을 나타낸다. 또한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가 다양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어촌 지역의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말을 어촌 생활어라 한다. 여기에는 어촌 지역의 환경, 전통사회, 경제, 문화 활동과 연계된 어휘, 표현이 들어 있고, 또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수많은 문법적인 요소도 포함하

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양 생태계의 변화와 어촌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와 이로 인한 경제 형태의 변화는 이와 관련된 어촌 생활어에도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전통 어촌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는 소멸되었거나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새로운 언어 - 표준어의 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어촌 생활어 소멸과 확산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앞에서 본 조사 사업의 시대적 요청은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어촌 생활어에 대한 수집, 조사는 그동안 정부기관이나 국어학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촌 생활어에 대한 조사, 정리는 현재 절실히 필요한 작업이다. 현장 조사를 통한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기층문화와 관련된 어휘, 어법 등에 대한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문서화란 데이비드 크리스털의 말처럼 사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언어의 다양한 모습을 영구적으로 그려 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사업의 목적은 한반도 남쪽의 해안 지역에 분포된 어촌을 대상으로 하여 바다와 관련된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를 조사, 문서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해안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바다와 관련된 기초 어휘와 어촌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기층 생활어를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 작업은 해당 어촌 지역의 정체성을 살피고 그들의 삶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우리 국토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은 바다를 생활환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해안 지역에는 다양한 어촌 생활문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는 그 지역의 토속적인 언어와 기층 생활어의 결정체이다. 그러나 최근 어촌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의 속도와 함께 해당 지역의 토속 언어와 기층 생활어가 점점 소멸해가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기관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왔던 지역어 조사는 대부분 농촌 생활 중심이었다. 이러한 조사 지역의 편중성은 곧 해안 지역-어촌 생활에 대한 본격적인 언어학적 조사 사업과 업적의 영세성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 사업은 이와 같은 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또한 최근 표준어의 간섭과 기계화로 인하여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의 전통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기층 생활어를 조사하여 이를 문서화(documentation)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오늘날 어촌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바다의 온도 상승은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또한 어촌 생활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촌 사회의 환경, 생태계의 변화와 파괴는 어촌 생활과 문화의 변화, 소멸을 의미한다. 이

는 나아가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멸 위기의 개체들에 대한 기록과 보호는 현시점에서 필수적이며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소멸 위기의 언어를 조사하고 이를 문서화(documentation)하는 일은 언어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문서화는 언어 유산의 상징이 될 몇 가지 어휘만을 수집하는 식의 비교적 단순한 과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서화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전 편찬이라는 전통적인 작업의 수준을 넘어서 구술 발화 등과 같은 담화 자료를 녹음기, 사진, 동영상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조사 대상을 하나의 언어 활동체로서 그려 내는 대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그 모습 그대로를 그려내는 것이다.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구술 발화 자료는 지금까지 각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국어의 어휘, 표현법의 발굴이 기대되며 나아가 국어 어휘장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휘 체계를 정리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어촌 지역에 관련된 국어문화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1.3. 조사 방법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 조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조사 방법은 질문지에 의한 현장에서 직접 조사방법을 채택한다. 기초 어휘 조사는 공통 질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며, 개별 주제 조사는 연구원 각자의 간략 질문지를 이용한다. 질문지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명하기 어려운 해당 어휘에 관해서는 사진을 병행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해당 어휘 항목을 조사하고, 나아가 조사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여 해당 어휘의 하위 항목의 어휘까지 수집한다. 질문지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자의 조사 어휘 항목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서 조사 대상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며, 조사 과정에서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요구된다.

1.3.1. 조사의 의의

- 어촌 지역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에 관한 일련의 조사는 사라져 가고 있는 어휘의 보존 작업에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 질문지를 통한 조사는 기본적인 어휘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어촌 생활에 관련된 기초 생활 어휘를 수집하기에는 용이한 방법이다.
- 또한 이 조사 방법을 통해 여러 조사 지점의 해당 어휘를 비교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 해당 어휘가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조사 후 해당 어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어촌 지역의 생활 어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질문지를 통한 해당 어휘의 조사 뿐 아니라 조사자의 심층 밀착 조사는 하위 항목의 어

휘를 수집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어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어촌 생활어의 어휘망 확충, 어휘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2. 조사 과정의 특징

- 조사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1차적 배경인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2차적 배경인 역사적인 조건과 외부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조사 어휘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확장 어휘를 수집할 수 있다.
-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기초어휘 항목에 대한 선정과 이와 관련된 질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질문지를 통해 질문하기 어려운 어휘 항목에 대해서는 사진 자료를 준비하여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질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되어야 한다. 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질 높은 어휘 수집을 위해서는 조사 어휘 범주, 어휘 항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수집 어휘가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보자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1.3.3. 조사 시 고려 사항

- 조사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어촌 지역이라는 일반적인 요소 이외에 해당 지역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수집할 수 있는 어휘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조사 어휘가 가지는 특수성과 일반성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윤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인, 집단의 행동과 말이 기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설명을 위해서는 배경과 과정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 조사 지침

기초 어휘 조사는 소멸해가는 어촌 생활 기초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해당 어휘를 조사하여야 한다. 어촌 생활 기초 어휘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어촌 생활에 관련된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로도구와 어로방법, 음식, 민속에 관련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별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행위자
- 환경 : 시간(물때, 미세기, 하루), 날씨(바람, 비, 눈, 해·달·별, 기타), 공간(방위, 바다, 해안가, 지형)
- 어획물 : 물고기(부분 명칭, 종류, 상태), 조개류(부분 명칭, 종류, 상태), 게(부분 명칭, 종류) 해조류(종류, 상태), 기타(종류, 상태)
- 어로도와 어로행위 : 그물류(부분 명칭, 종류), 낚시류(부분 명칭, 종류), 배(부분 명칭, 종류), 어로 도구 기타, 어로 행위(조개류, 해조류, 그물류, 배, 기타)
- 음식 : 젓갈류, 기타
- 민속 : 제의(벉고사), 금기·속설·은어·노래

또한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 조사를 위해서 어촌의 집단별, 직업별, 영역별, 기층 생활어 중 조사 지역에 특수하게 나타나는 상황에 맞는 범주를 정해 조사한다. 간략 질문지를 작성하고 질문지를 근거로 해당 어휘를 조사하고, 나아가 하위 항목의 어휘를 수집한다.

조사는 직접 질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행위자(제보자)의 구술발화를 채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어휘를 추출해내고 어휘의 용례를 추출하기 위함이다. 질문지의 범주별 조사 항목에 맞추어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어를 조사한다. 또한 다양한 하위 항목의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조사 지역의 제보자와 일정 기간 숙식을 함께 하는 심층, 밀착 조사 방법을 채택한다. 조사자와 제보자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될 때 비로소 조사 어휘 외의 주변 생활어까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의 구술발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생활어 어휘, 의미, 용례, 행위, 사회·문화·생태·역사의 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주제와 관련이 없는 개인 생애사는 가급적 채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지를 이용한 심층 밀착 조사를 통해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의 어휘장을 넓히고 어휘체계를 구축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조사의 원칙으로 한다.

2.1. 현장 조사 지침

현장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원들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지리,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조사에 임하여 조사의 질을 높인다. 또한 기초 어휘를 먼저 조사한 후 개별 주제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가능한 기초 어휘의 확장 어휘, 어법을 보완 조사 한다. 기초 어휘 조사는 공통 질문지를 이용하며, 개별 주제 조사는 간략 질문지를 이용한다.

2.1.1. 일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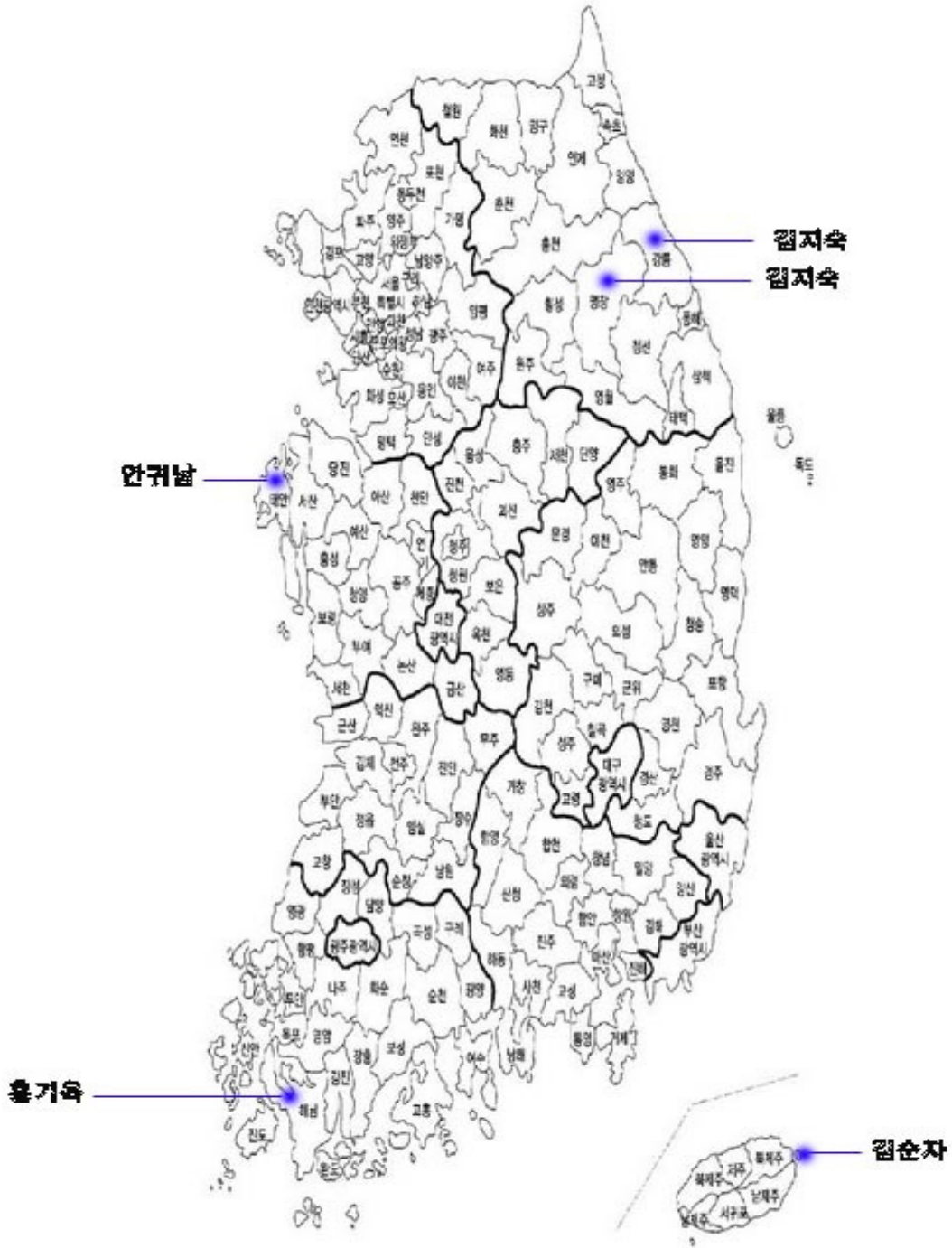
- 각 조사 지역에 해당하는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문법형태소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 조사 현장에서 채록된 모든 어휘를 수집하여 해당 어휘가 전형적인 의미를 가질 때 올림말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이에 확장된 여러 어휘를 수집하여 관련 어휘 체계망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 어휘론적 변종만을 올림말로 선정하며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상정하지 않는다.
- 조사된 어휘 항목에 대해서 사전 편찬을 위한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된 어휘 용례는 대표성과 일반성을 획득하기 위해 2개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
- 모든 사진 자료와 음성자료는 최종 어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에 대한 어휘의 실물이 존재할 경우 모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에 대한 행위와 실물에 연관된 동영상을 촬영하여 영상 파일을 제출할 수 있다.
- 조사 대상자를 통해 관련 그림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올림말 선별 기준에 의해서 올림말로 등록하지 못한 어휘도 조사 자료 정리 방식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어휘 목록은 국어원에서 검토, 올림말로 선정 가능한 어휘는 다시 조사자에게 보내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 서해안 중부, 남해안 서남부, 동해안 북부, 제주도 동부로 어촌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조사 지역을 선정한다.
- 조사 지점 간의 거리차를 두어 조사 지역을 선정한다.
- 조사 지역 선정의 기준은 2010년에 실시한 제1차 조사 지역을 제외하되, 동일한 해안 지역 중에서 미조사 지역을 다시 재조정하여 선정한다. 이는 동일 해안에 분포한 어촌들에 분포되어있는 어촌 생활어의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어의 다양한 어휘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다.

● 다음은 2011년도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 조사’ 를 위하여 선정된 지역이다.

● 2011년도 조사지역



2.1.3. 제보자 선정 기준

이 사업의 성격상 기존의 방언학에서 적용하여 왔던 제보자 선정 기준(NORMs)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촌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은 조사 상황에 맞게 정하되 될 수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자는 조사 지역에서 3대 이상 거주한 50~60세 이상으로 어업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지역 토박이로 한다.
- 70세 이상의 제보자는 되도록 학력이 낮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고, 50대와 60대의 경우는 중학교 정도 졸업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 눈과 귀가 어둡지 않고 치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구술 발화 자료의 채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입담이 있는 사람이 제보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전사 지침

※ 어휘 수집을 위한 전사 지침을 따르되, 음운론적인 정밀 전사가 필요한 경우(구술전사 등)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전사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 올림말(표제항) 및 용례
 - 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어간을 밝혀 적는다.
 - ② 유기음화, 경음화, ㄷ-구개음화, 유음화, 자음군단순화, 비음화 등과 같은 공시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한 음운변화나 음성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국또 → 국도, 가치 → 같이, 노코 → 놓고, 실라 → 신라, 감만 → 값만,
 흑또 → 흑도
 - ③ 일반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해서 예상되지 않는 음운변화 혹은 음성변화 또한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어휘들이 올림말로 선정될 경우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예) 김빡 → 김밥, 양념간장 → 양념간장, 서울씨 → 서울서, 돈또 → 돈도
 - ④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는 것도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⑤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e]나 [e]로 실현되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하되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차웨 → 참웨(참외), 헤이 → 헤이(회의) 등
 - ⑥ 이중모음 ‘기’가 예측가능한 음성환경에서 [e]나 [i]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예) 민주주이 → 민주주의
 나에 → 나의
 이사 → 이사(의사)
 이자 → 이자(의자)
- ⑦ 이중모음 ‘-기’가 [-]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의사 → 으사(의사)
 나으 → 나으(나의)
 으자 → 으자(의자)
- ⑧ 자음 뒤에서 이중모음 ‘-키’가 [e]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지혜 → 지혜
 혜성 → 혜성
- ⑨ 단모음 ‘-키’나 ‘-히’가 [E]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키’이면 ‘-키’, ‘-히’이면 ‘-히’로 전사한다.
 예) 대떡[E-] → 대떡
- ⑩ 단모음 ‘-기’나 ‘-키’가 [ɕ]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기’이면 ‘-기’, ‘-키’이면 ‘-키’로 전사한다.
- ⑪ 전설 모음 앞에서 ‘-시’가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샤람 → 사람
 세수 → 세수 등
- ⑫ 음장은 별도의 기호를 두어 전사하지 않으며, 다만 올림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 ⑬ 체언 어간말 자음 ‘ㄷ, ㅌ, ㅊ, ㅈ’ 등이 곡용 패러다임에서 마찰음 ‘-시’로 실현된 경우에는 소리는 나는 대로 전사하고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준다.
 예) 바시 → 바티(밭이)
 저시 → 젓이(젓이)
 꼬시 → 꽃이(꽃이)
- ⑭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변이형들은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보듬기다>보둥기다, 안기다>앙기다, 암캐>앙캐 등
- ⑮ 변자음화에 의한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익꼬 → 있고, 묵꼬 → 묻고(埋) 등
- ⑯ 표준어에서 ㅅ-불규칙, ㅂ-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이 정칙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한다.
 예) 이서서, 부서라, 지서라 등
 추버서, 매버서, 짜버서 등

2.3. 올림말 선정 지침

2.3.1. 일반 원칙

- ① 모든 어휘론적 변종들은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② 단순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음장, 장단,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 자음군단순화, 위치동화, 활음화, ㄷ-구개음화(형태소 경계) 등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기저형의 예측이 가능한 표면형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다음의 올림말 선정 세부기준을 참고하되, 필요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올림말 선정의 예외를 결정한다.

2.3.2. 세부 기준

- ① 움라우트 실현형 : 괴기, 핵교, 호랭이, 귀경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게재자음 제약에도 불구하고 움라우트가 실현된 경우에는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매디(마디), 쇠리(소리), 개지다(가지다) 등).
- ② 어두경음화 실현형 : 걱정(걱정), 쏘주(소주), 까지, 깨구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ㄱ-구개음화 실현형 : 질(길), 지둥(기둥)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④ ㅎ-구개음화 실현형 : 성(형), 소자(효자), 심(힘), 송년(홍년)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⑤ 체언 어간말 자음군의 어간재구조화형 : 흑(흙), 닥(닭), 갑(값)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⑥ 체언 어간말 자음 ‘ㄷ’와 ‘ㄱ’의 음운론적 교체형 : 바대(바다), 가매(가마), 감재(감자), 봉에(봉어), 고등에(고등어), 잉에(잉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⑦ 치찰음화(혹은 구개모음화) 실현형 : 벼슬(벼실), 썩나물(쓴나물), 씨다(쓰다, 苦)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⑧ 모음 상승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ㅓ : 자두(자도), 삼촌(삼촌), 사둔(사돈), 가우리(가오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ㅗ : 그지(거지), 은니(언니), 그짓말(거짓말)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ㄱ>ㅣ : 기(蟹), 시상(세상), 히푸다(헤푸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⑨ 유음 아래서 ‘一’의 전설모음화 : 흐리다(流), 마리다(마르다), 고리다(고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⑩ 순음 아래서 ‘·>ㅛ’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 : 몰(馬), 풀(팔), 뽀다(뽀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⑪ 어두음절에서 ‘ㅏ>ㅑ’의 교체형 : 새다리(사다리), 채곡채곡(차곡차곡), 재갈(자갈)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⑫ 순음 아래서 ‘ㅓ>ㅕ’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체형 : 봉어리(병어리), 불(벌), 보짐(버짐), 모루(머루)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⑬ 자음첨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ㅁ-첨가 : 모가지>모감지, 호맹이>흙맹이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ㄴ-첨가 : 고치다>곤치다, 까치>깁치, 무치다>문치다, 나중>난중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ㄹ-첨가 : 고르다>골르다, 도르다>돌르다(속이다, 흙치다), 지리>질리(길이)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ㄹ. ㅇ-첨가 : 해구다>행구다, 배우다>방우다(배우다), 베이다>벵이다(배우다)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⑭ 단순 모음 교체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ㅓ : 망>명(그물), 쇠망>쇠명, 살강>설경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ㅏ : 구석>구삭, 흘청>흘창, 베개청>베개창, 수령>수랑, 뚜껍>뚜깡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ㅣ>ㅓ : 비늘>베늘, 비누>베누, 함씨>함쎄(할머니), 개비>게베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ㄹ. ㅏ>ㅓ : 고자리>괴자리, 도토리>되토리, 코>괴, 꼬랑>괴랑(도랑), 고>괴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ㅁ. ㅓ>ㅓ : 괴기>게기, 괴비>게비(식물), 외우다>에우다, 뽀시다>메시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ㅂ. ㅓ>ㅓ : 구저리>귀저리(구더기), 굴뚝>귓뚝, 꾸다>뀌다, 추다>취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ㅅ. ㅓ>ㅓ : 팽이>핑이, 왜홀태>외홀태, 산토펙이>산토펙이, 께>뀌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⑮ 단순 자음 교체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자음교체가 지역적 특성일 경우는 예외)
- ㄱ. ㅂ>ㄱ : 자봉침>자광침, 버마제비>거마제비, 덩석>덕석, 고부리다>고구리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ㅂ>ㅁ : 진눈깨비>진눈깨미, 버버리>버머리, 땅개비>땅개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ㅁ>ㅂ : 나막신>나박신, 대리미>대리비, 입감>입갑, 비점>비첩(버집)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ㄹ. ㄱ>ㅂ : 주걱>주벽, 웅구럭대기>웅구럽대기(미꾸라지)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ㅁ. ㄱ>ㅇ : 닥성냥>당성냥, 복송씨>봉송씨, 꼭다리>꿩다리(꼬리), 물팍>물팡(무릎), 어덕>어딩(언덕), 꼭사리>꿩사리(송사리), 등
☞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 ㅂ. ㄱ>ㅎ : 아곱>아홉, 똥>똥, 숙->송-(雄), 군지>훈지(그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⑯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안기다>앙기다, 암캐>앙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⑰ ‘ㅡ’ 삽입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형 : 앓다>안즈다, 엮다>여끄다, 앙기다>앙그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⑱ ‘△’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여수~여시, 가슬~가실, 잇다(이서라~잇꼬), 붓다(부서라~붓꼬)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⑲ ‘ㄹ’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솔~소플~소불(부추), 장팍~장꼬방(장독대), 마름~말밤, 덩다, 춥다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⑳ ‘ㄱ’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가새~가시개, 몰개~모래, 생강~새양, 시렁~실경, 개암~깨금, 질구다~지루다(기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㉑ 평음의 유기음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차꼬(자꾸), 혼차(혼자), 펥퐁(병퐁), 팍나(밤낚), 풀세(벌써), 탐박질(달음박질), 몬차(먼저), 클씨(글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㉒ 어간말 자음 ‘ㅈ, ㅊ, ㅌ’ 등의 어간재구조화(마찰음화) : 꽃(꽃), 웃(웃), 빛(빛)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㉓ 용언의 어간재구조화형은 한글로 표기할 수 있을 경우 : 굶다(굶다), 굶다(굶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1. 조사 계획

민족생활어란 민족이라는 범주와 생활이란 의미, 언어란 방식이 결합된 말로 이해된다. 민족생활은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한 문화에 기초한 생활방식을 말하며, 이러한 민족생활은 언어를 통해서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민족생활의 총체적인 모습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생활 현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그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어휘는 표상하는 사물 또는 개념에 따라 생성하고 소멸하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도시화로 전환이 거의 완성된 단계이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생활방식도 산업화·도시화에 적합하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생활방식의 변화는 다시 사용하는 어휘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런 까닭에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전통적인 생활어는 소멸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현대 일반인은 민족생활에 대한 지식을 얻기가 점점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 민족생활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본 조사는 사회적인 변화 요인으로 인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생활어를 그 대상으로 했다. 1차년도에 시행된 조사에서는 ‘어업 생활어’와 ‘장인의 말’을 조사했고, 2차년도에서는 그 대상을 ‘모필(붓)’과 ‘김치’로 정해 모필과 김치의 제작 과정 속에 나타난 어휘를 조사했다. 또 3차년에는 ‘장 담그기’와 ‘떡’을 정해 우리의 전통 식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조사하였다. 1차년, 2차년, 3차년도의 조사를 통해 우리 생활과 관련된 어휘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래서 4차년도에서는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라는 큰 범주 속에서, 아직은 우리 생활 속의 행위지만 이미 그 전통의 방법은 잊혀져 가고있는 ‘그물 손질부터 어판장까지’를 주제로 정해 어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층생활어를 수집하였다. 5차년도인 2011년은 4차년의 주제와 관련 속에 있지만 강원도의 언어 특색도 담을 수 있는 주제로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예전부터 어촌이 발달했다. 그러나 어촌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어촌은 점차 추억 속의 어촌이 되어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해수면의 상승, 어획량의 변동, 어종의 변화로 인해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주어장을 형성했던 어종인 명태, 대구, 도루묵 등의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멸치, 고등어, 오징어 등의 난

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다.¹⁾ 즉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바다의 온도 상승은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또한 어촌 생활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중 동해안의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인 ‘명태’는 1990년대에 들어 어획량이 급감해²⁾ 1990년대 후반에는 1970년대 평균어획량보다 1백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남하한계선이 점점 북쪽으로 이동해 현재는 적은 수의 명태가 강원 중부 이북에서만 잡히고 있다. 이러한 점은 ‘생태, 황태, 동태, 북어’ 등과 같은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친근한 어종인 명태가 앞으로는 멸종 또는 희귀어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명태 어획량 감소와 분포 구역의 축소로 인해 명태와 관련된 어촌 생활도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최근 잡히는 대부분의 명태의 원산지가 러시아라는 점과 자연방식으로 건조하던 황태덕장 대신 인공적으로 가스를 통해 가공하는 방법 등의 가공 방법의 변모도 어촌 생활 문화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촌 사회의 환경, 생태계의 변화와 파괴는 어촌 생활과 문화의 변화, 소멸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어촌 생활문화의 변화는 언어의 변화로까지 이어져가고 있어 명태와 관련된 어촌생활어의 보존과 기록이 시급하다.

본 조사는 이러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로 소멸해가는 동해안 지역의 명태 관련 어촌 생활문화를 채록하기 위해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명태는 알과 창자를 이용해 식품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한 식품인 젓갈류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³⁾ 이러한 식품은 대표적인 서민 식품의 하나이므로 이를 통해 어촌 기층생활어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제까지 어촌 생활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민속학자, 수산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어류명과 해조류명 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어로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민족생활은 그것을 영위하는 행위와 대응하는 언어가 함께 조사되었을 때만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직접 이러한 어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사용하는 생활어를 조사하는 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조사는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를 기능적인 측면만이

1) 오징어, 고등어, 멸치 등 연근해 주요 난류성 어종은 겨울철 분포 해역이 최근 북상했고, 분포 밀도도 높아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오징어의 경우, 2~3월에는 1970년대 중반에 비해 1998~2000년 사이에 약 1백km 이상 어장이 북상했다. 이에 따라 겨울철 어획량도 1980년대 이전에 비해 1995년 이후에는 2.5~6배 증가했다. 연간 어획량에 대한 겨울철 어획비율도 1975년 이전에는 5% 미만으로 낮았으나 1990년 이후에는 13% 수준으로 높아졌다. 고등어, 멸치, 전갱이, 방어 등도 오징어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사이언스리뷰, ‘한국의 미래 바다에 있다’, 박석순, 2007.05.28.)

2) 최근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원회복을 위해 수배령이 내려졌던 살아있는 명태에 대한 포상금이 확정됐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소장 김진영)는 살아있는 어른 명태를 잡아 오면 포상금으로 어시장 도매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동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명태의 종모를 대량 생산해 방류함으로써 자원회복 가능성을 연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살아 있는 명태를 실내 수조에서 산란용 어미로 사육한 후 자연 산란 또는 인공수정으로 수정란을 확보, 종묘생산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악신문, ‘산 명태 1마리 20만원에 삽니다’, 2009.11.16.[932호])

3) 이 외에도 북어깍질로는 ‘어글탕’을 끓이며 눈알로는 ‘명태눈초무침’을 만든다고 한다. 이처럼 명태는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부위가 음식으로 이용되는데 대체적으로 36종류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아닌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로 인해 명태를 잡는 과정에서부터 덕장에서 황태를 건조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어로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어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강원도 동·남부 지역인 강릉시 주문진읍과 평창군 대관령면을 중심으로 ‘정의, 어획물, 도구, 어로 행위, 어획물, 행위자, 장소’와 함께 ‘이와 관련된 관용적 표현’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명태 잡이에 조사는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주문진읍과 연곡면을 중심으로, 덕장 관련 조사는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동해안 북부 지역의 어촌 관련 어휘를 채록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강원도 동·남부 지역의 방언형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2. 조사 보고

2.1. 제보자

〈표 1〉 제보자 및 참고 사항

제보자	지역	기타
 박종석(77)	강릉시 주문진읍 영진리	예전에는 자망바리를, 몇 년 전까지는 낚시바리로 명태를 주로 잡았다. 60년 넘게 고기잡이를 했고 대부분 명태바리를 주로 했다. 지금은 집에서 부인과 함께 황태를 가져와 황태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주문진 출생, 부친의 고향은 양양)
 신도출(77)	강릉시 주문진읍 연곡면	명태바리 중 낚시바리를 주로 했다. 19살부터 시작해 60년 넘게 명태바리를 했다. (주문진 출생)
 박일원(87)	강릉시 주문진 연곡면	명태 낚시바리와 시망바리, 산마이바리를 주로 했다. 14세부터 고기잡이를 시작해 지금까지 70년 넘게 했다. (주문진 출생)

제보자	지역	기타
 김진호 (61세)	강릉시 주문진읍 연곡면	자망과 연승으로 명태를 주로 잡다가 낚시를 이용해 잡기도 했다. 이 외에도 문어, 아나고, 광어, 가자미를 잡기도 한다. 지금까지 45년 넘게 명태바리를 했다. (강릉시 출생)
 박옥녀(86)	강릉시 주문진읍	남편은 명태 잡이를 했고, 아내인 박옥녀는 명태 뒷손질과 그물 보망을 담당했다. 이를 '명태 품팔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을 50~60년 동안 해왔다. 지금은 황태를 가져와 이를 황태채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주문진 출생)
 임영숙(60)	강릉시 주문진읍	박옥녀의 며느리로 26살에 시집와 지금까지 35년 동안 명태 손질을 했다. 지금은 남편의 문어잡이를 돕고 있다. 예전에 주문진에서 식당을 10년 동안 운영한 적이 있다. (서울시 불광동 출생)
 조규월(81)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에 시집와 주로 명태 잡이 뒷일을 담당했다. 그물 손질과 준비 및 손질에 관한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민박 일을 하고 있다. (강원도 출생)
 김준래(82)	강릉시 주문진읍	늦은 나이인 40세에 처음 고기 잡이를 시작했고 명태 잡이를 주로 했다. 배에서 나이가 많아 영자 역할을 했다. 지금은 민박과 해수욕장 부대시설 관리를 맡고 있다. (주문진 출생)
 최상익(88)	강릉시 주문진읍	예전에는 고기잡이를, 지금은 몸이 좋지 않아 황태를 가져오고 이를 손질하는 뒷작업을 집에서 하고 있다. 많은 나이로 인해 발음과 몸이 좋지 않아 동영상 촬영만을 했다. (주문진 출생)
 정춘옥(76)	강릉시 주문진읍	강릉에서 남편과 함께 황태 채를 뜯는 황태 뒷작업을 한다. 호적 나이는 66세이나 실제 나이는 이보다 10살 정도 많았다. 개인 정보 때문에 언어 조사는 하지 않고 동영상 촬영만을 했다.

제보자	지역	기타
 이상옥(73)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5리	고향은 충청도이나 스키 부대원으로 군대 생활을 이곳에서 했다. 이를 계기로 대관령에서 살게 되었다. 덕장 관련 일을 15년 정도 했고 지금도 덕장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충청도 출생)
 강현수(67)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5리	69년부터 대관령 횡계에서 거주했고 그 전에는 강릉(명주군 사천면)에서 살았다. 70년 초반에 덕장에서 상덕을 담당했다. 그 후 스키장 일을 하다가 지금은 감자 농사를 짓고 있다. 평창 노인회 총무를 맡고 있다. (강릉 사천 출생)
 안사선(62)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5리	예전에 덕장에서 '덕 보는 일'을 담당했다. 덕장 관리 전담을 15년 정도 했고 지금은 농사를 짓는다. 횡계 토박이로 선대도 이곳에서 거주했다. (대관령 출생)
 김진광(56)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5리	80년 중반에 덕장에서 물도리가 건져놓은 것을 운반하는 일을 했다. 지금은 채소와 감자 농사를 짓고 있다. 횡계 위의 마을 창리에서 살다가 91년에 횡계로 왔고 지금은 마을 이장직을 겸하고 있다. (대관령 출생)
 김사문(72)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5리	28세부터 황태 덕걸이를 시작해 11년 정도 일한 후에 그만 두었다. 그 후 농사를 지으면서 틈틈이 덕장 일을 거들고 있었다. 평창에서 3대째 살고 있다.

2.2. 조사 기간 및 방법

2011년 4월 22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민족생활어 조사는 크게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4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어촌생활어에 대한 참고 문헌 조사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문헌에 기록된 조사 어휘를 항목별로 수집하고 목록

화하여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본격적인 현지조사는 5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밀착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후 보완조사를 통해 자료를 보강하였다.

〈표 2〉 조사 세부 추진 계획표(2011년 4월 22일 ~ 2011년 11월 22일)

연번	세 부 추 진 계 획(월, 일)	비고
1	문헌 조사(4. 23. ~ 5. 25.)	
2	밀착 조사(5. 27. ~ 9. 25.) 조사 지역- 강릉시 주문진읍, 연곡면, 평창군 대관령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어휘 조사 ○ 구술생애 ○ 그물의 종류, 부분 명칭 ○ 기타 어로 도구 ○ 어로 활동 과정 ○ 어획물 종류 ○ 어로 행위와 관련된 관용표현 ○ 동영상, 사진 촬영
3	중간 조사 결과 정리(7. 20. ~ 8. 20.)	
4	중간 보고(8. 26.)	
5	trs로 전사하기, 전사 수정, 엑셀 작업	
6	최종 보고(10. 20.)	
7	보고서 작성 및 멀티미디어 자료 정리(10. 20.~11. 10.)	○ 음성, 사진, 동영상 정리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민속지적 조사 방법은 경험적이고 질적인 조사 방법론으로, 일정한 질문지를 만들어 질문지 안의 내용만을 조사하던 방법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조사자가 융통성을 발휘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다.

제보자가 어로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조사자는 민속지적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준비한 질문지 항목은 물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지의 하위 항목을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로 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표현과 이와 관련된 관용표현도 조사하였다.

2.3. 조사 장소

동해안 어촌 생활 기초 어휘 조사는 대부분 어촌계 회관과 제보자의 집, 그리고 작업 공간인 바닷가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는 좀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강릉시 경포대에 15일 간 방을 구해 살았다. 15일 간 진행된 본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처음 조사에 참여한 제보자를 조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제보자도 조사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러한 방법은 처음 참여한 제보자를 통해서만 밀착조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했다. 또 새롭게 참여한 제보자를 통해서만 많은 수의 제보자를 통한 다양한 어휘의 채록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는 소멸 위기의 어휘를 발굴하고자 하는 본 조사의 목적과도

부합한다. 그 결과 조사의 중심축이 되는 주제보자와 함께 확인조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조사마다 새로운, 더 많은 경험을 지닌, 말 주변이 좋은 보조제보자도 만날 수 있었다. 먼저 어휘조사를 한 후 채록한 어휘를 바탕으로 확인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모든 조사는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해 동일한 제보자는 최소 2번 이상에서 8번까지의 만남을 가졌다. 이러한 조사로 주제보자와 같은 이들과는 친분을 쌓아 제보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여러 번 받기도 했다. 이는 밀착조사의 일환으로 제보자가 조사에 대해 가지는 부담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일상을 공개함으로써 서로 간의 라포를 쌓는 역할을 했다. 또 이들의 작업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수시로 바닷가에 나가 이들과 이야기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필요한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 상시조사를 겸했다.

강릉 지역의 해안어를 조사하기 위해 강릉시에 위치한 어촌 마을인 ‘연곡면, 주문진읍’을, 덕장 관련 어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덕장이 가장 먼저 생긴 평창군 대관령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아래는 조사 지역인 ‘강릉시 주문진읍, 연곡면 바닷가, 평창군 대관령면’의 모습이다.



[사진 1] 영진항



[사진 2] 주문진읍 영진리 마을



[사진 3] 주문진 조사 모습



[사진 4] 주문진 조사 모습



[사진 5] 평창군 대령관면 황계리



[사진 6] 황계리 제보자들과 만찬



[사진 7] 황계 송천(아바때 설치 장소)



[사진 8] 겨울의 황태 덕장

2.4. 조사 내용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에서는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라는 큰 주제 속에 강원도 강릉과 평창군을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조사는 다음의 큰 범주를 바탕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조사 내용 범주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 | | |
|-----------------|-------------------|
| ○ 행위자 | ○ 어로 활동 과정 |
| ○ 장소, 공간 | ○ 어획물 종류 |
| ○ 그물의 종류, 부분 명칭 | ○ 어로 행위와 관련된 관용표현 |
| ○ 기타 어로 도구 | |

2.5. 조사 결과물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사 결과는 어휘 엑셀 자료,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구분하여 국어원에 제출하였다. 조사 어휘는 범주를 나누고, 해당 어휘의 올림말·해당 표준어·발음·품사·뜻풀이·실제 용례를 기록하였다. 음성 자료는 제보자가 실제

발화한 음성을 분절하여 저장하고, 조사 어휘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도 가능한 모두 수집하였다. 제보자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와 작업에 관한 이야기는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였다.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조사 결과 총 정리표

조사대상	조사내역 구분	조사어휘		음성자료		영상자료	
		총 어휘 수	미등재 어휘	구술/어휘전사	분절 음성	사진	동영상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622	439	2 / 7 ⁴⁾	*622	42	1

4) 파일의 총 전사 시간은 9시간 24이며, 이 중 2개의 파일의 일부 내용은 구술 발화 내용으로도 사용되었다.

제 2 부

연 구 내 용

제 3 장 생애 구술

제 4 장 조사된 어휘

제 3 장 생애 구술

1. 명태 잡이⁵⁾

1.1. 배 이야기⁶⁾

첫 번째, 배 부분 명칭 이야기

@ 예. 요게 뭐 이제 우선 배부터 한번 설명해주시죠.

#2 이 배가 인제 그 옛날 우리가 타고 다녔던 목선이에요. 목조선. 지금 목선이 다 없
어졌잖우. 기억 나죠? 도근이 아버지.

#1 그럼.

@ 한 번. 요 배. 요런 부분은 뭐라 그러고 요런 거부터 해서 요렇게.

#1 이건 **택택**이구먼.

#2 예. 지금 현재는.

@ 택택이요?

#2 택택이.

@ 택택이라 그래요?

#2 예.

5) @ 조사자이고, #은 제보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1, #2, #3, #4로 표현하는 것은 제보자가 다수임을 말한다. 생애 구술은 크게 '명태 잡이 이야기'와 '덕장 이야기'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구분은 각 구술 발화의 제보자가 다름을 말하는 것이다.

6) 제보자는 #1은 김준래, #2은 김진호, #3은 조규월을 말한다.

@ 왜 택택이라 그러죠?

#2 여기다가 인제 엔진을 장치를.

#1 엔진 났기 때문에.

@ 아~

#1 목선에다가 엔진을 노니까네.

#2 그때 거 우리 뭐 저저 양수기 양수기 엔진 따브류.

#1 어. **따브류**도 있고 뭐. 택택이도 있고 그렇지.

@ 아 엔진도 이름이 양수기 엔진도 있어요?

#2 어. 엔진 이름이.

@ 양수기 엔진도 있고 어떤 엔진이?

#2 양수기는 우리 지금 농촌에서 쓰는 경운기 모다 있잖아.

#1 경운기 모다.

@ 아~ 경운기 모터로 만든.

#1 침. 침에는 고런 게 많어.

#2 고럼.

@ 양수기 엔진하고 또 어떤 엔진이 있는데요.

#2 그 답에 그거.

#1 그 답에 **디젤엔진**이지.

@ 아~ 뭐 양수기엔진. 디젤엔진.

#2 야끼다마 그때 야끼다마도 그.

#1 **야끼다마**는 없었지. 아이~ 한 척 있었지.

#2 예 있었지.

@ 야끼다마는 뭐예요?

#1 야끼다마는 인제 일본말인데 거저~ 기계가 뭐 쌍기둥으로 돼가지고.

@ 쌍기둥으로 돼가지고?

#2 쌍기통으로.

#1 쌍기통. 기통이. 기계 도는 기 아래 위로 쌍기통으로 돈다고. 그게 있었고.

@ 그럼 이건 힘이 좋겠네요. 야끼다마라던가.

#1 어~ 그렇지. 야끼다마는 일본말.

#2 텅텅텅텅하고 그러는구만. 엔진 소리가.

@ 아 텅텅 한. 그럼 쌍기통 아래 위로 이제 있는 그런 엔진.

#2 피스톤이.

#1 그렇지. 양쪽으로 양쪽으로 인제 움직이니까. 그 저 외기통보담 다부류가 더 빨리 가지.

#2 그 일본말로 요꼬가 아니고 다대 다대엔진. 그지?

#1 그 다대엔진.

@ 이걸 보고 다대엔진.

#2 어.

#1 어.

@ 그러면은 요런 양수기나 디젤엔진은 외기통이라 그래요?

#1 그때 일본. 일본 배들으는.

#2 어 외기통이지.

@ 요건 양기통?

#1 마카 이 저 공구나 뭐 모두 다 일본말로 썼다고.

@ 예. 그렇죠. 일본말 쓰신 거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때 썼던 거니까.

#1 그렇지.

@ 그럼 양수기 엔진. 디젤 엔진은 외기통. 야끼다마는 양기통 요렇게고. 예. 고런 엔진 요런 거 하나 하나부터.

#2 쌍기통이지. 쌍기통.

#1 쌍기통.

@ 쌍기통 그래요. 어~ 양기통 안 그러고 외기통. 쌍기통.

#2 응.

@ 예. 그래 뭐 우리가 엔진~도 그런데 우선 요거는 목선에다가 엔진을 이제 우리가 땡땡이라고 하고.

#1 예. 땡땡이.

@ 땡땡이.

#1 작은. 작은.

#2 내 사. 사진에 내 지금 내가 뒤에 깔 잘. 풀 때문에 안 나와서 그런데 요 뒤에 스쿠루가 있다고. 스쿠루가.

@ 예예.

#2 요 뒤에. 거 지금 조까이라 해가지고 요 우에.

#1 인제 올리고.

#2 올릴 때는 지금 필리핀이나 저 그런 데 가든 왜.

#1 위험한 데는 돌이 있고 이런 데 가삼 올리. 조까이 식으로 해가 올린단 말이야.

@ 조까이?

#2 사. 사우드를.

#1 조까이.

#2 사우드를 들어올린 거야.

#1 필미. 사우도가 통사우도가 아니고 고기 중간에 이래 묻고.

#2 쪼인트가 있어가지고.

#1 쪼인트가 있기 때문에.

@ 그면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요게 뭐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요것만 봐가지고 잘 모르니까.

#2 내가 사진 또 있을텐데요?

@ 제가 골라 드릴게요.

#2 응.

@ 요거? 요렇게.

#1 스쿠루 있는 거 없잖아.

#2 여기에. 여기. 여기에 엔진이 들어 있으면 이 엔진서 쪽 나와가지고 이기 스쿠루가 프로펠러 생기 있단 말이요.

#1 여기에 인제 거.

#2 여기에 중간 쪼인트가 있어.

#1 쪼인트가 있어. 이렇게.

#2 그럼 여기서 여기 인제 여기에다가 들어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1 조까이라고.

#2 조까이라고. 이게.

@ 그러면 잠깐만요. 요거는 프로펠라.

#2 프로펠라. 사우두.

@ 요거는 사우두요?

#2 아니 이기. 긴. 긴.

#1 사우두는 이기 나간 기. 사우두.

#2 이 긴. 사우두가 이래 돼가 이래 된데.

#1 통단이.

#2 이게 쪼인트가 있다고 이게. 우리 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 예예. 그면.

#2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 어~ 여기가.

#1 그러면 안 올라가고 요기서 인제 올라가지.

@ 요기가 쪼인트. 고 담에.

#1 요기 해이지니까네. 잡아 땡기면 요 인제.

#2 그니까 이 위에다가.

#1 이 위에 배 우로 올라간다. 배 밑에 올라간다.

#2 그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하나 달아가지고 여기에 쪼인트가 하나 인제. 또 하나 있는 거지. 우에. 들어주고 내려주고 하는 게 이기 여 있는 거야. 배 갈 때는 기냥 다 내려노른은 수평이잖아. 올리면은 이기 꺾여져 올라갈 수 있잖아. 이렇게.

@ 네네.

#2 그죠?

@ 예예.

#2 어 여기 스쿠루가 달렸는데.

#1 여 여 여 여서 쪼인트가 인제 해서 올라가지.

#2 요렇게. 여기에 배에 음~ 요거는 인제 그 선. 인제 배 칸.

@ 예예.

#2 배 속에 인제 거 우리 수장들이.

#1 어. 수장.

#2 예.

@ 수장요?

#1 수장.

#2 수장.

#1 수장이라는 게 나무를 가지고 판때기를 가지고.

@ 네.

#1 요게 기관뺨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데는 요래 까잖어. 딱 맞게끔 끊어가지고. 요 안에 깔고 이 밑에는 물이 있지만은 나무를 목선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물이 들어오면은 인제 물도 인제 그 해가지고 또 인제 그 미냐.

@ 아 그니깐 요기 밑에 물이 차면 인제 물을 퍼내고. 사람이 그러면은 수장이라는 거는 요기.

#1 그렇지. 수장이라는 기지.

@ 이 흰. 흰 색깔.

#2 나. 나무 쪼겐.

#1 기관뺨 안에 들어가자 이제 이 까는 기고. 수장이라는 건.

@ 기관뺑 안에. 그니깐 요 부분이죠. 수장이.

#1 예예예.

@ 요 부분이 이거 사람 앉고 이려는데.

#1 요. 요기 인제 요기 인제 배 가라고. 배 즉 말할 거튼 집에 같으믄 아주 그. 그기지. 저 뭐야.

#3 대동말기.

#1 대동말기지.

@ 그면은 요거는 가라.

#1 가라. 어. 가라.

#2 이기 이기 이기 이기 조까이. 인제 배 뒤에.

#1 여기.

#2 차~ 이기 사진 찍냐고. 배 찾아가지고.

#1 똥그런 여저 해꼽이 여기 달려 있잖아. 요기 인제 여그로 사람이 상~ 들어 가가지고 땡겨 올리면 이 스쿠루가 올라간다.

#2 요 요렇게 붙었잖아. 요렇게. 요렇게 쪽~ 내려왔죠.

@ 요거 컴퓨터에도 있죠? 이 사진. 지금 카메라 안에.

#2 다 지웠지.

@ 다 지웠어요?

#2 있나?

@ 요게 가라.

#2 그건 저 저 조까이.

@ 조까이.

#2 그건 배 **후미**. 이진 배 후미에 지금. 후미를 지금 찍은 거예요.

#1 후미 쪽이지.

@ 후미에 있는 요거.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조까이. 조까이가 어떤 건데요?

#1 조까이라는 거는 바로.

#2 바로 이거라니까.

#1 그것도 일본말이야.

#2 요요 **사후들**을 스퀴루를 들어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

@ 스퀴루를. 그니깐.

#2 올리고 내리고 하는 역할.

@ 올리고 내리고.

#1 올리고 갈 적에는 내루고. 육지에 들어 와가지고는. 항구 안에 들어 와가지고는 올리고.

@ 갈 때는 올리고.

#1 갈 때는 내루고.

@ 갈 때는 내리고. 고 담에 육지 올 때는 다시 올리고.

#1 올리. 응.

@ 예. 올리는 거.

#2 이게 그리고 이기 **노거든?** 이게 엔진이 이상이 있거나 꺼졌을 때 이 노를 저어가 지고 다 했던 말이야.

@ 어. 그니깐 노도 같이 필요하네요. 엔진 이상. 어.

#1 그렇지.

#2 이게 이게 지금 우리 옛날 **일본놀이**지.

#1 일본놀이지.

@ 일본노예요?

#2 응.

@ 노도 일본노가 있고.

#2 조선노가 있고.

#1 일본놀이 있고 저 조선놀이 있고.

@ 조선놀. 차이가 뭐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1 차이는 **일본놀이**는 이. 이기 감각이 그게 가지고 이쪽이 우에가 편편하기 때문에. 편편하기 때문에 사람이 땡기고 미는 힘이 많. 더 많지.

@ 응~ 요거는 일본노예요?

#1 어. **일본노**.

@ 어~ 힘이 많고.

#2 여계.

@ 이게 일본노라 그래요? 아님 일본노루라 그래요?

#2 일본놀이.

#1 놀.

#2 놀.

@ 놀. 그니깐 땡기는 힘이. 막 그럼 조선노가 낮겠네요. 조선놀이.

#1 **조선놀이**는 힘이 좀 덜 들지. 덜 지고 좀 배 속도가 좀 늦. 늦지.

@ 왜 속도가 늦죠?

#2 이 물 받는 힘이.

#1 힘이 일본놀이.

#2 폭이 넓으지만은.

#1 폭이 넓으니까네 더 많이. 많이.

@ 아 폭이 넓으니까.

#1 그래 이기 놀 여 여계.

#2 놀쫓.

#1 그 인제 이부터 상말 같구만. 이기 여도 배꼽이 동그란 기 요거를 배에다 박아놔는 기 있어. 배에다 박아노른 여 여 밑에 구멍이 뚫렸거든. 요기. 구멍이 뚫렸으면. 고기다 넣아가지고.

#2 쪼인트. 쪼인트 식이야. 이렇게.

#1 거기다 넣어가 넣어가지고 밀고 땡기고 한다고.

@ 아~ 요렇게 요걸 요렇게 하면. 요렇게 있으면 그면 이거를 놀쫓?

#2 응. 놀쫓. 그리고 우리 요건 뭐라 그랬어. 이기. 놀거리라 켜죠? 요기.

#1 그기 놀망. 놀망치.

#2 놀망치고.

@ 놀망치는 뭐 어떤 데 쓰는데요?

#2 아 요 손 잡고.

#1 요 우에.

@ 손잡이.

#1 어 손잡이는 놀망치라.

#2 그럼 여기다가 배 또 뭐 했는가 하든 놀끈이라고 있어. 놀끈.

@ 놀끈. 놀끈은 어떤 건데요?

#2 그기 인제 조정을 하는 거야. 이게. 지멋대로 깊이 들어 이기 안 되잖아. 하마 안 되잖아.

#1 요 **놏보**. 놏보라고 있제. 놏보.

@ 예예.

#1 그 전에는 일본에는 놏보라는 줄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 놀. 배. 배 우에다가 배 우에다가 매고 그걸 매고 거 끈가리를 고리를 요렇게 양갈래로 고리 고리 저저 얹어 그래 두 갈래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여 정구지. 요 우에다가. 여기 정귀야지 올라야지 더더 내려가지 않지. 어.

#2 파도가 있어도.

#1 내려가는 건 내려가지만 거 파도 이 땡길 적에도 이놈을 저 놀끈을 이래 올려가지고 땡기기 때민에 힘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 배가 인제 그 힘에. 그러이 놀. 놀. 그거는 노를 재쳤다가 또 이쪽으로 올 적에는 또. 또 재. 뭐야 앞으로 재쳤다가 이러거든.

@ 네네. 그러면은.

#1 앞으로 이렇게 재쳐가지고 하고.

#2 이 노인네가 잘 아네. 이 놀망치. 하하하.

#1 뒤로. 뒤로 재쳐가지고도. 밀 적에도 뒤로 재쳐가지고 밀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배가.

@ 그러면은 앞으로 요렇게 했다가 또 뒤로 하면은 이렇게 하고.

#1 그렇지. 그렇지.

@ 요 놀망치를 가지고.

#2 조절하는 거야.

#1 놀망치 가지고 뉘. 뉘졌다는 거야.

@ 예. 조절하는 거고 그러면은 놀끈은 어디 있는 거예요?

#1 놀끈은 배 우에. 배 **도모에**.

@ 아. 도모에.

#1 어. 배 도모에 딱 고정시켜 매놓지.

#2 요 요런 요래 덩기면 요 인제 뒤에. 뒤에 요런 기 칸칸이 요런 기 또 있거든. 그럼 거기에 가가 매가지고 그 뭐 길이로 뚫 들여서 뚫어가지고 했소?

#1 길이로 뚫었나. 그 전에 양. 양날. 양날 그 저저 뭐야. 저저저 못.

#2 못.

#1 외뿔.

#2 예. **외뿔**. 그거 가지고 박아가지고 거다 매가지고.

#1 그기 배뿔이지. **배뿔**. 배뿔 가지고 양쪽을 박아가지고.

#2 고정시켜가지고.

#1 밑으로 꼬. 꼬블러노면 딱 고정. 고정이 되잖아.

@ 아~ 배에 뿔을 쳐가지구요.

#1 어.

@ 양날이라는 거는 양 그 톱날.

#1 그러이 이게 배. **배뿔**이라 그럴 거 같으면. 저 저 뭐야 대가리가 요래 꼬부러졌어. 대가리 양쪽으로 꼬부리고. 아주 빼죽한 기. 길지.

#2 지금 여기는 뿔을 만드는 거. 그 당시는 대장간에서.

#1 대장간에서 맨들어가지고.

#2 배뿔을 아주 만들었거든.

@ 그면 요렇게 꼬블어진. 요런 요런 모양의 배. 배뿔을.

#1 배뭇을. 그렇게 안 꼬부라지고. 뭇이 요렇게 생겼다면은 양쪽에 요게가 요렇게 나
래가 요렇게 꼬부라졌다고. 쪼끔씩.

@ 응~ 그러면 뭇이 요렇게 생겼다면 요쪽에 요렇게.

#1 어어어.

@ 요게 배뭇이라는 거죠?

#1 어어.

@ 요렇게 생겼는 거. 그니깐 요거를 배에다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1 거 나, 나무다가 나무 구멍을 요렇게 밖으로 빼가지고 뚫어가지고. 인제 톱으로 인
제 이런. 요만큼 비면은 둥그런 나무에다가 요런 나무에다가 인제 밑에 편평한 고런
나무를 요 가운데만 요렇게 딱 끊지. 놋보가 들어갈 만침.

#2 이게 배가.

#1 그래가지고 놋보를 매가지고.

#2 배가 된데. 이 노를 우리가 그 당시에 어든 놀쫓을 어든 **놀쫓다이**를 어데 걸었었
소.

#1 **노젓** 도모 저저.

#2 그니깐 오른쪽이요.

#1 도모 합판에다 걸었지.

#2 합판인데 그래 어든. 어느 쪽. 이쪽이 맞소. 이쪽이 맞소. 사진에.

#1 뭐 왼쪽에 하던지 오른쪽에 하던지. 그거는 뭐 대개 인제 여 저 뭐야. 배 도모 왼
쪽으로 마이 하지. 도로까지. **도로까지**로.

#2 도로까지 쪽으로. 그래가 거다 걸었고 노를 저어가지고.

#1 이쪽은 **오모까지**고. 이쪽은 도로까지고 그렇잖아.

@ 응. 그니깐 그~ 오모까지라는 것은 오른쪽.

#2 오른쪽.

@ 오른쪽에 노.

#2 어.

@ 그니까 오른쪽에 노는 오모까지.

#1 아이 도로까지로. 도로까지로 놀것에 받고.

#2 도로까지에서 마이 썼지.

#1 그럼. 왼손잡이 도로는 그러이 저저 뭐야 오모까지로 받잖아.

#2 예.

@ 그니까 왼쪽에 있는 노가~ 도로까지잖아요.

#2 어.

@ 그 왼쪽에 있는 놀. 그니까 도로까지에다가 놀쫓을 받는다는 거죠?

#1 어어.

#2 그래가지고 이 놀을 거다가 딱 이 놀구멍에다 놀구멍에다 박아가지고 인제 놀끈에다 매가지고 노를 짓는 거지.

@ 놀 끈에다 매가지고 매가지고 노를 짓는다.

#2 그래 이 놀이. 쉽게 하든 이게 어.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1 그래 이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2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어. 이 놀 이 우에는.

#1 이 우에가 조정하면은.

#2 이기 배 우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1 배 편편한 기. 이렇게 될 적에는 이 팽기는 기고 이렇게 되면은 또 미는 거고 그렇단 말이야.

#2 이 놀이 놀이 쉽게 말하믄은 이렇게 여 드가지고 여기서 우에서 사람이 놀을 짓게 되는 거야.

#1 그래 자꾸 이렇게 돼있는 걸 자꾸 이래가지고 자꾸 밀 거 같으면 배가 돌아가지.

@ 아~ 그러시구나.

#1 돌아가고. 앞으로 땡기믄 저~ **오모가지**로 들고.

@ 음~ 그러면 제가 우선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요 사진 보면서 어떤 건지 설명해주실 건데요. 제가 잠깐 여게 그거.

#2 요거. **묘시**.

#1 이 누 배 꺼 찍었노.

#2 이게 뭐 저.

#1 **신흥호**.

#2 **신흥호**가 아이라 뭐. 뭐고.

#1 뭐 **신흥호**구만.

#2 어?

#1 **신흥호**야.

#2 앞에 **신흥호**가 써져 있어?

#1 여 있지 않은가. **눈도 답답하네** 또 야. 하하.

#2 이게 **진흥호**든가?

#1 **신흥호**데 뭐.

#2 **신흥호**든가? 이거.

#1 아 **진흥호**두야.

#2 예. 맞 맞아. 지. **진흥호**일 꺼야. 그래가지고.

#1 이 한 쪽에 또 있네.

#2 예. 이 도모. 도모에 이렇게 해놨잖아.

#1 도모. 도모 다 써놨지. 이름 써놨지.

#2 이 배를. 이 배를 지금 저 어디 뭐 영구자료로 이 배가 목선이 다 없으니까.

#1 영구자료로 갖다가?

#2 이 배를 못 없애게 하는 모양이야. 이걸 갖다가 저 어디 거 전시회 할라고 하는지. 이 배를. 그래가 놀가지 거 배 우에 다 실려 있다고. 그래 일부러 노를 꺼내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었지. 이 바닥에 놓고. 야 내 이래 해주는 뭐 이 양반들이 뭐 아시겠나.

@ 아이구. 왜 모르겠어요. 저도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2 근데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밴다이는. 이 밴드름은. 근데 어데 갖다 그 했는지 물에 띄워 놔던 배인가봐. 이 밴두르까지.

#1 근데 도모 누가 받을까봐 그러지.

#2 예. 배 상황까봐.

#1 뭐라. 뭐이야. 묘사적인데.

#2 예. 묘신데.

#1 오모까진데.

#2 양쪽에 다 그 해놨더라고. 그래 여는 밴드름을 내가 일부러 배 우에 올려놓고.

#1 거 이거는 갈 적에는 올리고. 뭐한 대는. 작업할 적에는 다 그양 놔두고 하지. 뭐.

#2 우리 이때는 이 몇 명이나 탔었소?

#1 그때 이 뭐야 택택이나?

#2 택택인데.

#1 택택이는 뭐 삼 명 아이면 사 명. 택택이.

#2 거 아마 우리가 서넛 탔었을 거예요.

#1 택택이 가지고 뭐 시망바리 했나?

#2 이 택택이보담 좀 큰 배고.

#1 그럼.

#2 예.

#1 이 떡떡이야. 형재 배 아이나?

#2 야. 옛날 형준이?

#1 어.

#2 야~ 그 배 같음 내 충분히 했죠.

#1 그거는 시망바리 못해. 그거 안죽 뭐 **운두**가 낮아가지고 돼나.

#2 맞아. 이 **오대기도** 낮고.

#1 오대기가 낮어.

#2 품도 좁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 이거 가지곤 하도 못해요.

#1 아이 **가빠리** 거저 이거 하고 땡기는데.

#2 이거는 가빠리 뻔데.

#1 가빠리 뭐야. **망자빠리**.

#3 그 전에 왜 우리 클 적에도 시망바리 목선 가지고 했잖아.

#1 목선은~ 가지고 했지.

#2 예.

#3 목선 가지고.

#1 아 사천 배들. 뭐 영주. 우리 배들 다 목선 가지고 했지.

#3 낱밤 가다 해가지고. 배를 올리고. 둔대 가지고 올리고 내고.

#1 그거 가지곤 **도꾸** 도꾸 달. 달고 이래 나갔잖아.

#2 둔. **둔대질** 하고. 하하하. 야~

#1 그래 명태 저 **지계** 지고 가는 거 자네 안 먹었나.

#2 예. 아이구. 그때 거 저저 술찬히 거 가가지고 배. **시망배** 끌고 와가지고 저계 이

명태를 저다 뺏잖아. 왜.

#1 찹. 찹.

#2 찹순에다가.

#1 어. 찹순에다가.

#2 여 찹라가지고 아가미 끼워가지고 한 두릅씩. 그놈을 던져 쥐가지고 싹는 걸 야~ 거 선창에서 거거. 누 집 자리요. 거 올라가는데.

#1 요 기만이 집에 올라갔지. 뭐로.

#2 기만이 집에 올라갔우?

#1 그래 공장에.

#2 여 올라가는 데 거 올라가는 사이에.

#1 저 그 집 배. 지금 선생이네 그 앞에 돌. 돌. 돌 우에 앉았다가. 하하.

#2 흙채가지고 잡아 빼가지고 흙채가지고.

#1 그러이 배에서 던지가 떨어진 거는 가에 놓잖아.

#2 예. 낙태.

#1 바수가리. 바수가리.

#2 바수가리 옆에.

#1 옆에 놓거든. 옆에 놓고 **문어낙수** 요래 만들어가주고.

#2 아유.

#1 참.

@ 예.

#2 거. 거게. 문어 지금은 그하지만 옛날에 **문어낙수**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에다가 갈고리 세 번째 만든단 말이야. 야~ 그 그 양반들도 참. 몰르지. 무거운 데 짊어지고 가는데 알겠는가. 그 뭐 한 두 마리 빼가지고 가는 거.

#1 그때 한수가리 저 저저 한수가리는 마카 **바수가리** 옆에 놔줬다고. 그래 고거 살.

저저~ 뭐야 문어낙수 가지고선 여기. **결개이**를 만들어가지고 하하 얼어가 이래가.

#3 도로다 환하게 놔 놓고.

#1 그걸 두 마리씩 그걸 내오고 이래. 그거 가지고 옛 바뀔 옛 바뀔 먹니라고. 간빵 바뀔. 그기 안 됐다.

#2 아유 참~ 그때 먹는 기 우리들이 흔했소. 그 고기 갖다가.

#3 그건 장난이야. 그 전 옛날에는.

#1 그래. 장. 장난이야.

#2 그거 갖다 옛 바뀔 먹고. 강. 강냉이집. 우리 광밥집이지.

#1 그래 광밥 많이 바뀔 먹고.

#2 참. 많이 바뀔먹었네. 그거. 흠쳐가지고.

@ 아 옛날에 명태를 흠쳐가지고 옛도 바뀔 드시고. 하하하. 아니 그때는 옛이 더 귀할 수도 있죠. 명태가 워낙 많이 나면.

#1 그때는 우리 작을 때고. 쪼그만 한 그 때.

@ 몇 살 때요? 어르신?

#1 그때 뭐 한 열댓 열다섯 살씩이지.

#2 내가. 그 당시 내가 여서. 일곱 살 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말이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뭐 내가 그때서부터 내가 노 젓는 배도 우리 아버지 대. 그 전부 다.

#1 그럼.

#2 **풍선뚝** 달고. 시망바리.

#1 그때는 그 저 목선 가지고 이 **풍** 달고 인제 침부터 잡았어.

@ 예예. 그렇죠. 옛날에는.

#2 엔진이 없었어.

@ 그렇죠. 침엔 다 목선이고. 요. 요걸 목선이라 그러기도 떼배. 떼배라고도 하나요?

#1 떼배는 아니지. 떼배는 여거서 떼배라 안 그러고.

#2 떼배는 아니지. 그때는.

#1 떼배는 저저 서해 쪽에서 저 뭐야 나무나 이런 거 묶어가지고 이래 땡기는 그걸 떼배라 그러지.

@ 어~ 여기는 그냥 목선이라 그러시고.

#2 목선.

#1 어. 목선이라.

@ 어~ 떼배는 아니고. 예예.

#2 지금 이 저.

#1 목선에 거 풍 아주. 돛대가 여 저 뭐야.

#2 전나무요?

#1 전나무지. 뭐.

#2 전나무죠. 전춧대식으로 이래 이래 굽은 거 세워가지고.

#1 그게 앞에다 땡기고 뒤에서는 밀 가지고 또 세우고.

#2 풍이 그 풍이 그 몇 풍이었소? 거기. 야. 광목풍이죠?

#1 풍이 광목풍이지.

#2 참~ 거기 장사들이 장사들.

@ 그 왜 도풍이라 안 그러시고 풍?

#1 도풍이요.

@ 도풍. 또는 풍이죠? 예. 그러면은 광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1 광목으로. 광목으로.

#2 그럼. 풍.

#1 흙으로 해서. 흙에 가가지고.

#2 갈매. 갈매 먹있소?

#1 물감 들있잖아.

#2 어 물감 들인 기.

#1 염색해가지고.

@ 아~ 까만색이요?

#1 빨간색.

#2 빨간색으로.

@ 빨간색으로? 허~ 빨간색.

#1 빨수. **빨수록** 색이지.

@ 예예예. 아~ 고 일부러 빨간색으로.

#2 물들여가지고. 햇빛에.

@ 요 흙색. 흙으로요?

#1 어~ 흙에다가 거 광목으로 갖다가 집어 넣노믄.

#2 색이 변하면. 어. 저저.

#1 진흙에다 물 묻으면 거기 떨어지잖아. 그래 난리도 안 상하잖아.

#2 어. 오래 그하라고. 상하지 않게끔

#1 그래 염색하는 거지.

@ 옛날에는 왜 돛이 뭐 몇 개 달렸느냐 따라서 배 이름도 달라졌잖아요.

#1 그렇지.

@ 그니까 돛 하나 달리면.

#1 거 뚫 뚫 하나다지.

@ 예?

#1 하나. 뚫 두 개지.

#2 뚫 두 개지.

#1 앞에 작은뚫.

#2 큰뚫 하고 양호뚫하고.

@ 큰뚫 하고 야마뚫이요?

#2 양호. 양호뚫이.

#1 양호. 양호뚫이라.

@ 양호뚫. 아 그니깐.

#2 조그만 거.

#1 작은 뚫.

@ 아~ 그니깐 큰뚫은 큰 거 하나 다는 거.

#1 앞. 가운데 있고.

@ 예예. 가운데 있는 거고.

#1 가운데 있는 거고.

@ 예. 그 답에.

#1 작은뚫대는.

#2 앞에.

#1 거 앞에 거저 뭐야. 통. 그 뭐야.

#2 이쪽에.

#1 앞에 통돌이. 여 어데 뭐야. 아까 연데.

#2 여기. 여기. 이 쪽에.

#1 여게 여게야. 통돌이 달았는 앞에 여기 여기 건내가는 굽은 나무가 건내가거든.

@ 예예예.

#1 그기 통돌이 여기 여기 의지해가지고 작은돛대 달아.

@ 혹시 가라 있는 그 쪽 편에 다는 건가요?

#1 가라가 아니고.

#2 그거는 큰 거지.

#1 그건 가운데.

#2 어 가운데.

#1 딱 배에 가운데 한다고.

@ 아 그러면은 통돌이 있는 앞에 돛 하나 달고.

#2 양호돛.

@ 뒤쪽. 뒤쪽에.

#1 뒤에는 큰모에.

@ 큰모에 달고요.

#1 큰모에는 아주 나무 굽은 기. 짝 배. 배 저.

#2 중심을 잡거든.

#1 중심에서 인제 건너가거든.

@ 어~ 그러면은 우선은 옛날에 이제 돛은 하나 달린 거는 큰 돛. 고 담 두 개 달린 거는 양호돛.

#1 그땐 어 그때는 두 개 다 거진 다 큰 배는.

#2 거의 다 두 개 달았지.

#1 명태바리 하는 사람은 마카 작은. 작은풍이 있고 큰풍이 있다고.

#2 두 개 다 있지.

@ 아 작은풍. 큰풍.

#1 두 개씩 달지.

@ 아. 작은풍이 있고 큰풍이요?

#2 응.

@ 그러면 양호돛이었네요?

#1 어 양호돛. 양호돛대. 양호돛대라 이리지.

@ 예. 그니깐 주로 명태가.

#1 그러이 바람 불고 이럴 적엔 앞에서는 사람이 하나 나가가지고 큰돛대를 내려오고 바람 불 적에는 이~ 작은돛대만 달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 바람 심하면.

@ 예예. 아 그러면은. 아~ 바람이 심하믄 그렇게 하겠네요. 큰돛보다는 작은.

#1 그렇지. 큰도꾸는 내려오고.

@ 예예. 큰도꾸. 이게 큰풍을 보고 큰도꾸라고도 얘기하시고.

#1 어. 큰도꾸라.

@ 예예. 그니깐 요렇게도 작은도꾸 큰도꾸. 예. 그 담에 어른 그러면은 큰도꾸 고 담에 작은도꾸 있는 양호돛. 고 담 큰돛.

#1 그래 양호돛 이기 작은돛기.

@ 그면 돛은 그면 뭐 삼. 세 개 달고 네 개 달고 이런 건 없었겠네요.

#1 그런 거 없고.

@ 명태바리 할 땐요. 무조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담에 왜 우리가 보면은 아까~ 그 놀까지라는 게 있던데. 놀까지는 뭐예요? 놀까지?

#2 놀?

@ 아까 아까 놀까지 그러시던데?

#1 그러이 놀. 이기 놀이지.

#2 어.

#1 아께 노 젓는 거 놀.

@ 아~ 예예. 놀을 놀까지라 그래요?

#1 아. **놀까지** 아이고 놀이라 그러지.

@ 놀까. 아까 어른 얘기하시는 데 놀까지 놀까지 이카길래.

#1 아. 오목까지 도로까지. 그거는 배 인제 그건 우 쪽이 배 앞에서 이래 봐서는 저 좌측편이. 좌측 쪽이 인제 오모까지고. 오모까지고.

@ 좌쪽이 오모까지.

#1 배 앞에서 이래 보든 그래 왼쪽이 도로까지고 그래.

@ 그니깐 오른편이 오모까지 왼편이 도로까지 요런 거죠?

#1 어.

@ 그니깐 배를 폼 그리면서.

#2 여게 지금 이기 내가 배를 그려놨는데. 자~ 잘 봐요. 응. 이 공부해가지고 봐야 돼. 이기 뭔가 하면은 이게 배 앞쪽이야. 이 앞. 묘시 쪽인데. 요건 지금 **후미**란 말이요.

@ 그래 고거를 요거는 묘시 요렇게 좀 적어놔야지.

#2 어 묘시.

@ 요건 후미. 좀 적어.

#2 근데 요게 지금 저 노인네 얘기했듯이 요기가 저 작은돛대란 말이야. 요게.

@ 요게 작은 돛대.

#2 크기를 좀 작게 만들었는데.

#1 맞아.

#2 작은돛대가 이기. 작은돛대가 있고. 그 담에 큰돛대 있으면 여기 **용총줄** 있어. 용총줄이.

#1 그래 사공이 그거가지고 조절하거든.

#2 이 바람의 방향을.

@ 요게 용천줄.

#2 어. 용천대고 그건 **용천대고**.

@ 용천대.

#2 줄이 줄이 이기 용총줄이야.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도모에 사공이.

#1 아니 용총줄이 아니고 이기 돛대고. 요게 용총줄은 요요요 우에 있지.

#2 그런가?

#1 그럼.

@ 아 요게 용천줄이요?

#2 그 옆에서 줄 조정하는 거 이 옆에 있었지.

#1 이거는 두 개 뭐야 저 뭐야 이기.

#2 어.

#1 이거는 뭐야 이게 문 줄이나. 아. **아도**라 그랬잖아. 아도.

#2 **아돏줄**. 참. 아 맞다 인제 아돏줄. 아돏줄은 인제 아돏줄 가지고 인제 사공이.

#1 사공이 선장을 한단 말이야.

#2 바람에. 바람에 조절을 해가지고 하면서 여게 이 키가 이 나무로 된 키야. 이기.

@ 요게 키.

#2 어. 딸.

#1 나무라고.

@ 요거는 바다에 요렇게.

#2 물 속에 들어가 있고.

#1 물 속에 들어가지.

#2 물 속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인제 **창손** 잡아가지고.

@ 요게 창손.

#2 창손 여게.

@ 예예. 창손도 배 조절하는 거고.

#1 그렇지.

#2 여 꼽아가지고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이 전부 다 나무로 연결돼 있는 거야.

@ 그면 요게 창손 여 끝까지 있는 거예요?

#2 아 그거는 이거는 지금 놀이야.

@ 이게 놀이고.

#2 만약 바람이 안 불었었다. 바다에서 바람이 하나도 안 분다 얘기야. 그럼 전부 다 내린단 얘기야.

@ 내리고 놀 저어요.

#2 어.

#1 내리고 내리고 양쪽 옆으로 이쪽으로 또 이.

#2 여 지금 내 하는 기.

@ 요것도 놀이죠?

#2 이기 노. 이것도 놀이고. 이기 너무 앞에 왔는데 이렇게 놀을 양쪽에 있습니다.

#1 이쪽에 여 **큰모에** 여게 놀이 있고. 여게 있고 이렇단 말이야. 양쪽에 있다고.

#2 양쪽에 있어. 그리고 나서 여서 인제 뒤에서 인제 이 높은 하나의 키 조절 해가면서 노를 짓는 기지.

@ 어 예예예.

#2 지금 이. 이. 이런 놀이.

#1 이 사람들은 가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막 이래 저으면 되는데. 뒤에 거 바로 가는 가는 거는 이 선장이 사공이.

#2 키. 키 역할을 하는 거야.

#1 사공이 인제 조정한다고.

@ 창손은 사공이.

#1 어어.

#2 아 창손이 아이라.

@ 아니 아똥줄도 사공이 조절한다면서요.

#2 그럼.

@ 창.

#1 놀도 사공이 하지.

두 번째 뱃사람 이야기

@ 아~ 이것도 사공이.

#2 놀도 사공이야.

@ 어~ 그러면 어르신 배에 사공 타야 되고 또 누구 타야 돼요? 옛날에.

#2 사공들 있지.

@ 사공 그 담에.

#1 사공. **막내이** 영, 영자.

@ 막내이 그 담에.

#1 영자. 영자 먼저 치고.

@ 영자 예.

#1 **영자**. 젤 나이 먹은 먹은 사람이 영자거든. 그 담 막내이 있고 그 담 중간 중간사람들은 그래 이름 부르고 그러지.

@ 중간사람들은 그냥 이름 불러요? 그냥 누구누구 머시기. 이렇게요?

#1 어어.

@ 그 담에 또 다른 사람은요? 사공. 막. 영자. 막내이 그 담 중간사람 또.

#2 중간에 그런 사람밖에 없지.

#1 중간에 그런 그런밖에 없어.

@ 밥 하는 사람은요?

#1 밥하는 사람은 뭐.

#2 화장이 뭐.

#1 화자래기지. 화장.

#2 **화장** 그니깐 막내이가 한 번씩 해.

#1 막내이가 화장 시키지.

@ 어. 막내이를 보통 화장을 시키는 구나. 중간사람은 보통 어떤 거 하는데요?

#1 어?

@ 중간사람들은요?

#1 중간사람들은 거서 인제.

#2 그물 일.

#2 이 뭐야. 그물 땡기고 이러믄 그물 옛날엔 망깨가 앞에 걸래 가지고 여여여 노꾸라 식으로 망깨가 있거든. **망깨**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양쪽으로 뭐 저 그거 해가지고 인제 푸다구리가. 망깨 사람이 몇 개나.

#2 여섯 개요?

#1 여섯 개 아이믄 여덟 개 맨들고 이래. 그래 망깨 있으믄 망깨를 하루 들고 사람 이래 들고 사람 이렇게 힘들믄 망깨도 같이 돌려주면은 좀 쉽게 올라온단 말이야.

1.2. 미세기 이야기

첫째, 조류 이야기

@ 무슨. 물도 무슨 물이 있나요?

#1 물이 **썰물** 갈 때 있고. **만물**이 갈 때 있고. 또 **마발물**이 갈 때 있고. **해발물**이 갈 때 있고 그래.

@ 그면은 물이 썰물.

#1 물. 물도 **조류**가 있다고.

@ 물 썰물 밀물. 그 답에 만물.

#1 응.

@ 그 담에 아까 해밭물요?

#1 해밭물.

@ 해밭물 또 그 담에?

#1 마밭물.

@ 마밭물. 예. 요렇게 있고.

#1 또 새안들물.

@ 새안들물. 그 담에?

#1 마안들물.

@ 마안들물. 마안들물?

#1 응. 마안으로. **마안들물**이란 것은 맞쪽에서. 맞쪽으로 인제 이 동서남북이 있거든. 남쪽으로 보고~ 저 뭐야. 맞쪽이라 기려고.

@ 그니깐 요렇게 동서남북이 있으면~ 어. 이중에서 남쪽을 마.

#1 응. 맞쪽.

@ 마쪽. 예. 그 담에.

#1 동쪽.

@ 예 동쪽은? 동쪽은 그냥 동쪽 그래요?

#1 동쪽이라 그러지.

@ 그 담 북쪽은요?

#1 북쪽은 북쪽이고.

@ 서쪽은요?

#1 서쪽도 **서쪽**도 그러이 서쪽도 서쪽으로 부르는데 물 가는 이름은 틀래.

@ 아~ 그래요.

#1 그 그 말이지.

@ 그러면 우선은.

#1 물이 물이 일로 가면은 서쪽으로 가면은 서쪽으로 가든 이기 **들물**이라 그러고. 고저.

@ 예예. 들물. 그 담에.

#1 고 담에 이~ 저 북쪽으로 가면은.

@ 북쪽으로 가면.

#1 저 썰물이라 기리고.

@ 썰물 예. 그 담에 또?

#1 남쪽으로 가면 **만물**이라 기리고.

@ 이쪽으로 가면 만물. 예. 그 담에 또. 동쪽.

#1 그 담에 저.

@ 동쪽.

#1 동쪽으로 가든.

@ 예. 남쪽 만물.

#1 동쪽으로 가면 이걸 **날물**.

@ 동쪽은 날물. 그 담에 그러면은 썰물. 그 담에 썰물은 북쪽. 그 담에 민.

#1 만물.

@ 만물은 그 담에 남쪽.

#1 남쪽. 어.

@ 그 답에 들물은 서쪽.

#1 어 들물은 서쪽.

@ 동쪽은 날물. 그 답에는 그 어르신 밀물은요. 밀물.

#1 밀물이라니.

@ 밀물. 밀물. 썰물 밀물.

#1 아. 그래 설물은은 인제 북쪽으로 가는 거 보고 **설물**이라 하고.

@ 예예. 밀물은?

#1 또 남. 민물?

@ 밀물. 밀물. 민물. 밀물.

#1 아인데. 민물은 없는데.

@ 밀물은 없어요?

#1 응.

@ 밀물도 없어요? 밀물? 아까 썰물 밀물 이랬는데.

#1 밀물은 없고.

@ 없어요. 그 답에 그러면은 해발물은요?

#1 해발물은 그 저 해 쪽하고.

@ 서쪽하고.

#1 그 저저. 아이 북쪽하고. 북쪽하고 동쪽하고 새로 나가는 거.

@ 북쪽과 동쪽 사이로 나가는 게. 해발물. 그 답에 마발물은요?

#1 마발물은 남쪽하고 저 동쪽하고 새로 나가는 거.

@ 남동쪽 사이. 그 담에 새안들물은요?

#1 새안들물이 인제 그러니까네 저~ 해안들물이 뭐야 거기니까네. 서쪽하고 북쪽하고.

@ 서쪽하고 북쪽 사이.

#1 어어. 사이.

@ 새안들물은 서쪽하고 북쪽 사이. 그 담 마안들물은요?

#1 그래 마안들물은 남쪽하고 서쪽하고 사이.

@ 남하고 서쪽 사이. 예. 그렇게 가고. 그 담에 그러면은 이 물이 다 방향이 다 있네요.

#1 이다 있지.

@ 들물. 썰물. 만물. 날물. 그 담에 새안들물. 해발물. 마안들물. 마발물 뭐 다 있네요.

#1 어어.

@ 예. 그러면은 요렇게 동서남북 다 있고.

#1 동서남북 새로 가는 기 인제 새발물이니 마안들물이니 해안들물이니.

@ 그러면은. 예예. 우리 어르신 그런 건 없어요? 한 물 두 물 세 물 이런 건 없어요?

#1 물. 물 조류가?

@ 물 조류를요?

#1 그건 없어.

@ 그건 없어요.

#1 어어.

@ 그 담에 우리가 한 물 두 물 열 물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1 어. 그건 없지.

@ 그 담에 썰물은 있는데 밀물은 없고.

#1 민물은 여 보통 뭐야 그 사람들이 우리 좋을 적엔 저 민물이라 할 것 같으면 잔잔할 적에 **민물**이라 그러지.

@ 아 이거는 약간 잔잔한 물. 밀물. 민물이에요? 밀물이에요?

#1 민물이라 이리지.

@ 민물. 민물을 잔잔한 물. 예. 그러면은 안 잔잔하고 막 물이 출렁출렁 거리는 거 뭐라 그래요?

#1 그건 뭐 물결이 있다고.

@ 그냥 물결이 있다.

#1 응. 파도가 **썬다**.

@ 물결이 있다. 파도가?

#1 썬다.

@ 씨. 파도가 썬.

#1 씨다.

@ 씨다. 어. 그러면 이거는 좀 이제 출렁출렁 거리는 거. 요렇게 하고. 근데 어르신 우리가 바람 같은 거 있잖아요. 바람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얘기하지 않아요? 바람도 보면?

#1 바람도 그거 하지.

둘째, 바람 이야기

@ 바람도 동서남북이 있으면. 그면 북쪽은 뭐라 그러고 남쪽은 뭐라 그러고 서쪽은 뭐라 그러고 있잖아요.

#1 북쪽은 **북풍**이라 그러고.

@ 북풍.

#1 응.

@ 그 답에~ 예. 남쪽은?

#1 남쪽은 **동남풍**이라 그러지.

@ 동남풍. 예. 그 답에 동쪽은요?

#1 동쪽은 동쪽은 대개 동쪽에서 오는 기 그거 뭐야 저저 북쪽에서 오는 거는 어데 뭐야. **셋바람**.

@ 북쪽? 동쪽이요?

#1 아이 북쪽에서 오는 거.

@ 북쪽에서 오는 거 아까 북풍 이랬는데.

#1 아 북풍이라 기래도 그건 여거선 부리긴 셋바람이라 그러지.

@ 셋바람. 셋바람. 여기서 부르는 거 하시면 돼요. 셋바람. 그면 동. 남쪽도.

#1 남쪽은 하는 기 **마파람**.

@ 마파람. 그 답에 동쪽은요?

#1 동쪽은 저저 동쪽은 그냥 **동풍**이라 그러지.

@ 뭐 갈바람 이런 말은 안 쓰세요?

#1 갈바람 저 저 뭐야. 바람이 서북간에서 오는 기.

@ 아~ 갈바람은 서쪽하고 북쪽 사이.

#1 그이 **갈바람**을 보통 남쪽에서. 남쪽에서. 여기서 오는 기. 남쪽에서 오는 거 보고 갈바람이라 마이 기래.

@ 남쪽에서 오는 것도 갈바람. 그럼 서쪽에서 오는 거는요?

#1 서쪽은 뭐이 **내분**다고.

@ 아~ 내분다 이래요? 어.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보면은 뭐 이런 날은 우리 작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날 작업해야 된다 이런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르신.

#1 그 고거는 **벳사람**들은 그 해가 하루 천기를 본다고.

@ 하루 천기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1 어어. 하루 천기를 보기 때문에 날이 하마 **새바다**. 언덕이 새바다를 많이 보거든. 새바다에서 날이 굻. 굻힐라 그러면 새바다에서 구름이 치밀고 이러믄 작. 작업을 좀 늦게 간다고. 날. 날 봐가면서 해.

@ 새바다가 어른 뭔데요?

#1 새바다가 이. 북 북쪽바다. **북바다**.

@ 어~ 북쪽바다.

#1 북바람. 저저 **셋바람**. 셋바람 불었다 하믄 그건 또 씨게 불거든.

@ 그니깐 언덕에서 북쪽에 이제 바람 부는지 안 부는지 이걸 많이 본다는 거죠?

#1 어어. 그거를 마이 보지.

@ 어~ 그러면 그 전날 보는 거예요? 어르신?

#1 아니 그거는 식전에 와서 식전에 많이 봐.

@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오늘 딱 보고. 셋바람 보통 불면 어떤 일 많이 생기는데요?

#1 셋바람 마이 불믄 뭐 파도가 심하게 일기 때문에 셋바람 많이 불믄 파도는 마이 일거든. 셋바람이 씨게 불믄.

@ 파도 많이 치고 사고도 많이 나고.

#1 사고도 나고. 그래서 많이 **셋바람** 불면은 **대개 안 나갈라** 그러지.

@ 어~ 안 나가고. 그면은 따른 날은요? 이날 작업하기 정말 좋다. 고기 많이 잡힌다 이런 날은요?

#1 그래 바람이 솔솔 내 불구 이.

@ 바람이 솔솔 내분다고요?

#1 내 불거나 이제 **날이 반하거나** 이래야 나가지.

@ 솔솔 내 분다라는 거는 아까 인제 우리가 그.

#1 저기 저 뭐야. 산에서 나오는 바람.

@ 그니깐 서쪽에서.

#1 서쪽에서 나오는 바람.

@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거예요?

#1 그렇지.

@ 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부는 바람.

#1 주로 가을개는 **내바람**이 그래 좀 살살 불지.

@ 어. 그러면은 내바람이 불 때가.

#1 내바람이 또 불었다 하믄 또 개왕이. 아주 많. 많이 불 때가 있어. 그것도 **구름빨** 보고.

@ 예예.

#1 구름빨 보고 나가지.

@ 아 내바람이 불어도.

#1 어. 내바람이 불었다 하믄 또 씨게 불 때 있잖아.

@ 아~ 그러면은 내바람 부는 게 좋은데 이제 내바람이 너~무 세면.

#1 그렇지.

@ 그때는 구름을 본다구요?

#1 어.

@ 구름 어떤 구름 보는데?

#1 하마 구름 저저 하늘 밑에서 구름이 뭐야. 도. 도주에 있고 하늘이 저 짝 산 쪽으로 보든 새파라든 그기 바람 불 정도야.

@ 어 하늘에 구름이 새파랳다.

#1 그렇지. 아이 구름은 떠. 떠 있고 인자 중간 저 짝 하늘은 비아 놓고 새파랳게 있을 거 같으면 그기 바람 불 증도라고.

@ 바다가 새파랳다구요?

#1 아니. 하늘이.

@ 하늘이.

#1 어. 하늘이 구름이 중간에 이래 마카 이래 쪽~ 깔리고 쪽~ 막아서고. 산 밑에 이제 들릴 같으면은.

@ 그면 구름이 여기 있고 하늘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요쪽이 이런 데가 새파랳다는 거죠. 이런 데가. 구름은 중간이고.

#1 아니 구름이 중간에 줄로 서듯이 이렇게 이렇게 공중으로 떠가지고 있을 때 있다고.

@ 아. 이렇게 이렇게.

#1 떠 있고. 산. 산에 그저 뭐야 산에 아니고 하늘에 이래 떠가지고 있고 산 가까이는 이 뭐야 그기 하늘이 새파래면은 바람이 마이 분다 이기지.

@ 어~ 산 가까이가 이제 하늘이 새파라면.

#1 응.

@ 새파라면 이제 바람이 많이 불면. 바람이 많고 어. 이제 구름은 이제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고.

#1 그렇지. 구름이 다 인제 맥히고. 하늘이. **하늘이 들렸다** 하면은 바람이 심하게 분다고.

@ 아. 하늘이 들렸다 카면. 하늘이 인제 들렸다는 것은. 하늘이 이렇게 위로 떴다라는 거.

#1 아니 구름이 우에 있고.

#3 높으게 뜬다는 거지.

#1 구름이 인제 우에 쪽~ 깔리고 하늘이 생간에 파랗게 비잖아. 고런 상태면 바람이 씨게 분단 말이지.

@ 구름이 위로 높게 뜨고. 그 담에.

#1 그리고 저저저. **토쿠**가 낀 날에. 하늘에 뒤 산으로 토쿠가 끼면 바람이 많이 불고.

@ 산 뒤로 토쿠가 끼면. 토꾸.

#1 토. 토쿠가 뭐이냐 하면은 황사. 황사는 **토구**로 보. 보거든. 지금.

2. 덕장⁷⁾

2.1. 덕걸이 하는 사람 이야기

첫 번째 행위자 이야기

@ 예예. 우선은 그리고 계속 얘기 같이 하시죠. 우리 이거 작업할 때 보통 필요한 인원 있을 거 아니에요.

#3 있죠.

@ 예. 그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가까이. 각각 역할은. 역할은 어떤 거. 같이. 같이 오셔서.

7) 제보자는 #1은 이상욱, #2은 강현수, #3은 안사선, #4 김진광, #5 마을회관에 오신 아주머니를 말한다.

#3 고계 집집마다 칸 수로 봐서 달려. 달려지거든요. 아주 적은 집은 좀 적게 들어가고 많은 집은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 육 명 이상 십이 명 정도.

@ 육 명 이상.

#3 십이 명 정도 들어가죠.

@ 육 명에서 십이 명 정도. 예. 주로 인제 뭐 예를 들면 부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 사람은 덕주라고 하면 덕주는 어떤 일을 하고 이 사람 뭐 어떤 걸 한다 이런 정도.

#3 여기는.

#1 덕. **덕주**라는 것은 명태 임자가 덕주고. 인자 그게 인제 옛날에는 한 저~ 한 덕에 한 십여 명씩 이래 걸었어요. 화주가. 덕 덕 하나 가지면 인제 물건 가진 사람 그래 걸었는데 요즘에는 이 덕을 예를 들어서 한 이천평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딱 걸어요. 한. 한 사람이.

@ 예. 그래도 저희는 옛날 거를 우선은 또 우선시 하죠. 예전 방법.

#1 옛 옛날엔. 예전 방법은 그 **덕**을 여기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저 명태가 그 그 당시는 화주가 인제 명태가 임자가 **화주**거든요? 화주가 한 덕에 한~.

@ 화주 덕주 똑같은 말입니까?

#1 아니 화주는 명태 임자가 화주고. 덕주는 덕 덕을 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덕주고.

@ 덕 예예.

#1 그래갖고 임자. 그 화주를 포섭해가지고 자기 명태를 걸. 걸어서 나중에 말려서 그 화주한테 인수할 때까지는 여 저 이 덕주가 다 책임을 져요.

@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덕주도 있고 화주도 있고 또 그 담에 밑에 이제 우리가 사실.

#3 **관리사**도 있죠.

@ 관리사. 관리사를 보통 뭐라고 부르시는데요?

#3 관리자는 인제 총 임부를 관리해주는 사람.

@ 옛날 옛날 때.

#3 옛날식으로.

@ 옛날 때.

#3 지금도 **관리자** 있어요. 지금도.

@ 관리자 그렇게 불러요? 그거 말고 다른.

#2 옛날에 **덕보는사람**.

@ 덕보는사람. 예예. 그런 식으로 예예.

#2 덕보는사람.

@ 덕보는사람. 예. 이게 관리자라. 그런 식으로. 옛날 관리자?

#2 근데 고계 또 한 내 또 보충시켜 줄게. 옛날에는 아까 말씀하셨지. **낚시대**라고 했잖아. 그때는 이 명태를 이게 그 안에 **내장**을 다 꺼내고 그 이렇게 저기 **짚**으로 엮어가지고 그거를 인제 한 **두름**씩 묶어가지고. 한 두름이가.

@ 스무마리.

#2 예. 스무마린데. 그걸 인제 **넛물**에 담궜다가. 넛물에 담궜다가 건져서 밑에 저 밑에까지 **리아카**로 운반하는데 그 끈을 끊는 사람이. 그 끈을 스무 **두름**이를 끊어야 걸잖아. 그걸 **날랄하게** 이래 걸잖아. 그 그걸 끊는 사람이 **낚잡**이야.

@ 낚잡이요? 낚잡이.

#2 어.

@ 낚을 잡아서.

#2 낚을 잡아서 그걸 끊으니까. 거 낚잡이도 있고 그 밑에 낚잡이가 끊어놓은 고기서 **코잡**이가 있어.

@ 예예. 코잡이.

#2 코잡이. 고 담에.

@ 코잡이는 코를 꿰는 거.

#1 아니 풀러 놓으면 손으로 몇 마리씩 이래서 해서 덕에다 올려 줘야 되거든.

#2 요렇게 모아. 모아가지고 거기 이제 **중덕**이 있고. 중덕.

@ 예예.

#2 중덕은 저 밑에 깔이고. 아 그때 삼층을 했지.

#1 그럼. **하층 중층 상층** 이랬지.

#2 하층에 올리 주면은 하층이 중덕으로 또 올리줘. 그러면은 그 **상덕**에서 그럼 고기를 걸어.

@ 아~ 잠시만요. 그러면.

#2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잘 잘 이게.

@ 아 예예. 그러니까 그게 복잡한데 제가 알아야 되니까.

#2 낫잡이가 낫을 끌어 주면은 코잡이가 코를 잡아서.

#3 **물오리가** 건져다주면 이렇게 해야지.

#2 가 가만 있어봐.

@ 어. 가지지 말고 오세요.

#2 올리 주면은 사람이 받아가지고 상덕으로 올려준다고.

#4 순서별로 물에서 하는 거부터 순서별로 해야 되는데.

@ 예예. 순서대로 그렇긴 하죠.

#2 상덕에 올려주면 상덕이 젤 높은데. **거는사람이.**

@ 그러면.

#2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받아 가지고 고기를 다 거는 거여.

@ 그러면 코잡이는 우선 코를 잡아서 거는 사람요?

#2 아니 코를 잡아서.

#1 코를 잡아서 땅에다 너븐.

#2 **거는사람**인데 준다고.

@ 잡아서. 거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1 상. 상덕.

#2 그기 **하덕**. 그기.

@ 거는사람을 상덕이라 그래요?

#2 어. 상덕. 고기.

#1 거는사람. 상덕. **상덕꾼**.

#2 벽에 거니까 상덕이 맞아.

@ 코잡이는 그 코라는 건 뭐예요?

#1 **코**라는 건 두 마리씩 꿰서 인제 이기 한 코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간 몇 코 이래 이래씩 인제 딱 걸기 좋게 이래 놔요. 그러면 그기 왜냐하면 스무 마리 한꺼번에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 마리 마리 열코 잡아서 놓고 올리기 좋게 해주믄.

@ 아~ 그러니까 낫잡이는 지풀 같은 거 끊는 사람. 코잡이는 우리가 두 마리씩 이렇게 묶어놓은 거를 그거를 해가지고 상덕에게 건네주는 사람. 상덕은 거는 사람.

#1 예.

#2 그걸 받아가지고 거는. **거는사람**.

@ 그 답에 걸때도 보면은 상덕은 젤 높은 곳. 중덕은 젤 밑에.

#1 아니. **중층 중층**.

#2 중간은 중간.

@ 중층. 하덕이 있나요?

#2 하덕은 저 밑에 하층.

#1 밑에.

@ 예예. 그 답에 하층 중층 상층 또 있고요?

#2 상층.

#1 옛날엔 그 삼층을 그렇게 걸었어요.

@ 예. 근데 그러면은 상층이란 게 켈 높은 곳에 거는 게 있고.

#1 아니.

@ 그 답에 거는 사람을 가르키기도 하고.

#1 예. 중층이나 하층이나 걸는 거는 다 상덕꾼이라 그러죠. 상덕.

@ 그러면 다시 우리 그거부터 합시다. 명태를 물에 개울에서 씻어서 요렇게 하는 거부터.

#2 고 고 얘기 개울 얘기 또 해야지. 그 개울에는 고기를 이제 주문진서 싣고 오잖아.

@ 어르신 요쪽에 가까이 오셔서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2 다 들리는데.

@ 그래도 제가 요쪽에.

#2 고기를 고기를 주문진에서 싣고 오면은.

#4 순서별로 얘기해야지.

#2 요기 인제 덕장에서 덕을 매놓고 맹물에 이 고기를 가두는 그 아바때라 그러나?

#1 아바때.

#2 어.

@ 아바때요?

#2 어.

@ 고기 가두는 거?

#2 어.

@ 씻고 나서?

#1 아니.

#2 고기를.

#1 고기를 떠내려가지 못하게 해서. 이 손가락 같은.

@ 아 씻기도 전에.

#1 이렇게 개울을 막아주거든. 아바. **아바를.**

@ 아. 개울 막는 거.

#2 어. 개울을 이제 막아 놓으면.

#1 그 수로가 인자.

#2 나무로. 나무로 이래 했기 때문에 물은 다 빠진단 말이야. 그래 인제 고기를 그 구덩이에다가 아바때 설치한 데다가 고기를 하룻밤 담궈. 담구어서 그 거계서 이제 건지는 사람이 **고기를건지는사람이 물오리야.**

@ 물오리요?

#2 어. 물오리라 그래. **건지는사람을.**

@ 건지는 사람을.

#1 고걸 고것은 그.

#2 물오리라 그래고. 그 다음에 거계 **신고가는사람이** 뭐라 그래?

#1 응? 옛날이 옛날에는 처음에는 저 초창기에는 **물지게다** 지고 갔지.

#2 물지게로 지고 갔지.

#1 초창기는. 육십. 육십년대.

#2 초창기는 물지게 지는 지게 같은 거. 이 몇 개씩 걸어가지고 이거 지고 가서 걸고 이랬다고. 거기다가 나중에 리아카가 나오면서.

#1 좀 발달되니까 리아카.

#2 리아카로 실아가고. 그래서 이제 낫잡이 있는 데까지 고기 걸 때까지 거는 데까지 그걸 리아카가 실어다 주면은 거 낫잡이가 다 끊어가지고 상덕하고 이러지.

@ 예예. 그러면은 우리가 우선은 아바때에다가 이제 아바때를 쳐서 개울에 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담에 물오리가 개울에서 고기를 건지고. 그러면은 고기 건지면서 씻는 작업까지 다 하는 거죠?

#2 그렇지.

@ 그 답에는 이제 물지게로 리아카나 이런 걸로 실어서 갖다 주는 사람.

#1 운반책이지. 없어.

2.2. 덕걸이 행위 이야기

@ 여자는 어떤 거 주로 하나요?

#1 지금 명태 담을 적에.

#2 아니 낙태라는 것도 가르쳐줘야 돼.

@ 그러니까요.

#2 낙태, 낙태를 가르쳐줘야 돼.

#1 명태를 명태를 인제 나무다 걸으면 이 그 전에 이렇게 떼떼 걸으면 명태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짚으로 하니까 짚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 여자. 아주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다시 짚으로 또 꿰요. 밑에서. 그게 인제 낙태.

@ 짚을 꿰서 금 다시 올리는 거예요?

#1 예예.

#2 그러니까 고기를 걸다가 고기가 이제 그물 걸어서 떨어지잖아. 땅에 떨어지잖아. 그걸 낙태라 그래. 낙태데 아줌마들이 그 낙태를 좇아서 끈을 꿰가지고 다시 걸게 해.

@ 걸게 하는 거는 뭐라 그래요? 다시 거는 거.

#2 아까.

#1 아니 상덕이라 그래.

@ 그냥 상덕이라 그래요?

#2 여 이. 여기 인제 어디 갔노. 사진이.

#1 뭐가.

#2 아니 고기를 걸다가 떨어지잖아. 코가. 그니까 이 어디 갔어. 내가 그린 그림이 어디 갔노. 요거 요거.

@ 예예. 요게 떨어지면.

#2 여 끈이 떨어지면은 땅이 인제 고기 두 마리가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걸 낙태라 그러는 거.

@ 떨어지는 거 낙태. 아주머니들이 다시 짚을 꿰서 다시 올리는 거 상덕.

#2 아니 고 낙태를 좇아가지고 끈을 끼워서 걸게 해주는 걸. 상덕 하게 해주는 걸 이제 아줌마들이.

#1 아줌마들이 **낙태 정리한다** 그러지.

@ 낙태 정리하게 한다구요?

#1 어. 아줌마들이.

@ 아 이거를 낙태.

#1 낙태 끼는 거. 낙태 정리.

#2 **정리 작업.**

@ 낙태 정리한다.

#2 정리 작업.

@ 낙태 정리 작업. 그니깐 아주머니들은 이거 이거 외에 따른 거 안 하세요? 이거 외에.

#1 그거 외에 못하지. 지금은.

#2 옛날에는.

@ 옛날에도.

#1 지금도 여자가 또 인구가 구하니깐 명태 막 가서 가서 걸죠. 왜냐하면 박스로 오니깐 한 박스는 거면 천원씩이거든요. 일 잘한 사람은 한 저 이백 박스 이상.

#2 저기 그거. 그거 해봤어? 고기 고기 **관태**할 때. 관태할 때 여자들이 그 짚을 따는 걸 **코 판다** 이래.

@ 코 판다.

#2 어.

@ 고기 관태할 때 뭐하는 거요?

#1 코 판. 코 판다 그러지. 코 따는 거.

@ 고기 관태 하는 거를.

#2 그니까 그기.

@ 관태 할라면 코를 따야 되니까.

#2 이 끈을. 끈이 두개 매져 있잖아. 요렇게 매져 있잖아. 그래 이 끈을 끊어서 다 빼야지 멍 고기만 싸리꼬쟁이다 끼잖아. 그 싸리꼬쟁이다 끼는 걸 관태라 그래. 그러면 이 끈을 끈을 제거하는 걸 코를 판다 이랬단 말이야.

@ 아~ 사리꼬지에. 사리나무에 이제 꼬지에 끼우기 위해서.

#1 예.

@ 그 끼우기 위해서 요걸 제거하는 거.

#2 그럼. 이 끈을 제거하는 걸 코 탄다.

#1 코 탄다.

#2 코, 코, 코 탄다.

@ 끈. 끈이 아니고 짚인가.

#2 그렇지.

@ 짚은 제거하는 거를.

#1 코 탄다 그러지.

@ 그 답에 또 다른 말 없나요? 코 탄다 그 답에 또.

#2 그 외 또 고기 말리는 거 구멍가리라고 있잖아.

#1 인제 거 사리깡이다가 피면. 이렇게 인제 일본말로 **우깨도리**를 주는데 이기 땅에 다 못 채거고는 한 칠십 프로 말린 다음에 코를 피거든. 코를 피서 이렇게 쌓아놔요. 인제 인부들이. 쌓아노면 인제 또 사람 일공을 사서 이 덕장 우에다가 인제 **구멍가리**를 해놔. 이 명태를 어그젓게 구멍가리. 그럼 우에다 구멍가리 해놓. 구멍가리.

@ 그럼 칠십 프로 말린 다음에 코를 꿰고.

#1 예.

@ 그 답에요.

#1 그 답 코를 쓰리에다 해서 노른 인부들이 우깨도리라 그러거든요. 한 코 피는데 얼마씩 주거든요.

@ 코를 쓰리나무에 꿰는데 꿰는 거를 한 코 꿰는.

#1 일급 꿰는데 얼마씩. 우깨도를 예를 들어서 백원씩 준다. 그럼 그 사람들은 꿰서 놓기만 해요. 놓기만 하믄은 인제 따로 인부 사가지고 이 덕장 우에다 구멍가리라고 있어요. 구멍가리를 명태를 이러 이렇게 딱 쓰리 꿰 걸 딱딱 해서 구녕 나게 바람 잘

나게. 덕장 우에다 가려놔요.

@ 그러면은 코를 꿰 논 거를 덕장 위에다가 바람 잘 두도록 널. 널어놓는다고요.

#1 널, 널지를 얹고 싸. 이. 이렇게 싼다고. 구멍 나게.

@ 구멍은 아까 뚫었잖아요.

#1 아니.

#2 거 구멍가리.

#1 구멍가리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 그니깐 구멍은 아까 뚫었는데.

#1 이게 인제 이래서 이게 명태라. 스무 마리.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쌓으면 여그가 구멍이 나요. 여기 세간에. 이렇게 쌓으면 이렇게 쌓으면 여기 구루. 구멍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 인제 바람이 솔솔 들어가잖아. 여 놓으면 이럼 바람이 들어가면 털 말랐으면 또 다시 한 번 또 뒤직혀서 사람 사서 또 해요. 그게 인제 구멍가리라 그러는 거야.

@ 아 구멍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바람이 들도록 쌓는 거.

#1 예.

#5 그럼. 잘 마르라고.

@ 예예. 어어. 잘 마르도록. 그니깐 구멍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바람이 잘 들도록 이렇게 쌓아놓는 거 구멍가리. 그 답에 또 다른 거.

#5 구멍 내놓고 가린다고. 구멍가리.

#1 구멍가리 외에는 인제 없죠. 그 답에는 출하를 빠삭 말른 다음에 인제 사월달이 되면은 출하시키지.

#4 들 말른 거 뭐라 그러지.

#1 어?

#4 들 말른 거.

#1 들. 들 말른.

#4 구석에서 들 말라가지고 저거 한다. 나중에 저거 할 때.

#1 뭐라 그래.

#4 뭐라 하던데?

@ 그러면 출하를 사월달에 하면 그동안은 어디다가 뭐 어떻게 놔두시는데요?

#1 덕장 위에다 놔두지.

@ 덕장 위에다 계속 여기다가.

#4 그게 계속 말롱는 거지. 그 과정이 말롱는 과정이지.

@ 아~ 일월까지 이렇게 얼렸다 녹였다 하고 계속 여기다 놔두는 거예요?

#4 계속 얼었다 녹았다 계속 말롱는 과정이에요.

@ 출하 할 때까지 계속 여기 놔둔다는 거죠.

#3 그렇죠.

@ 창고에 안 놔두고.

#1 구멍가리다 마다요.

#4 그리고 좀 이렇게 해놓고 해도 왜 또 갑빠를 덮잖아. 그런 거 이런 거.

@ 덮는 거도 뭐 가르쳐 주셔야죠.

#1 덮는 거 용어 없어요. **갑바**로 비 안 맞게 덮는 거백에.

#2 비 안 맞게 덮는 거지. 그니깐 구멍가리란 게 구멍이 나게. 이렇게.

#4 통풍이 잘 되게.

#2 어. 가래야지 고기도 마른단 말이야. 그래서 구멍이 나게 마른, 마른다고 구멍가리야.

#1 그래서 구멍가리라고.

제4장 조사된 어휘

1.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란?

동해안 북부 지역에서는 크게 두 주제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하나는 명태 잡이와 관련된 생활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잡아온 명태를 황태로 만드는 덕장에서 사용하는 어업⁸⁾ 관련 생활어이다.⁹⁾ 두 주제로 나누었지만 사실 이는 하나의 큰 주제에 ‘어촌 생활어’에 속한다.¹⁰⁾ 즉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의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생활어를 그 조사 대상으로 한다. 조사를 위해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직업인 어부와 덕걸이 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했다.

1.1. 명태 잡이

어부와¹¹⁾ 그물 손질을 돕는 부녀자뿐만 아니라 덕걸이 하는 사람의 경우 이들이 모두 이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이 하는 말이 일과도 관련되어 있어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어부의 경우는 때로는 어판장의 일이나 그물 손질을, 덕걸이 하는 사람의 경우는 상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 이들을 각각의 직업으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어류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고 그물을 입수하고 고기를 그물로 낚고 이렇게 잡은 어류를 덕장에 거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본 조사에서는 이를 직업적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명태 잡이와 관련된

-
- 8) 일반적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로활동을 어업(漁撈),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어로를 유어(遊魚)라 한다. 그러나 어업이라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 가리키는 범위가 다소 다른데 본고에서는 어업을 어업 및 어업과 관련한 일을 하는 ‘어부, 어판장 상인, 덕걸이 하는 사람’ 등이 하는 어로 활동을 말한다.
- 9)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예전부터 어촌이 발달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어촌은 점차 추억 속의 어촌이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이제는 어촌도 예전만큼 활성화되지도 않았는데다 예전의 방법으로 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는 것도 사라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 10)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에서는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라는 큰 주제 속에 지역을 ‘1) 동해안, 2) 서해안, 3) 남해안, 4) 제주의 해안’으로 나눈 후 이는 다시 공통조사와 개별조사로 구분해 조사했다. 공통조사는 기초어휘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각 지역의 생활근간이 되는 어휘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초조사는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기층생활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것이 기초조사에 그친다면 소멸 위기의 생활어를 채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은 기초어휘를 기반으로 한 확장 어휘를 추출할 수 있는 개별조사의 필요성을 말한다. 개별조사는 공통조사에서 쉽게 나타나지 않는 지역적 특수성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멸 위기의 생활어도 채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 11) 어업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직업이 어부와 해녀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인류학이나 민속학에서는 어부와 해녀에 관련한 어로 문화에 대한 연구가 이미 조사된 바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언어학적인 측면에서의 이루어진 조사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이들이 사용하는 생활어에 대해 조사하려고 한다.

단계 속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생활어, 즉 각각의 단계에 따른 어로 생활로 구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주제를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라고 하였다.

1.2. 덕장

강릉 지역의 해안어를 조사하기 위해 강릉시에 위치한 어촌 마을인 ‘연곡면, 주문진읍’을, 덕장 관련 어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덕장이 가장 먼저 생긴 평창군 대관령읍¹²⁾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명태를 잡기 위한 준비 단계인 그물 손질부터 이를 다시 가공하는 덕장까지의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생활어를 그 조사 대상으로 한다. 즉 명태를 중심으로 이들의 명칭과 어로 행위 뿐만 아니라 가공 과정에 대한 생활어도 조사하고자 한다. 단순히 최종적으로 잡힌 생선의 명칭을 아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이 생선을 잡고 가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어휘를 살펴보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황태’와 관련된 ‘찐태, 떡태, 백태’와 같은 어휘도 살펴보았다. 또 덕장에서는 어촌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아니지만 ‘낙태 정리한다’, ‘짜ق 묶는다’와 같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나타났는데 이도 함께 제시해 다양한 언어 사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직업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촌 지역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다른 언어의 특성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동해안 어업과 관련된 어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 어촌 생활어라는 하나의 큰 범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조사는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의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생활어를 그 조사 대상으로 했다. 조사를 위해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직업인 ‘어부’와 ‘덕걸이 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했고, 어업 관련 생활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촌 지역인 ‘강릉시 주문진읍’을 조사 지역으로 선정했다. 조사 지역인 강릉은 그 성격상 크게 해안어, 내륙 민촌어, 내륙 반촌어로 구분되는데, 이 중 해안어만을 수록했다. 먼저, 어업과 어부의 개념과 어촌의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환경, 어획물, 어획 도구, 행위에 관한 어휘를 조사했다. 이처럼 어촌의 범주를 구분한 후 어로 행위 과정에 중점을 둔 이와 같은 조사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어촌의 모습을 담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¹³⁾ 이러한 실질적인 어휘 조사는 우리 민족과 역사를 같이 한 ‘어촌’에 대한 생활어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질 것이다.

12)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에 대한 간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림픽 개최 예정지인 용평리조트와 알펜시아 입구에 위치한 마을로 한국 최초의 스키 슬로프가(1949년에 지르메산에 개발) 있었던 곳이다. 이 마을은 스키 외에도 황태 덕장으로도 유명한데 겨울이면 마을 곳곳에 황태 덕장이 세워진다. 황태 덕장은 1950년대 중반부터 마을 부근에 있는 송천 주변에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 덕장은 1957년부터 이북에서 온 원산 사람들에 의해 4개의 덕장을 시작으로 운영되었다. 보통 12월 중순에 덕대에 명태를 건 후 3월 초까지 겨울 내내 자연 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건조하도록 둔다.

13) 바다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일은 위험하고 고된 일이다. 어민들은 자식에게 위험하고 고된 일을 직업으로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 자식들 교육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었다. 어민들의 자녀들도 대를 이어 아버지가 한 위험한 바닷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들도 배를 타기보다는 공부해 사무직과 같은 직업을 갖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직업관은 어부와 해녀라는 직업을 소멸 위기로 몰고 있었다.

2. 관용표현

2.1. 어로 생활과 관련한 표현

2.1.1. 어업 행위

1) 동짓날에 명태 잡는 날이다, 동짓날에 명태 잡는 날이라 했어

명태가 잘 잡히는 시기를 이 지역에서는 ‘동지받이, 은허받이(은하받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명태는 동지와 같이 추운 겨울에 잘 잡힌다고 한다. 또 이렇게 명태가 많이 낚 때 나온 명태가 몸에도 좋은데 이러한 점은 ‘동지 때 명태를 잡으면 통 마리로 말려가지고 잡수면 좋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명태가 많이 낚 뿐만 아니라 명태의 상태도 좋은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 ⇒ {동짓날에 명태 잡는 날이라 했어}. 동짓날에.
- ⇒ 은어랑 돌매기가지고 은어를 은허라 한단 말이야. {은허받이} {동지받이}. 11월달 12월달이야.

2) 고기 잡으면 오늘 기꼬재이 된다, 마이 잡았으니까 기꼬재이 된다

출항을 해 그날 고기를 많이 잡으면 성주, 즉 성의 기를 쫓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다. 즉 많은 고기로 인해 성을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의미이다. 이 말이 어부들에게는 듣기에 가장 좋은 말이라고 한다.

- ⇒ {고기 잡으면 오늘 기꼬재이 된다} 이런 그거로 하지.
- ⇒ {마이 잡았으니까 기꼬재이 된다}. 기.

3) 고기가 잘 붙다

그물 또는 낚시에 고기가 잘 걸린다 또는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의미한다. ‘돈이 붙는다’와 같이 고기도 사람에게 붙는다는 의미를 지닌 ‘고기가 잘 붙다’로 표현했다.

- ⇒ 아니. 우리 그물에 낚수나 고기가 잘 붙는단 말이요. {고기가 잘 붙거든}. 많이 걸려.

4) 셋바람 불면 오늘 작업 틀렸구나, 셋바람 불면 작업 틀렸다

배가 바다로 가기 전에 어부들은 매일 새벽 하루 천기를 보는데 이때 북쪽에서 오는 바람인 셋바람이 불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람이 셋바람인데 그래서 이 지역 외에도 경주, 영덕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셋바람이 불면 비가 와 배가 전복될 수 있다는 말이다.

⇒ {셋바람 불면 우리 오늘 작업 틀렸구나} 이런 말 하지.

5) 조금 고기가 많이 난다, 조금에 고기가 많이 나지

강릉 지역은 서해쪽과 달리 물 조류가 심하지는 않아 ‘한물, 두물’과 같은 어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 초조금’과 같은 어형은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중 ‘조금’과 관계된 관용표현이다. 조금에 고기가 많이 있다는 의미로 고기잡이 하기에 적당한 시기를 말해주는 표현이다.

⇒ 그런 {조금에 인제 고기가 많이 나지}. 뭐 특히 그래서 고기가 많이 난다 이거는 또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말이 별로.

6) 하늘이 새파라면 바람이 마이 분다

구름이 하늘 위에 깔리고 산 가까이에 있는 하늘이 새파랗게 보이면 바람이 많이 분다는 의미이다. 배가 출항하기에 좋지 않은 날씨를 말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구름빨 보고 바람질 할까 안 할까 짐작한다’, ‘아침에 이슬이 많으면 바람질 많이 한다’, ‘아침에 이슬이 많으면 맞바람질 많이 한다’, ‘천둥비는 멀리 오래 안 온다’와 같은 날씨와 관계된 표현을 찾아볼 수 있었다.(김지숙(2011) 민족생활어5 ‘어촌 기초 생활어’를 참고)

⇒ 떠 있고. 산. 산에 그저 뭐야 산에 아니고 하늘에 이래 떠가지고 있고 산 가까이는 이 뭐야 거기 {하늘이 새파라면은 바람이 마이 분다} 이기지.

7) 석닥이 다 맞았다

어부가 출항을 할 때는 보통 1인당 그물 석 닥을 가지고 나간다. 이 그물을 다시 바다에 두고 먼저 설치한 그물을 다시 가지고 오는데 이때 바다 밑에 있었던 그물 석 닥에 명태가 다 잡힌 상태를 말한다. 표현으로만 보면 명태 잡이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필요하고 마고. 명태 뭐 잡았다 {석 닥이 다 맞았다} 하든. 사람 서이고 너이고 다 써서 돌아왔으니 얼른 빚겨야 남보다 먼저 빚겨야 돈을 더 받고 살지.

2.1.2. 기타 생활 관련한 표현

1) 눈도 답답하다

눈이 어둡다는 말을 ‘가슴이 답답하다’와 같은 표현에 연유해서 한 말이다. 멀쩡한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 여 있지 않은가. {눈도 답답하네} 또 야. 하하.

2) 노가리 깐다

거짓말 한다는 의미이다. 처음 노가리와 명태는 어종이 다르다고 했다가 이들이 같은 어종임을 알면서 생긴 말이라고 한다. 제보자 김진호는 ‘쉽게 말하면은 얼마 주고. 노가리라는 것은 오정이 틀린다. 명태 새끼 아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니까 우린 종류가 틀린 줄 알았지. 예. 명태 새끼데. 그게 그래서 결국은 자원을 고갈시키는 거요. 거 사실은 명태 새끼가 맞는데 거 노가리란 말이야. 거짓말하고 저거 들끼리 잡아낸 거야. 옛날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노가리’와 ‘명태 새끼’가 다른 것을 지칭한다고 밝혀져 이를 다르게 알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금은 거짓말 하다는 의미 외에도 시끄럽게 떠든다는 의미도 같이 지니고 있다.

⇒ {노가리 깐다} 거짓말 한다 그치지.

이러한 표현에는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할 때의 조심스러운 마음 가짐과 동시에 풍어, 풍선을 기원하는 마음도 함께 담겨 있다. 즉 본인의 안녕과 함께 다량의 고기를 잡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나온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2. 명태의 상태와 맛에 관련한 표현

2.2.1. 명태의 상태 변화 표현

1) 영하 십오도 이하면 백태가 지니까 고기 안 건다

덕장에서 황태를 만들 때 바람, 눈과 온도가 중요한데 이때 너무 더운 날씨도 문제이지만 영하 십오도가 되는 너무 추운 날씨에도 황태가 아닌 백태, 즉 흰색의 명태가 되므로 좋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너무 추운 날씨에는 고기를 덕대에 걸지 않는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이 말은 이러한 날씨에 나온 명태가 상품으로 가치가 없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영하 십오도 이하면 백태가 지니까 고기 안 건다}

2.2.2. 명태의 맛에 관한 표현

1) 동지 때 명태를 잡으면 통마리로 말려가지고 잡수면 좋다

동지에 잡은 명태가 몸에 좋아 이를 두고두고 말려서 먹어도 좋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명태는 내장을 제거한 후 햇빛에 말려 ‘꾸덕꾸덕’해지면 이를 음식으로 먹는다고 한다. 이때 제거된 내장은 젓갈로, 머리는 육수를 내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명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생선이라고 했다.

- ⇒ 근데 명태 얘기는 우리 동지 때. 동지 때. {동지 때 명태를 잡으면} 통 마리로 말려. 통 마리를 말려. 그 창지 다 빼고 고대로 {통 마리로 말려가지고 그게 동지 때 말려가지고 잡수면 좋다고} 그렇게 말려 잡숫더라고. 여. 여기 양반들이.

2) 명태하고 마누라는 두드려 패야 맛있다

명태를 말린 후 방망이로 패면 굳어진 살이 부드러워져 맛도 좋아지는데 이를 자신의 부인에게도 적용한 말이다. 매를 들어야 고기든 사람이든 고분고분해진다는 의미를 지닌 이 말은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이다.

- ⇒ 그 {명태하고 마누라는 두드려 패야 맛있다}. 그기 말 잘 듣는다는 얘기지. 찢기 좋고 먹기 좋고. 하하하.

어류의 좋은 맛을 위해 이를 권장하는 표현이 나타났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우리 어른들의 지혜와 감각적인 언어 사용의 면을 엿볼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어로생활 표현과 함께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 관용표현

구분		관용표현
어로생활과 관련한 표현	어업 행위	동짓날에 명태 잡는 날이다, 동짓날에 명태 잡는 날이라 했어 고기 잡으면 오늘 기꼬재이 된다, 마이 잡았으니까 기꼬재이 된다 고기가 잘 붙다 셋바람 불면 오늘 작업 틀렸구나, 셋바람 불면 작업 틀렸다 조금 고기가 많이 난다, 조금에 고기가 많이 나지 하늘이 새파래면 바람이 마이 분다 석닥이 다 맞았다
	기타 생활 관련	눈도 답답하다 노가리 깬다
명태의 상태와 맛에 관련한 표현	상태 변화 표현	영하 십오도 이하면 백태가 지나까 고기 안 건다
	맛 관련 표현	동지 때 명태를 잡으면 통마리로 말려가지고 잡수면 좋다 명태하고 마누라는 두드려 패야 맛있다

3. 행위자

어부는 어로활동을 하는 직업으로 이는 명태잡이, 꽁치잡이, 청어잡이, 오징어잡이, 대게잡이, 문어잡이 등을, 또 ‘선장’과 ‘영자, 막내이, 화장, 중간사람, 낚사공’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범주이다. 한편 덕장에서 행위자를 나타내는 ‘덕주, 화주, 덕보는사람, 낫잡이, 코잡이, 상덕꾼’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덕걸이’ 즉, ‘명태거는사람’을 상위어로 본다. 이러한 행위자는 이처럼 무엇을 잡느냐와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어 나타났는데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3.1. 어부

배를 타고 물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또 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명칭이 분화된다. 이 중 ‘뱃사람, 뱃님’은 선원을 낮추어서 가리키는 말이다.

- ⇒ 이렇게 잔잔하면은 뭐이 강도 없쥬. 그리고 순리가 안 맞는 거야. 바다 순리가. 이게 호수 같지만 갑자기 일 때 보면 그건 아주 무섭고. 여기서는 이게 모르지만 파도 심하게 칠 때 바다에 있어 보면 {바닷사람} {뱃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비 오고 눈 오고 춥고 할 때 보면 어디 피할 데도 마땅치 않고. 은신처도 마땅치 않고. 다 맞고 견뎌야 되니깐
- ⇒ 진짜 {뱃님이고} 진짜 촌놈이 아입니까.

3.1.1. 능력에 따른 명칭

1) 상바리, 핫바리(하빠리)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또는 그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를 폭넓게 사용해 경우에 따라 어부 중에 고기를 잘 잡는 사람 또는 못 잡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해녀를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누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 ⇒ 그럼. 거기 쥔 못하는 {핫바리}.
- ⇒ 무조건 {상바리아}. 나는.

3.1.2. 역할에 따른 명칭

1) 선원, 선장, 선주, 배임재

어선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은 ‘선장’으로, 나머지 사람인 ‘영자, 막내이, 화장, 중간

사람, 낚사공' 등은 '선원'이라고 한다. 또 원 배의 주인은 '선주' 또는 '배임재'라고 한다.

- ⇒ 상당히 그 배에 많이. 파도가 많이 때릴 게 아니요. 그러니깐 아주 선원들 고생이 많지.
- ⇒ 거 그물로. 그물로 할 적에는. 그물로 할 적에는 {선장이} 있고 거 인제 거 저게 뭐야. 저거 뭐야. 아무 사공이 그물 놓다가 돌. 이런 돌 얹어 가지고 이제 이 줄이 달리게 해가서네 거서 그물 놓다가 비다가 돌을 매지만 그 그물이 드가거든.
- ⇒ {배임재가}. 배임재가 찾아다 놓지.
- ⇒ 총 생산 만약에 우리가 이만 원씩 벌었다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만 원씩 벌면 열흘이면 열흘. 인제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있다가 걸 계산을 본다고. 계산을. 그래 같이 모두 {선주} 집에 가서 안자 니는 얼마 잡고 뱃삿 얼마 주고. 니 다른 아다리는 얼마고 인제 요렇게 한다고. 고 고계서. 고계서 내 생산고에서 고걸 내가 더 먹는 기 부아깁그런다. 부아깁.

2) 기관장, 낚사공(낚시사공), 낚수놓는사람, 노꾸라재이, 로라마끼, 막내이, 망깨재이, 방간, 영자, 화장

행위자는 '낚시바리'를 하는가 '그물바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목선의 경우에는 '선장, 사공, 영자, 막내이, 중간사람, 화장, 낚사공'이 주로 승선해 5명에서 6명이 주로 탔다고 한다. 반면 기계배의 경우는 '선장, 낚사공, 영자, 막내이, 기관장'이 주로 탔다고 한다.

보통 큰배가 출항을 할 때는 몇 명의 사람이 같이 나가는데 이때 배에서 밥 짓는 일을 맡은 사람을 '화장', 기관실을 책임지는 사람을 '기관장', 배 위에서 일하는 사람 중 총책임자를 '간판장', 배 위의 기계 중 하나인 로라를 다루는 사람을 '로라마끼', 로라로 그물을 당길 때 고기가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을 '망깨재이', 노꾸라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그물에 걸린 고기가 상하지 않게 꼬챙이를 이용해 걸어주는 사람을 '노꾸라재이', 그물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방간', 낚시를 놓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공의 역할도 함께 하는 사람을 '낚사공'이라고 한다. 이들을 총책임하는 사람은 '선장'으로, 이들은 '선원'이라고 한다. 즉 목선의 경우는 '기관장'이 없고, 기계배의 경우는 '기관장'이 타는 대신 '간판장', '사공', '낚사공'이 타지 않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때 '낚사공'은 다른 말로 '낚시사공, 낚수사공'으로 말해지고 있었다.

또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명칭이 나누어지기도 했는데 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영자'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막내이'로 말해지고 있었다. '막내이'의 경우 밥을 짓는 일을 하는 '화장'의 역할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처럼 행위자의 명칭은 '노꾸라재이, 로라마끼'와 같은 외래어와 함께 '낚시놓는사람'과 '망깨재이', '막내이'와 같은 우리말 표현도 함께 나타났다. 기술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장이'가 '-재이'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그렇지. 기켓배는. {선장}. {기관장}. 기관장. 그럼 그거 뿐이지. 선장 기관장. {방간}
- ⇒ 그리고 낚사공 있고. {낚수 놓는 사람이} {낚사공이란} 말이야.

- ⇒ 낚수 놓는 사람이 낚사공이란 말이야. 낚시사공. {낚시사공}.
- ⇒ {낚사공인데}. 낚수 놓는 그래 돌이 있어. 돌 요런 거를 얹어 가서래. 얹어 가서래 있으면 요타가 낚수에다 말이야. 낚수가 지고 전에. 돌 꺾기 전에 매치거든. 그래 인제 거를 따라서 낚수를 한다고.
- ⇒ 거 인제 로라 감는 기술자가 있단 말이야. {로라마끼라고}.최고지. 이제 배에서는 그물. 그물바리에서는 자망에서는 로라마끼 인제 최고지.
- ⇒ 줄을 땡겨가지고 땡줄을 거 오는 대로 그양 받아가지고는 땡줄은 중간에서 줄이 오믄은 {노꾸라재이가} 이 망개 거 고기 걸린. 고기가 채일까봐 앞에서 꼬찌이 같은 요런 거 가지고 고기 안 걸리게 망개. 망개 넘어오는대로 고기 안 걸리게 여 걸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게 {망개재이라} 그런다고. 망개재이.
- ⇒ {사공}. {막내이} 영. {영자}.
- ⇒ 응. {사리는 사람}. 그걸 인제 {방간이라} 그런다.
- ⇒ 영자. 쥘 나이 먹은 먹은 사람이 {영자거든}. 그 담 {막내이} 있고 그 담 중간 중간 사람들은 그래 이름 부르고 그러지.
- ⇒ {화장} 그니깐 막내이가 한 번씩 해.

3) 중매인

배 한 척이 잡아오는 명태의 양은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양이 많다. 이때 이를 한꺼번에 처리해 값을 매겨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잡아온 명태를 수협에 보내면 수협에서 고기 선별을 위해 고용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말한다.

- ⇒ 그 사람들이 {중매인들이} 사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네들 덕걸이 할 때. 덕걸이 할 때 요거는 인제 막 이 별도 요거는 인제 포를 맨든다. 요거 인제 이 뭐야.

3.2. 덕장 사람

덕장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는 ‘덕걸이’와 ‘명태거는사람’이 있다. 이러한 상위어는 다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덕주, 화주, 덕보는사람, 낫잡이, 코잡이, 상덕꾼’ 등으로 나뉜다.

- ⇒ {덕걸이} {명태거는사람}

3.2.1. 역할에 따른 명칭

1) 덕주, 화주

어촌에서도 배 주인은 ‘배임재, 선주’로, 배를 지휘하는 사람은 ‘선장’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덕장에서도 동일했다. 그래서 명태를 걸 수 있는 덕을 가주고 있는 사람은 ‘덕주’로 그 곳에 걸 명태의 임자는 ‘화주’로 나타내고 있었다.

- ⇒ 덕. {덕주라는} 것은 명태 임자가 덕주고. 인자 그제 인제 옛날에는 한 저~ 한 덕에 한 십여 명씩 이래 걸었어요. 화주가. 덕 덕 하나 가지면 인제 물건 가진 사람 그래 걸었는데 요즘에는 이 덕을 예를 들어서 한 이천 평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딱 걸어요. 한. 한 사람이.
- ⇒ 옛 옛날엔. 예전 방법은 그 덕을 여기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제 명태가 그 그 당시는 화주가 인제 명태가 임자가 화주거든요? [화주가] 한 덕에 한~

2) 덕보는사람, 관리자, 낫잡이, 코잡이, 상덕꾼, 거는사람, 거는사람에게주는사람, 물오리, 고기편지는사람(건지는사람), 싹고가는사람, 운반책

덕장에서 일을 하는 덕걸이는 보통 6명에서 많게는 12명이 함께 일을 한다. 이때 덕장에서 가장 위에 위치한 상덕에 명태를 거는 사람을 나타내는 ‘상덕꾼’은 ‘거는사람’, ‘상덕’으로, 아바때에서 고기를 건지는 사람은 ‘건지는사람’ 또는 ‘고기를편지는사람’으로, 덕을 관리하는 사람은 ‘덕보는사람’ 또는 ‘관리사, 관리자’라고 한다. 또 스무 마리씩 묶어놓은 두름을 꿸 사람으로 명태 두 마리가 코를 지어 있는 상태로 꿸 일을 하는 사람을 ‘낫잡이’로, 명태를 냇가에서 건지는 사람을 ‘물오리’로, 아바때에서 덕장으로 명태를 운반하는 사람을 ‘싹고가는사람, 운반책’으로, 코를 잡아 상덕에 너는 사람을 ‘코잡이’로 말해지고 있었다. 이 가운데 ‘물오리’는 아바때에서 고기를 건지는 사람으로 물에서 노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낫잡이, 코잡이’는 ‘낫’과 ‘명태의 코’를 잡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덕장은 어부들의 명칭과 달리 ‘덕보는사람, 거는사람’과 같이 우리말로 된 언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싹고가는사람’인 운반책은 그 일은 동일하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예전에는 물지게로, 지금은 손수레를 이용해 명태를 운반하고 있다고 한다.

- ⇒ 상덕에 올려주면 상덕이 젤 높은데. {거는사람이}.
- ⇒ 어. 물오리라 그래. {건지는사람을}.
- ⇒ 나무로. 나무로 이래 했기 때문에 물은 다 빠진단 말이야. 그래 인제 고기를 그 구덩이에다가 아바때 설치한 데다가 고기를 하룻밤 담궈. 담구어서 그 거게서 이제 건지는사람이 {고기를편지는사람이} 물오리야.
- ⇒ {관리사도} 있죠. / 지금도 {관리자} 있어요. 지금도.
- ⇒ 예. 스무마린데. 그걸 인제 냇물에 담궈다가. 냇물에 담궈다가 건져서 밑에 저 밑에까지 리아카로 운반하는데 그 끈을 꿸 사람이. 그 끈을 스무 두름이를 꿸어야 걸잖아. 그걸 낱알하게 이래 걸잖아. 그 그걸 꿸 사람이 [낫잡이야].
- ⇒ 옛날에 {덕보는사람}.
- ⇒ 나무로. 나무로 이래 했기 때문에 물은 다 빠진단 말이야. 그래 인제 고기를 그 구덩이에다가 아바때 설치한 데다가 고기를 하룻밤 담궈. 담구어서 그 거게서 이제 건지는 사람이 고기를 건지는 사람이 {물오리야}.
- ⇒ 물오리라 그래고. 그 다음에 거게 {싹고가는사람이} 뭐라 그래?
- ⇒ 낱을 잡아서 그걸 꿸니까. 거 낫잡이도 있고 그 밑에 낫잡이가 꿰어놓은 고기서 {코잡이가} 있어.
- ⇒ 거는 사람. 상덕. {상덕꾼}.예. 중층이나 하층이나 걸는 거는 다 상덕꾼이라 그러죠. {상덕}.

〈표 6〉 행위자의 명칭

행위자		명칭
어부	목선	선장, 사공, 선원(막내이, 영자, 중간사람, 화장), 낚사공(낚시사공) (5~6명 승선, 낚시바리 6명, 시망바리 5~6명)
	기계배	선장, 낚사공, 선원(영자, 막내이), 기관장 *선주, 망깨재이, 방간, 로라마끼
	기타	상바리, 핫바리
덕걸이	주인	덕주, 화주
	일꾼	덕보는사람(관리자), 낫잡이, 코잡이, 상덕꾼(상덕, 거는사람), 거는사람에게주는사람, 물오리, 운반책, 덕걸이 *총 6-12명이 됨.

4. 장소

4.1. 바다

바다를 가리키는 명칭은 거리에 따라 또 깊이에 따라 분화되어 나타났다. 먼저 거리에 따른 명칭을 살펴본 후 깊이에 따른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 장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시기에 따른 내용도 함께 다루기로 하겠다.

4.1.1. 거리에 따른 명칭¹⁴⁾

1) 가, 가새, 앞바다, 이바다, 갯바다, 먼바다, 된바다, 아주 되게 나갔다

해안과 바다와의 거리가 가까운 바다를 ‘앞바다’, ‘갯바다’, ‘가’, ‘가새’, ‘이바다’, ‘근해’라고 했다. 이 지역에서 나는 명태인 ‘지방태’가 나는 바다를 가리키는 말이다. 바로 앞에 있는 바다라는 의미에서 ‘앞바다’, ‘이바다’를, 또 해안가에 위치한다는 의미에서 ‘갯바다, 가’, ‘가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의미로 해안과의 거리가 먼 바다를 그 의미 그대로 ‘먼바다’로, 또 ‘아주 많이’라는 ‘되게’를 사용해 ‘된바다, 아주 되게 나갔다’로 표현하기도 했다. 즉, ‘원양태’가 나는 바다를 가리키는 말이다.

⇒ 배가 큰 배가 있고. 조금 작은 배도 있고. 작은 배는 그 바다 못 나가지. 파도 싸고 바람 불고

14) 깊이에 따른 명칭은 질문 항목의 겹침으로 인해 기초 어휘조사 내용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을 밝혀 둔다.

- 파도 씨 겁이 나 문 나가지. 우리 배도 요 작아서 요 문어 잼으로 요 가새 땡기지. {먼바다} 못 나가. 배가 작아서. 작아 그 바다 타고 못 나가. 겁이 나서.
- ⇒ 그래 그거는 우리가 원양태라는 거는 이 쉽게 말하자면 원양태란 건 저~ 먼 바다. 말하자면 먼 바다 가서 잡아 오는 거를 원양태라 하고. 지방태는 여 지방서 {가새서} 잡는 거 보고.
 - ⇒ 먼바다에서도 그렇고 {가에서도} 그렇고. 다.
 - ⇒ {이바다에서} 잡는 고기래야 맛이 있고 그렇지. 원양태는 암만 그래도 이 바다 잡는 거보다 맛이.

2) 북바다, 새바다

북쪽 바다를 가리키는 말로 ‘북바다’ 또는 ‘새바다’를 사용하기도 했다. 다른 방위를 가리키는 명칭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북풍과 북쪽바다가 출항을 결정하기 전에 중요하게 살펴야 할 부분임을 말해준다.

- ⇒ 어어. 하루 천기를 보기 때문에 날이 하마 새바다. 언덕이 새바다를 많이 보거든. 새바다에서 날이 굵. 굵힐라 그러면 {새바다에서} 구름이 치밀고 이러은 작. 작업을 좀 늦게 간다고. 날. 날 봐가면서 해.
- ⇒ 새바다가 이. 북 북쪽바다. {북바다}.

3) 너울, 너울성, 멀기, 바탕멀기, 까풀멀기, 둥글멀기, 땃멀기, 앞멀기, 뒷멀기

바다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데 이 중 얇은 곳은 ‘얕우다’로 표현하고 있었고, 땅에 발이 닿지 않을 만큼 깊은 곳은 ‘짚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파도가 치는 것을 ‘너울너울하다, 너풀너풀하다’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는 명칭에서도 그대로 ‘너울’이 나타나고 있었다. ‘너울’은 파도가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이러한 상황을 ‘너울성이 있다’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 물결이 이는 것을 ‘멀기’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는 ‘작고 갑작스럽게 이는’ 것은 ‘까풀거리다’에서 연유해 ‘까풀멀기’로, 크고 둥글게 오는 것은 그 둥근 형태를 본 따 ‘둥글멀기’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 중 ‘까풀멀기’는 다른 말로 ‘바탕멀기’로, ‘둥글멀기’는 ‘땃멀기’로도 표현하고 있었다. 또 멀기가 오는 위치에 따라 배의 앞에서 오는 것은 ‘앞멀기’로, 배의 뒤에서 오는 것은 ‘뒷멀기’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말은 바람을 ‘뒤바람’, ‘뒷바람’이라고 한 것과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땃멀기’는 크게 오는 멀기를 가리키는 말로 큰 눈을 나타내는 ‘땃눈’과도 관련시켜 볼 수 있다.

- ⇒ 여기에 인제 까풀멀기 없을. 바람이 이제 심하게 불 때 아주 바람결하고 같이 부니깐. 큰 파도가 아니고. 인제 그제 인제 까풀멀기고. 이제 {땃멀기가} 온다 그러면 아주 너울성이 있으면서 까풀멀기.
- ⇒ 어. 파도를 가지고 바람이 마이 불면은 파도가 바람쌀에 막 이렇게 오는 게 있고. 너울 성이 아니고 인제 {까풀멀기가} 많이 올 때.
- ⇒ 이렇게 그렇죠. 예. 그때는 {너울은}. 너울성.
- ⇒ 그렇죠. 사람. 바람이 없이 멀기만 올 때는 {너울성이} 인제. 예. 그 바람하고 같이 오는 거는. 인제 까풀멀기라고 많이.

4) 맞쪽, 산쪽, 새쪽, 서남간, 동북간

방위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맞쪽, 산쪽, 새쪽’이 나타나고 있었다. 동향은 ‘맞쪽’으로, 서향은 ‘서쪽, 산쪽’으로, 남향은 ‘맞쪽’으로, 북향은 ‘새쪽’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동서향은 ‘맞쪽, 새쪽’으로, 동남향은 ‘동남간’으로, 동북향은 ‘동북간, 북동쪽’으로, 서남향은 ‘서남간’으로, 서북향은 ‘서북간’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동서향’과 ‘*북남간’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음을 제보자는 밝혔다.

⇒ 응. {맞쪽}.

⇒ 선채로. 그래 선채 깃발은. 선채 깃발은 맞쪽이 인제 언덕이 선채 깃발이 놓거든. 남쪽은 빨건 기고 {새쪽으로는} 하얀 깃발이더라.

4.1.2. 깊이에 따른 명칭

먼저 바닷물에 대한 표현을 살펴본 후 깊이에 대한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간물, 짠물, 짜굽다(짹다)

바닷물을 의미하는 말로 ‘짠물’과 ‘간물’이 쓰이고 있었고 이와는 다른 대조적인 의미로는 ‘민민하고 맹탕이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민물, 맹물’이 쓰이고 있었다. 이러한 말은 짜고 싱거움을 나타내는 ‘짜굽다, 맹물이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짠물}. 짠물이지.

⇒ 짠물 반대는 {민물이지}. {맹물로} 많이 쓰지.

2) 짙은바다, 때꼭지, 땃국지, 중급(준급), 물밀에

바다는 그 깊이에 따라 크게 깊은 바다, 중간 깊이의 바다, 얇은 바다로 구분되었다. 이 중 가장 얇은 곳으로 60에서 70발 정도의 깊이를 가진 바다를 ‘짙은바다’ 또는 ‘때꼭지, 땃국지’로 표현했고, 중간 깊이로 80에서 90발 정도의 깊이를 가진 바다를 ‘중급’ 또는 ‘준급’으로 표현했다.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말로는 ‘물밀에’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100발 정도의 깊이를 지닌다고 한다. 이 중 ‘물밀에’는 다른 말로 ‘물밀’ 또는 ‘밀’으로도 나타나고 있었다.

⇒ {물밀에서} 물었다. 그 담에 여기가 물밀. {밀이지}.

⇒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는 거야.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노인네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때꼭지서 밀에서 물었다. 그러면 인제 거기 얇은 수심이라는 얘기지. 그럼 {중급에서} 물었다. / 여기서 이렇게 때꼭지를 시키노면은 여기서 {중급이어야} 되는 거지. 여기 가서 인제. 쉽게 말하면 이래 가가지고 오십 칠십 발 줬다.

⇒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는 거야.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노인네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때꼭지서} 밀에서 물었다. 그러면 인제 거기 얇은 수심이라는 얘기지. 그럼 중급에서 물었다.

3) 들물, 날물, 새발물, 새안들물, 마안들물, 마발물

이 지역에서는 물때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인 ‘한물, 두물’과 같은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명칭 역시도 조류의 차가 크지 않은 동해안의 특성으로 인해 미세기와 관련되는 ‘들물, 날물, 새발물, 새안들물, 마안들물, 마발물’과 같은 표현이 물때와 관련되는 ‘조금’, ‘초조금’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물은 흐르는 방향에 따라 ‘들물, 날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이 중 ‘들물’은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물을 가리키는 말이고, ‘만물’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나가는 물을 가리키는 말이다.¹⁵⁾ 들물이라는 말은 ‘들다(入)’의 어간에 ‘물’이 붙어 만들어진 합성어이고, ‘날물’ 또한 ‘나다(出)’의 어간에 ‘물’이 붙어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또 ‘새발물’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북쪽과 동쪽 사이로 흐르는 물을, ‘새안들물’은 서쪽과 북쪽 사이에서 흐르는 물을, ‘마안들물’은 남쪽과 서쪽 사이에서 흐르는 물을, ‘마발물’은 남쪽과 동쪽 사이에서 흐르는 물을 말한다. 이러한 명칭을 보면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명칭과도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즉 ‘새’는 북쪽을 가리키는 말, ‘맞’은 남쪽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러한 표현들이 ‘들물, 발물’과 함께 결합해 나타나고 있었다.¹⁶⁾

- ⇒ 들물은 바다에서로 들어오는 기 들물이고.
- ⇒ 또 저 북쪽에서로 남쪽을 흐르는 거는 {만물이라} 그러고.
- ⇒ 나가는 거 그거는 {새반물이라} 거든요. 밖으로 밀고 나가는 거. 어른들이 우리가 저 큰 배를 타고 이래 끄치바리를 가면은 바다에서 가에서로 바다로 끌고 나가는 새반물이라고.

4.1.3. 날씨와 시기에 대한 표현

1) 동삼, 동지받이, 은어받이

명태가 많이 잡히는 시기를 제보자들은 추운 겨울을 뜻하는 ‘동삼’이라고 했다. 이 ‘동삼’ 가운데도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는 동지와 도루묵, 즉 은어가 많이 나는 시기인 11월과 12월이었는데 그래서 이를 ‘동지받이, 은허받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옛날부터 동지에 잡은 명태는 몸에 좋다는 의미로 ‘명태 동지 때 말려가지고 잡수면 좋다, 명태 통마리를 동지에 말려서 잡수면 좋다, 동짓날에 명태 잡는 날이라 했어’가 쓰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말로 인해 ‘동지받이’라는 말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도루묵을 이 지역에서는 ‘도루매기’ 또는 ‘은허’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은허’가 많이 나는 철을 ‘은허받이’

15) 동해안 남부의 경주 지역에서는 ‘날물’ 외에도 ‘만물’이라는 표현도 나타났는데 이 의미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16) 박성중(2008:79-80)에서는 북동에서 남서로 흐르는 물은 ‘마안들물’로, 남동에서 북서로 흐르는 물은 ‘새안들물’로, 남서에서 북동으로 흐르는 물은 ‘새안널물’로 나타내고 있다. 또 파도의 명칭으로 박성중(2008)에서는 ‘셋떨기, 외대떨기, 맞떨기’가, 이익섭(1981:194)에서는 ‘까치눌’이 나타난다고 해 본 조사에서 나타난 ‘까풀떨기, 둥글떨기, 앞떨기, 뒷떨기’와는 차이를 지닌다.(자세한 내용은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2011) 참고)

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 ⇒ 아니 아니 그거는. 말로 하면 우리가 고기 많이 나는 거는 이~ 철 따라서. 말하자면 철 따라서. 인제 아까 말하면 {동지받이면} 동지받이. {은허받이면} 은허받이 이때 고기가 인제 많이 인제 들어오고. 이 조금이 있다고. 조금. 스무사흘 조금 뭐 이런 조금이 있는데. 어~ 스무사흘조금.
- ⇒ {동삼에는} 주로 춥기 때민에 옷을 뜨시게 입고 땡기지.

2) 내불거나 날이 반한 날, 바람이 솔솔 부는 날, 셋바람이 안 부는 날, 날이 들렀다 명태 잡이를 하기 좋은 날을 제보자들은 ‘내불거나 날이 반한 날, 바람이 솔솔 부는 날, 셋바람이 안 부는 날’이라고 표현했다. 이 중 ‘내불거나 날이 반한 날’은 서풍 또는 서남풍이 불거나 파도가 치지 않는 날을, ‘바람이 솔솔 부는 날’은 바람이 약하게 부는 날을, ‘셋바람 안 부는 날’은 셋바람, 즉 북풍이 불지 않는 날을 의미한다.¹⁷⁾ 어촌 지역에서 가장 조심하는 바람이 ‘셋바람’인데 이러한 말 속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한편 ‘날이 들렀다’는 구름이 하늘 위에 깔리고 그 사이에 하늘이 새파랗게 보이는 것을 말한다. 즉 하늘과 해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날씨를 말하는 것으로 이런 날씨는 주로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한다.

- ⇒ 그렇지. 구름이 다 인제 맥히고. 하늘이. {하늘이 들렀다} 하면은 바람이 심하게 분다고. 구름이 인제 우에 쪽~ 깔리고 하늘이 생간에 파랗게 비잖아. 고런 상태면 바람이 씨게 분단 말이지.
- ⇒ 내 불거나 이제 {날이 반하거나} 이래야 나가지.

3) 날이 뻥하다, 바닷날이 뻥하다, 호수 같다

바다가 파도도 없이 잔잔한 경우 이를 ‘날이 뻥하다, 호수 같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중 ‘날이 뻥하다’는 바다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뜻에서 ‘바닷날이 뻥하다’로 표현하기도 했다. 어부들은 출항을 결정하기 전 천기를 보는데 이때 하늘의 상태뿐만 아니라 바다의 상태도 같이 살펴보고 있었다.

- ⇒ 이렇게 잔잔하면은 뭐이 강도 없쥬. 그리고 순리가 안 맞는 거야. 바다 순리가. 이게 {호수 같지만} 갑자기 일 때 보면 그건 아주 무섭고. 여기서는 이게 모르지만 파도 심하게 칠 때 바다에 있어 보면 바닷사람 뱃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비 오고 눈 오고 춥고 할 때 보면 어디 피할 데도 마땅치 않고. 은신처도 마땅치 않고. 다 맞고 견뎌야 되니깐

장소를 표현하는 말을 거리에 따라, 장소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17) 바람 명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2011)에서 정리해 나타났음을 밝힌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 박성중(2008:78)에서는 강원도 지역, 고성, 속초, 양양, 강릉, 삼척과 경상북도 울진 지역에서 사용되는 바람의 명칭을 정리한 바 있다. 박성중(2008)에서 나타나는 ‘원산매기, 설악산매기’는 본 조사에서는 ‘원산내기, 설악산내기’로 나타났고, ‘새대바람’은 ‘새땃바람, 새대들바람’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2011)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7〉 장소의 분류와 명칭

구분		어휘 항목				
바다	방위	동향	서향	남향	북향	
		맞쪽	서쪽, 산쪽	맞쪽	새쪽	
		동서향	동남향	동북향	서남향	서북향
		맞쪽, 새쪽(동서향×)	동남간	북동쪽	서남간	서북간 * 북남간
	거리에 따라	앞바다, 가(가새), 근해, 이바다, 갯바다				
		아주 되게 나갔다, 된바다, 먼바다				
	염도에 따라	간물, 짠물,				
		맹물(민물),				
	깊이에 따라	깊은 바다, 때꼭지,				
		땃국지[60~70발]-중급(준급)[80~90발]-물밑에[100발] 먼바다, 된바다 / 가새, 이바다				
파도	너울, 너울성, 멀기, 바탕멀기(=까풀멀기), 둥글멀기(=땃멀기), 앞멀기, 뒷멀기					
날씨	바닷날이 뻥하다, 날이 뻥하다, 호수 같다 동지받이(11월~12월 동지), 은어받이(은어철에 잡힘) 내불거나 날이 반한 날, 바람이 솔솔 부는 날, 셋바람이 안 부는 날					

4.2. 육지

4.2.1. 장소에 따른 명칭

1) 어구점, 어구집, 판장

어류와 관련된 물건인 그물, 다마, 낚시 등을 파는 가게를 ‘어구점’ 또는 ‘어구집’이라고 한다. ‘판장’은 고기를 사고 파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른 말로 ‘어판장’이라고도 한다. 보통 ‘어시장’은 큰 규모의 범위를 나타내고 ‘어판장’은 작은 규모의 단위를 나타낸다. 시장이 먼 곳에서는 어촌의 항구 앞에서 ‘어판장’이 열리는데 이곳에서 그 날 바다에서 잡은 어류나 해조류를 사고 팔았다. 주로 오전이나 오후에 잠깐 열렸다가 마친다.

- ⇒ {어구점}. 어구점이라는 기. 이기 인제 그물 팔고. 이 그물 팔고 전체 다 물에서 작업하는 도구 파는 집을 가지고 어구집이라 하지.
- ⇒ 상점에. 그물. {어구집에} 가면은.
- ⇒ 좀 늦게 땃기지. 아니 하루 종일 아이라 배가 인자 두 시나 한 시 반이나 들어가면은 그건 저성 가서 가에 배를 대가지고 그물을 마이 고기 마이 걸렸으면 풀어야 돼. {판장에}.

2) 물웅덩이(물댕크), 냇물, 덕장, 덕장목

덕장에 가져온 명태를 황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달의 시간과 여러 과정이 들어간다. 이 중 가장 처음의 과정에 속하는 ‘냇물에 담그기’와 ‘물오리가 건지기’는 모두 ‘물웅덩이’, ‘물댕크’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씻은 명태는 운반 과정을 거쳐 ‘덕장’으로 가는데 이 후의 모든 과정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덕장’이라는 말은 덕이 있는 장소라는 의미를, ‘물웅덩이’는 시냇물을 막아 고이게 한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황태를 거는 장소를 ‘덕장’과 같은 의미로 ‘덕장목’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주로 12월 중순에서 3월 초에 이루어진다.

- ⇒ 예. 스무마린데. 그걸 인제 {냇물에} 담궜다가. 냇물에 담궜다가 건져서 밑에 저 밑에까지 리아 카로 운반하는데 그 끈을 끊는 사람이. 그 끈을 스무 두름이를 끊어야 걸잖아. 그걸 낱알하게 이래 걸잖아. 그 그걸 끊는 사람이 낱잡이야.
- ⇒ 물웅덩이
- ⇒ 인제 이북사람들이. 동해에 거주하다가 동해서 그 당시 명태가 동해에 많이 낚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이 하다가 여기 대관령이라는 데 처음 여기다 저 제가 그때는 안 살아서 모르는데 이게 오십칠년돈가 여기다가 {덕장을} 세웠다 그러더라구요.
- ⇒ 하이튼 덕장목이라 그러면 제일 간단해. {덕장목}.

육지 관련 명칭을 항구와 덕장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육지 관련 명칭

장소		어휘 항목
육지	항구	어구점, 어구집, 판장
	덕장	물웅덩이(물댕크), 냇물, 덕장, 덕장목 *12월 중순에서 3월 초

5. 도구

5.1. 운송 도구

어촌의 대표적인 운송 수단은 ‘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는 어촌 생활의 변화와 같이 변천되어 왔는데 그 결과 다양한 종류와 모양의 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계배의 등장으로 풍선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데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어 풍선의 명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풍선은 그 부분에 따라 사용되는 나무가 다양했다. 먼저, 이 지역에서 배는 ‘소나무’로, 노는 ‘참나무’로, 돛대는 ‘낙엽송’, 예를 들면 ‘전나무’와 같은 나무로 만들었다. 이 중 노는 그 형태에 따라 ‘조선노’와 ‘일본노’로 구분되는데 ‘일본

노’는 ‘조선노’와 달리 ‘나왕나무’로 만들었다. 잘 썩지 않고 튼튼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나무를 이용했다. 배는 사람을 운송하기도 하지만 어류를 잡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그 물에 위치를 알리고 그물을 세우기 위해 부표를 다는데 이도 예전에는 나무를 이용해 만들었다고 한다.

- ⇒ 이 노 자체도 우리 조선노가 있고 일본노가 있어. 왜노. 왜놀이라고. 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조선놀은 참나무로 만들었어. 참나무로. {참나무} 깎아가지고 인제 그 노를 만들었고. 일본사람들이 쓰는 것은 거 일본노는 이 {나왕}. 그 대북 나무로서 해가지고 그 만든 노고. 노가 좀 틀리지.
- ⇒ 돛대는 주로 여 {낙엽송}.
- ⇒ {전나무쥬}. 전쥬대식으로 이래 이래 굵은 거 세워가지고.

5.1.1. 배 종류의 명칭

1) 나뭇배, 노젓는배, 돛단배, 목선, 목조선

풍선을 이 지역에서는 ‘돛단배’ 또는 ‘나뭇배’라고 한다. 상부구조가 없고 돛대가 없거나 혹은 한 개가 설치된 나무로 만들어진 소형 선박을 말한다. 이처럼 돛을 단 배를 ‘도꾸(배), 돛단배, 노젓는배’라고 하고, 바람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풍선’이라고 한다. 또 나무로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목선, 목조선, 나뭇배’로 말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돛배는 소규모 어로 활동에 주로 사용되었다. 제보자는 지금도 ‘돛단배, 목선, 목조선’은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풍선’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말임을 밝혔다. 이러한 배들은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어획물도 팔고 주민들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들은 그 길이에 따른 명칭 또는 돛대에 따른 명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재료에 따라, 그 특징에 따라 분화되어 나타났다. 이 중 ‘노젓는배’와 같은 명칭이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어떠한 수단을 통해 이동하는지에 따라 배의 명칭이 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선을 이용해서도 육지로부터 백오십에서 이백미터까지 나가서 작업을 했다고 한다.

- ⇒ 어. 그 {나뭇배도} 목선이고.
- ⇒ 도꾸. {도꾸란} 얘기야. {돛단배를} 보고.
- ⇒ 이 배가 인제 그 옛날 우리가 타고 다녔던 목선이에요. {목조선}. 지금 목선이 다 없어졌잖우. 기억나죠? 도근이 아버지.

2) 기꺾배, 따브류, 엔진배, 택택이

일반적인 동력선을 가리키는 말이다. 돛배를 무동력선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표현이다. 즉 기계 장치에 의하여 움직이는 배를, 돛배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 지역에서 기계, 엔진을 단 배를 ‘기꺾배’라고 한다. 이러한 ‘기꺾배’는 이 외에도 ‘택택이’라고 하기도 하고 ‘따

브류’, ‘엔진배’라고 하기도 한다. 보통 예전에 사용한 목선에 엔진을 달아 사용하는데 이러한 엔진의 소리가 ‘택택’거린다는 의미에서 ‘택택이’라고도 한다. 또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도 ‘따브류’와 같이 배의 명칭이 분화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목선에 양수기 엔진 따브류를 단 배를 ‘따브류’로 말하기도 했다. 이 따브류는 농촌에서 경운기 엔진으로 많이 사용하는 양수기 엔진을 말한다. 목선과 달리 기계배는 배 안에 증기 기관을 장치하여 놓은 칸이 주로 배 중앙부에 위치하는데 이러한 선창 내부의 기기실 앞쪽에 있는 곳을 ‘기관실’이라 한다.

- ⇒ {기렛배도} 저 저게 그 전에 주낙바리 많이 했거든. 많이 했는데 거기도 한 가지. 선장이 있고 인제 거 낚사공.
- ⇒ 어. {따브류도} 있고 뭐. {택택이도} 있고 그렇지.
- ⇒ {엔진배}는 다 했잖아.
- ⇒ 이건{택택이구먼}. 목선에다가 엔진을 노니까네.

3) 대구리, 머구릿배, 잠수미, 풍선

잠수부, 즉 머구리들이 타고 다니는 배를 ‘머구릿배’라고 한다. ‘머구릿배’는 잠수부들이 주로 타고 다닌다는 의미에서 ‘잠수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목선과 같이 노를 저어 운행한다. 온갖 고기를 다 잡는 배를 ‘대구리’라고 한다.

- ⇒ {대구리가} 많이. 고기 씨를 죽였지.
- ⇒ 그제 우리 그 전에 이. {잠수미라고} 있어. 인제 머구릿배. 옛날에도 그 {머구릿배도} 인제 그 펌프로서 완전 피스톤이 달려 있는 거라서 펌프를 쳐가지고 인제 잠수부를 물 밑에 여가지고 갈 때. 그때도 노를 대가지고 인제 나가서 하는 거야. 근데 작업하기 힘들면 강제로 다 잡아 덩기고 뿌려져 뿌린다고 그렇지. 저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파도에 딱 세기며는. 그래 그거 핑계로 해서 노. 노가 부러져 들어가자.
- ⇒ {풍선이랑} 잘 안 쓰지.

4) 시망배, 명태배

배는 어망 또는 잡는 어종에 따라 분화되기도 하였는데, 정치망을 주로 하는 어선을 ‘정치선’으로, 명태를 주로 잡는 배를 ‘명태배’으로, 시망바리를 주로 하는 배를 ‘시망배’라고 한다.

- ⇒ 문진서 한 오후 네 시쯤~ 이렇게 되면 {명태배가} 들어오나. 네 시 다섯 시 때 들어오면 인제 엄마들이. 아버지랑 새벽에 배 나가니깐 엄마들이 인제 리아카 끌고 고 까지 가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물을 다 손질해서 인제 실고 또 집으로 나와.
- ⇒ 그래 밑에서는 기계로 해가지고 기계가 돌아가면서 피대로 걸어가지고 피대로 걸면은 에 피대로 걸면 그 안에 이 앞에 로라가 양쪽에 있는데. 그래 이 인제 {시망배는} 한 짝만 있는데 로라를 차려 놓지. 시망. 그걸 두 군데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한 짝만 인제 로라 토시. 그거 심주로. 저저 그러니까네 그기 심주로 하는 거지. 심주로 이래가지고 이만~하게 나팔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맨들어.

어선을 나타내는 말을 잡는 어종, 사용하는 도구, 재료, 특성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어선 명칭

구분		종류
어선	잡는 어종에 따라	오징어배, 콩치배, 멸치배, 명태배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시망배
	기타	대구리
	재료에 따라	나뭇배, 노젓는배, 돛단배, 목선, 목조선, 도꾸 / 텍택이, 기켓배, 따브류, 엔진배
	특성에 따라	풍선, 머구릿배, 잠수미

5.1.2. 배의 부분 명칭

1) 고닥, 고물, 바닥, 배앞, 가라, 삼, 옆삼, 헛도모, 뒷도모, 도모마쭈라, 도모다수, 오대기, 운두, 오모까지, 사우도, 활가지, 용천대, 도꾸/돛, 데끼

배의 부분은 그 위치에 따라 가리키는 말이 다르다. 먼저, 배 앞 부분을 가리키는 말에는 ‘묘시’와 ‘이물’ 또는 ‘이문’ 그리고 ‘고닥’이 있다. 이 중 ‘고닥’은 그물에 다는 줄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배의 가장 앞 부분에 있는데 그래서 배 앞을 의미하기도 했다. 반대로 배 뒷부분을 가리키는 말에는 ‘고물’과 ‘후미’, ‘도모’가 있다. 이러한 명칭은 순 우리말로 부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묘시’ 대신 ‘배앞’을, ‘도모’ 대신에 ‘배뒤’를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배 위 갑판을 가리키는 말에는 ‘데끼’가 나타나고 있었다.

또 배는 배 가운데 밑 바닥인 부분으로 집에 비유하면 대동말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라’로, 배 밑 좌우 가장자리에서 판을 댄 널판을 가리키는 말은 ‘삼’으로, 이러한 ‘삼’ 중 배의 양 옆쪽에 위치한 삼은 ‘옆삼’으로 말한다. 이러한 배 옆부분을 ‘통돌이’이라고도 한다. 한편 ‘도모’는 뒤에 있다는 의미에서 ‘뒷도모’로 도모 뒤쪽에 만든 튀어나온 부분은 ‘헛도모’, 도모의 뒷쪽에 위치한 것은 ‘도모다수’로, 배 뒷부분에 들어가는 갈비 부분을 가리키는 부분은 ‘도모마쭈라’라고 한다. ‘마쭈라’는 배 옆에 사람의 갈비처럼 있는 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쭈라, 마쭈라, 마스라’로 모두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헛도모’는 도모 뒤에 튀어나온 부분을 도모에 가짜로 붙여놓은 부분이라는 의미에서 ‘헛도모’라고 한다. 도모의 오른쪽 갑판은 ‘오모까지’, ‘오모가지’로, 도모의 왼쪽 갑판은 ‘도로까지’라고 한다.

이 외에도 배의 뒷부분은 ‘오대기’로, 배의 윗부분은 ‘운두’로, 나가있는 긴 부분을 ‘사우도’로 말하는데 이러한 사우도의 모양이 통으로 되어있는 것을 ‘통사우도’ 또는 ‘통단이’라고 한다. 또 돛대를 세우는 도모의 양쪽에 있는 것으로 돛대를 세우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을 ‘활가지’라고 한다.¹⁸⁾ 용충줄이 달려있는 기둥은 ‘용천대’로, 돛풍은 ‘도꾸’, ‘도풍’이

라고 한다.

- ⇒ 앞. 앞 보고서는 {고닥이라} 그런다. 아이고~ 요기 고닥. 이기 요기 고닥이고.
- ⇒ {고물}.
- ⇒ {헛도모}. 이기 헛도모지.
- ⇒ 여게 지금 이기 내가 배를 그려봤는데. 자~ 잘 봐요. 응. 이 공부해가지고 봐야 돼. 이기 뭔가 하면은 이게 배 앞쪽이야. 이 앞. 묘시 쪽인데. 요건 지금 {후미란} 말이요.
- ⇒ 그래요 우에 인제 칸 열 수 있는 데끼. 칸마다 이런 이런 칸이 있잖아. 이 {데끼}.
- ⇒ 그래도 목선 가지고 일로 노을배기 땡기고. 또 바람 불은 또 {도꾸} 달아 놓고.
- ⇒ 뭐 왼쪽에 하던지 오른쪽에 하던지. 그거는 뭐 대개 인제 여 저 뭐야. 배 도모 왼쪽으로 마이 하지. {도로까지}. 도로까지로.
- ⇒ 이 끝이 인제 요기 묘시고. 그 답에 이건 {도모}.
- ⇒ {뒷도모다가} 이제 그래 먼저 선장이 인제 먼저 받고. 여기 인제 선장. 선장 기관장.
- ⇒ 마. 아 마쭈라가 저기 배 저 갈비다 갈비. 마쭈라가 갈비고 이기 {도모다수}.
- ⇒ 요거는 저저 그러이 마쭈라. {도모마쭈라}.
- ⇒ {마스라}. {마쭈라}. {마쭈라}. 아니 배 옆으로 배 옆으로 이래 꾸부정하게 이 나무가.
- ⇒ 요거. {묘시}.
- ⇒ 앞 {이문}. / 앞에 {이물}. 이물 이려고 이러니깐. 앞은 이물이고 뒤엔 도문 걸로 생각했고.
- ⇒ 이게 {바닥}. 아니 요기 요기. 아 뒷합판 요기다 썼지. 요기 바닥이야. 바닥.
- ⇒ 이. 이거는 {옆삼}.
- ⇒ 그거는 사망바리 못해. 그거 안쪽 뭐 {운두가} 낮아가지고 되나.
- ⇒ 맞아. 이 {오대기도} 낮고.
- ⇒ 이쪽은 {오모까지고}. 이쪽은 도로까지고 그렇잖아. / 돌아가고. 앞으로 땡기른 저~ {오모가지로} 들고.
- ⇒ 요. 요기 인제 요기 인제 배 {가라고}. 배 즉 말할 거튼 집에 같으면 아주 그. 그기지. 저 뭐야.
- ⇒ 앞부분. 앞부분은 이게 인제 보통 이 저 뭐야. {배앞이라} 하는데. 그거는 묘시라 하지. 묘시라.
- ⇒ 필미. {사우도가} 통사우도가 아이고 고기 중간에 이래 물고.
- ⇒ 그 답에 {삼}.
- ⇒ 아. 아. 가라 아니고 저 뭐야 {통돌이}.
- ⇒ 그럼 돛대를 일나가 세울 적에는 앞에다 줄을. 줄을 땡기고 여그선 밀고 인제. 사람이 밀고 올라간다. 밀. 내주면 앞에다 씨게 땡겨 가지고 거 저 돛대 양쪽 가서 앞에 가서 묘시 있는데 고 옆에 가면 고닥에 가면 오래이 하는 게 있거든. 그럼 다 올라가면 인제 거서 오래이 하잖아. 딱 묶어 놓으면. 묶어 놓으면 거 인제 묶어놓으면 여서 인제 다 인제 돛대를 올리는 기고. 또 여 기 들어와선 돛대 놓을 적에도 거기다 서라기를. 서라기를 딱딱 해준다고. 줄을. 그래 사람이 안 들어 가가지고 이렇게 받. 받아줘야 돼. 그냥 탁 노른 뒤에 거저 이 그 뭐야. 거기 서는 기. 돛대 서는 {활가지가} 있거든. 그래 요 새 들어가. 들어가야지.
- ⇒ 어. {용천대고} 그건 용천대고.

2) 돛, 풍, 돛대, 큰돛, 작은돛, 양호돛, 작은풍, 큰풍, 작은돛대, 큰돛대, 양호돛대

목선의 경우 바람을 받기 위해 설치한 돛이 있다. 이러한 돛을 달기 위하여 배 바닥에 세운 기둥을 ‘돛대’로, 돛에 다는 광목천은 ‘풍’이라고 하고 있었다. ‘돛’은 다시 그 크기에

18) 경주 지역에서는 맨 위 뺏전 밖에 덧붙인 반달 모양의 반쪽 통나무 즉, 배 양 옆에 붙인 나무를 ‘하라지’ 또는 ‘활아지’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활아지’는 배의 양쪽으로 붙이는데 그래서 왼쪽에 붙이는 활아지는 ‘왼쪽활아지’ 또는 ‘도로가지’로, 오른쪽에 붙인 활아지는 ‘오른쪽하라지’, ‘오목가지’라고 한다.

따라 ‘큰돛’과 ‘작은돛’으로 나누어지는데 ‘작은돛’은 다른 말로 ‘양호돛’이라고 했다. ‘돛대’도 이러한 돛의 크기에 따라 ‘큰돛대’와 ‘작은돛대’으로 구분되었고 ‘풍’ 역시도 ‘큰풍’과 ‘작은풍’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큰돛’ 위에 다는가 ‘작은돛’ 위에 다는가에 따라 명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작은 크기의 풍인 ‘작은풍’은 배 앞에, 큰 크기의 풍인 ‘큰풍’은 배 중앙에 단다. 한편 ‘양호돛’과 마찬가지로 ‘양호돛대’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었다. 명태바리를 하는 배는 주로 돛을 두 개를 달았다고 한다. 이 중 배 중심을 잡아주는 큰 나무, 즉 돛대를 꼽는 곳을 ‘큰모에’라고 한다.

- ⇒ 큰돛하고 {양호돛하고}.
- ⇒ 어 양호돛. {양호돛대}. 양호돛대라 이러지.
- ⇒ 앞에 {작은돛}.
- ⇒ 그러이 바람 불고 이럴 적엔 앞에서는 사람이 하나 나가가지고 {큰돛대를} 내려오고 바람 불 적에는 이~ {작은돛대만} 달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 바람 심하면.
- ⇒ 명태바리 하는 사람은 마카 작은. {작은풍이} 있고 큰풍이 있다고.
- ⇒ 그때는 그 저 목선 가지고 이 {풍} 달고 인제 침부터 잡았어.
- ⇒ {큰돛하고} 양호돛하고. / 그렇지. {큰도꾸는} 내려오고.
- ⇒ 뒤에는 {큰모에}. 큰모에는 아주 나무 굵은 기. 짝 배. 배 저.

3) 풍대, 활대, 아도, 아돛줄, 용총줄

풍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을 ‘풍대’ 또는 ‘활대’라고 하고 바람에 따라 배를 조정하는 줄을 ‘아도’ 또는 ‘아돛줄’이라고 한다. 돛대의 맨 윗부분을 ‘용총’이라고 하는데 이 용총에 묶어진 이 줄을 사공이 바람의 방향을 보고 잡아 돛대를 조절하는데 이를 ‘용총줄’이라고 한다.

- ⇒ 이거는 뭐야 이게 문 줄이나. 아. {아도라} 그랬잖아. 아도.
- ⇒ {아돛줄}. 참. 아 맞다 인제 아돛줄. 아돛줄은 인제 아돛줄 가지고 인제 사공이.
- ⇒ 작은돛대가 이기. 작은돛대가 있고.그 담에 큰돛대 있으믄 여기 {용총줄} 있어. 용총줄이.

4) 딸, 딸구멍, 딸꼽는구멍

바람에 따라 배를 조정하는 나무로 된 키를 ‘딸’이라고 한다. 배 뒷편에 위치한 것으로 ‘치’ 또는 ‘키’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딸’을 쫓는 구멍을 ‘딸구멍’ 또는 ‘딸꼽는구멍’이라고도 한다.

- ⇒ 그래 {딸은}. 배 밑에 달렸지. 배 밑에. 그래. 딸. 요 요 나무 창든 꺾 딸아. 뭐야 한 도리 잡는 거 나무를 창손이라 한다고. 창손.
- ⇒ 배 뚜껑 요기 딸 들어갔는 딸 저 뭐야. {딸구멍이지} {딸꼽는구멍}.

5) 놀, 놀구멍, 놀쫓, 놀끈, 놀망치, 놀쫓다이, 낫부, 조선놀, 우리나라노, 일본놀, 왜놀
물을 헤쳐 배를 나아가게 하는 기구를 ‘노’라고 한다. 나무로 만드는데 물 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납작하고 손잡이 부분은 가늘게 만든다. 이러한 ‘노’는 이 지역에서는 ‘노’ 또는 ‘놀’로 말해진다. 주로 목선에서 사용했지만 엔진이 달린 기계배에서도 배에 이상이 있을 때 사용하기도 했다. ‘노’보다 ‘놀’의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같은 의미로 ‘놀까지’가 사용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노’ 또는 ‘놀’이 결합된 배의 부분 명칭이 많았는데 ‘놀구멍, 놀쫓, 놀끈, 놀망치, 놀쫓다이, 낫부’가 있었다. 먼저, ‘놀구멍’은 노 즉 ‘놀’을 꽂는 구멍을 가리키는 말로 노를 박는 넣는 구멍을 말한다. 이곳에 노를 꽂은 후 젓어 배를 나아가게 만든다. ‘놀끈’은 노를 조정하는 끈을 가리키는 말로, ‘놀망치’는 노를 잡아 당기고 미는 부분인 손잡이를 가리키는 말로, ‘놀쫓’ 또는 ‘노젓’은 노를 고정시키기 위해 배 바닥에 구멍이 뚫린 곳에 박는 데 이 부분이 성기와 닮았다는 데에서 연유한 말이다. 이곳에 노를 고정시킨 후 밀거나 당겨 배를 움직인다. 이는 도모에 있는 합판 즉, 주로 도로까지에 위치한다. ‘놀쫓다이’는 놀쫓을 두는 곳을, ‘낫보’, ‘낫부’는 노에 묶는 줄 또는 끈을 말한다. 노가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게 노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노는 그 모양과 재질에 따라 크게 ‘조선놀’과 ‘일본놀’로 구분된다. 먼저 ‘조선놀’은 ‘우리나라노’라고도 하는데 조선, 한국에서 만든 노를 가리키는 말이다. 일본노에 비해 노의 폭이 좁고 가늘다. 그래서 힘은 적게 들지만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반면 ‘일본놀’, ‘일본노’ 이라고도 하고 ‘왜놀’이라고도 한다.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온 노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때 ‘일본노’는 힘이 많이 들지만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한다.

- ⇒ 이게 그리고 이기 {노거든} 이게 엔진이 이상이 있거나 꺼졌을 때 이 노를 저어가지고 다 했던 말이야.
- ⇒ 아. {놀까지} 아이고 놀이라 그러지.
- ⇒ 그래 놀에는 여기 여기 가문 {놀구멍이} 있고. 여계 놀구멍.
- ⇒ 그럼 여기다가 배 또 뭐 했는가 하문 {놀끈이라고} 있어. 놀끈. 내려가는 건 내려가지만 거 파도 이 땡길 적에도 이놈을 저 놀끈을 이래 올려가지고 땡기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 배가 인제 그 힘에. 그러이 놀. 놀. 그거는 노를 재쳤다가 또 이쪽으로 올 적에는 또. 또 재. 뭐야 앞으로 재쳤다가 이러거든.
- ⇒ 어 손잡이는 {놀망치라}.
- ⇒ 놀쫓. 응. {놀쫓}. 그리고 우리 요건 뭐라 그랬어. 이기. 놀거리라 쟤쥬? 요기. / {노젓} 도모 저저.
- ⇒ 배가 된데. 이 노를 우리가 그 당시에 어든 놀쫓을 어든 {놀쫓다이를} 어데 걸었었소.
- ⇒ 요 낫보. {낫보라고} 있제. 낫보. 그 전에는 일본에는 낫보라는 줄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 놀. 배. 배 우에다가 배 우에다가 매고 그걸 매고 거 끈가리를 고리를 요렇게 양갈래로 고리 고리 저 거 없이 그래 두 갈래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여 정구지. 요 우에다가. 여기 정귀야지 올라야지 더 더 내려가지 않지. 어.
- ⇒ 그래서 {우리나라노는} 잘 안 뿌러지지만 일본노는 뿌러지는 수도 많지.
- ⇒ {조선놀은} 힘이 좀 덜 들지. 덜 지고 좀 배 속도가 좀 늦. 늦지.

- ⇒ {일본놀이} 있고 저 {조선놀이} 있고. 차이는 일본놀이는 이. 이기 감각이 그게 가지고 이짜이 우에가 편편하기 때문에. 편편하기 때문에 사람이 땡기고 미는 힘이 많. 더 많지.
- ⇒ 이 노 자체도 우리 {조선노가} 있고 {일본노가} 있어. 왜노. 왜놀이라고. 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조선놀은 참나무로 만들었어. 참나무로. 참나무 깎아가지고 인제 그 노를 만들었고. 일본사람들이 쓰는 것은 거 일본노는 이 나왕. 그 대북 나무로서 해가지고 그 만든 노고. 노가 좀 틀리지.

6) 중간칸, 고닥칸, 막고닥, 큰칸, 기관실, 선장실, 방짱, 데끼, 말통, 이깨수칸

배 안의 여러 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공간들은 각자 그 기능과 성격을 지닌다. 먼저, 선장이 머무르는 공간을 ‘선장실’로, 기관장이 머무르는 공간은 ‘기관뺑’ 또는 ‘기관실’로, 선원들이 자거나 쉬는 공간은 ‘방짱’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그물이나 돌을 넣어두는 배 칸을 ‘돌영는칸’이라고 하고, 고닥의 제일 위쪽을 가리키는 칸을 ‘막고닥’으로, 가장 큰 크기의 칸으로 배 위에 있는 가장 넓고 큰 공간으로 돌을 넣는 행위를 하는 곳을 ‘큰칸’으로, 중간 크기의 칸으로 주로 그물에 줄을 연결하거나 돌을 다는 공간을 ‘중간칸’으로 말한다. 또 ‘큰칸’ 앞에 있는 작은칸을 ‘고닥칸’이라고 하는데 배 앞에 위치한다. 이러한 공간은 ‘중간칸-고닥칸-큰칸-기관실-선장실-방짱’으로 위치한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고기를 넣고 보관하는 공간으로 ‘말통’과 ‘이깨수칸’, ‘데끼’가 있다. 이 중 ‘말통’과 ‘이깨수칸’은 모두 배 밑 바닥에 고기를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때 살아있는 고기를 담은 칸을 ‘이깨수칸’이라고 한다. 살아있는 고기를 담은 칸이므로 낚시바리 배에만 이 공간이 있고 시망바리 배에는 없다.

- ⇒ 여게 인제 목선들은 여기. 여기서 {돌영는칸}. 이렇게.
- ⇒ 감아가지고 인제 자꾸 땡기른 한 사람은 그 저 이 줄은 인제 뭐야 저 그게 복잡하지 않는 데다가 사래 놓는다고. 바로 {기관뺑} 옆으로. / 기계. 지금 {기관실이지} 뭐.
- ⇒ 요게 인제 {방짱이고}.
- ⇒ 묘시 보고 인자 {막고닥이라} 그러지. 켈 우에 보고.
- ⇒ 그러니깐 우리 여기 {말통에}. 말통.
- ⇒ 여기 {선장실}.
- ⇒ 그 담에 이건 뭐로. 지금 현재 {이깨수칸이지}. 이 앞이.
- ⇒ {큰칸은} 요 앞에 있지. 여게 큰칸이지.
- ⇒ 그냥 막 부르긴 {중간칸이라} 그러지.
- ⇒ 쪼그마한 칸이거든. {고닥칸이}.

7) 이깨스통, 물통, 어창

배 안에는 생선을 보관하는 통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중 산고기를 저장하는 통을 ‘이깨스통’이라 말한다. 반면 ‘물통, 어창’은 죽은 고기를 저장하는 통을 말한다. 이 중 ‘어창’은 잡은 물고기를 보관하는 어선 안에 있는 창고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 ⇒ 아.{이깨스통}. 물로 고기 영는 걸 하는 기 이깨스통이라.

- ⇒ 물통 {물통이라}.
- ⇒ 그건 {어창이지}. 이깨스는 인자 이깨스는 활어를 해야 이깨스가 되고. 우리는 어창으로 그렇지.
- ⇒ 그래 요 우에 인제 칸 열 수 있는 데끼. 칸마다 이런 이런 칸이 있잖아. 이 {데끼}.

8) 로라, 망깨

앞에서 배에서 일하는 선원에는 이들이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로라마끼’와 ‘망깨재이’로 말해지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고기가 걸린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라’는 그물을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를, 그물이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로라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주로 지그재그식으로 된 양망기 모양의 도구를 ‘망깨’라고 한다. 이때 그물을 감는 도구를 ‘토시’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고기가 상하지 않고 잘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 그래가지고. 로라로 인제 {로라} 가지고 감아 올리지. 틱대는 틱대는.
- ⇒ 이 뭐야. 그물 땡기고 이러든 그물 옛날엔 {망깨가} 앞에 걸래 가지고 여여여 노꾸라 식으로 망깨가 있거든. 망깨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양쪽으로 뭐 저 그거 해가지고 인제 푸다구리가. 망깨 사람이 몇 개나.
- ⇒ 인제 올리면은 그 노꾸에다 이래 매놔으니까네. 밑에 그 저 안까. 저 뭐야. 안까줄이지. 그물 맺는 줄이 있으니까네. 거서 인제 글러가지고 깃발 있는 데로 같이 옆에 갖다 세워놓고. 세워놓는 그 줄을 망깨다 올라가지고 인제 감는 거지. 토. {토시다가}. 로라. 로라로 인제 감는 거야.

9) 수장, 스푸루/수쿠루, 어탐, 조까이

목선의 밑에 물이 들어오면 이때 물을 떠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부분은 ‘수장’이라고 하고, 배 뒷부분에 달린 프로펠러 모양의 기구는 ‘스푸루’ 또는 ‘스쿠루’라고 하고, 물고기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기계는 ‘어탐’이라고 한다. 프로펠러 모양의 ‘스푸루’를 올려주고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조까이’라고 한다. 위험한 곳에서 사우드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들어 올려주고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 항구에 들어오면 올리고 바다로 갈 때는 내린다.

- ⇒ {수장이라는} 게 나무를 가지고 판때기를 가지고.
- ⇒ 여 오면 또 뒤에 {스푸루가} 있고.
- ⇒ 이거는 뭐야 이게 문 줄이나. 아. {아도라} 그랬잖아. 아도.
- ⇒ {아돏줄}. 참. 아 맞다 인제 아돏줄. 아돏줄은 인제 아돏줄 가지고 인제 사공이.
- ⇒ 그래 거 백삼십발 그래 했는데 거서 뭐 메다 수가 우리 다 알지. 그때 시망바리는 {어탐이} 있기 때문에. 그 백사십. 백오십. 그저 뭐 이 정도로 했지. 가에 들어오면.
- ⇒ 요 뒤에. 거 지금 {조까이라} 해가지고 요 우에. 위험한 데는 돌이 있고 이런 데 가삼 올리. 조까이 식으로 해가 올린단 말이야.

10) 종로, 창손, 창손대, 치

돛대의 윗부분에 있는 것을 ‘종로’라고 하고, 배의 방향을 잡는 키의 자루, 즉 손잡이를 ‘창손’으로, 키를 조정하는 창손의 나무 부분을 ‘창손대’라고 한다. 또 배를 조정하는 것으로 키를 가르키는 것을 ‘치’라고 한다. 이 ‘치’는 다시 그 위치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었는데

그래서 ‘치’에서 손잡이 부분만 ‘창손’을 의미하고 있었다.

- ⇒ 요 위에 이. 이기 {종로}.
- ⇒ 물 속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인제 {창손} 잡아가지고.
- ⇒ {창손대}. 대가 요렇게 가운데 또 있지.
- ⇒ 그렇지. 그래가지고 인제 그 우리 나갈 선장이 인제 {치} 잡고 할 적에는 선장 기관장만 안 자고는 선원들은 다 자지.
- ⇒ 그러이 바람 불고 이럴 적엔 앞에서는 사람이 하나 나가가지고 {큰돛대를} 내려오고 바람 불 적에는 이~ 작은돛대만 달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 바람 심하면.

배의 명칭을 배 안의 장소와 부분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배의 부분 명칭

구분		어휘 항목
배	부분 명칭	묘시(고닥), 후미, 딸(치, 키), 딸구멍, 창손, 아돛줄, 용천대, 용천줄, 도구(돛풍), 돛대, 작은돛대, 큰돛대, 우구새, 도모, 뒷도모, 헛도모, 이물, 아시당, 토시(로라), 솟기, 뒤합판, 큰모에, 가라, 고닥, 큰풍다는곳, 용충, 돛풍, 큰풍, 작은풍, 다수, 도모마쭈라(배갈비), 삼, 오모까지, 도로까지, 바닥, 통도리 중간칸, 고닥칸, 막고닥, 큰칸, 기관실, 선장실, 방짱, 말통, 어깨수칸
	장소 명칭	이깨수칸
	노 명칭	놀, 놀구멍, 놀쫓, 놀끈, 놀망치, 놀쫓다이, 낫부, 조선놀, 우리나라노, 일본놀, 왜놀
		고닥, 고물, 바닥, 배앞, 가라, 삼, 옆삼, 헛도모, 뒷도모, 도모마쭈라, 오대기, 운두, 오모까지, 사우도, 활가지, 용천대, 도구 / 돛, 데끼



[사진 9] 풍선

5.2. 착용 도구

5.2.1. 옷

1) 솜바지, 물저고리(덧저고리), 솜우아끼, 도꾸리사수(속에입는사수)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 어부들은 옷을 잘 챙겨 입었는데 주로 솜을 넣어 누빈 옷을 많이 입었다. 그래서 솜저고리 안에 입는 목이 있는 속옷을 ‘도꾸리사수’ 또는 ‘속에입는사수’로, 밑에 입는 바지는 ‘솜바지’로 위에 입는 옷은 ‘솜우아끼’로 말했다. 이 중 ‘솜우아끼’는 덧입는 옷이라는 의미에서 ‘덧저고리’라고, 또 겉에 입는 옷이라는 의미에서 ‘물저고리’라고도 한다. 물에서 주로 입는다는 의미에서 ‘물-’이 결합하거나 솜을 넣어 입는다는 의미에서 ‘솜-’이 결합되어 나타났다.

- ⇒ 옛날에는 바지도 {솜~바지} 해가지고.
- ⇒ 그래 입고. 또 이제 {솜~ 우아끼로} 이래 지다한 거 해가지고 우에다 덮지. 추우이.
- ⇒ 거기 인제 {솜저고리} 거기야.
- ⇒ 뭐 {도꾸리사수} 같은 거. 그거 뭐 겨울엔. 도꾸리 도꾸리 같은 목에 올려가는 거 도꾸리 같은 거 입고 아주 뜨시게 해가 가거든.
- ⇒ 덧저고리라 더러. 물. {물저고리라} 하지.

3) 갑빠, 초마갑빠, 방한복

옷 위에 덧입는 것으로 방수용으로 된 것을 ‘갑빠’라고 하는데 이러한 ‘갑빠’는 ‘갑바’로도 발음되고 있었다. 치마 모양의 갑빠를 ‘초마갑빠’, ‘앞치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는 부엌에서 주부들이 입는 앞치마와 같은 기능과 모양을 지녔다는 의미에서 말하고 있었다.

- ⇒ {초마갑빠라고} 했지.
- ⇒ 여기서 이렇게 고리개 달아가지고 요기 요렇게 해가 요기 이렇게 붙들어 매고 그래 {앞치마라} 이래지. 이래도.
- ⇒ 삼월 초까지 그냥 나뒹요. 삼월 초까지 놔뒹다가 어느 정도 몇 프로 말렸다. 그러면 놔뒹다가 우에 비 왔. 비 맞지 않게 {갑빠로} 덮어뒹버려요. 덮어. 덮었다 덮어놓고는 예전에는 그냥 뺏겼는데 옛날에 그냥 뺏기고 요즘 한 번 더 덮었뒹렀다가 나중에 관태 해버려요.
- ⇒ 덮는 거 용어 없어요. {갑바로} 비 안 맞게 덮는 거백에. {갑빠} 가지고 마이.

5.2.2. 모자

1) 털모, 빵모자, 반모

배에서 쓰는 모자를 가리키는 말에는 ‘털모, 빵모자, 반모’가 있다. 이들은 모두 방한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리고 있다. 이 중 ‘빵모자’는 빵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반모’는 얼굴 중 절반 부분을 가리고 쓰는 모자라는 의미에서

나타난 말이다. 빵모자의 형태를 지닌 것으로 속에 털이 있는 모자를 ‘털모’라고 한다.

- ⇒ 빵모자. {빵모자로} 됐는데.
- ⇒ 어 그래 속에 터래기 있는 거. 시장서 사가지고 시는 기지. {털모라} 이러지.

5.2.3. 버선, 신

1) 코버선, 장화

버선의 머리 부분이 사람의 코처럼 나온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많이 신고 다니는 버선을 ‘코버선’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버선은 여성들이 주로 신는 것이지만 어부들은 추위에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안에 양말을 신고 다시 코버선을 신은 후 장화를 신었다. 장화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였다.

- ⇒ 신발은 주로 {장화}.
- ⇒ 여자들 이 {코버선} 있잖어? 그런 거를 거다 숨을 뉘가지고 그래 두잡아 가지고 그래 신고 땡기지.

5.2.4. 기타류

1) 패철, 화덕, 나바리

배 안에서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나침반을 ‘패철’로, 또 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화력을 제공하는 도구를 ‘화덕’라고 한다. 그물에 다는 낚을 ‘나바리’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러한 명칭은 동해안 지역인 영덕, 울진, 경주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 ⇒ 보고 재고서는 남. 남북으로 인제 첨에는 너무 올라왔다 싶으면 북. 저저 콤포스를 보고 저 {패철을} 하지. 그거는 육지에서는. 그니 바다서는 콤포스라 그런다고. 그래 그걸 보고서내 출발을 해도 조금 빗. 빗나는 수가 있거든.
- ⇒ {화덕}

5.3. 채집 도구

5.3.1. 그물

한 곳에 그물을 쳐 놓고 고기 떼가 지나가면서 걸리도록 한 그물을 이 지역에서는 ‘시망’ 또는 ‘자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물바리’를 ‘시망바리’라고도 말하고 있었다. 명태를 주로 잡는 그물을 ‘명태그물’ 또는 ‘시망명태그물’로 말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그물’과 ‘시망’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데 ‘시망명태그물’의 경우 ‘시망’과 ‘그물’이 동일한 말이지만 다른 형태로 함께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물은 그 잡히는 어종에 따라서

‘새치그물, 가재미그물’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형태와 특징에 따라서 ‘딩박그물, 투망, 초망’으로도, 코의 크기에 따라서는 ‘바그물, 세치(짜리)’로, 어디에서 사용하냐에 따라 ‘바닷그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그물은 예전에는 명사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나이롱줄로 만든 ‘나이롱그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그물 코의 크기도 예전의 ‘두치오부, 세치짜리’에서 지금은 ‘두치짜리, 두치팔푼’을 사용하고 있어 코의 크기가 더 줄어들었다고 한다.

- ⇒ 그전엔 여게 이 {시망}. 이 바다 땡기는 사람은 여림은 빗길 가는 사람 스무 명이 다다. 동네서. 그거 인제 {명태바리} 안 한 사람 다 드가서 인제 그 빗겨 주구 저 돈 받고 또 명태 내가 마이 얻어가지고 이래니. 마이 땡겼지만 지금은 그거 잡는데도 빗길 사람도 없어.
- ⇒ {그물로} {자망으로}.
- ⇒ [그물도] 비쌀 뿐더러 그때 당시는 그렇게 여유있게 그물을 못 내가지고 나도 시집와가지고 나도 {시망명태그물} 내가 다 매고 보망. 우리 딸내미 가지가지고 정월달에 아~를 낚는데 그 겨울에 정월달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그물 다 곤쳐가지고 놔두면 우리 어머니 인제 뱃머리 가 싣고 가고. 실. 또 떨어진 거 또 가져오면 또 그거 고쳐노면 그날 또 싣고. 그 담날도 싣고 오고.
- ⇒ {바그물이} 아이고 몇 치짜리나. 그거 코도 코도 크는데. 바그물 저 이제 코술 우리 손이 그게 다 들어가니까. 그게 뭐뭐. 그거 몇 치짜린지 모르겠네. 그거는 방어만 잡는. 잡는 기고.
- ⇒ 세치짜리는. {세치짜리는} 그물을 안 썼어.
- ⇒ 곰 그기 인제 그것도 마이 특 걸리. 그건 가다 걸리면 백에. 그 저 굵은 줄. 굵은 그물이 거 보호하는 그물이 {나이롱그물인데} 안 떨어지거든.

1) 밴대이, 양까, 후레, 큰(돌), 사잇줄, 촛기, 알기, 아랫빌, 우꾸새, 섭살

‘시망’을 넓게 펼치면 위, 아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물의 가장 위쪽 부분을 위쪽이라는 의미에서 ‘우꾸새’, ‘우구새’로, 아래쪽 부분에 낚이 들어가는 줄을 ‘아랫빌’로, 그물의 중간 부분은 ‘밴대이’라고 한다. 이 중 ‘아랫빌’은 그물에 밀밥이 들어가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그물은 바다에서 세로로 서 있어야 그물 속에 고기가 걸릴 수 있는데 이때 밑에 무게를 주는 것을 ‘양까’ 또는 ‘큰(돌)’이라고 한다. 그물 윗부분 중 힘을 받는 부분은 그물이 물 속에서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다마’를 달아 형태를 유지하고 밑에는 돌로 만든 ‘양까’를 달아 그물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윗부분의 힘을 ‘웃기’라고 한다. 이 경우 위에는 바다 속의 그물의 위치를 알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촛기’와 그 깃발의 위치를 알게 해주는 ‘알기’를 단다. 그물의 양쪽 부분은 ‘섭살’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일반적으로 그물의 눈을 가리키는 말은 이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그물코’로 나타났다. ‘그물코’의 크기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를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물의 부분 명칭에는 일본어의 영향으로 인한 외래어와 한자어, 고유어가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중간은 {밴대이}.
- ⇒ 그래 {그물코가} 어느 정도 맞게끔. 이제 적수로 맞게. 맞게끔 해가지고 땡기기 때문에. 짝은 건 덩구지.

- ⇒ 보통 사람이 땡겨도 안 떨어져. 그러이 거기 속그물이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가다 걸리든 총 내려가든 그물 사래내리와서 산마이 칠 적에는 {그물살이} 올라가게끔 막 우에다 올려놓잖아.
- ⇒ 지금 인제 우에 거는 {우구새}, 우에 {우꾸새}.
- ⇒ {섭살이라} 그러지. 이러면 양쪽 그러면.
- ⇒ 고기 한꺼번에 탁 걸리든 그물이 시지 안 돼뿌리지 않는가. 우에 웃기가 약하면은. 그래 여기 인제 {웃기를} 시게 하니라고. 그물 웃기 좀 시게 하니라고 다마를 달아.

2) 시망다마(유리다마, 큰다마, 작은다마, 뽀때기), 건노, 닥사개

‘시망’은 ‘시망다마’와 ‘건노’가 필요하다. 이 중 ‘다마’는 그 크기와 재질에 따라 다시 명칭이 분화되어 ‘큰다마, 작은다마’와 ‘유리다마’로 나타났다. 또 그물에 있는 줄을 ‘건노’라고 하는데 이는 주로 망성바리에 사용하는 것이다. 가장 앞에 놓는 그물인 ‘선채’와 가장 뒤에 놓는 그물인 ‘후채’에 깃발을 단 후 그 뒤에 반짝거리는 등을 단다. 이 반짝거리는 등은 야간에 자신의 그물의 위치를 알기 위해 단 것인데 그 모습에 연유해 ‘뽀때기’라고 한다. ‘뽀때기’는 작업을 하는 초기가 아니라 후기에 개발된 것이다. 한편 그물은 그 크기가 있어 영키기 쉬운데 이때 영키지 않도록 보자기 모양의 천으로 싸는 것을 ‘닥사개’라고 한다.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기 전에 닥사개에 싼 그물을 가주고 나간다.

- ⇒ {건노}. 우리가 망성바리 하는 기 요건. 요걸 보고 건노라 한다.
- ⇒ {아랫빌}. / {아랫빌이라고} 그래. 빌.
- ⇒ 돌로 만든. 돌로 만든 {안까야}. 이걸. 요거 요거는 인제 좇기고. 좇기 대로 줄이 인제 착 여기 내려 와가지고 백삼십발이면은 어 메다수로 따지면은 한 이백메다?
- ⇒ 인제 올리면은 그 노꾸에다 이래 매봤으니까네. 밑에 그 저 안까. 저 뭐야. {안까줄이지}. 그물 맺는 줄이 있으니까네. 거서 인제 글러가지고 깃발 있는 데로 같이 옆에 갖다 세워놓고. 세워놓고는 그 줄을 망깨다 올라가지고 인제 감는 거지. 토. 토시다가. 로라. 로라로 인제 감는 거야.
- ⇒ 그래. 계속 손질하기 때문에. 고기 없으면 안 걸리지만. 거게 또 그물에다가 다마를 조꼬만 다마를 달기 때문에. 그건 왜 다냐 그럴 것 같으면 그물에다 다마 다는 건 고기 아주 {시망다마라고} 쪼꼬만 그긴데. 고것도 다마가 두 가지가 있어. 큰다마가 있고 작은다마가 있는데 그래 몇 칸 가다가 큰 다마 하나 매고.
- ⇒ 그 {유리다마가} 시망그물에 그 들어가는 다마거든.
- ⇒ 어. 거기를 또 어떡하나 같으면 그 전에는 야간에 저저 하~ 이 뽀가지 깃발 밑에다가 여 뽀때기라고 있어. {뽀때기}. 그 그때는 좀 발. 발명 돼가지고 뽀때기 불이 인제 고기~ 그니까네 이하. 이 그거는 이십사시간이면 뭐 나간다 하지만은 요건 가끔 인제 반짝 반짝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가더라고. 그래 고거 고 표시 냈는 데를 가다 가보고 우리 깃발이 아이면 우리끼 아이고. 아이다 이려고 대개 뽀. 뽀때기는 인제 많이 달아놓는다고.

3) 이찌마이, 니마이(×), 산마이(삼마이), 삼중망, 오삼마이, 흘그물, 속그물, 안그물, 겉그물

흔히 흘그물을 달리 부르는 말로 외종망이라고 한다. 이처럼 그물은 망의 겹에 따라서도 명칭이 바뀌는데 망(網)이 하나인 것은 ‘이찌마이’ 또는 ‘흘그물’이라고 하고 두 개인 것은 ‘이

중망' 또는 '니마이', 세 개인 것은 '삼중망' 또는 '삼마이'라고 한다. 이 중 '홀그물' 또는 '이찌마이'는 그물의 망이 하나이다 보니 다른 그물에 비해 그물이 끊어지거나 손상이 될 확률도 높고 어획량이 많지 않다. '니마이'는 '외그물'에서 망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을, '삼중망'은 그물의 망이 세 개인 것으로 '홀그물'보다 더 튼튼할 뿐만 아니라 어획량도 많아 효율성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니마이'는 어형은 존재하나 이러한 말을 나타내는 실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오삼마이'라는 그물 중 큰 것을 뜻하는 '오'와 세 겹을 뜻하는 '삼마이'가 결합된 말이다. 곶을 잡는데 주로 사용한 그물이다. '홀그물'은 다른 그물의 속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또는 안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말로 '속그물' '안그물'이라고도 한다. 이와 반대로 이중 또는 삼중의 망에서 그물의 곶에 사용하는 그물을 '곶그물'이라고 한다.

- ⇒ {홀그물}. 홀그물.
- ⇒ 요새는 요 밀. 뭐야 몇 달 전까지 바닷그물 {오산마이} 부렸어.
- ⇒ 그래 {이찌마이} 니마이 산마이 그래 부르지 않는가.
- ⇒ 산마이 그물은 {속그물}이 너 치면은 {곶그물}이 이기 이기 아주 이래 큰 기 있어. 이 이거는 그물을 보호. 보호해주는 그래 산마이 그물이 인제 속에서 눈빠리가 많으니까 아무 고기래도 가다가 그하면은 주머니처럼 축 내려간다고.
- ⇒ 그것도 오산마이는 아니고 그저 {산마이} 그러지. 작은. 작으니까. 어. 산마이 그물. 그것도 세. 세겹이지.
- ⇒ 그렇지. 이거 {삼중망}이지.
- ⇒ 양미리바리가 거기 {팔푼짜리} 기야. 한 치도 안 돼.

4) 코솔이, 바그물, 바닷그물

바다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물은 '바닷그물'이라고 한다. 즉 '이찌마이, 두푼짜리'와 같은 그물을 아우르는 상위어라고 할 수 있다.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듭을 '코'라고 한다. 코와 코를 잡아맨 눈이 모여서 하나의 그물이 된다. 이 중 그물의 코가 작은 그물은 '코'가 '술다(좁고 작다)'의 의미로 '코솔이'로, 주로 크기가 큰 방어를 잡는데 사용하는 코가 큰 그물은 '바그물'로 나타낸다.

- ⇒ 영덕에는 거 그쪽으로는 {정치망들이} 많았어요. 영덕에는.
- ⇒ 이거는 뭐 두 치? 아. 코. {코솔인데}. 이거는.
- ⇒ {바그물}이 아이고 몇 치짜리나. 그거 코도 코도 크는데. 바그물 저 이제 코솔 우리 손이 그게 다 들어가니까. 그게 뭐뭐. 그거 몇 치짜린지 모르겠네. 그거는 방어만 잡는. 잡는 기고.

5) 두치¹⁹⁾, 세치짜리, 너치그물, 다섯치, 다섯치반, 팔푼짜리, 바그물

'팔푼짜리'는 코의 크기가 한 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주로 양미리를 잡는 그물을 말한다. 작고 가는 양미리를 잡을 때는 팔 푼 또는 칠 푼의 그물을 사용한다. '두치' 또는 '니

19) 단위명사로도 사용되고 있고 그물을 나타내는 명칭으로도 사용하고 있어 띄어쓰기가 통일되지 않았다. 단위명사의 경우는 띄어쓰기로 나타내었고 명칭으로 사용될 경우는 붙여쓰기를 해 이를 구별하였다.

마이'를 말하는 두겹의 그물은 실제로는 이러한 말은 있으나 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세치짜리'는 가자미를, '너치그물'은 명태를 잡는 것에 주로 사용하는 코의 크기가 네 치인 그물을 말한다. 주로 우럭, 놀래기, 새치, 열개이, 가리재이, 명태를 잡는 데 사용한다. '다섯치'는 코가 큰 그물로 '바그물'에 해당하는 그물로 방어 정도의 크기의 고기를 잡는데 사용한다. '다섯치반'부터는 '바그물'에 해당하는 그물을 나타낸다.

- ⇒ 두치. 그래 {너치그물} 가지고 시망바리 하고. 그리고 저저 갓바리 하는 것이 갓바리 할 적에도 그래 너. 너치 가지고 해. / {네치}. 네치짜리 그물 가지고 이래 잡았다고.
- ⇒ 이찌마이는 그물 한마이. 하나 가지고 하는 거고. {니마이는} 없고 거 산마이가 있고. 니마이는 없지.
- ⇒ {다섯치도} 안 불고. 그래 바그물.
- ⇒ 다섯 치 넘을. 넘을 만치. {다섯치반이나} 이래 될 기야.
- ⇒ {두치}. 그래 너치 그물 가지고 시망바리 하고. 그리고 저저 갓바리 하는 것이 갓바리 할 적에도 그래 너. 너치 가지고 해.
- ⇒ {바그물이} 아이고 몇 치짜리나. 그거 코도 코도 크는데. 바그물 저 이제 코술 우리 손이 그게 다 들어가니까. 그게 뭐뭐. 그거 몇 치짜린지 모르겠네. 그거는 방어만 잡는. 잡는 기고.
- ⇒ 세치짜리는. {세치짜리는} 그물을 안 썼어.
- ⇒ 양미리바리가 그기 {팔푼짜리일} 기야. 한치도 안 돼.

6) 선채, 후채

먼저 놓는 그물을 '선채'라고 하고 뒤에 놓는 그물을 '후채'라고 한다. 선채는 붉은 깃발을 주로 남쪽에 달아 그 위치를 표시한다. 깃발 위에는 '어성호, 진흥호'와 같이 배 이름을 적어 놓아 자신의 그물을 알도록 한다. 반면 '후채'는 흰 깃발을 달아 표시를 하고, 북쪽에 놓는다.

- ⇒ 이기 이기 인제. 이기 뭐 {선채} 후채. / {선채는} 빨간 표시고.
- ⇒ {후채는} 후채는 흰 패. 흰 깃발이고 그래.

7) 발, 닥, 필, 치, 푼

그물의 길이를 세는 단위는 '발'로, 그물을 세는 단위는 '닥'으로 나타난다. 보통 한 닥은 오십 발 정도를 의미하고 이들은 동일한 의미로 '한 필' 또는 '한 닥'이라고 한다. '한 필'은 보통 백에서 백오십 미터를 말한다. 어부들은 바다에 갈 때 세 닥을 가주고 가서 한 닥은 바다 밑에 둔 그물과 교체를 하고 한 닥은 새로운 곳에 둔다. 그물의 코의 크기는 '치' 또는 '푼'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면 '두 치 너 푼'이라는 형태로 '치'와 '푼'이 나타나는데 '치'보다 적은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푼'이 사용되고 있었다.

- ⇒ 그렇지. 그래가지고 인제 으깨은 한 일고 {여덟 발} 놓다가 이런 돌을 인제 하나씩 매가지고 매 친단 말이야. 그러면 인제 부석 떼는 사람은 인제 그래 인제 저 다마이 있고. 그물에 다마이 있

- 고 유리잖아. 그니깐 전에.
- ⇒ 어. 이백메다. 여래서 이기 여기 와가지고 인제 그물에 인제 착착 돼 있으면 한 닥이 어~ 백 메다. 이 한 쪽이. 한 {닥이} 백 메다면은 여기서 여기서부터 요 다음 그물은.
 - ⇒ 그래 그래되믄 팔십 발 내지 한 구십 팔십닷 {발꺼진}. 구십발 미만으로 나온다고. 발수 큰 사람은 뭐 팔십닷 발 나오고.
 - ⇒ 우리도 볼 적엔 두 {치}. 너 폰.
 - ⇒ 보통 두치. 두 {폰}. 두 치 두. 두 폰 오리.
 - ⇒ 그기 주름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 살로 펼치면 한 백에 오십 메다 되지. 한 {필이}.

그물의 종류와 명칭을 그 특징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그물의 종류와 명칭

구분		어휘 항목
재료에 따른 명칭	예전	명사 / 두치오부, 세치짜리
	요즘	나이롱그물 / 두치팔폰, 두치짜리 시망명태그물
기타 명칭		이찌마이, 니마이(×), 삼마이(삼중망)/ 오삼마이, 홀그물/ 속그물(안그물), 바그물/ 바닷그물
그물코	한치팔폰	새치, 가리재이, 이면수, 도루묵, 오징어, 앵미리
	두치	청어, 대구새끼(두치 또는 코소리)
	두치오부~세치	명태(사람에 따라 '너치'를 말하기도 함)
	세치	가자미
	네치	광어, 가자미, 열개이
	다섯치	-
	다섯치 반	방어
부분 명칭	여섯치, 일곱치, 여덟치	대게, 홍게
	기타	밴댕이, 앙까, 후레, 돌(큰돌)/ 사잇줄/ 좃기, 알기/ 아랫빌, 우꾸새, 섭살
기타		선채, 후채

5.3.2. 낚시

1) 낚수, 설대, 대나무, 찍기대, 초리, 말기, 보채, 낚수함지, 모릿줄, 아릿줄, 사잇줄

낚시와 같은 말을 이 지역에서는 '낚새, 낚수, 낚수'라고 한다. 이를 같은 의미를 지니는 말로 '주낚' 또는 '주나끼'도 사용되고 있었다. 이 중 이 지역에서는 '낚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설대'는 낚시를 낚는 대나무 대를 가리키는 말로 보통 육십에서 칠십 센치의 나뭇대에 반을 가른 후 그 사이에 낚시를 꼽는다. 그것을 '찍기대'라고 한다. 굵기는 보통 2부에서 3부 정도이다. 낚시 250자리를 '찍기대'에 꽂아 둔 것을 '찍개'라고 한다. 이러한 낚시에는 고기의 밥인 '미끼'를 다는데 '밀가서, 매까 미끼, 매끼, 매까'로 실현

된다. 이러한 미끼로는 ‘앵미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를 많이 사용되는 순위로 제시하면 ‘앵미리(영미리, 양미리) > 새치 > 이까, 전어, 이면수’이다. 한편, ‘낙수’와 원줄인 ‘말기’ 사이를 ‘사잇줄’이라고 하고, ‘원줄’은 다른 말로 ‘원심’ 또는 ‘말기’로도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명태주낙의 줄을 ‘모릿줄’과 ‘아릿줄’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모릿줄’은 주낙에서 낙시를 매단 가짓줄을 연결하는 기다란 줄로, ‘아릿줄’은 가짓줄을 말하고 있었다.²⁰⁾ 또 낙싯바늘이 섞이지 않게 매는 가는 줄을 ‘보채’라고 하는데 이십에서 삼십 센치 정도의 길이를 지닌다. 이때 낙싯바늘을 정리한 초래기의 밑 부분을 ‘말기’라고 하는데 이는 보통 오십 센치의 길이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낙수를 꽂는 대나무대를 ‘찍기대’라고 한다. 낙시 250자리가 섞이지 않도록 꽂아 두는 나무로 된 대이다. 한편 낙시는 개와 동일한 단위로 낙시 50개를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즉 ‘자리’는 낙시 50개를 나타내는 단위명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낙싯바늘을 기운 작대기를 세는 단위로 ‘초리’가 있었다. ‘초리’는 낙수 250개를 말하는 것인데 보통 한 사람 앞에 네 초리가 들어간 함지를 가지고 나간다. 이러한 ‘초리’는 ‘초래기’, ‘초리기’, ‘출기’로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낙시를 담은 통을 ‘낙수함지’ 또는 ‘함지’라고 한다.

- ⇒ 낙사공인데. {낙수} 놓는 그래 돌이 있어. 돌 요런 거를 얹어 가서래. 얹어 가서래 있으면 요타가 {낙새가} 말이야. 낙수가 지고 전에. 돌 꿰기 전에 매치거든. 그래 인제 거를 따라서 낙수를 한다고. / 그걸 캐놓고 앉아 {낙수를} 이제 모두가 찍는다. 찍. 찍는 거 매끼 꿰서 놓는 걸 찍는다 하고. / {낙수가} 있어. 요렇게. 그 낙수 맨들기도 힘들어.
- ⇒ 내가 따라 땡겨도. 선원을 따라 땡겨도 우리 그물에 낙수나 {주나끼} 하나. 이 그물빠리나 배통에선 이기란 말이요. 내 따라 오지 못 해.
- ⇒ {설대}. 설대 있잖아. 설대. 이 우리 대나무. 설대가 지금 우리 어르신 말씀하신 설대가 길이가 거의 한 육십센치라 칠십센치라 일메다 가까이 되는. 반을 딱 쪼개가지고 밑에 그 줄이 트지 않고 그 사이다 낙시를 꺾는 걸. 그러니깐 한 초리라고. 그기.
- ⇒ 오십자리 한 돈. 그기 인자 다섯 돈이라 그러면 이십오자리고. 고기 인제 즉 말하자면 한 {찍개}. 고걸 인제 하루에 부리는 우리가 여서 부리는 숫자가 에~ 여섯초리기지. 초리기로 여섯초리기라 한다고. 한.
- ⇒ 요새도 문어 잡는 것도 인제 낙시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밀가서} 얹어가지 그래 가지가서 문에 좀 잡고 이렇지.
- ⇒ 이백오십자리를 이 {찍기대다가} 꽂아 노면은. 그걸 보고 한 찍개라 하는데 그걸 여섯 개 동가리를 갖다가 한 대다 찍어다가 나간다고.
- ⇒ 몇 초래기. 한 {함지} 몇 초래기 들어가요?
- ⇒ 주낙이 지금 여기 인제 이 {원줄이야}. 인제. 줄이면은 여기에 간객이 한. 반 발 돼요? 보채가?
- ⇒ 양미리 쓰고. 사람 보면은 뭐 이 저 새치란 이면수 그것도 {매끼로} 많이 하고. / 주로 영미리가 많이 짜지. 그래 영미리 나면 인제 많이 사가지고 인제 짤라 가지고 간을 해놓잖아. 매까 할라고. 마이 저분 놓고든. 그래가지고 그 {매까} 쓴다고.
- ⇒ 낙시에 매는 줄이. 요거는 {말기}.
- ⇒ {보채}. 여기서 이기 줄이 가는 줄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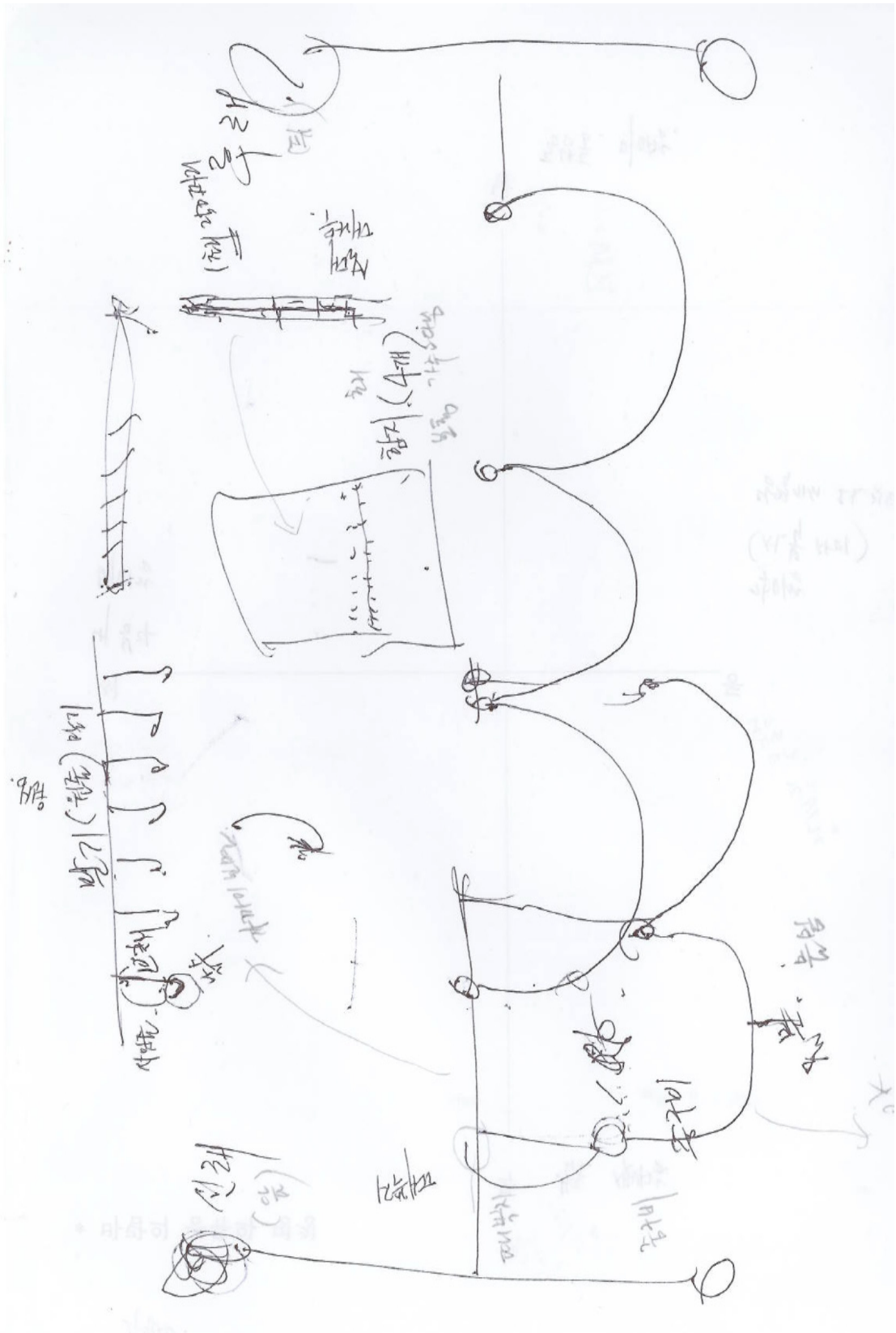
20)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아릿줄’은 ‘용총줄에서 갈려 나간 줄’을 의미하고 있어 의미 차이가 있었다.

- ⇒ 오십 자리 한 돈. 거기 인자 다섯 돈이라 그러면 이십오 {자리고}. 고기 인제 즉 말하자면 한 짝개. 고걸 인제 하루에 부리는 우리가 여서 부리는 숫자가 예~ 여섯초리기지. 초리기로 여섯 초리기라 한다고. 한. 이백오십 자리를 이 찍기대다가 꽃아 노면은. 그걸 보고 한 짝개라 하는데 그걸 여섯 개 동가리를 갖다가 한 대다 찍어다가 나간다고.
- ⇒ 그거는 저거 저거. 저거 낚수 이거 잘해. 우리 꺼 말이야. 우리가 옛 똥가리로 앞에 여덟초리씩 한에 여덟 {초리씩} 가지고 땡겼거든. 땡겼는데.
- ⇒ 대나무가 있으면 설대. 요 인제 대가 서 있으면 설대. 인제 여기는 대. 그럴 때 요긴데 이렇게 반을 딱 짝 쪼개. 그 약간 공간을 둔단 말이야. 그럼 여 낚시 여걸. 줄은 여기다 사리고 여 여 여거를 꼽는 거야.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계속 꼽으면 이게 오십개가 돼. 오십자루를. 한 {출기에}. / 한 초리가 이백오십 자루.

어부가 사용하는 도구를 착용 도구, 채집 도구, 기타 도구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도구 명칭

구분		어휘 항목	
어부	착용 도구	숨바지/ 물저고리(덧저고리), 숨우아끼, 도꾸리사수(속에입는사수)/ 털모(빵모자, 반모)/ 갑빠, 초마갑빠, 방한복/ 코버선, 장화	
	채집 도구	그물바리 (시망바리)	시망다마(유리다마, 큰다마, 작은다마), 건노, 닥사개, 그물
		낚수바리 (주낙)	낚수, 설대, 대나무, 찍기대, 초리, 말기, 보채, 낚수함지, 모릿줄, 아릿줄
	기타 도구	패철, 화덕	



[그림 3] 낙시 관련 명칭

5.4. 덕걸이 도구

5.4.1. 덕

1) 덕, 도리, 층, 덕대(기둥, 덕장목), 보조대, 고랑대(덕목), 가시오

명태를 너는 장소를 ‘덕장’이라고 한다, 이 덕은 세로로 세워진 나무 기둥과 가로로 세워진 나무 기둥이 중심을 이루는데 세로로 세워진 기둥은 힘을 받는 기능을 하고 가로로 세워진 기둥은 명태를 너는 기능을 한다. 이 중 힘을 받는 기능을 하는 것을 ‘덕대, 기둥, 덕장목’이라고 하고 명태를 너는 기능을 하는 것을 ‘도리, 덕’이라고 한다. 이때 명태의 무게로 덕대가 넘어지지 않게 옆에 받침대로 세워두는 나무를 ‘보조대’로, 덕에서 기둥이 되는 나무를 ‘기둥도리’로, 덕대를 고정시키기 위해 엑스자로 고정해놓은 것을 ‘가시오’라고 한다. ‘가시오’는 스무 자에 한 개씩 놓는다. 고랑에 세우는 덕대를 ‘고랑대’ 또는 ‘고랑때’라고 발음하기도 한다.

- ⇒ 됐지? 요게 요렇게 또 묶어잖아. 이게 넘어가지 못하게 요렇게 했는 기 {가시오}.
- ⇒ {고랑이지}.
- ⇒ 그러면은 보통 삼층을 걸면 한 칸에 삼십개 드가는 {고랑대가}. / {고랑때라니까}.
- ⇒ 기둥이지. {기둥도리}.
- ⇒ 옛 옛날엔. 예전 방법은 그 {덕을} 여기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저 명태가 그 그 당시는 화주가 인저 명태가 임자가 화주거든요? 화주가 한 덕에 한~
- ⇒ 보조대. 그냥 {보조대}

2) 상덕, 중덕, 하덕, 상층, 중층, 하층, 상도리, 중도리, 하도리

명태를 널 수 있는 덕대의 가로로 된 나무 기둥을 ‘덕, 도리’라고 한다. ‘도리’는 그 위치에 따라 상도리, 중도리, 하도리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말로 ‘상덕, 중덕, 하덕’이 있다. 덕대에 있는 가장 위쪽 위치에 있는 덕은 ‘상덕’이라고 하고, ‘덕대에 있는 중간 위치에 있는 덕은 ‘중덕’, 가장 아랫 부분에 있는 덕은 ‘하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덕과 같은 의미로 ‘상층, 상도리’가 모두 나타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중덕’은 ‘중층, 중도리’로, ‘하덕’은 ‘하층, 하도리’로 표현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덕은 삼단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를 모두 ‘삼층’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명태 어획량의 감소로 덕의 수도 줄어들어 지금은 이층으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

- ⇒ 이거 여기 {도리가} 약해가지고 보조를 세우는 거 이걸 뭐라 그래.
- ⇒ 하층에 올리 주면은 하층이 중덕으로 또 올리줘. 그러면은 그 {상덕에서} 그럼 고기를 걸어.
- ⇒ 이게 옛날에 {상도리}.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 기둥이.
- ⇒ 요렇게 모아. 모아가지고 거기 이제 {중덕이} 있고. 중덕.
- ⇒ {중도리}. 그렇지. 옛날에는 상 중 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기둥 거기 누구 덕장이야. 이게 이게 쪽 간기 도리야. 하도리. 중. 상도리. 그러면 요 한 칸이 열자라 그랬지. 요기. 요기 열자라

- 그랬잖아. 요게.
 ⇒ 그기 {하덕}. 그기.
 ⇒ 그럼. {하층} {중층} {상층} 이랬지.

덕 관련 명칭을 그 부분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덕 관련 명칭

구분		어휘 항목
덕	부분 명칭	덕, 도리, 층, 덕대(기둥, 덕장목), 보조대, 고랑대(덕목), 가시오
	‘덕, 도리, 층’의 세부 명칭	덕(상덕, 중덕, 하덕)/ 도리(상도리, 중도리, 하도리)/ 층(상층, 중층, 하층)

5.4.2. 기타 도구

1) 아바(대), 짝대기

물오리가 냇가에서 명태를 건질 때 사용하는 도구를 ‘물오리작대기’로, 냇물이나 개울을 막아 명태를 씻을 물을 마련하는데 이때 냇물을 막은 도구를 ‘아바’라고 한다. ‘아바’는 ‘아바때’로도 나타나고 있었다.

- ⇒ 이렇게 개울을 막아주거든. {아바}. 아바를.
 ⇒ 요기 인제 덕장에서 덕을 매놓고 맹물에 이 고기를 가두는 그 {아바때라} 그러나?

2) 물오리입는옷, 우비(우의), 긴장화, 물화, (물오리장화)

물오리가 작업할 때 신는 장화를 ‘긴장화’ 또는 ‘물화’, ‘물오리장화’라고 한다. 또 물오리가 입는 옷을 ‘우비’ 또는 ‘우의’라고도 하고 이를 그대로 풀어 ‘물오리입는옷’이라고도 한다.

- ⇒ 그건 {긴장화지}.
 ⇒ {물오리장화라} 했어.
 ⇒ 나중에. 요새는 장화래도 지금 {물화} 있고 뭐 이런 거 해봤지만.
 ⇒ {물오리}. 물오리 입는 옷 있잖아.

3) 물지게, 리아카, 경운기, 딸딸이

명태를 덕장으로 운반하는 도구 또는 그물을 싣고 옮기는 데 필요한 운반 도구로 ‘물지게’와 ‘리아카’가 사용되고 있었다. 요즘은 경운기로 운반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경운기에 엔진을 달아 개조한 운반기를 ‘딸딸이’라고도 했다.

- ⇒ 응? 옛날이 옛날에는 처음에는 저 초창기에는 {물지게다} 지고 갔지.
- ⇒ 예. 스무마린데. 그걸 인제 냇물에 담궜다가. 냇물에 담궜다가 건져서 밑에 저 밑에까지 {리아 카로} 운반하는데 그 끈을 끊는 사람이. 그 끈을 스무 두름이를 끊어야 걸잖아. 그걸 날랄하게 이래 걸잖아. 그 그걸 끊는 사람이 낫잡이야.

4) 가마니, 갓바

명태를 임시로 보관하기 위해 덮는 도구를 ‘갓바’ 또는 ‘가마니’로 말하고 있었다.

- ⇒ 근데 여그다 걸고서는 겨울에다 인제 명태가 창고가 없어가 그냥 쌓아놓고는 {갓바를} 씌워 놓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거기다가 삼성이 인제 실패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5) 낫, 삽, 새끼줄, 나이롱줄, 사리깡이, 사리꼬쟁이

덕장에서 낫잡이가 두름을 끊을 때 사용하는 도구는 행위자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낫’이다. 이 외에 덕장에서 필요한 연장으로는 덕을 세우기 전에 땅을 팔 때 사용하는 ‘삽’이 있다. 보통 ‘덕’은 그 길이만큼 땅을 판 후 ‘덕’을 세운다고 한다. 이는 명태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삽이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다. 명태를 덕장에 가주고 와서 코를 킨 때 예전에 사용했던 도구로 ‘사리깡이’로, 요즘 사용하는 도구로 ‘나이롱줄’이 있다.

- ⇒ 뭐 장비로 이래 파지만은 옛날에는 삽으로 다 팠거든. {삽으로} 한 일메다 파가지고 거다 기둥을 세워서 덕을 댔는데 지금은 뭐 장비로 하니깐 별 그게 없지. 옛날에는 하이튼 그. 옛날엔 덕을 하든 일메다 삽을 파가지고 덕 기둥을 세워서 새끼줄로 그 덕을 전부다 다 댔어. 지금은 나이롱줄로 매지만은.
- ⇒ 근데 여그다 걸고서는 겨울에다 인제 명태가 창고가 없어가 그냥 쌓아놓고는 {갓바를} 씌워 놓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거기다가 삼성이 인제 실패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 ⇒ 물오리 또 저 {물오리작대기라고}. 물오리.
- ⇒ 그래갖고 했는데 그 명태를 가지 없어. 그래가지고 명태가 그 당시에는요. 명태가 풀어 먹기가 좀 힘들었어. 그 당시는 이렇게 지금처럼 작업 안 하고 {사리깡이다} 꺼서 그냥 해서 서울하고 대구. 주로 서울, 대구로 많이 갔었죠.
- ⇒ 도구가~ {낫백에} 없지요. 없고.

덕걸이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기타 도구 명칭

구분		어휘 항목
기타 도구	고정 도구	아바(대), 작대기
	착용 도구	우비(우의), 긴장화(물오리장화)
	운반 도구	물지게, 리어카, 경운기, 딸딸이
	보관 도구	가마니, 갓바
	조임 도구	낫, 삽, 새끼줄, 나이롱줄

어업 관련 도구 명칭을 모두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 어업 관련 도구 명칭

구분		어휘 항목
배	잡는 어종에 따라	오징어배, 콩치배, 멸치배, 명태배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시망배
	기타	대구리
	재료에 따라	나뭇배 노젓는배 돛단배 목선 목조선 도꾸) / 택택이, 기젓배, 따브류, 엔진배
	특성에 따라	풍선, 머구릿배, 잠수미
	부분 명칭	묘시(고닥), 후미, 딸(치, 키), 딸구멍, 창손, 아돏줄, 용천대, 용천줄, 도꾸(돏풍), 돏대, 작은돏대, 큰돏대, 우구새, 도모, 뒷도모, 헛도모, 이물, 아시당, 토시(로라), 촛기, 뒤합판, 큰모예, 가라, 고닥, 큰풍다는곳, 용충, 돏풍, 큰풍, 작은풍, 다수, 도모마쭈라(배갈비), 삼, 오모까지, 도로까지, 바닥, 통도리
	장소 명칭	중간칸, 고닥칸, 막고닥, 큰칸, 기관실, 선장실, 방짱, 말통, 어깨수칸
	노 명칭	놀, 놀구멍, 놀쫘, 놀끈, 놀망치, 놀쫘다이, 낫부, 조선놀, 우리나라노, 일본놀, 왜놀
	기타 명칭	고닥, 고물, 바닥, 배앞, 가라, 삼, 옆삼, 헛도모, 뒷도모, 도모마쭈라, 오대기, 운두, 오모까지, 사우도, 활가지, 용천대, 도꾸 / 돏, 데끼
어부	착용 도구	숨바지/ 물저고리(뎃저고리), 솜우아끼, 도꾸리사수(속에입는사수)/ 털모(뺑모자, 반모)/ 갑빠, 초마갑빠, 방한복/ 코버선, 장화/
	채 집	그물바리 (시망바리)
	도 구	낚수바리 (주낙)
	기타 도구	패철, 화덕
덕	부분 명칭	덕, 도리, 층, 덕대(기둥, 덕장목), 보조대, 고랑대(덕목), 가시오
	'덕, 도리, 층'의 세부 명칭	덕(상덕, 중덕, 하덕)/ 도리(상도리, 중도리, 하도리)/ 층(상층, 중층, 하층)
	고정 도구	아바(대), 작대기
	착용 도구	우비(우의), 긴장화(물오리장화)
	운반 도구	물지게, 리어카, 경운기, 딸딸이
	보관 도구	가마니, 갓바
	조임 도구	낫, 삽, 새끼줄, 나이롱줄

6. 명태의 명칭

어촌에서 잡히는 어획물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종 또는 크기, 상태, 특징, 잡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크기에 따른 명칭, 상태에 따른 명칭, 장소에 따른 명칭, 어획 도구에 따른 명칭, 기타 명칭’으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명태’라 함은 이들을 통칭하는 상위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명태는 ‘명태, 맹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 ⇒ 지금은 고기가 없으니깐 그런 것도 안 하고. 완전 전체 다 없잖아. {명태란} 기 다 말러 없잖아.
- ⇒ {맹태}.

6.1. 어촌에서 사용되는 명태의 명칭

어촌에서는 명태를 어디에서 잡느냐에 따라 ‘원양태, 지방태’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어획 도구에 따라 ‘낙시태, 그물태’로 나누어지기도 했다. 또 상태에 따라 ‘코다리, 반부디, 새고기’로, 또 명태의 크기에 따라 ‘대태, 중태, 앵노가리’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명태는 다양한 명칭으로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중 크기에 따른 명칭인 ‘쩨겨, 굽은거’는 명태 외에 다른 어류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또 ‘사매, 묵태’와 같은 다양한 명칭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1.1. 크기에 따른 명칭

1) 앵노가리, 앵태, 노가리, 소태, 중태, 대태

강릉 지역에서는 명태 새끼를 ‘노가리’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명태의 새끼를 작고 어리다는 표현으로 ‘앵노가리’ 또는 ‘앵태’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처럼 명태는 그 크기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어 나타났는데 크기가 큰 명태는 ‘대태’로, 중간 크기의 명태는 ‘중태’로, 작은 명태는 ‘소태’로 나타났다. 명태를 크기에 따라 나타내면 ‘대태 > 중태 > 소태 > 노가리, 앵태 > 앵노가리’로 볼 수 있다.

- ⇒ 명태 인제 그물에서 노가리가 걸릴 때가 있고. 고 담에 중태. 고 담에 저. {대태}. 이렇게 세 가지.
- ⇒ 근데 인제 지금은 수로가 그 전하고. 그 전은 이 왕. 왕. 켈 큰 게 {왕태} 중. 대태. 저 {중태} {소태}. {앵태} 이렇게 했거든요. 인제 그 전에 불르기는. 그 요즘 말은 어떻게냐면 인제 통 수로 해요. 켈 인제 싹통이 켈 적은 거. 고 담 구통. 팔통. 지금 사통까지 나오거든요.
- ⇒ {소태라는} 건 명태 재다. 재는 거 보고 소태 중태 대태 이렇게.
- ⇒ 대. 저게 명태새끼 뭐 이런 거. {앵노가리} 다 잡아가.
- ⇒ 소태라는 건 명태 재다. {재는 거} 보고 소태 중태 대태 이렇게.

2) 굵은거, 굵은명태, 중간치, 찐명태, 찐거, 찐거, 재는거

명태는 ‘대태, 중태, 앵노가리, 앵태’ 대신에 ‘재는거, 굵은거’로 그 크기에 따른 명칭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래서 가장 큰 명태를 ‘굵은거, 굵은명태’로, ‘중태’ 대신에 ‘중건거, 중간치’로, 작은 크기의 명태는 ‘찐명태, 찐거, 찐거, 재는거’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은 명태에만 한정되어 쓰이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어류에 두루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 {굵은명태라} 하고 {찐명태하고} 이렇지 뭐.
- ⇒ 말려서 그 하는 거는 내가 인제 좀 굵은 갖다 말려 먹을라믄 좀 굵은 갖다 때개서 넣어놔다 말려 먹고. 안 그럼 내가 인제 한 폰이라도 돈에 팔라믄. 돈 한 폰 더 맹글라믄 굵은 건 팔고 [중간치] 요런 거 갖다 땡겨다가 먹고. 그러지 뭐.
- ⇒ 고 {찐 건} 없어.
- ⇒ 거 그물에 인제 다 그기를 합동으로. 합동으로 걸러오지. {굵은 것도} 걸러오고 {중간 것도} 걸러오고 {찐 것도} 걸러오고. 걸릴 재 다 합동으로 그 뭐.

6.1.2. 상태에 따른 명칭

명태는 흔히 그 상태에 따라 ‘동태, 명태, 생태’로 명칭이 달리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명칭 외에도 ‘반부디, 코다리, 꼬덕그덕한거, 뿌득뿌득한거, 새고기, 식물’이 나타나고 있었다.

1) 동태, 황태, 생태

‘동태’는 명태를 얼린 것을, ‘생태’는 생 명태를, ‘황태’는 덕장에서 건조한 명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 ⇒ 같은 말이. 명태가 이래 보면 무슨 좀 명태 {생태} {동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명태 물 건 하나 가지고 수십 가지로 불러요.

2) 코다리²¹⁾

일반적으로 우리는 덜 마른 명태 또는 간장을 조린 명태 반찬을 ‘코다리’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 외에도 빠짝 마른 명태를 ‘코다리’로 말하기도 하였다.

- ⇒ 거 {코다리는} 써도 깡태는 없지. 코다리 빠짝 마른 거 코다리라지.

21) 조사 결과 나타난 ‘코다리’의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1. 빠짝 마른 명태를 가리키는 말.(부녀자, 대부분의 어민)
2. 망태기 밑에 떨어진 것 중 좋은 것과 나쁜 것 중 팔아먹을 만한 것을 가리키는 말.(선원)
3. 덜 마른 명태를 가리키는 말.(부녀자)

3) 반부디, 끄덕끄덕한거, 뿌득뿌득한거

창자를 뺀 후 덜 말린 상태 즉, 빠짝 말리지 않은 것을 그 상태에 연유해 ‘반부디’라고 했다. 덜 말린 명태살은 끄덕끄덕하고, 뿌득뿌득한데 이를 그대로 표현해 ‘끄덕끄덕한거, 뿌득뿌득한거’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덜 말린 명태는 생태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팔기도 하고 말려서 먹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명태의 상태를 ‘뽀뽀하다, 끄덕끄덕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 ⇒ 그래 인제 요런 거 갖다가 집에다가 생태 안 삶은 날 있어. 그럴 적에는 집에다가 마카 때리놔다가 {반부디} 되든. 끄덕끄덕한 거. 그런 걸 찌놓으면 더 맛있지.
- ⇒ 괜찮아. {뿌득뿌득한} 거 때개서 여 노먼 맛있어. 고 김장 할 적에 인제 널 할라든 우 저녁에 이래가지고 우에다 저 그거로 소금 좀 얹고 썰서 인제 저녁 가 약간 얹고 해서 요 도독에 덮어놔다가 널 아침에 짐장할 제.

4) 새고기, 식물

아주 싱싱한 명태를 식물에 비유해 ‘식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현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새고기’라고 하기도 했다.

- ⇒ 아주 {새고기다} 이기지. 뭐.
- ⇒ 그럼. {식물이라} 그래.

6.1.3. 장소에 따른 명칭

1) 원양태(원양명태), 지방태(이바다에서잡힌것)

원양, 즉 먼 바다에서 잡아온 명태는 ‘원양태’ 또는 ‘원양명태’로. 가까운 바다에서 잡아온 명태는 ‘지방태’라고 한다. 앞바다 또는 이 지역에서 잡은 명태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바다에서잡힌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 ⇒ 하다가 주문진서 계속 그 명태가 {원양태} 들어오니깐 동해바다 깨 죽게 돼요. 양도 점점 줄어지고.
- ⇒ 그리고 양이 줄으니까 비싸니까 할 수가 있나. 그 다음이부터 {원양명태를} 사다가 지금까지 오는. 오는 거죠.
- ⇒ 그래 그거는 우리가 원양태라는 거는 이 쉽게 말하자면 원양태란 건 저~ 먼 바다. 말하자면 먼 바다 가서 잡아 오는 거를 원양태라 하고. {지방태는} 여 지방서 가해서 잡는 거 보고.

6.1.4. 어획 도구에 따른 명칭

1) 낚수태, 그물태(망성태)

낚시로 잡은 명태는 낚시를 가리키는 말인 ‘낚수’와 명태를 결합시켜 ‘낚수태, 낚시태’라

고 했고, 그물로 잡은 명태는 그물을 뜻하는 ‘망성’과 명태를 결합시켜 ‘그물태, 망성태’라고 했다. 1980년 이전에는 주로 낚시로 명태를 잡았고 지금은 그물로 명태를 잡고 있다.

- ⇒ 거 {그물태를} 보고 {망성태라} 하는데.
- ⇒ 근데 고게 또 한 내 또 보충시켜 줄게. 옛날에는 아까 말씀하셨지. {낚시태라고} 했잖아. 그때는 이 명태를 이게 그 안에 내장을 다 꺼내고 그 이렇게 저기 짚으로 엮어가지고 그거를 인제 한 두름씩 묶어가지고. 한 두름이가.
- ⇒ {{낚수태는} 아주 더 더 싱싱하고 고기가 물도 좋고. 이 요 그물에 잡는 거는 뭐 한 이틀씩 사흘씩 묵우께네 아무래도 싱싱해도 좀 더 저거 낚시태만큼 저짜하지 못 하지.

6.1.5. 기타 명칭

1) 묵태, 파치, 목태

배 안의 그물을 올리다 보면 누구의 그물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는 명태가 있다. 이때 그물에서 떨어져 나온 고기는 배 안에서 사용하는 부대비용 즉, 선중으로 사용하는데 이를 ‘목태’라고 한다. 또 그물 속에서 오래된 명태는 ‘묵었다’는 의미에서 ‘묵태’로 표현했다. 이는 ‘무태’로 발음되기도 했다. ‘파치’는 ‘목태’의 상태보다 좋지 않은 명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그물 속에 오래 있어 상한 명태를 가리키고 있었다.

- ⇒ {목태는} 거기 고기가 인제 굵어서 떨어지고 망째 넘어서 인제 지들내가지고 떨어지는 거 보고 목태라.
- ⇒ 그거는 저 명태가 이거 뭐야. 날이 굵혀가지고 시일이 오래 끌면은. 시일이 오래 끌으면 목태라 그러지. {목태}.
- ⇒ 아니지~ 바닷물에 오래 있으니까네 묵으니까네 그 명태가 저 {파치도} 되고 뭐 저저저 뭐야 바다에 그 벌레가 뭐야 새우 같은 벌레가 있지 않는가. 그것도 파먹고 뭐 하다 못해 괴뢰도 와서 빨. 빨고 이러니까네 고런 기 인제 상하는 기 많으니까.

2) 사매, 코다리

어부들이 잡은 많은 양의 고기를 처리해주는 수협이 알지 못하게 파는 크고 좋은 명태인 ‘대태’를 파는 것을 ‘사매’라고 한다. 또 배 위에서 사용하는 말로 그물코에서 떨어진 명태를 ‘코다리’라고 했다. 싱싱하고 큰 명태가 보통 그물에서 떨어지는데 이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때에 따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통칭해 팔아먹을 만한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보통 이러한 ‘사매’와 ‘코다리’를 모아서 선주가 매매하는데 이는 전체 선원이 사용하는 배 경비로 사용되었다.

- ⇒ 사매. {사매}.
- ⇒ 그런 거는 뭐지. 단지 우리 명태를 거 코다리 떨어졌는 거. 떨어졌는 거 가지고 선주로 이제 그 하나까네 고건 별도로 그냥 매매를 한다고. {코다리란} 기 뭐이나 그러면 싱싱한데 망개서. 망. 망개 밑에 내려와가지고 떨어지니까 코다리라 이러지.

어촌에서 사용하는 명태 명칭을 이름, 장소, 어획 도구, 크기, 상태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 16>과 같다.

<표 16> 어촌에서 사용하는 명태의 명칭

구분		어획 항목
명태 명칭	이름	명태(명태)
	장소	원양태, 지방태(이바다에서잡힌것)
	어획 도구	낙수태, 그물태(망성태)
	크기	대태 > 중태 > 소태 > 노가리, 앵태 > 앵노가리 굵은거, 굵은명태 > 중간치 > 쨌명태, 쨌거, 쨌거
	상태	코다리/ 반부디, 꼬덕꼬덕한거, 뿌득뿌득한거/ 새고기, 식물/통마리
	기타	목태, 파치, 목태/ 생태/ 사매, 코다리

6.2. 덕장에서 사용되는 명태의 명칭

덕장에서도 어촌과 동일하게 크기에 따른 명칭에는 ‘왕태, 대태, 중태, 소태, 앵태’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예전에 사용한 명칭이고 지금은 ‘통’ 또는 ‘통배기’를 사용하고 있어 ‘십일통, 구통, 구통배기’가 ‘왕태, 대태’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또 상태에 따른 명칭에는 ‘쨌태, 무두태, 깡태’가 나타나고 있었고, 색에 따라서는 ‘노랑태, 멧태, 백태’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명태는 크기와 상태, 기타 특성에 따라 그 명칭이 분화되고 있었다.

6.2.1. 크기에 따른 명칭

1) 왕태, 대태, 중태, 소태, 앵태

평창 지역에서도 강릉 지역과 같이 명태는 그 크기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어 나타났는데 크기가 큰 명태는 ‘대태’로, 중간 크기의 명태는 ‘중태’로, 작은 명태는 ‘소태’로, 명태 새끼는 작고 어리다는 점에서 ‘앵태’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릉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왕태’가 나타났는데 이는 ‘대태’보다 더 큰 명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명태를 크기에 따라 나타내면 ‘왕태 > 대태 > 중태 > 소태 > 앵태’로 볼 수 있다.

- ⇒ 명태 인제 그물에서 {노가리가} 걸릴 때가 있고. 고 담에 {중태}. 고 담에 저. {대태}. 이렇게 세 가지.
- ⇒ 근데 인제 지금은 수로가 그 전하고. 그 전은 이 왕. 왕. 쨌 큰 게 {왕태} 중. {대태}. 저 {중태} {소태}. {앵태} 이렇게 했거든요. 인제 그 전에 불르기는. 그 요즘 말은 어떻게냐면 인제 통 수로 해요. 쨌 인제 십통이 쨌 적은 거. 고 담 구통. 팔통. 지금 사통까지 나오거든요.

2) 십일통, 십통, 구통, 팔통, 칠통, 육통, 오통, 사통, 구통배기, 팔통배기, 칠통배기, 십통수, 구통수

덕장에서는 어촌 지역과 달리 ‘통, 통배기, 통수’를 명태 크기를 나타내는 명칭으로도

사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숫자를 나타내는 ‘일, 이, 삼.....팔, 구, 십, 십일’이 이러한 어휘와 결합되어 나타났다. 보통 이는 크기에 따라 구분되어 ‘십일통’은 20센치를, ‘십통’은 25~30센치를, ‘구통’은 35~40센치를, 팔통은 40센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통’은 60센치 이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크기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통’ 대신 ‘-배기’와 ‘-통수’를 사용한 ‘십일통배기, 십통배기, 구통배기’도 사용되었다. 이는 ‘십일통수, 십통수, 구통수’로도 나타나기도 했다. 덕장에서는 주로 ‘오통’에서 ‘십일통’ 크기의 명태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 ⇒ 그니깐 그니깐 {사통배기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지.
- ⇒ {십일통은} 아주 적은 거지. 요런. 밀 정도 되니까 한 이십센치 정도 되나.
- ⇒ 그 요즘 말은 어떻게냐면 인제 통수로 해요. 쥘 인제 {십통이} 쥘 적은 거. 고 담 구통. 팔통. 지금 사통까지 나오거든요. 십통은 한 이 삼 오센치. 더 돼요. 삼십센치 안 돼.
- ⇒ 칠통 밑에 육통 육통 밑에 {오통} 오통 밑에 사통 이렇지.
- ⇒ {칠통} 팔통 구통. 칠통. 사통이요?
- ⇒ {팔통은} 사십센치는 돼요.
- ⇒ 뭐 {구통배기니} 팔통배기니 이라고 뭐. 그거는 잘.

6.2.2. 상태에 따른 명칭

1) 백태, 먹태(흑태), 황태(노랑태)

일반적으로 덕장에서 얼렸다 녹혔다는 여러 차례 반복해 황색을 띠고 있는 명태를 ‘황태’라고 한다. 이를 우리말로 풀어 ‘노랑태’라고 하기도 했는데 보통 황태는 12월 중순에서 3월 초까지 20차례가 넘는 얼렸다 녹혔다를 반복한다고 한다. 한편 명태가 덕장에서 건조될 때 이처럼 ‘황태’가 되지 못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껍질이 하얗게 변한 것은 ‘백태’로, 또 말린 과정에서 시꺼멓게 된 명태는 ‘먹태’ 또는 ‘흑태’라고 했다.

- ⇒ 황태를. 그래 그 당시 이 명태가 바람이 많이 불으면 {백태가} 돼요. 껍질이 그렇 기 하얗게 돼요. 황태가 값이 없어져. 그래서.
- ⇒ {먹태는} 시꺼멓게 된 거 그걸 먹태라 그래요.
- ⇒ 근데 이 이게 {황태라는} 게 옛날 우리나라선 말리질 안 했어요. 말리진 않고 육이오 나고 나서 수복 후에 이 아바이들이 인제 동해안가에 이렇게 왔었어요.
- ⇒ 그 그 당시는 {황태라든} {노랑태라고} 그랬어요.

2) 찌태(짙태, 골태), 깡태, 파태, 쫄태, 무두태

명태를 말리는 과정에서 ‘황태’가 되지 못한 명태를 가리키는 명칭 또한 재미있는 표현이 많았다. 먼저 작업 도중에 머리가 부러진 명태는 ‘파태’로, 명태를 봄에 말릴 때 붙어있는 상태로 마른 것은 ‘골태’로, 바닷가에서 얼리지 않고 말린 것으로 얼면서 부풀지 않아 몸에 살이 없는 것은 ‘깡태’라고 한다. 또 이 외에도 얼지 않고 물이 쪼 빠진 명태를 ‘쫄태’

로, 명태를 손질을 잘못 하거나 잘못 말려 쪼그라들고 피가 얼어붙은 것을 ‘찐태’ 또는 ‘찐태’라고 한다. 또 머리가 없는 명태라고 하더라도 처음 잡아올 때부터 머리가 떨어져 나간 명태는 ‘무두태’로, 작업 과정에서 몸이 찌그러지거나 머리가 없어지기도 한 것은 ‘파태’라고 한다. 이처럼 몸통만 있는 ‘무두태’는 주로 명태채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명태들은 모두 황태로서 가치가 좋지 못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명태 명칭을 통해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진태가 먹태졌다’를 들을 수 있는데 이 말은 붙어서 굳어진 ‘찐태’가 다시 색이 검은 ‘먹태’로 되었다는 말이다.

- ⇒ 근데 머리 뿌러진 거는 {파태고}. 거 저 여기서는 그 명태를 잘 안 하는데 깡태라고 있어요. 그건 바닷가에서 그냥 말린 거요. 그냥 얼리 얼지 않고 그냥 말린 거.
- ⇒ 아까 저 저 찐태라고 말씀했잖아요? 거기 인제 거 {골텐데} 명태가 이렇게 봄에 말릴 짝에 이렇게 붙었던 걸 이 붙었던 걸 떼주지 않으면 그냥 그게 저 골태가 돼버려요. 그거가 상해가지고.
- ⇒ 그래갖고 찐. 주로 목부분이 명태 대가리 부분 밑에서 이래 오면 그 {찐태가} 되면 쪼그라들고 이렇게 되고 그거 값이 없어요.
- ⇒ {찐태는} 그냥 얼지 않고. 얼지 않고 그냥.
- ⇒ 근데 머리 뿌러진 거는 파태고. 거 저 여기서는 그 명태를 잘 안 하는데 {깡태라고} 있어요. 그건 바닷가에서 그냥 말린 거요. 그냥 얼리 얼지 않고 그냥 말린 거.
- ⇒ {무두태는} 대가리. 대가리를 딱 찔라요. 찔라서 인제 무두태는 그 뭐냐 인제 이 명태채를 뜯어서 파는 거요. 요렇게.

3) 통마리

황태는 내장을 제거한 후 명태를 통째로 말리는데 이를 ‘통’과 ‘마리’를 결합해 말하고 있었다.

- ⇒ {통마리로} 판다. 통황태지 뭐.

6.2.3. 장소에 따른 명칭

1) 원양태, 지방태

원양, 즉 먼 바다에서 잡아온 명태는 ‘원양태’ 또는 ‘원양명태’로, 가까운 바다에서 잡아온 명태는 ‘지방태’라고 한다. 앞바다 또는 이 지역에서 잡은 명태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잡힌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 ⇒ 그래 그거는 우리가 {원양태라는} 거는 이 쉽게 말하자면 원양태란 건 저~ 먼 바다. 말하자면 먼 바다 가서 잡아 오는 거를 원양태라 하고. {지방태는} 여 지방서 가해서 잡는 거 보고.

6.2.4. 어획 도구에 따른 명칭

1) 낚시태, 그물태

낚시로 잡은 명태는 낚시를 가리키는 말인 ‘낚시’와 명태를 결합시켜 ‘낚시태’라고 했고,

그물로 잡은 명태는 ‘그물’과 명태를 결합시켜 ‘그물태’라고 했다. 1980년 이전에는 주로 낚시로 명태를 잡았고 지금은 그물로 명태를 잡고 있다. 평창 지역에서는 강릉 지역과 달리 ‘망성태’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었고, ‘낚수태’라는 표현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 ⇒ 거 {그물태를} 보고 {망성태라} 하는데.
- ⇒ {낚수태는} 아주 더 더 싱싱하고 고기가 물도 좋고. 이 요 그물에 잡는 거는 뭐 한 이틀씩 사흘씩 묵우께네 아무래도 싱싱해도 좀 더 저거 {낚시태만큼} 저짜하지 못하지.

6.2.5. 기타 명칭

1) 낙태

덕장에서 걸다가 떨어진 명태를 ‘떨어지다’는 의미에서 낙태라고 한다. 이렇게 떨어진 명태를 정리해 다시 상덕에 올리는데 이를 ‘낙태 정리’ 또는 ‘낙태 정리한다’라고 한다.

- ⇒ 아니 {낙태라는} 것도 아르켜 줘야 돼.

덕장에서 사용되는 명태의 명칭을 종류, 크기, 상태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의 <표 17>과 같다.

<표 17> 덕장에서 사용되는 명태의 명칭

구분		어휘 항목	
명태 명칭	종류	원양태, 지방태/ 낚시태, 그물태	
	크기	예전	왕태 > 대태 > 중태 > 소태 > 앵태
		요즘	통(십일통-십통-구통-팔통-칠통-육통-오통-사통.....) 통배기(구통배기-팔통배기-칠통배기.....) 통수(십통수, 구통수.....) (덕장에서는 주로 오통에서 십일통 사용)
	상태 기타	백태, 먹태(흑태), 황태(노랑태) / 찢태(짚태, 골태), 깡태, 파태, 쫄태, 무두태 낙태	

이러한 명태에 사용된 단위명사를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8>과 같다.

<표 18> 명태 관련 단위 명사

구분		어휘 항목
단위명사	어촌	두릅(두릅, 두르미, 20마리), 바리(100두릅), 초리(초래기, 초라기, 250짜리), 닥(필), 툄, 부, 밭(1.5미터), 똥가리(돈, 낚수 50짜리 1돈), 자리
	덕장	통수(통배기), 쾌(20마리), 칸(사방 10자), 고랑(예전 24칸 → 지금 20칸)

7. 어로 행위

7.1. 어로 활동

7.1.1. 그물 손질과 명태 잡이

어부들의 일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그물 손질과 고기잡이로 볼 수 있다. 고기잡이를 하기 전에는 그물을 보망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이는 주로 부녀자들이 담당한다. 부녀자들과 집안 식구들이 함께 보망하고 정리해 놓은 그물을 닥사개에 싼 후 손수레에 실어 부두에 가져다 놓으면 어부들이 이를 어선에 싣는다. 이 후 명태 잡이를 위해 어부들은 그물에 양까와 돌을 달고 깃발로 단 후 다시 바다에 던진다. 며칠이 지난 후 고기가 걸린 그물을 당겨 배에 실어 육지로 옮기는데 이러한 과정은 어부들이 하는 어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1) 그물 추린다, 보망

기후 상태나 어류로 인해 끊어진 그물을 연결해 다시 틈이 없게 하는 작업을 ‘보망’이라고 한다. 닥사개 또는 그물을 정리하는 것을 ‘추린다’라고 하는데 이 중 그물에 해당하는 표현을 ‘그물 추린다’라고 한다.

- ⇒ 바다 가기 전에 인제 그물에 막 떨어져. 고기 걸려 오면 막 빗기내고 떨어지면 여자들이 채러 놓고 곤치야 돼. {보망해야} 돼.
- ⇒ 마카 {추러가지고}. 싹 추러가지고 받아서 놓기 좋게 이래 해가지고 싸는 인제 그 그걸 보고 닥사개라 하는데. 닥사개 뭐라 그러냐고 하니 마다리 푸대 있지. 푸대. 고거 고거 끊고 이래가지고 매가지고 하는 기 고걸 보고 닥사개다 하는데. 고 매가지고 가야지. 바다 나가면 일하기 좋지.

2) 채린다, 정개한다, 잘 사린다

‘채리다’는 그물을 차례차례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차례차례를 ‘채리채리’라고 표현해 ‘그물을 채리채리 땡긴다고’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물을 사리는 행위, 즉 정리하는 행위를 ‘채린다, 정개한다’라고 하고, 이처럼 그물을 정리하는 사람을 ‘방간하는 사람, 방간’이라고 하는데 모두 그물과 고기를 정리하는 일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투망을 하거나 올릴 때 그물이 엉키지 않는다고 한다. ‘방간 하다’는 그래서 ‘정개한다’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 ⇒ 여기 선장 꺼 땡기고 여기 영자 꺼 땡기고. 선원 꺼 땡기고 {채리채리} 땡긴다고.
- ⇒ 기럼 밤 새도록 그걸 다 고기 뺏겨서 다 인제 팔고 그물 {채리고} 이래 오다 보면 어떨 때는 한시 두시도 집에 와. 저 주문진서.
- ⇒ 그때는 뒤에 {방간하는} 사람이. 이 저 그물 사리는 사람 보고 방간 한다 이런다고. 방간.
- ⇒ {사리는} 뭐 그 뭐 선원이지. 주로 영자가 많이 사리지.

⇒ 그래 {정개한다고} 여자들이가 더 대. 아주.

3) 찌는다, 물린다

낙시바늘에 미끼를 꿰어서 놓는 것을 ‘찌는다’라고 한다. 이러한 ‘찌는다’는 초래기를 ‘낙수함지’에 넣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즉, 미끼를 달거나 함지에 꽂는 행위를 모두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물린다’는 낙시가 영클어진 것을 정리해서 작대기에 꽂는 것을 가리킨다.

⇒ 그걸 캐놓고 앉아 낙수를 이제 오리는가 찌는다. 찌. 찌는 거 매끼 꿰서 놓는 걸 {찌는다} 하고. 한 함지에 두 초래기 {찌을} 때도 있고.

⇒ 그렇지. {찌는다} 하고 또 {물린다는} 건 낙시를 거 뭐 꼬이고 달고 이런 거를 풀아가지고 찌기 대에다 꼽는 걸 이제 물린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밤새도록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물. 찌어주면 남자들이 가지고 우리들 이제 낙시끼를 가지고 바다 나간다고. 아침 그때만 해도 이제 동삼에 가니깐 한. 한 그때만 해도 한 네 시.

4) 배질, 짓다(젓다)

배를 움직이는 행위를 ‘배질’이라고 하는데 이는 ‘선장질, 영자질’과도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배질’을 하기 위해서는 노를 젓는 일이 필요한데 이를 ‘짓다, 젓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 아침에도 뭐 선장 이제 여도 {배질} 해가지고 가면은 배질 해가면 우리 뭐 방짱 안에 들어가.

⇒ 하루 우리가 작업하는 양을. 그래 가지고 나가서 이제 바다 나가다가 그걸 퍼노면은 아침에 이제 그 노를 여. 배가 나갈 때는 노를 노를 {젓어} 나가는 배지.

5) 돌 그린다

그물에 돌을 다는 행위를 ‘돌 그린다’라고 말한다.

⇒ 젊은 사람들은 그물을 받고. 거그서 그거 하면은 돌도 {그리고} 이런 사람들 좀 약빠른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도 그거 줄만 다 땡기든 우리도 같이 가서 해야지.

6) 걷어오다

늘어진 그물을 말아 올리거나 가려진 것을 치우는 것을 ‘걷어오다’라고 하고 이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뿌리다’라고 한다.

⇒ 불법이다. 저거 못 {뿌린다}.

7) 뺏기다

고기를 그물에서 꺼내는 것을 ‘뺏기다’라고 한다.

⇒ 그 잡아가지 오문. 그물 인제 배서 땡가지고 오문 여자들 일이 많아. 마카 여자들이 풀을 내려가지고 고기 다 {뺏기가지고} 고기 갖다 팔고.

8) 비다

햇빛에 말리다. 햇빛에 보여 하얗게 말리는 것을 말한다.

⇒ 손질해냈는 거는 딱 {비아가} 햇빛 좀 빌 수도 있고.

9) 심다

그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 배, 손수레 따위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 어. 침순에다가. 여 찻라가지고 아가미 끼워가지고 한 두릅씩. 그 놈을 던져 줘가지고 {심는} 야~ 거 선창에서 거거. 누 집 자리요. 거 올라가는데.



[사진 10] 그물 손질 중인 어부



[사진 11] 그물 추린다



[사진 12] 보망



[사진 13] 햇빛 비다

10) 결산 보다

한 달 또는 보름마다 한 번씩 이제까지 일한 품삯을 정리하는 것을 ‘결산 보다’, ‘결산을 보다’라고 말한다. 주로 비가 와 바다에 가지 못하는 날에 결산을 본다고 한다.

- ⇒ 총 생산 만약에 우리가 이 만원씩 벌었다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만원씩 벌면 열흘이면 열흘. 인제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있다가 걸 {계산을 본다고}. 계산을. 그래 같이 모두 선주 집에 가서 안자 너는 얼마 잡고 뱃삯 얼마 주고. 니 받는 다달이 얼마고 인제 어떻게 한다

어로 행위와 관련된 말을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9>와 같다.

<표 19> 어로 행위

구분		어휘 항목
방법	과거~1980년	낙수바리(낙수바리, 낙시바리), 주낙바리
	1980 이후	그물바리(노라마끼) 시망바리, 망승바리, 자망(바리)
행위		그물추린다, 채린다, 보망, 정개한다, 잘 사린다, 돌 그린다, 찍는다

7.1.2. 덕걸이 행위

명태를 덕장에 걸어 말려 황태를 만드는 일을 ‘덕장 한다’라고 한다. 이러한 덕장의 일을 과정대로 나타내면 ‘내장 꺼내기-짚으로 엮기-한 두름씩 묶기-하차-넷물에 담그기-물 오리가 건지기-명태 덕장으로 운반하기-낮잡이가 끈 끊기(스무 마리)-코잡이가 코 잡기(두 마리씩)-덕에 올려주기-덕에 걸기-관태-자연 건조-낙태 정리-구멍가리-짜 짓는다-출하’로 볼 수 있다. 이 중 특징적인 어휘인 몇 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덕장 한다(건조)

황태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황태 건조한다’가 사용되기도 했다.

- ⇒ {덕장한다} 그러지.

2) 고랑 엮다

덕장에 덕대를 엮는 것을 ‘고랑 엮다’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고랑은 덕대와 덕대 사이의 나무를 가리키는데 기둥을 세운 후 명태를 걸 수 있는 ‘덕목’을 엮는 것을 말한다.

- ⇒ 도리 매면. 도리 매면은 도리 매면 {고랑을 엮인다고}.

3) 짝 묶는다, 코 탄다, 낙태 정리한다, 구멍가리, 관태

명태를 관태할 때 명태에 있는 짚을 제거하는 것은 ‘코 탄다’라고 하고, 덕대에서 떨어진 명태를 정리하는 것을 ‘낙태 정리한다’라고 말한다. 이때 떨어진 명태를 ‘낙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를 정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 사리나무에 명태 코를 끼는 작업을 ‘관태’라고 하는데 이는 3월에 주로 이루어진다. 명태가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 황태가 되는데 이를 정리한 후 쌓아 둔다. 이처럼 명태가 바람이 들어 상하지 않도록 공기가 통할 구멍을 내어서 쌓는 것을 ‘구멍가리’라고 한다. 즉 ‘구멍이 있도록 가린다’는 의미로 황태가 찢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 저기 그거. 그거 해봤어? 고기 고기 관태할 때. 관태할 때 여자들이 그 짚을 따는 걸 {코 탄다} 이래.
- ⇒ 아줌마들이 {낙태 정리한다} 그러지.
- ⇒ 인제 거 사리깁니다가 꺾면. 이렇게 인제 일본말로 우깨도리를 주는데 이기 땅에다 못 재거고는 한 칠십프로 말린 다음에 코를 꺾거든. 코를 꺾어서 이렇게 쌓아놔요. 인제 인부들이. 쌓아 노면 인제 또 사람 일공을 사서 이 덕장 우에다가 인제 구멍가리를 해놔. 이 명태를 어그졌게 {구멍가리}. 그럼 우에다 구멍가리 해놓. 구멍가리.
- ⇒ {관태}. 관태. 그 당시는 이 이 배를 안 갈랐어요. 그대로 통. 썬 건 그대로.

4) 말룻다

햇빛에 하얗게 말리는 것으로, 물기가 다 날아가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 ⇒ 계속 얼었다 녹았다 계속 {말룻는} 과정이에요.

5) 간주 본다

돈 계산을 하는 것을 ‘간주 본다’라고 했는데 ‘결산 보다’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 ⇒ 간주. 간주 일하는 돈 계산 하는 걸 거기 인제 {간주 본다} 이러지.

6) 출하

완성된 황태를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내놓는 것을 말한다. 황태는 되어 나온 것을 말한다.

- ⇒ 구멍가리 외에는 인제 없죠. 그 담에는 {출하를} 빠삭 말린 다음에 인제 사월달이 되면은 출하시키지.

이 외에도 명태를 차곡차곡 쌓는 것을 ‘쟁기다’라고, 상덕에서 떨어진 것을 ‘다대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덕걸이 행위를 표현하는 말을 과정과 행위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 20>과 같다.

<표 20> 덕걸이 행위

구분		어휘 항목
방법	명칭	덕장한다, 건조, 동진법
	과정	내장 꺼내기-짚으로 엮기-한 두름씩 묶기-하차-넷물에 담그기-물오리가 건지기-리어카로 운반하기-낫잡이가 끈 끊기(스물마리)-코잡이가 코잡기(두마리씩)-덕에 올려주기-덕에 걸기-관태-자연건조-낙태 정리-구멍가리-짜 짓는다-출하
행위		덕장한다(건조), 짝뚬는다, 코판다, 낙태정리한다, 간주본다, 구멍가리, 관태, 쟁기다, 다대기

8. 음식

8.1. 음식 재료와 음식명

8.1.1. 재료

1) 명태채, 통황태, 포, 채

음식이 되기 전의 재료의 형태로 나타나는 황태는 ‘채’와 ‘포’, ‘통황태’가 있었다.

<표 21> 음식 재료명

구분	어휘 항목
재료	명태채, 통황태, 포, 채

8.1.2. 음식명

일반적으로 명태를 이용한 음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서민음식이다. 이로 인해 음식명은 새로운 어휘가 많지 않았는데 특색있는 어휘를 소개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명태속

김치에 넣는 명태로 만든 속을 ‘명태속’이라고 한다. 강릉 지역은 김장김치를 만들 때 명태를 꾸덕꾸덕하게 말린 후 이를 무와 채소,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린 후 김치 속으로 넣는데 이러한 명태가 삭아 물이 나오면 김치가 아주 시원하고 맛있다고 한다. 이 지역의

향토음식으로 볼 수 있다.

⇒ 명태. 옛날 {명태속을} 다 넣었지. 여기 사람들.

2) 식해(명태눈), 아가미꽂두기젓(명태아가미꽂두기, 꽂두기, 무꾸꽂디기), 명태식해

명태의 아가미 부분만을 무와 섞어 만든 김치의 일종을 ‘명태아가지꽂두기’라고 했다. 이는 ‘아가미꽂두기젓, 꽂두기’이로도 말해지고 있었다. 또 아가미 부분은 아니지만 명태 창자와 무를 젓갈과 고추가루에 섞어서 만든 김치의 일종을 ‘무꾸꽂디기’라고 하기도 했다. 또 이 지역의 음식의 아니지만 오징어순대와 비슷한 형태로 ‘명태순대’라는 음식을 알고 있었다. 이는 덜 말린 명태 속에 내장을 제거한 후 고기를 넣어 찌서 먹는 음식으로 이북에서 주로 해 먹는 음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명을 연령이 높은 여성 제보자들은 알고 있었다.

- ⇒ 명태아가미와 무를 젓갈과 고추가루에 섞어서 만든 꽂두기 김치.
- ⇒ 그니깐 그제 인제 창자는. 창자는. 창란하고 아가미 밖에 없거든. 명태. 아가미는 꽂두기할 때 넣면 아가미꽂두기젓. 꽂두기가 되고. {명태아가미꽂두기}.
- ⇒ 창자는 빼내놨다가 싸서 이래 놔다가 {무꾸꽂디기} 해열 적에 거 창지 섞어가지고 깎디기 해 노면 맛있어.
- ⇒ 이북 사람들은 그 인제 명태 속에다가 만두 속 하듯이 만들어가지고 배를 찌고 막 막 만두 속에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꼬독하게 말리더라고. 약간. 이걸 찌 먹더라고. 그거 인제 {명태순대라} 그러더라고. 그걸 보고.
- ⇒ 그냥 {명태식해라} 하겠지. 그거 뭐 그렇게.
- ⇒ {씨거리젓갈}.
- ⇒ {창란젓갈}. 창란은 먹었어. 좀 생채도 맨들어 먹고.

명태 관련 음식을 표현하는 말을 김치, 젓갈, 국류에 따라 제시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명태 관련 음식명

구분		어휘 항목
음식	국, 탕류	명태국, 생태국, 명태알탕, 내장탕, 명태매운탕, 황태국, 황태찜, 황태구이
	김치	김장(명태속)
	젓갈	창란젓갈, 식해(명태눈), 아가미꽂두기젓(명태아가미꽂두기, 꽂두기, 무꾸꽂디기, 씨거리젓갈), 명태식해, 내장식해, 창란, 명란
	기타	명태순대, 생채, 명태부침

9. 민속

9.1. 제의²²⁾

9.1.1. 고사 및 속설

1) 부정굿, 선주풀이, 신봉사놀이, 서낭당고사, 풍어제

배의 안녕을 빌기 위해 지내는 제사를 ‘고사, 뱃고사’라 한다. 이러한 고사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풍어제’가 있었다. 이러한 ‘풍어제’는 ‘부정굿, 선주풀이, 신봉사놀이’와 같은 여러 굿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진다. 고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보자들의 정보 부족으로 더 채록할 수 없었다. 다만 ‘풍어제’ 외에도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지내는 제사인 ‘용왕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어촌 관련 민속 표현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3>과 같다.

<표 23> 어촌 관련 민속

구분	어휘 항목
민속	부정굿, 선주풀이, 신봉사놀이, 서낭당고사, 풍어제

2) 보름 쉬고 여섯날 배 안 나간다, 나쁜 것을 목격하면 부정을 풀고 간다, 배 안에서 육미를 처분 안 한다

이러한 비방 또는 금기 표현은 출항하기 전과 출항 후 배 위에서의 행위로 구분지을 수 있다. 먼저, ‘보름 쉬고 여섯날 배 안 나간다’는 이날은 귀신이 있는 날이라 배를 타면 사고가 많이 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나쁜 것을 목격하면 부정을 풀고 간다’는 육지에서 상가집 또는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배를 타면 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선원들은 이런 경우 배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출항을 한 후에도 ‘배 안에서 육미를 처분 안 한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바다에서 육지 고기를 처분해 피를 보면 좋지 않은 일을 당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선원들은 모두 배 위에서도 바다에서 잡은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한다.

- ⇒ 예예. {고사} 고사 말 그대로 고사지.
- ⇒ {배고사} 지내는 거 이 사람아. 고사라 카는데.
- ⇒ 우리 개인으론 안 지내고 여 보먼은 동네에서로 어촌계에서로 여여 부뚝가에 채러놓고 {용왕제} 지낸다니깐.

22) 기초 어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간단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표 24〉 명태 잡이에 조사 내용

구분		어휘 항목
행위자	목선	사공, 선원(막내이, 영자, 중간사람, 화장), 낚사공(낚시사공) (5~6명 승선, 낚시바리 6명, 시망바리 5~6명)
	기켓배	선장, 낚사공, 선원(영자, 막내이), 기관장
	기타	선주, 망개재이, 방간, 로라마끼
배		목선(풍선, 돛단배, 도꾸)/ 택택이(기켓배)/ 대구리
		묘시(고닥), 후미, 놀, 딸(치, 키), 딸구멍, 창손, 아돏줄, 용천대, 용천줄, 도꾸(돛풍), 돛대, 작은돛대, 큰돛대, 우구새, 도모, 뒷도모, 헛도모, 이물, 아시당, 토시(로라), 촛기, 놀구멍, 놀망치, 놀쫓, 뒤합판, 큰모에, 가라, 고닥, 큰풍다는곳, 용총, 돛풍, 큰풍, 작은풍, 다수, 도모마짜라(배갈비), 삼, 오모까지, 도로까지, 바닥, 통도리, 말통
방법	과거 ~ 최근 30년 전까지	낚수바리(낙수바리, 낚시바리), 주낙바리
	그 후	그물바리(노라마끼) 시망바리, 망승바리, 자망(바리)
미끼		앵미리(앵미리, 양미리) > 새치 > 이까, 전어, 이면수/ 매끼, 먹잇대
의복 및 기타		숨바지/ 물저고리(뎃저고리), 숨우아끼, 도꾸리사수(속에입는사수)/ 털모(빵모자, 반모)/ 갑빠, 초마갑빠, 방한복/ 코버선, 장화/ 패철, 화덕
도구	그물바리(시망바리)	시망다마(유리다마, 큰다마, 작은다마), 건노, 닥사개, 그물
	낚수바리(주낙)	낚수, 설대, 대나무, 찍기대, 초리, 말기, 보채, 낚수함지, 모릿줄, 아릿줄
행위		그물추린다, 채린다, 보망, 정개한다, 잘 사린다, 돌 그린다, 찍는다
명태 명칭	종류	명태(맹태)/ 낚수태, 그물태(망성태)/ 원양태, 지방태(이바다에서잡힌것)
	크기	대태 > 중태 > 소태 > 노가리, 앵태 > 앵노가리 굵은거, 굵은명태 > 중간치 > 쨌명태, 쨌거, 쨌거
	상태	코다리/ 반부디, 끄덕끄덕한거, 뿌득뿌득한거/ 새고기, 식물/ 통마리
	기타	묵태, 파치, 묵태/ 생태/ 사매, 코다리
음식		명태국, 생태국, 김장(명태속), 창란젓갈, 생채, 명태순대, 식해(명태눈), 아가미깍두기젓(명태아가미깍두기, 깍두기, 무꾸깍두기), 명태식해, 명태알탕, 내장탕, 내장식해, 명태부침, 명태매운탕, 명태식해, 창란, 명란
상태		뽀뽀하다, 끄덕끄덕하다
장소 및 시기		깊은 바다(때꼭지, 뎃국지)[60~70발]-중급(준곱)[80~90발]-물밑에[100발] 먼바다/ 가새, 이바다 동지받이(11월~12월 동지), 은어받이(은어철에 잡힘) 내불거나 날이 반한 날, 바람이 술술 부는 날, 셋바람이 안 부는 날
단위명사		두름(두름, 두르미, 명태 20마리), 바리(100두름), 초리(초래기, 초라기, 250짜리), 닥(필), 틀, 부, 발(1.5미터), 풍가리(돈, 낚수 50짜리 1돈), 자리
기타		어구집(어구점)/ 병글병글했다/ 부아깁/ 속따까리, 걸따까리/ 향구/ 췌닝쿨
민속		부정굿, 선주풀이, 신봉사놀이, 서낭당고사, 풍어제

〈표 25〉 그물의 종류와 명칭

구분		어휘 항목
재료에 따른 명칭	예전	명사 / 두치오부, 세치짜리
	요즘	나이롱그물 / 두치팔폰, 두치짜리/ 시망명태그물
기타 명칭		이찌마이, 니마이(×), 삼마이(삼중망)/ 오삼마이, 홀그물/ 속그물(안그물), 바그물/ 바닷그물
그물코	한치팔폰	새치, 가리재이, 이면수, 도루묵, 오징어, 앵미리
	두치	청어, 대구새끼(두치 또는 코소리)
	두치오부~세치	명태(사람에 따라 '너치'를 말하기도 함)
	세치	가자미
	네치	광어, 가자미, 열개이
	다섯치	-
	다섯치 반	방어
	여섯치, 일곱치, 여덟치	대게, 홍게
부분 명칭		밴댕이, 양까, 후레, 돌(큰돌)/ 낚수/ 사잇줄/ 촛기, 알기/ 아랫빌, 우꾸새, 섭살
기타		선채, 후채

〈표 26〉 덕장 조사 내용

구분		종류	
행위자		덕주, 화주, 덕보는사람(관리자), 낫잡이, 코잡이, 상덕꾼(상덕, 거는사람), 거는사람에게주는사람, 물오리, 운반책, 덕걸이(6-12명)	
방법	명칭	덕장한다, 건조, 동건법	
	과정	내장 꺼내기-짚으로 엮기-한 두름씩 묶기-하차-넷물에 담그기-물오리가 건지기-리어카로 운반하기-낫잡이가 끈 끊기(스물마리)-코잡이가 코 잡기(두마리씩)-덕에 올려주기-덕에 걸기-관태-자연건조-낙태 정리-구멍가리-짜짚는다-출하	
도구	덕	덕(상덕, 중덕, 하덕)/ 도리(상도리, 중도리, 하도리)/ 층(상층, 중층, 하층)/ 덕대(기둥, 덕장목), 보조대, 고랑대(덕목), 가시오	
	기타 도구	낫, 아바(대), 작대기, 삽, 새끼줄, 나이롱줄, 우비(우의), 긴장화(물오리장화), 물지게, 리어카, 가마니, 갓바, 경운기, 딸밭이	
행위		덕장한다(건조), 짚뭉는다, 코판다, 낙태정리한다, 간주본다, 구멍가리, 관태, 쟁기다, 다대기	
명태 명칭	종류	원양태, 지방태/ 낚시태, 그물태	
	크기	예전	왕태 > 대태 > 중태 > 소태 > 앵태
		요즘	통(십일통-십통-구통-팔통-칠통-육통-오통-사통.....) 통배기(구통배기-팔통배기-칠통배기.....) 통수(십통수, 구통수.....) (덕장에서는 주로 오통에서 십일통 사용)
	상태	백태, 먹태(흑태), 황태(노랑태)/ 찌태(찜태, 골태), 깡태, 파태, 쫄태, 무두태	
	기타	낙태	
재료	명태채, 통황태, 포, 채		
음식	황태국, 황태찜, 황태구이		
상태	진태가 먹태졌다		
장소 및 기간		12월 중순에서 3월 초 물웅덩이(물맹크), 덕장	
단위명사		통수(통배기), 쾌(20마리), 칸(사방 10자), 고랑(예전 24칸 → 지금 20칸)	

〈표 27〉 명태의 명칭에 대한 조사의 실례

구분	명칭	제보자의 말
 황태	노랑태	그 그 당시는 황태 라든 노랑태 라고 그랬어. 물이 안 빠져야지. 이게 황태로 보기 좋게 통통하게 나온다고.
 대태	굵은명태, 대태 *왕태	굵은 명태 라 하고 쨌 명태 하고 이렇지 뭐. 맹태 , 중태 대태 이랬지 뭐. 옛날에는, 뗏작 대태. 대태 이 큰 거는.
 중태	중태	대태 라는 거는 이래 굵은 거 보고 대태 라고. 중태 라는 조금 작은 거 보고 중태 라고. 노가리 란 것도 요만한 거 보고 노가리 라 하고 이래.
 소태	소태, *앵태	근데 인제 지금은 수로가 그 전하고, 그 전은 이 왕. 왕. 쨌 큰 게 왕태 중. 대태 . 저 중태 소태 , 앵태 이렇게 했거든요. 인제 그 전에 부르기는, 그 요즘 말은 어떻게냐면 인제 통 수로 해요. 쨌 인제 십통 이 쨌 적은 거. 고 담 구통 . 팔통 . 지금 사통 까지 나오거든요.
 백태	백태	황태를. 그래 그 당시 이 명태가 바람이 많이 불으면 백태 가 돼요. 껍질이 그렇게 하얗게 돼요. 황태가 값이 없어져. 그래서.
 파태	파태, *무두태	파태라. 대가리 없는 건 파태. 무두태 는 대가리. 대가리를 딱 잘라요. 잘라서 인제 무두태는 그 뭐냐 인제 이 명태채를 뜯어서 파는 거요. 요렇게. 그래 그러니깐 고기를 황태를 갖다 걸어가지고 잡아 보준 게 그 머리가 떨어지고 이런 거는 파태 고. 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무두? 무두태는 그거 애초 잡아 올 때. 머리를 끊어가지고 와가지고 걸은 거요. 애초부터. 대가리 끊고 이렇기 인자 삶은. 뭉뚱어리 만 갖다 무두땡기라. 여기 황태를 갖다 걸어서 작업 도중에 못 쓰게 된 기 파태고. 무두태는 애초 작업을 할 때 끊어가지고 와가지고 걸은 게 그게 무두태야.
 깡태	깡태	근데 머리 부러진 거는 파태고. 거 저 여기서는 그 명태를 잘 안 하는데 깡태 라고 있어요. 그건 바닷가에서 그냥 말린 거요. 그냥 얼리 얼지 않고 그냥 말린 거.
 찢태	찢태, 쩡태	또 인제 잘못 말려서 인제 명태 그 당시는 막 갖다 거니깐 손질 제대로 안 해주면 찢태 라고 있어요. 명태 붙으면 이 피가 이렇게 인제 거 같이 말래. 빨개져요. 그래서 쩡태 되면은. 그래갖고 찢. 주로 목부분이 명태 대가리 부분 밑에서 이래 오른 그 찢태 가 되버리 꺼네 쪼그라들고 이렇게 되고 그거 값이 없어요. 그래 이래 딱 보면 명태가 이렇기 푹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를 딱 붙으면 피가 멧혀갖고 새까맣게 이렇게 저 별장게 해서 말라 버리거든요.
가공품의 종류		
		
황태채	황태포	명란젓



[사진 14] 대태, 중태, 소태



[사진 15] 가시오



[사진 16] 고랑대



[사진 17] 덕대

제 3 부

연 구 결 과

제 5 장 마 무 리

제 5 장 마무리

지금까지 동해안 북부 지역인 강릉과 평창 지역의 민족생활어 조사의 일환으로 어촌 생활과 관련한 어휘를 살펴보았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크게 두 주제로 나누어 조사하는데 하나는 명태 잡이와 관련된 생활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잡아온 고기를 황태로 만드는 덕장에서 사용하는 어업 생활어이다. 두 주제로 나누었지만 사실 이는 하나의 큰 주제인 ‘어업 생활어’에 속한다. 즉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의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생활어를 그 조사 대상으로 한다. 조사를 위해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직업인 ‘어부’와 ‘덕걸이(명태 너는 사람)’를 그 대상으로 했다. 본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제보자는 몇 대에 걸쳐 그 지역에서 생활한 사람으로 모두 어촌 생활을 30~80년 이상 하였다. 이러한 제보자의 배경으로 인해 생동감 있는 생활어를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조사를 위해 우선 문헌에 나타난 어촌 생활어의 개념을 통해 이 지역의 어촌 생활어 개념을 살펴본 후, 명태 잡이와 덕걸이를 직접 하는 강릉시 주문진과 평창군 대관령 지역의 제보자를 통해 장소, 도구, 어획물의 종류, 어로 생활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15일 간 제보자들과 함께 어촌에서 생활하면서, 어로 생활의 방법과 그에 해당하는 어휘의 명칭도 조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휘의 명칭뿐만 아니라 관용표현도 자연스럽게 채록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어로 생활과 관련된 행위와 금기 사항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명태의 좋은 맛을 위해 이를 권장하는 표현으로 ‘동짓날에 명태 잡는 날이다, 동짓날에 명태 잡는 날이라 했어’이 나타났다. 또 어업 행위와 관련된 표현으로는 ‘고기 잡으면 오늘 기꼬재이 된다, 셋바람 불면 오늘 작업 틀렸구나(셋바람 불면 작업 틀렸다), 조금 고기가 많이 난다(조금에 고기가 많이 나지), 하늘이 새파래면 바람이 마이 분다, 석 닷이다 맞았다’와 같은 표현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명태의 맛과 상태에 관한 표현으로 ‘영하 십오도 이하면 백태가 지나까 고기 안 건다, 동지 때 명태를 잡으면 통마리로 말려가지고 잡수면 좋다, 명태하고 마누라는 두드려 패야 맛있다’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명태와 관련된 비유적 표현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우리 어른들의 지혜와 감각적인 언어 사용

의 면을 엿볼 수 있었다.

2) ‘어민’ 또는 ‘뱃사람’은 어로 활동을 하는 직업으로 이는 명태잡이, 콩치잡이, 청어잡이, 오징어잡이, 대게잡이, 문어잡이 등을, 또 ‘선장’과 ‘영자, 막내이, 화장, 중간사람, 낚사공’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범주이다. 한편 덕장에서 행위자를 나타내는 ‘덕주, 화주, 덕보는사람, 낫잡이, 코잡이, 상덕꾼’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덕걸이’ 즉, ‘명태거는사람’을 상위어로 본다. 이러한 행위자는 이처럼 무엇을 잡느냐와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어 나타났다. 한편, ‘덕걸이’는 다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덕주, 화주, 덕보는사람, 관리자, 낫잡이, 코잡이, 상덕꾼, 거는사람, 거는사람에게주는사람, 물오리, 고기편지는사람(건지는사람), 신고가는사람, 운반책’ 등으로 나타났다.

3) 바다를 가리키는 명칭은 거리에 따라 또 깊이에 따라 분화되어 나타났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바다를 근해라고 한다. 이 지역에서 나는 명태인 ‘지방태’가 나는 바다를 이 지역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바다라는 의미에서 ‘앞바다’, ‘이바다’를, 또 해안가에 위치한다는 의미에서 ‘갯바다, 가’, ‘가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의미로 해안과의 거리가 먼 바다를 그 의미 그대로 ‘먼바다’로, 또 ‘아주 많이’라는 ‘되게’를 사용해 ‘된바다, 아주 되게 나갔다’로 표현하기도 했다.

4) 명태가 많이 잡히는 시기를 제보자들은 추운 겨울을 뜻하는 ‘동삼’이라고 했다. 이 ‘동삼’ 가운데도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는 동지와 도루묵, 즉 은어가 많이 나는 시기인 11월과 12월이었는데 그래서 이를 ‘동지받이, 은허받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옛날부터 동지에 잡은 명태는 몸에 좋다는 의미로 ‘명태 동지 때 말려가지고 잡수면 좋다, 명태 통마리를 동지에 말려서 잡수면 좋다, 동짓날에 명태 잡는 날이라 했어’가 쓰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말로 인해 ‘동지받이’라는 말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명태를 잡기에 좋은 날을 제보자들은 ‘내불거나 날이 반한 날, 바람이 솔솔 부는 날, 셋바람이 안 부는 날’이라고 표현했다. 이 중 ‘내불거나 날이 반한 날’은 서풍 또는 서남풍이 불거나 파도가 치지 않는 날을, ‘바람이 솔솔 부는 날’은 바람이 약하게 부는 날을, ‘셋바람 안 부는 날’은 셋바람, 즉 북풍이 불지 않는 날을 의미한다.

5) 덕장에 가져온 명태를 황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달의 시간과 여러 과정이 들어간다. 이 중 가장 처음의 과정에 속하는 ‘넛물에 담그기’와 ‘물오리가 건지기’는 모두 ‘물웅덩이’, ‘물댕크’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씻은 명태는 운반 과정을 거쳐 ‘덕장’으로 가는데 이후의 모든 과정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덕장’이라는 말은 ‘덕’이 있는 장소라는 의미를, ‘물웅덩이’는 시냇물을 막아 고이게 한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황태를 거는 장소를 ‘덕장’과 같은 의미로 ‘덕장목’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은 주로 12월 중순에서 3월 초에 이루어진다.

6) 어촌의 대표적인 운송 수단은 ‘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는 어촌 생활의 변화와 같이 변천되어 왔는데 그 결과 다양한 종류와 모양의 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계배의 등장으로 풍선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데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어 풍선의 명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풍선은 그 부분에 따라 사용되는 나무가 다양했다. 먼저, 이 지역에서는 배는 ‘소나무’로, 노는 ‘참나무’로, 돛대는 ‘낙엽송’으로 만들었다. 이 중 ‘노’는 그 형태에 따라 ‘조선노’와 ‘일본노’로 구분되는데 ‘일본노’는 ‘조선노’와 달리 ‘나왕나무’로 만들었다. 풍선을 이 지역에서는 ‘돛단배’ 또는 ‘나뭇배’라고 한다. 상부구조가 없고 돛대가 없거나 혹은 한 개가 설치된 나무로 만들어진 소형 선박을 말한다. 이처럼 돛을 단 배를 ‘도꾸(배), 돛단배, 노젓는배’라고 하고, 바람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풍선’이라고 한다. 또 나무로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목선, 목조선, 나뭇배’로 말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돛배는 소규모 어로 활동에 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배들은 그 길이에 따른 명칭, 또는 돛대에 따른 명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재료와 그 특징에 따라 분화되어 나타났다. 이 중 ‘노젓는배’와 같은 명칭이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어떠한 수단을 통해 이동하는지에 따라 배의 명칭이 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의 부분은 그 위치에 따라 가리키는 말이 달랐다. 먼저, 배 앞 부분을 가리키는 말에는 ‘묘시’와 ‘이물’ 또는 ‘이문’ 그리고 ‘고닥’이 있었고, 반대로 배 뒷부분을 가리키는 말에는 ‘고물’과 ‘후미’, ‘도모’가 있었다. 이러한 명칭은 순 우리말로 부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묘시’ 대신 ‘배앞’을, ‘도모’ 대신에 ‘배뒤’를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배 위 간판을 가리키는 말에는 ‘테끼’가 나타나고 있었다. 또 배는 배 가운데 밑 바닥인 부분으로 집에 비유하면 대동말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라’로, 배 밑 좌우 가장자리에서 판을 댄 널판을 가리키는 말은 ‘삼’으로, 이러한 ‘삼’ 중 배의 양 옆쪽에 위치한 삼은 ‘옆삼’으로 말한다. 이러한 배 옆부분을 ‘통둘이’이라고도 한다. 한편 ‘도모’는 뒤에 있다는 의미에서 ‘뒷도모’로 도모 뒤쪽에 만든 튀어나온 부분은 ‘헛도모’, 도모의 뒷쪽에 위치한 것은 ‘도모다수’로, 배 뒷부분에 들어가는 갈비 부분을 가리키는 부분은 ‘도모마쭈라’라고 한다. ‘마쭈라’는 배 옆에 사람의 갈비처럼 있는 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쭈라, 마쭈라, 마스라’로 모두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도모의 오른쪽 합판은 ‘오모까지’, ‘오모가지’로, 도모의 왼쪽 합판은 ‘도로까지’라고 한다. 이 외에도 배의 뒷부분은 ‘오대기’로, 배의 윗부분은 ‘운두’로, 나가있는 긴 부분을 ‘사우도’로 말하는데 이러한 사우도의 모양이 통으로 되어있는 것을 ‘통사우도’ 또는 ‘통달이’라고 한다. 또 돛대를 세우는 도모의 양쪽에 있는 것으로 돛대를 세우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을 ‘활가지’라고 한다. 용충줄이 달려있는 기둥은 ‘용천대’로, 돛풍은 ‘도꾸’, ‘도풍’이라고 한다.

‘돛’은 다시 그 크기에 따라 ‘큰돛’과 ‘작은돛’으로 나누어지는데 ‘작은돛’은 다른 말로 ‘양호돛’이라고 했다. ‘돛대’도 이러한 돛의 크기에 따라 ‘큰돛대’와 ‘작은돛대’로 구분되었고 ‘풍’ 역시도 ‘큰풍’과 ‘작은풍’으로 구분되었다. 이 외에도 ‘노’ 또는 ‘놀’이 결합된 배의 부분 명칭이 많았는데 ‘놀구멍, 놀쭈, 놀끈, 놀망치, 놀쭈다이, 낫부’가 있었다. 돛대의 윗부분에 있는 것을 ‘종로’라고 하고, 배의 방향을 잡는 키의 자루, 즉 손잡이를 ‘창손’으로, 키

를 조정하는 창손의 나무 부분을 ‘창손대’라고 한다. 또 배를 조정하는 키를 ‘치’라고 했다.

배 안의 여러 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공간들은 각자 그 기능과 성격을 지닌다. 먼저, 선장이 머무르는 공간을 ‘선장실’로, 기관장이 머무르는 공간은 ‘기관뺑’ 또는 ‘기관실’로, 선원들이 자거나 쉬는 공간은 ‘방짱’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그물이나 돌을 넣어두는 배 칸은 ‘돌영는칸’이라고 하고, 고닥의 제일 위쪽을 가리키는 칸은 ‘막고닥’으로, 가장 큰 크기의 칸으로 배 위에 있는 가장 넓고 큰 공간으로 돌을 넣는 행위를 하는 곳은 ‘큰칸’으로, 중간 크기의 칸으로 주로 그물에 줄을 연결하거나 돌을 다는 공간은 ‘중간칸’으로 말한다. 또 ‘큰칸’ 앞에 있는 작은칸은 ‘고닥칸’이라고 하는데 배 앞에 위치한다. 이러한 공간은 ‘중간칸-고닥칸-큰칸-기관실-선장실-방짱’으로 위치한다. 고기를 넣고 보관하는 공간으로 ‘말통’과 ‘이깨수칸’, ‘데끼’가 있다.

7)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 어부들은 옷을 잘 챙겨 입었는데 주로 솜을 넣어 누빈 옷을 많이 입었다. 그래서 솜저고리 안에 입는 목이 있는 속옷을 ‘도꾸리사수’ 또는 ‘속에입는사수’로, 밑에 입는 바지는 ‘솜바지’로 위에 입는 옷은 ‘솜우아끼’로 말했다. 이 중 ‘솜우아끼’는 덧입는 옷이라는 의미에서 ‘덧저고리’라고, 또 겹에 입는 옷이라는 의미에서 ‘물저고리’라고도 한다. 옷 위에 덧입는 것으로 방수용으로 된 것을 ‘갑빠’라고 하는데 이러한 ‘갑빠’는 ‘갑바’로도 나타나고 있었다. 치마 모양의 갑빠를 ‘초마갑빠’, ‘앞치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8) 한 곳에 그물을 쳐 놓고 고기 떼가 지나가면서 걸리도록 한 그물을 이 지역에서는 ‘시망’ 또는 ‘자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물바리’를 ‘시망바리’라고도 말하고 있었다. 명태를 주로 잡는 그물을 ‘명태그물’ 또는 ‘시망명태그물’로 말하고 있었다. 한편 그물은 그 잡히는 어종에 따라서 ‘새치그물, 가재미그물’로도 나타나지만 그 형태와 특징에 따라서는 ‘딩박그물, 투망, 초망’으로, 코의 크기에 따라서는 ‘바그물, 세치(짜리)’로, 어디에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는 ‘바닷그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그물은 예전에는 명사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나이롱그물’로 만들고 있고 그 코의 크기도 ‘두치오부, 세치짜리’에서 ‘두치짜리, 두치팔푼’으로 더 줄어들었다고 한다. ‘시망’을 넓게 펼치면 위, 아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물의 가장 위쪽 부분을 위쪽이라는 의미에서 ‘우꾸새’, ‘우구새’로, 아래쪽 부분에 낚이 들어가는 줄을 ‘아랫빌’로, 그물의 중간 부분은 ‘밴대이’라고 한다. 그물이 물 속에서 서 있게 하기 위해 주로 ‘다마’를 달아 형태를 유지하고 밑에는 돌로 만든 ‘양까’를 달아 그물을 고정키는 역할을 하고 위에는 바다 속의 그물의 위치를 알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쫓기’와 그 깃발의 위치를 알게 해주는 ‘알기’를 단다.

흔히 흘그물을 달리 부르는 말로 외종망이라고 한다. 이처럼 그물은 망의 겹에 따라서도 명칭이 바뀌는데 망(網)이 하나인 것은 ‘이찌마이’ 또는 ‘흘그물’이라고 하고 두 개인 것은 ‘이중망’ 또는 ‘니마이’, 세 개인 것은 ‘삼중망’ 또는 ‘삼마이’라고 한다. 한편 ‘오삼마이’라는 그물 중 큰 것을 뜻하는 ‘오’와 세 겹을 뜻하는 ‘삼마이’가 결합된 말이다. ‘흘그물’

은 다른 그물의 속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또는 안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말로 ‘속 그물’ ‘안그물’이라고도 했다. 이와 반대로 이중 또는 삼중의 망에서 그물의 겉에 사용하는 그물을 ‘겉그물’이라고 했다. 이 중 그물의 코가 작은 그물은 ‘코’가 ‘술다(좁고 작다)’의 의미로 ‘코술이’로, 주로 크기가 큰 방어를 잡는데 사용하는 코가 큰 그물은 ‘바그물’로 나타났다. 한편 먼저 놓는 그물을 ‘선채’라고 하고 뒤에 놓는 그물을 ‘후채’라고 하는데 이는 붉은 기와 흰 기를 통해 구별하고 있었다.

9) 낚시와 같은 말을 이 지역에서는 ‘낚새, 낚수, 낚수’라고 했다. 이를 같은 의미를 지니는 ‘주낚’ 또는 ‘주나끼’라고도 말하고 있었다. 이 중 이 지역에서는 ‘낚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설대’는 낚시를 낚는 대나무 대를 가리키는 말로 보통 육십에서 칠십 센치의 나뭇대에 반을 가른 후 그 사이에 낚시를 꼽는다. 그것을 ‘찍기대’라고 하고, 낚시 250자리를 ‘찍기대’에 꽂아 둔 것을 ‘찍개’라고 한다. 이러한 낚시에는 고기의 밥인 ‘미끼’를 다는데 ‘밀가서, 매까 미끼, 매끼, 매까’로 실현되었다. 한편, 낚수와 원줄인 말기 사이를 ‘사잇줄’이라고 하고, ‘원줄’은 다른 말로 ‘원심’ 또는 ‘말기’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낚싯바늘이 섞이지 않게 매는 가는 줄을 ‘보채’라고 하는데 이십에서 삼십 센치 정도의 길이를 말한다. 또 낚싯바늘을 정리한 초래기의 밑 부분을 ‘말기’라고 하는데 이는 보통 오십 센치의 길이를 지닌다. 이 외에도 낚수를 낚는 대나무대를 ‘찍기대’라고 하는데 낚시 250자리가 섞이지 않도록 꽂아 두는 나무로 된 대를 가리킨다. 한편 낚시는 ‘개’와 동일한 단위로 ‘자리’를 사용하고 있었다. 즉 낚시 50자리는 ‘개’를 나타내는 단위명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낚싯바늘을 기운 작대기를 세는 단위로 ‘초리’가 있었다. ‘초리’는 낚수 250개를 말하는 것인데 보통 한 사람 앞에 이러한 한 초리가 들어간 합지 네 개를 가주고 나간다. 이러한 ‘초리’는 ‘초래기’, ‘초리기’, ‘출기’로도 나타나고 있었다.

10) 명태를 너는 장소를 ‘덕장’이라고 한다, 이 덕은 세로로 세워진 나무 기둥과 가로로 세워진 나무 기둥이 중심을 이루는데 세로로 세워진 기둥은 힘을 받는 기능을 하고 가로로 세워진 기둥은 명태를 너는 기능을 한다. 이 중 힘을 받는 기능을 하는 것을 ‘덕대, 기둥, 덕장목’이라고 하고 명태를 너는 기능을 하는 것을 ‘도리, 덕’이라고 한다. 이때 명태의 무게로 덕대가 넘어지지 않게 옆에 받침대로 세워두는 나무를 ‘보조대’로, 덕에서 기둥이 되는 나무를 ‘기둥도리’로, 덕대를 고정시키기 위해 엑스자로 고정해놓은 것을 ‘가시오’로, 고랑에 세우는 덕대를 ‘고랑대’ 또는 ‘고랑때’라고 말하고 있었다. 명태를 널 수 있는 덕대의 가로로 된 나무 기둥을 ‘덕, 도리’라고 한다. ‘도리’는 그 위치에 따라 상도리, 중도리, 하도리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말로 ‘상덕, 중덕, 하덕’도 나타나고 있었다.

11) 명태는 이 지역에서 ‘명태, 맹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명태는 어종 또는 크기, 상태, 특징, 잡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어촌에서는 명태를 어디에서 잡느냐에 따라 ‘원양태, 지방태’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어획도구에 따라 ‘낚시태, 그물태’로 나누어지기도 했다. 또 상태에 따라 ‘코다리, 반부디, 새고기’로, 또 명태의 크기에 따

라 ‘대태, 중태, 앵노가리’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명태는 다양한 명칭으로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중 크기에 따른 명칭 ‘쨌겨, 굶은겨’는 명태 외에 다른 어류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명태는 그 크기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어 나타났는데 크기가 큰 명태는 ‘대태’로, 중간 크기의 명태는 ‘중태’로, 작은 명태는 ‘소태’로 나타났다. 명태를 크기에 따라 나타내면 ‘대태 > 중태 > 소태 > 노가리, 앵태 > 앵노가리’로 볼 수 있었다. 또 명태는 그 상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동태, 명태, 생태’로 명칭이 달리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명칭 외에도 ‘반부디, 코다리, 꼬덕꼬덕한겨, 뿌득뿌득한겨, 새고기, 식물’이 명태의 상태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명태의 상태를 ‘뽀뽀하다, 꼬덕꼬덕하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낚시로 잡은 명태는 낚시를 가리키는 말인 ‘낚수’와 명태를 결합시켜 ‘낚수태, 낚시태’라고 했고, 그물로 잡은 명태는 그물을 뜻하는 ‘망성’과 명태를 결합시켜 ‘그물태, 망성태’라고 했다. 또 배 안에서 사용하는 부대비용, 즉 선중으로 사용하는데 이를 ‘목태’라고 한다. 또 그물 속에서 오래된 명태는 ‘묵었다’는 의미에서 ‘묵태’로 표현했다. ‘파치’는 ‘묵태’의 상태보다 좋지 않은 명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그물 속에 오래 있어 상한 명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외에도 ‘사매’와 그물에서 떨어진 명태를 가리키는 ‘코다리’라는 표현도 살펴볼 수 있었다.

덕장에서와 어촌과 동일하게 크기에 따른 명칭에는 ‘왕태, 대태, 중태, 소태, 앵태’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예전에 사용한 명칭이고 지금은 ‘-통’ 또는 ‘-통배기’를 사용하고 있어 ‘심일통, 구통, 구통배기’를 ‘왕태, 대태’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또 상태에 따른 명칭에는 ‘쨌태, 무두태, 깡태, 골태, 쫄태, 파태’가 나타나고 있었고, 색에 따라서는 ‘노랑태, 먹태, 백태’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처럼 덕장에서는 명태 명칭이 그 특성과 크기와 상태에 따라 분화되고 있었다. 한편 강릉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왕태’가 나타났는데 이는 ‘대태’보다 더 큰 명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한편 머리가 없는 명태라고 하더라도 처음 잡아올 때부터 머리가 떨어져 나간 명태는 ‘무두태’로, 작업 과정에서 몸이 찌그러지거나 머리가 없어지기도 한 것은 ‘파태’라고 했다. 이러한 명태들은 모두 황태로서 가치가 좋지 못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명태 명칭을 통해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진태가 먹태졌다’를 표현하기도 했다. 또 덕장에서 걸다가 떨어진 명태를 ‘떨어지다’는 의미에서 ‘낙태’라고 했다. 이렇게 떨어진 명태를 정리해 다시 상덕에 올리는데 이를 ‘낙태 정리’ 또는 ‘낙태 정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12) 어부들의 일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그물 손질과 고기잡이로 볼 수 있다. 고기잡이를 하기 전에는 그물을 보망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이는 주로 부녀자들이 담당한다. 부녀자들과 집안 식구들이 함께 보망하고 정리해 놓은 그물을 닥사개에 싼 후 손수레로 실어 부두에 가져다 놓으면 어부들이 이를 어선에 싣는다. 이 후 명태 잡이를 위해 어부들은 그물에 양과와 돌을 달고 깃발로 단 후 다시 바다에 던진다. 며칠이 지난 후 고기가

걸린 그물을 당겨 배에 실어 육지로 옮기는데 이러한 과정을 어촌의 어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물을 사리는 행위, 즉 정리하는 행위를 ‘채린다, 정개한다’라고 하고, 이처럼 배에서 그물을 정리하는 사람을 ‘방간하는 사람, 방간’이라고 하는데 모두 그물과 고기를 정리하는 일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투망을 하거나 올릴 때 그물이 엉키지 않는다고 한다. ‘방간 하다’는 그래서 ‘정개한다’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낚시바늘에 미끼를 꿰어서 놓는 것을 ‘찍는다’라고 했다. 이러한 ‘찍는다’는 초래기를 ‘낚수합지’에 넣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물린다’는 낚시가 엉클어진 것을 정리해서 작대기에 꽂는 것을, 그물에 돌을 다는 것을 ‘돌 그린다’라고 말했다. 한 달 또는 보름마다 한 번씩 이제까지 일한 품삯을 정리하는 것을 ‘결산 보다’, ‘결산을 보다’로 표현했다.

명태를 덕장에 걸어 말려 황태를 만드는 일을 ‘덕장 한다’라고 한다. 이러한 덕장의 일을 과정대로 나타내면 ‘내장 꺼내기→짚으로 엮기→한 두름씩 묶기→하차→넷물에 담그기→물오리가 건지기→명태 덕장으로 운반하기→낫잡이가 끈 끊기(스물 마리)→코잡이가 코잡기(두 마리씩)→덕에 올려주기→덕에 걸기→관태→자연 건조→낙태 정리→구멍가리→짜짚는다→출하’로 볼 수 있다. 돈 계산을 하는 것을 ‘간주 본다’라고 해 어촌 지역과 다른 형태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 일반적으로 명태를 이용한 음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서민음식이다. 이로 인해 음식명은 새로운 어휘가 많지 않았는데 특색있는 음식명으로 ‘명태속, 명태순대, 식해(명태는), 아가미깍두기젓(명태아가미깍두기, 깍두기, 무꾸깍디기), 명태식해’가 나타나고 있었다.

14) 배의 안녕을 빌기 위해 지내는 제사를 ‘고사, 뱃고사’라 한다. 이러한 고사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풍어제’, ‘용왕제’가 있었다. 이러한 ‘풍어제’는 ‘부정굿, 선주풀이, 신봉사놀이’와 같은 여러 굿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의 통해, 본 조사는 다음과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이제까지 어촌 생활어는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수산업 쪽에서 연구된 배의 명칭과 어류의 명칭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만이 아닌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했고 이러한 조사로 인해 어촌 생활어와 관련한 다양한 어휘와 관용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본 조사 대상인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는 명태를 잡기 위한 준비단계인 그물 손질부터 이를 다시 덕장에서 황태로 만드는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생활어를 채록할 수 있었다.

2) 모든 조사가 제보자의 구술발화로 진행되어 그 지역의 미세하고 다양한 방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동해안은 조사 지역을 그 행위에 따라 강릉시와 평창군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였는데 이를 통해 강릉 지역 해안의 방언형과 평창 지역의 내륙 방언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방언이 반영된 전문용어를 다수 고찰함으로써 앞으로의

방언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 동안의 연구가 민속학적으로만 치우쳐 있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어촌 생활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어업과 어부의 개념과 어촌의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환경, 어획물, 어획도구, 행위에 관한 어휘를 조사함으로써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사용되는 어휘와 관용표현의 어휘망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실질적인 어휘 조사는 우리 민족과 역사를 같이 한 ‘어촌’에 대한 생활어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질 것이다.

4) 조사된 어휘의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을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뜻풀이를 보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조사 결과물을 조사 어휘,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여, 전자사전 형식의 『민족생활어사전』 편찬의 자료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에 대한 조사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다. 지금까지의 조사와 연구에 대한 반성은 다음과 같다.

- 1) 방언에서 유래한 전문 용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어휘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방언이 반영된 전문 용어의 어원과 변화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2) 어촌 관련 생활어 역시 다른 다양한 직업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어휘 분류와 뜻풀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강릉과 평창 지역의 다수의 제보자를 선정했지만 지역적 한계와 제보자의 한계로 인해 이 어휘들이 특정 개인어가 아닌 생활어라는 점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남는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된 조사가 아닌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제보자를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한 개인의 생활어, 한 직업의 생활어, 한 지역의 생활어의 한계를 뛰어 넘어 민족생활어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민속박물관(2002), 『경남어촌 민속지』,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2004), 『동해 오징어 30년 해황과 자원변동』, 동해수산연구소.
- 국립해양유물전시관(2002), 『우리배, 고기잡이』 제3집,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권삼문(2001), 『동해안 어촌의 민속학적 이해』, 민속원.
- 김지숙(2009), 『어업 생활어와 장인의 말』, 글누림.
- 남기탁, 손주일, 한길, 최윤현(2002), 『방언』(강원전통문화총서4), 국학자료원.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9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어업용구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9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상북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2008), 『만재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2009), 『우이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박성중(2008), 『강원도 영동지역의 방언』, 제이앤씨.
- 박성중, 전해숙(2009), 『강릉 방언 사전』, 태학사.
- 박용수(1992), 『겨레말갈래큰사전』, 한글문화연구회 출판부.
- 박용수(1995), 『새우리말갈래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1977), 『한국동해의 해양환경과 어업자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안옥규(1996), 『어원사전』, 한국문화사.
- 왕한석(2009), 『한국의 언어 민속지』, 교문사.
- 이경진(2003),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예문사.
-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 이원석(1990), 『한국의 배』, 대원사.
- 이익섭(1981), 영동 영서의 언어분화-강원도의 언어지리학-, 서울대학교 박사.
- 이훈중(1992), 『민족생활어사전』, 한길사.

부 부

2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종량명	발음정보	동사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대 정보 상지	명대 정보 음성	표준구 어사전 특제어
어업	기타	관용표현						고기 잡으면 오늘 기꼬제이 된다	관		축항을 해 그날 고기를 많이 잡으면 상주축, 성의 기를 쫓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다. [고기 잡으면 오늘 기꼬제이 된다] 이런 그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의미이다. 어부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기본 좋은 말이다 한다.	[고기 잡으면 오늘 기꼬제이 된다] 이런 그 것도 하지.		김준래(강릉시)		0		
어업	기타	관용표현					고기가 잘 붙다	관			그물 또는 낚시에 고기가 잘 걸린다 또는 고기가 많이 걸린다는 의미이다. 돈이 붙는 다와 같이 고기도 사람에게 붙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아니, 우리 그물에 낚수나 고기가 잘 붙는 건 말이야. {고기가 잘 붙거든}. 많이 걸려.		박일현(강릉시)		0		
어업	기타	관용표현					노가리 까다	관			까짓말 한다는 의미이다. 처음 노가리와 명태는 이름이 다르다고 했다가 이름이 같은 어중임을 알면서 생긴 말이라고 한다. 지금은 거짓말 한다는 의미 외에도 시끄럽게 떠들다는 의미도 같이 지니고 있다.	[노가리 까다] 거짓말 한다. 그가지.	제모자 김진훈은 '쉽게 말하면 옆마 주고, 노가리라는 것은 오징어를 낚는다. 명태 새끼 아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명태를 낚아 버리니까 두된 종류가, 둘만 붙일 있지. 예, 명태 새끼네. 그게 그래서 결국은 자원을 고갈시키는 거요. 가사실은 명태 새끼가 낚는데 거 노가리 낚아 버. 어날에, 낚는 명태 새끼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노가리'와 '명태 새끼'가 다른 것을 지칭한다고 밝혀져 이를 다르게 알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중석(강릉시)		0		
어업	기타	관용표현					눈도 답답하다	관			눈이 어둡다는 말을 의미한다.	눈이 어둡다는 말을 의미한다. 눈도 답답하다. 눈도 답답하다. 눈도 답답하다. 눈도 답답하다.		김준래(강릉시)		0		
어업	기타	관용표현					동지 때 명태를 잡으면 톱마리로 말려가지고 잡수면 좋다	관			동지에 잡은 명태가 좋아 이를 두고두고 말려서 먹어도 좋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명태는 내장을 제거한 후 햇빛에 말려 구워먹는다. 그러나 동지 때 낚는 명태는 동지 때 낚는 명태가 좋아 이를 두고두고 말려서 먹어도 좋다는 의미이다.	동지 때 명태를 잡으면 톱마리로 말려가지고 잡수면 좋다. 동지 때 명태를 잡으면 톱마리로 말려가지고 잡수면 좋다. 동지 때 명태를 잡으면 톱마리로 말려가지고 잡수면 좋다. 동지 때 명태를 잡으면 톱마리로 말려가지고 잡수면 좋다.	영영숙(강릉시)		0			
어업	기타	관용표현					동짓날에 명태 잡는 날이라 했어	관			동지에 잡은 명태가 좋아 이를 두고두고 말려서 먹어도 좋다는 의미이다.	[동짓날에 명태 잡는 날이라 했어]. 동짓날에.		박옥녀(강릉시)		0		
어업	기타	관용표현					동짓날에 명태 잡는 날이라 했어	관			명태가 잘 잡히는 시기를 이 지역에서는 '동지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동지날'은 동지와 같이 추운 겨울에 잘 낚는다고 한다. 또 이렇게 명태가 많이 낚일 때 나온 명태를 잡으면 톱마리로 말려가지고 잡수면 좋다. 동지날에 명태를 낚는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동짓날에 명태 잡는 날이라 했어. 동짓날에.		박옥녀(강릉시)		0		

2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량	발음	종사 장소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대 정보 사건	명대 정보 유형	표준구 어사건 특제어
어업	기타	돈						벧삿	명		고기잡이를 끝낸 후 주는 부대 비용, 스무마리씩 묶은 한 두들 중에 세 마리를 배삿으로 내고 물갈퀴마리는 자기가 가진다.	{벧삿은} 세 마리씩, 한 두들에 세 마리.		김준래(강릉시)		0		
어업	기타	돈						보통	명		선장을 가리키는 다른 말.	선장은 {보통으로} 하는 기 선종이다 이런 사견상 의미 확장이 필요함.		김준래(강릉시)		0		
어업	기타	돈						부	명		벧삿과 수혈 수수용으로 찍적된 단위 선종에 개삿 부를 또 수혈에 삼 부를 준 후 남은 것이 이 인원의 뜻이다.	그래, 세 마리들에 그 우리 고기를 전부 건었는데 금액으로 칠오면 {삼 부를} 할당 할당 한디니까네, 벧삿이 삼 부리니깐.	김준래(강릉시)		0			
어업	기타	돈						부아깅	명		벧삿 좀 더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	총 상산 면역에 우리가 이 만원씩 벌었다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만원씩 벌면 열이만 벌을, 인제 보통이면 보통, 이렇게 오다가 쟁 개산을 본디고, 개산을, 그래 같이 모두 선주 집에 가서 안자 나는 열마 잡고 벧삿 열에 주고, 니 다름 아디라는 영마고 인제 이렇게 한다고, 고 고개서, 고개서 내 생선 고에서 고걸 내가 더 먹는 기 {부아깅} 그런디. 부아깅.	박종석(강릉시)		0			
어업	기타	돈						선종	명		배 안의 경비로 사용하는 것. 선원이 먹는 것을 사거나 하는 경비로 사용한다.	이게 누 그름이다 누 그름이다 할지 않는가, 어섯이 멍기른 여섯우으로 또 그거 다 멍기민, 다 멍기민 석 딱씩 뺐긴디고, 그래 석 단 뺐기면은 그래 자기 뺐은 자기 뺐은 줄만 뺐긴 기 영오면, 그래 선종을 또 뭐야 할지 영오면 고기가 영태 뺐이지, 영태디고 고개장 쪽은 선원에 뺐어지마는 그건 선종이야, 우리 선원들 나중에 뭐 필요할 죽에 쓰자 이 래가지고 그개 목타라 이래가지고.	사견상 의미 확장이 필요함. (배 안 선종)의 의미만 존재함.)	김준래(강릉시)		0	0	
어업	기타	병						곶평	명		벧삿량이 주로 생기는 병을 통칭해 가리키는 말.	{곶평만} 들어 곶평만.		조규철(강릉시)		0		
어업	기타	상태						뜨뜨하다	형		따뜻하고 훈훈하다.	그래 인제 속 한 잔씩 먹고 국 한 그릇씩 먹고 그래 뜨뜨하다 속이 좀 뜨뜨하다 해가지고 인제 그래.	조규철(강릉시)		0			
어업	기타	상태						뜨시다	형		뜨겁다	근데 수온이 지금 뜨셔야 되는데, 지금.	김진호(강릉시)		0	0		
어업	기타	상태						말이지다	명		조아지다.	그래서 말하든 때막지서부터 막 {말이지}.	박일원(강릉시)		0			
어업	기타	술						곶딱거리	명		배곶딱거리와 같은 말.	속막가리는 그런 아주 저거 뭐야, 가늘, 가늘디랄기 때문에 없고 {곶딱가리를} 준다고.	김준래(강릉시)		0			

2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말	발음정보	형식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대 정보 사건	명대 정보 음성 특징	표준구 어휘 특징		
어업	기타	술						막가리	명	술을 가리키는 말. 해장술을 먹고 배에서 적 업을 한다. 주로 소주를 말한다.	그래 나가미. 나가미 해장하는 기. 그기 원 래 그거 뽕사람들은 이배이 그도 먹는 성질 이 그거 있기 때문에 {막가리를} 허나씩 취.	막가리(강릉시)				0				
어업	기타	술						배켈막가리	명	나란 술을 가리키는 말.	속막가리로, 속막가리 주단지 {배켈막가리} 주면 막가리를 허나씩 주고는 그거 먹고 아 술이 편단 말이야. 제편은 나갈 때까지 잔다고.	막가리(강릉시)				0				
어업	기타	술						속막가리	명	좋은 술을 가리키는 말. 좋은 것은 속막가리 고, 나쁜 것은 배켈막가리로 말한다.	속막가리도, {속막가리} 주단지 배켈막가 리 주면 막가리를 허나씩 주고는 그거 먹고 고마 술이 편단 말이야. 제편은 나갈 때까지 잔다고.	막가리(강릉시)				0				
어업	기타	술						명가리시	명	술을 한 번 치면 출발을 의미하고, 여러 번 치면 계속 앞으로 감을 의미한다. 두 번 치 면 도둑아 감을 말한다.	그럴 때는 {명가리시}. 명가리시가 중을 이렇게 중을 몰아가지고는 뒤에서 명기면, 한 번 명기면 인제 거 출발이고 고 명애 또 아러 번 명길 명길 거 같으면 고시버로 간단 말이야.	막가리(강릉시)				0				
어업	기타	술						때때	명	하나하나 때어서.	명태를 명태를 인제 나무다 걸으면 이 그진 애 이렇게 {때때} 걸으면 명태가 떨어졌 떨어지면 침으로 허나씩 집어 끌어올 거 아 니예요. 구형 거 여자. 아주머니들아. 아주 머니들이 다시 잠으로 또 껴요. 밑에서. 그 게 인제 낙대.	이상옥(평창군)				0				
어업	기타							우개도리	명	명태 왕복발에 사리나무를 엮을 수 있게 여 유를 두는 것을 가리키는 말.	인제 거 사리쟁이다가 폐면, 이렇게 인제 쥘 봉알로 {우개도리를} 주는데 이기 뽕애다 뽕 애게는 한 짐삼포로 말린 다음애 곡물 피개트, 곡물 피서 이렇게 썰어놓음. 이때 인부들이, 뽕아 도면 인제 또 사람 일공을 사서 이 덕을 우애다가 인제 구멍가리를 해 놔. 이 명태를 어그릇애 구멍가리. 그침 우 애다 구멍가리 해놓. 구멍가리.	이상옥(평창군)				0				
어업	도구	구						낮	명	덕장에서 낮잡이가 두를 묶을 때 사용하 는 도구.	도구가~ {낮뽕애} 없지요. 없고.	만사선(평창군)				0	0			
어업	도구	구						가시오	명	명태를 고정시키기 위해 엑스자로 고정해놓 은 것. 스무자에 1개씩 놓는다.	명태를 고정시키기 위해 엑스자로 고정해놓 았지? 요게 요렇게 또 묶어놔야. 이게 넘어 가지 못하게 요렇게 했는 기 {가시오}.	강한수(평창군)				0	0			

2 명태 잠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량	종류	종류 정의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태 정교 사진	명태 정교 음성 음성 문자	표준어 어휘 문자	
어1	도구	명태이도덕			기동도리			명	명태에서 기동이 되는 나무를 가리키는 말.		기동이지. {기동도리}.		이상옥(명창군)		0	0		
어2	도구	명태이도덕			덕			명	명태를 너는 곳을 가리키는 말.		어 옛날엔, 예전 방법은 그 {덕을} 여기 가 지고 있던 사람이는 그저 명태가 그 당시는 확자가 있지 명태가 임자가 화주거든요? 화 주가 한 덕에 한~	사전상 의미 확장이 필요함.	이상옥(명창군)		0	0	0	
어3	도구	명태이도덕			도리			명	명태를 뉘 수 있는 덕대의 기둥으로 뉘 나무 기둥. 이 위치에 따라 상도리, 중도리, 하도 리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말로 '상덕, 중덕, 하덕'이 있다.		어기 여기 {도리}가 약해가지고 보조를 세 우는 거 이걸 뭐라 그래.	강한수(명창군)		0	0	0		
어4	도구	명태이도덕			보조대			명	덕대가 넘어지지 않게 옆에 받침대로 세워 뉘는 나무를 가리키는 말.		보조대, 그냥 {보조대}.		안시선(명창군)		0	0		
어5	도구	명태이도덕			상덕			명	덕대에 있는 가장 위쪽 위치에 있는 덕. '상 도리'와 '상덕'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 었다. 예전에는 상층으로 덕을 만들었고 언 젠은 상층으로 하지 않고 이층으로 많이 한 다고 한다.		하층에 올라 추면은 하층이 중덕으로 또 올 리쳐. 그러면은 그 {상덕에서} 그런 고기를 잡고.	강한수(명창군)		0	0			
어6	도구	명태이도덕			상도리			명	상층에 있는 도리, 상덕과 같은 의미로 '상 층, 상도리'가 모두 나타나고 있었다. 마친 가지로 '중덕'은 '중층, 중도리'로, '하덕'은 '하층, 하도리'로 표현하고 있었다.		어기 옛날엔 {상도리}, 그렇지. 이렇게 해서 어기 기둥이.	강한수(명창군)		0	0			
어7	도구	명태이도덕			상층			명	상덕, 상덕, 중덕, 하덕 이를 모두 가리켜 상 층이라고 부른다.		그럼, 하층 중층 {상층} 이랬지.	사전상 의미 확장이 필요함.	이상옥(명창군)		0	0	0	
어8	도구	명태이도덕			중덕			명	덕대에 있는 중간 위치에 있는 덕.		요렇게 모아, 모아가지고 그기 이제 {중덕 이} 있고, 중덕.		강한수(명창군)		0	0		
어9	도구	명태이도덕			중도리			명	중층에 있는 도리.		{중도리} 그렇지, 옛날엔는 상층하기 있었 는데 지금은 어기 기둥 그기 누구 덕장이야. 어기 어기 똑 간기 도리아. 하도리, 중, 상도 리. 그러면 오 한 칸이 멀지라 그랬지. 오기, 오기 멀지라 그랬잖아, 오게.		강한수(명창군)		0	0		
어10	도구	명태이도덕			중층			명	중덕을 말라 가리키는 말. 상덕과 같은 의미 로 '상층, 상도리'가 모두 나타나고 있었다. 마친가지로 '중덕'은 '중층, 중도리'로, '하 덕'은 '하층, 하도리'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럼, 하층 {중층} 상층 이랬지.	사전상 의미 확장이 필요함.	이상옥(명창군)		0	0	0	
어11	도구	명태이도덕			하덕			명	상층의 덕 가장 밑에 위치한 것을 가리키 는 말. 상덕과 같은 의미로 '상층, 상도리'가 모두 나타나고 있었다. 마친가지로 '중덕'은 '중층, 중도리'로, '하덕'은 '하층, 하도리'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기 {하덕}. 그기.	강한수(명창군)		0	0			
어12	도구	명태이도덕			하도리			명	하층에 있는 도리.		어기 {하도리}.		강한수(명창군)		0	0		

2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단어	종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장소1	출전장소2	명태 종목 사전	명태 종목 음성	표준어 사전 음성
어엄	도구	명	명	명	명	명	하덕을 달리 가리키는 말.	하흥	하흥	하덕을 달리 가리키는 말.	그럼, {하흥} 종종 상흥 이랬지.	사전상 의미 확장이 필요함.	이상옥(평창군)		0	0	0
어엄	도구	명	명	명	명	명	명태를 임시로 보관하기 위해 되는 도구.	갓바	갓바	명태를 임시로 보관하기 위해 되는 도구.	근데 여그다 걸고서는 겨울에다 인제 명태가 창고와 없애가 그날 썩어놓고는 {갓바} 썩워 놓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거기다 가 삼성이 인제 실패를 했었어오. 왜냐하면.		이상옥(평창군)		0	0	0
어엄	도구	명	명	명	명	명	명태를 덕에 세운 명과 망 사이에 걸고 쉽게 들어간 곳.	고랑	고랑	명태를 덕에 세운 명과 망 사이에 걸고 쉽게 들어간 곳.	{고랑이지}.	사전상 의미 확장이 필요함.	이상옥(평창군)		0	0	0
어엄	도구	명	명	명	명	명	고랑에 세우는 덕대를 가리키는 말.	고랑대	고랑대	고랑에 세우는 덕대를 가리키는 말.	그러면은 보통 상흥을 걸면 한 칸에 삼십개 드가는 {고랑대}; / {고랑대라니까};		김진광(평창군)		0	0	0
어엄	도구	명	명	명	명	명	덕대를 달리 부르는 말.	나무	나무	덕대를 달리 부르는 말.	나무하고 {나무}, 나무하고 나무 사이.	사전상 의미 확장이 필요함.	김진광(평창군)		0	0	0
어엄	도구	명	명	명	명	명	황태를 거는 장소. 덕장목과 같은 의미이다.	덕대	덕대	황태를 거는 장소. 덕장목과 같은 의미이다.	{덕대} 뭐야.	사전상 의미 확장이 필요함.	강한수(평창군)		0	0	0
어엄	도구	명	명	명	명	명	물오리가 명태를 벗기에서 건질 때 사용하는 도구.	물오리작대기	물오리작대기	물오리가 명태를 벗기에서 건질 때 사용하는 도구.	물오리 또 저 {물오리작대기라고}, 물오리.		인사선(평창군)		0	0	0
어엄	도구	명	명	명	명	명	명태를 덕장에 가두고 임시 크를 깔 때 사용하는 도구. 예전에 사용했던 도구이다.	삐리	삐리	명태를 덕장에 가두고 임시 크를 깔 때 사용하는 도구. 예전에 사용했던 도구이다.	삐리로 {삐리도} 한두들씩 끼워, 끼워가지고 사장에서 그걸 한두들애 이렇게 보아지. 보기도 좋고 운반하기도 좋고 이렇잖아.		강한수(평창군)		0	0	0
어엄	도구	명	명	명	명	명	명태를 덕장에 가두고 임시 크를 깔 때 사용하는 도구. 예전에 사용했던 도구이다.	삐리쟁이	삐리쟁이	명태를 덕장에 가두고 임시 크를 깔 때 사용하는 도구. 예전에 사용했던 도구이다.	그러라고 했는데 그 명태를 가지 않아. 그 대가지고 명태가 그 당시에는요. 명태가 풀에 먹기가 좀 힘들었어, 그 당시는 이렇게 지금처럼 작업 안 하고 {삐리쟁이다} 꺼서 그냥 해서 사용하고 대구, 주로 서울, 대구쪽 명애 갔었죠.		이상옥(평창군)		0	0	0
어엄	도구	명	명	명	명	명	삐리와 같은 말이다.	삐리꼬쟁이	삐리꼬쟁이	삐리와 같은 말이다.	그래 그걸 인제 {삐리꼬쟁이예다} 꿰가지고 이렇게 팔고 이러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걸 개 있어, 있는데.		강한수(평창군)		0	0	0
어엄	도구	명	명	명	명	명	삐리이나 개울에서 명태를 씻는데 이때 넷을 무는 도구를 가리키는 말.	아바	아바	삐리이나 개울에서 명태를 씻는데 이때 넷을 무는 도구를 가리키는 말.	이렇게 개울을 막아주거든. {아바}, 아버를.		이상옥(평창군)		0	0	0
어엄	도구	명	명	명	명	명	삐리이나 개울에 나무로 막아 명태를 씻는 곳.	아바대	아바대	삐리이나 개울에 나무로 막아 명태를 씻는 곳.	요기 인제 덕장에서 덕을 매놓고 명물에 이 고기를 가두는 그 {아바대라} 그러냐?		강한수(평창군)		0	0	0

2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정보	형식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태 정보 사지	명태 정보 음성 특징	표준어 어휘 특징
어휘	도구	보조도구	그물	종류				한치	명	명	그물 코가 가장 작은 그물	한치짜리는 { 한치짜리는 } 그레 앓을 꺼야. 물은 나뉘는 경우가 많아 뒤어싱 바리도 했으니까.	김준래(강릉시)			0		
어휘	도구	보조도구	그물	종류				동배	명	명	그물에 이신발 정도 여유를 두어 동을 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 양과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여유를 두는 것은 물 조류 때문에 주로 그물의 좌부분에 단다.	김준래(강릉시)				0		
어휘	도구	보조도구	기	종류				춧기	명	명	바다에서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 배 위에 달아 신호의 의미로 사용한다.	김준래(강릉시)				0		
어휘	도구	보조도구	깃발	종류				알기	명	명	자신의 그물 위치를 알기 위한 위치. 예전에는 이깃발과 상관 없이 기종은 그물 위치를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칠 때 그물 가장자리가 눈에 잘 보이게 한다.	김준래(강릉시)				0	0	
어휘	도구	보조도구	나침반	종류				패질	명	명	나침반을 가리키는 말.	김준래(강릉시)				0		
어휘	도구	보조도구	다마	종류				다마	명	명	그물 위에 옷기를 둘기 위해 다는 도구. 그물이 가라앉아 상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단다.	김준래(강릉시)				0		
어휘	도구	보조도구	다마	종류				다마이	명	명	그물 위에 다는 유리로 된 다마. =다마.	김준래(강릉시)				0		
어휘	도구	보조도구	다마	종류				시망다마	명	명	시망그물에 다는 다마. 큰다마와 작은다마가 있다.	김준래(강릉시)				0		

2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				
어업	도구	보조도구	더마						큰더마가 있고 적은더마가 있는데 그레 면 큰더마가 {큰더마} 하나, 예고, 다마를 세개 고고, 세 칸 내지네 칸 해서 인제 하나 만든 고. 다마 매는 거는.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땃						고기 막 들어보고, 가서 들어볼 적에는 그제 땃 아래 거 인자 땃 아래 그물을 뿔부터 먼 제 든다고. 그기 땃 아래니까, {따고부터} 안지 안 들고, 뿔부터 들어보는 고기가 없 면 배에 앉거나, 뿔대로, 뿔 가는데로, 그레 뿔 가는 거 부고서 뿔이 썰뿔은 간다. 이러한 썰뿔 같은 거 들고 뿔기고, 안뿔이 갖다 이 러은 안개 보는 거 그거 들고 뿔기거든.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땃						그레 일인양에 세 번, 그러니 세 번 다 뿔기 고 나면 인제 마저땃에 가지고 나면 그 따고 뿔린 줄이 있잖아? 줄을 뿔겨가지고 {뿔줄 뿔} 거 오는 때로 그양 받아가지고는 뿔줄 의 중간에서 줄이 오르는 노꾸라제이가 이 양개 거 고기 절린.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땃개						뿔날에는 {가마니로} 했는데.		이상욱(평창군)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땃개						마카 축러가지고, 싹 축러가지고 받아서 뿔 기 좋게 이레 해가지고 뿔는 인제 그 그 줄 뿔고, 뿔사개라 하는데, 뿔사개 뿔러 그러니 고 하니 {마다리후대} 있지. 후대, 고기 고 기 끊고 마다라지고 매가지고 하는 기 고 줄 뿔고 뿔사개다 하는데, 고 매가지고 가아지, 배다 나가면 열하기 좋지.		박종석(강릉시)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뿔						그기 배뿔이지, 배뿔, {배뿔} 가지고 양쪽을 뿔어가지고, 그러이 이게 배, 배뿔이란 그뿔 기 같으면, 저 저 뭐야 마다라기야 오래 고뿔 러졌어, 마다라 양쪽으로 꼬부리고, 아주 빼 죽할 기, 걸지.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뿔						뿔, {대뿔} 가지로 이뿔개 바늘 짚아서 오래 썰 썰어가지고.		박옥녀(강릉시)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뿔						뿔고, 뿔, 뿔, 이뿔, {양개기에다} 싸가지고 오고 그러지만은 우리 할아버지는 할구를 하나꾸어가지고는, 군대 양구 그 해가지고.		조규철(강릉시)		0									

2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명	발음정보	통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대 사건	명대 정보	표준구 어사건 특징
어업	도구	보조도구	발통					항구	명		발통을 가리키는 말. 주로 군인들이 사용하며 단 발통을 사용한다.	가 인제 밭은 군대 {항구에다가} 싸가지고 가거든.		조규월(강릉시)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발통					항구딱가리	명		항구에 술을 먹는 것을 가리키는 말. {항구딱가리를} 먹어.			조규월(강릉시)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부표					부이	명		부표를 달리 부르는 말. 그 인제 밭은 인제 그 중간 중간에다가, 우에다가 인제, 인제 그 {부이를} 띄우는 거야.		김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상					상	명		덕장에서 덕을 세우기 전에 땅을 팔 때 사용하는 도구. 보통 덕은 그 결 이만을 땅 밑으로 파고 두어 덕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래서 석이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다. 옛날에는 이 덕을, 덕 기둥을 세우는데 지금 은 뱀장어로 인해 파지만은 옛날에는 심으 도 다 썼거든. {삼으로} 한 열매다 파가지고 가다. 가뽏을 세워서 덕을 했는데 지금은 뱀 장어로 하나만 팔 그제 없지. 옛날에는 하이 든 그, 옛날엔 덕을 하든 열매다 상을 파가 지고 덕 기둥을 세워서 새끼줄로 그 덕을 진 부다 다 썼어. 지금은 나이롱줄로 매지던데.		강현수(평창군)		0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쇠					뽕	명		뽕가리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단위 명사. 옛날에는 인제 {뽕} 걸어 보노면.			김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쇠					뽕가리	명		뽕을 달리 부르는 말. 낚시 오십자리가 항 구에다 이리화 한 톨이 다섯개 무인 것을 다 다섯뽕가리, 어섯개 모인 것을 어섯뽕가리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 이 양반 말솜은 옛, 옛뽕가리라 하는데, 옛날에는 그 어그서 우리가 뽕터잡이를 할 때, 뽕속 바쳐가 할 때 옛 {뽕가리} 아니 고, 전부 다 단 뽕가리는 거는, 뽕 톨이 더 뽕이 뭐 이하면은.			김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싸개					덕사개	명		그물이 양키지 않도록 보자기 모양의 천으 로 싸는 것을 가리키는 말.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기 전에 덕사개에 싣 그물을 가져오고 나 간다.	{덕사개라고} 있는데 덕사개다 끈을 매가주 고래 거 비대를 마까 차려 잡아가.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줄					예비줄	명		선원을 깨우기 위해 치는 줄. 그럼 그 한, {예비줄} 치잖아.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줄					준비줄	명		예비줄과 같은 말. 그래 또 한 번 명 치면 준비, {준비줄은} 명 명명명 치다가, 그 명에 한 번 돌리던 도 무가 일단 말아야.			김준래(강릉시)		0		0

2 명태 잠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태 정보 사전	명태 정보 음성 정보	표준어 조사어 정보	
어업	도구	보조도구	줄		나이를 줄		명태를 썬는 줄로 요즘 사용하는 도구.	명	명태를 썬는 줄로 요즘 사용하는 도구.	그 전에는 이 저 왜 줘오르다가 부짚으르다가 명태를 꿰가지고 와서 그 당시는 {나이 줄}도 없었어. 왜냐하면 그때는 부터 보니까 꼭 새끼줄로 다 덕장을 했었거든요.		이상옥(평창군)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줄		엿줄		물 꼬이를 썬는 줄. 물의 꼬이를 나타내기 위해 중간중간에 백오미더마다 부이를 달아둔다.	명		{엿줄} 옛 번 뭍스? / 그기 옛날 말때는 그레는데 {엿줄이름인데}.		김진홍(박종석(강릉시))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줄		벗짚		명태를 썬는 줄로 과거에 사용하는 도구.	명		그 전에는 이 저 왜 줘오르다가 {벗짚으로 다} 명태를 꿰가지고 와서 그 당시는 나이 줄도 없었어. 왜냐하면 그때는 부터 보니까 꼭 새끼줄로 다 덕장을 했었거든요.		이상옥(평창군)		0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줄		보채		벗시버늘이 섞이지 않게 매는 가는 줄을 가리키는 말. 보통 이신에서 삼십 센치 중간 정도의 길이의 가는 줄을 말한다.	명		{보채}. 여기서 이기 줄이 가는 줄이야.		김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줄		새끼 줄		덕 기둥을 고정시키는 줄 예전에 사용했던 도구이다.	명		옛날에는 이 덕을, 덕 기둥을 세우는데 지금의 뉘 정비로 아래 파지만은 옛날에는 상으로 다 판거든. 상으로 한 뉘인데 파가지고. 덕 기둥을 세워서 덕을 뉘는데 지금은 뉘 정비로 하니까깐 별 그게 없지. 옛날에는 하이름 그. 옛날엔 덕을 하는 뉘메다 상을 파가지고 덕 기둥을 세워서 {새끼줄로} 그 덕을 전부 다 다 뉘어. 지금은 나이줄로로 매지만은.		강한수(평창군)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줄		잡		명태를 스무마리씩 꿰 때 사용하는 도구. ছ이 없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명		그때 ছ이 없으면 {잡을} 가 새끼를 꼬아가지고도 그레 많이 했는데.		박종석(강릉시)		0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줄		잡		명태를 스무마리씩 꿰 때 사용하는 도구.	명		그 그레 잠으면 아주 {잡기}, 찰그릇 가지고 꿰어가지는데 스무마리씩 꿰잖아, 스무마리씩 꿰가지고.		박영현(강릉시)		0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줄		잡넝쿨		명태 두를 썬는 재료.	명		근데 옛날엔 명태를 지금 아까 그 말쑥 줄에 안 들어갔는데, 명태를 {잡넝쿨이}, 찰넝쿨.		김진호(강릉시)		0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줄		잡순		명태를 한 두를씩 꿰 때 사용하는 도구.	명		에. {잡순에다가}, / 여 빨라지고 아가미 캐워가지고 한 두를씩, 그놈을 먼저 쳐가지고 상은 썬 아~ 거 선창에서 거거, 누 집지 리요. 거 올라가는데.		김진호, 김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보조도구	줄		도랑통		물오리가 차일할 때 시린 손을 방지하기 위해 해뜨기운 물을 담아두는 통. 보조도구이다.	명		그리고 속도 이제 시리면은 {도랑통} 같은데 꿰어지고 배스 같은 데다 밑이다 두 번은 이제 고무장갑 끼고, 거기에 이제, 고무장갑도 실장이라도 거기 대응 당겨서 손이 시린 거 대응 방지했고, 지금은.		강한수(평창군)		0			

2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원표제어	용량	발음	종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대	명대	표준국어
어업	도구	보조도구	화덕						화덕	명	명	배 안에서 밥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화덕}.				0		표준국어
어업	도구	보조도구	갈래이						갈래이	명	명	가는 고리가 달린 도구를 가리키는 말.	그때 한수거리 저 저 한수거리는 마카 바 수거리 옆에 놔뒀다고. 그래 고거 열, 저저~ 맨들어가지고 하하. 몰아가 이러가.				0		표준국어
어업	도구	보조도구	칼재이						칼재이	명	명	넓어진 모양의 칼고리를 가리키는 말. 노구 칼재이가 고기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 하는 도구이다.	칼을 땡가지고 뭇줄을 거 오는 대로 그냥 받아가지고는 땡줄은 중간에서 줄이 오으면 노구칼재이가 이 땡개 거 고기 줄린. 고기가 채일까봐 옆에서 {칼재이} 같은 요런 거 가 지고. 고기 안 걸리게 땡개. 땡개 넘어오는데 칼. 고기 땡개재이라 그런다고. 땡개재이. / 다 땡본탈. 땡본아가 많아오. 칼재이. 우런 가 칼고리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칼재이. 다 땡본말이 많다 아니요.			0			표준국어
어업	도구	원송도구	기타						갈매	명	명	뿔뿔을 뿔으로 물감을 들이는 것.	{갈매}. 갈매 막았소?	사전에 등재된 북한어 '갈매'와는 의미 차이가 있음.			0		표준국어
어업	도구	원송도구	배						가라	명	명	배 가운데 부분. 짐에 비유하면 대동맹기에 해당한다.	요. 요기 인쇄 요기 인쇄 배 {가라}고. 배 줄 땡줄 거든 짐에 걸은 아주 그. 그러지. 저 뭐야.			0		표준국어	
어업	도구	원송도구	고덕						고덕	명	명	배 앞을 가리키는 말. 그물에 다는 끈을 넣는 배 칸을 가리키는 말이다.	앞. 앞 뭉고서는 {고덕}이라. 그런다. 아이고 ~요기 고덕. 아기고. 아기고.			0		표준국어	
어업	도구	원송도구	고덕칸						고덕칸	명	명	근간 앞에 있는 작은 칸을 가리키는 말. 배 앞에 위치한 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중간칸-고덕칸-르칸-기관실-선장실-방'으로 위치한다.	프그마한 칸이거든. {고덕칸이}.			0		표준국어	
어업	도구	원송도구	고물						고물	명	명	배 뒷부분을 가리키는 말. 선미와 같은 의미이다.	{고물}.			0		표준국어	
어업	도구	원송도구	광목뿔						광목뿔	명	명	광목으로 만든 뿔.	뿔이 그 뿔이 그 뿔 뿔이었소? 거기. 아. {광목뿔이요?}			0		표준국어	
어업	도구	원송도구	기관뿔						기관뿔	명	명	기관실, 기관장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공간은 '고덕칸-중간칸-르칸-기관실-선장실-방'으로 위치한다.	기관지가 되고 인쇄 자꾸 땡기는 한 사람은 그 뿔이 좋은 인쇄. 뭐야 저 그개가 복잡하지 않는 데다가 새래. 뿔는다고. 바로 {기관뿔} 뿔은도. / 기계. 저름 {기관실이지} 뿔.			0		표준국어	

2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대 정교 사지	명대 정교 음성	표준어 어사지 음성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본당정	부본당정			물을 해져 배를 나아가게 하는 기구. 목선을 올리는 부분이다. 바다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 원진이 달린 배에서도 원진이 이상이 있을 때 사용한다. '노'보다 '놈'의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같은 의미로 '놈까지'가 사용되기도 했다.	놈	이게 그리고 이게 {노거트}? 이게 원진이 이상이 있거나 깨졌을 때 이 노를 지어가지고 다 했던 말이야. {원본놈이}, 있고 저 조는 '노' 모두 등재됨. (강릉시)		김진호, 김준래 (강릉시)		0	0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본당정	부본당정			놈을 만쥘수록 노의 중간에 내 구멍, 노를 반신 구멍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곳에 노를 꽂은 후 짓는다.	놈구멍	그래 놈에는 여기 여기 가은 {놈구멍이} 있고, 여게 볼구멍.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본당정	부본당정			노를 조정하는 끈을 가리키는 말.	놈끈	그럼 여기다가 배 또 뭐 했는가 하은 {놈끈이라고} 있어. 놈끈, 내라가는 건 내라가지만 거 파도 이 팽길 적에도 이놈을 지 놓긴을 이래 올라가지고 팽기가 때문에 힘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 배가 언제 그 힘에 그러이 볼 볼, 그거는 노를 피쳤다가 또 이 쪽으로 올 적에는 또, 또 제, 워아 앞으로 제 갔다가 이라거든.		김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본당정	부본당정			노를 잡아 당기고 미는 부분. 손잡이를 가리킨다.	놈잡지	어 손잡이는 {놈잡지라}.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본당정	부본당정			노를 고정시키기 위해 배 바단에 구멍이 뚫린 곳에 박는데 이 부분을 가리키는 말. 노의 하단에 있는 구멍에 이것을 끼우고 노를 움직인다. 노를 움직이던 후 밀거나 당기거나 배를 움직인다. 성기 부분과 관련지어 부르기도 하였다.	놈줄	놈줄, 응, {놈줄}, 그리고 우리 요런 뭐라 그 놈줄, 응, {놈줄} 있었어. 아, 볼거라던 것요? 요기/ {노장} 사전에 '놈줄'은 등재됨. (강릉시)		김진호, 김준래 (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본당정	부본당정			놈줄을 두는 곳.	놈줄다이	배가 되데, 이 노를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놈줄을 어든 {놈줄다이들} 어데 걸었소.		김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본당정	부본당정			노에 묶는 줄 또는 끈을 가리키는 말. 노가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게 노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끈	응, 노끈, {노끈이라고} 있제, 노끈, 그 적에는 원본에는 '노끈'은 줄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 노 배, 배우에다가 배우에다가 매고 그 줄 매고 거 끈가리를 고리를 모양게 장래라도 고리 고리 지거 없이 그래 두 걸레를 하든지 아래가지고 여 장구지. 요 우에다가, 아, 장래지 올라가지 더 더 내려가지 않지, 아.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승도구배	부본당정	부본당정			아래, 위로 원진이 달린 것을 가리키는 말.	다대원진	그 일본말로 요꼬가 아니고 다대 {다대원진}, 그지?		김진호(강릉시)		0		

2 명태 잠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량	발음	종교	통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대 정보 사지	명대 정보 음성	표준구 어사전 음성 특징
어엄	도구	용승도구	배	부분명칭				태기				고기를 보관하는 곳.	그래 요 우에 인제 칸 열 수 있는 데기. 칸마다 이런 이런 칸이 있잖아. 이 {태기}.						
어엄	도구	용승도구	배	부분명칭				도꾸				뚫놓을 가리키는 말.	그래도 목선 가지고 일로 노를배기 많기고. 또 바람 불은 또 {도꾸} 말아 놓고..						
어엄	도구	용승도구	배	부분명칭				도로까지				도모의 왼쪽 합판을 가리키는 말.	뚝 왼쪽에 하던지 오른쪽에 하던지, 그거는 뚝 대개 인제 여 저 뭐야. 배 도모 왼쪽으로 매이 하지. {도로까지}. 도로까지로.						
어엄	도구	용승도구	배	부분명칭				도모				배 앞 부분.	이 겹이 인제 요기 요시고. 그 양에 이런 {도모}.						
어엄	도구	용승도구	배	부분명칭				도모다수				도모의 결버인 마푸라를 덮고 있는 부분.	마. 아 마푸라가 저기 배 저 결버다 결버. 마 푸라가 결버고 이기 {도모다수}.						
어엄	도구	용승도구	배	부분명칭				도모마푸라				배 뒷부분에 들어가는 결버 부분을 가리키는 말.	요거는 저저 그래이 마푸라. {도모마푸라}.						
어엄	도구	용승도구	배	부분명칭				도롱				뚫놓을 가리키는 말.	{도롱이요}.						
어엄	도구	용승도구	배	부분명칭				뚫놓는칸				뚫을 넣어두는 배 칸을 가리키는 말. 그중에 뚫을 넣어두는 칸을 가리키는 말. 그중에 뚫을 넣어두는 칸은 뚫놓는 칸이다.	여게 인제 목선들은 여기. 여기서 {뚫놓는 칸}. 이렇게.						
어엄	도구	용승도구	배	부분명칭				뚫도모				배 뚫놓을 가리키는 말. 배 뒤를 도모라고 하는데 이때 이를 뚫도모라고 하기도 한다.	{뚫도모다} 이제 그래 먼저 선장이 인제 먼저 받고. 여기 인제 선장, 선장 기관장.						
어엄	도구	용승도구	배	부분명칭				뚫합판				배 뒤에 나온 부분.	아. 그래 요기 나왕 기. 요기 요기 되면 요게 뚫. {뚫합판}. {뚫합판}.						
어엄	도구	용승도구	배	부분명칭				디젤엔진				배에 다는 엔진을 한 종류. 앙수기 엔진. 디젤엔진. 아까더마엔진이 있다.	그 당에 {디젤엔진이지}.						
어엄	도구	용승도구	배	부분명칭				막가리				배의 부분.	아니~ 사각으로 해가지고 {막가리}.						
어엄	도구	용승도구	배	부분명칭				말				바람에 따라 배를 조종하는 나무로 된 키. 그래 {말은}. 배 밑에 달림지. 배 밑에, 그 배 뚫놓에 위치한 것으로 지, 키와 동일한 형태. 말. 요 나무 장돈 끈 말야. 뭐야 항도 리. 잡는 거 나무를 장손이라 함디고. 장손 의미로 사용된다.							

2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량	발음	종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대 정보 사지	명대 정보 음성 특징	표준구 어사진 문법 특징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본명칭				명검는구명 명	명구명	명검는구명 명		명검는 구명을 가리키는 말. 명구명 또는 명검는구명이라고 한다.	배 두쌍 요기 명 들어갔는 명 저 목아, {명 구명이지}. 명 검는 구명.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본명칭				명	로라	명		고기가 걸린 그물을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 배에서 일하는 선원에는 이름이 담겨 있는 기능에 따라 '로라마끼'와 '망개짜이'가 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고기가 걸린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밖의 '로라'는 그물을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를 그물이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로라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주로 지그재그식으로 되어있는 영랑기 모양의 도구를 일컫는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고기가 상하지 않고 잘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가지고, 로라로 인해 {로라} 가지고 걸어야 올리지. 티때는 티때는.		박일원(강릉시)		0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본명칭				마짜라, 마짜라	마스라	마짜라, 마짜라		배 옆에 사람의 걸버처럼 있는 나무를 가리키는 말. 마짜라, 마짜라, 마스라 모두 사용된다.	{마스라}, {마짜라}, {마짜라}. 아니 배 옆으로 배 옆으로 아래 꾸부정하게 이 나무가.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본명칭				망고다	망고다	망		고구의 제일 위쪽을 가리키는 말.	모시 보고 인지 {망고다이라} 그러지. 쥘 우 배 보고.		김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본명칭				말롱	말롱	명		배 밑 바닥에 고기를 저장하는 장소.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고기를 넣고 보관하는 공간으로 '말롱'과 '이개수칸'이 있다. 이 중 '말롱'과 '이개수칸'은 모두 배 밑 바닥에 고기를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배 옆에 있는 고기를 담는 칸을 '이개수칸'이라고 한다. 살아있는 고기를 담는 칸이므로 누사바라, 배에만 이 공간이 있고 사망바라 배에는 없다.	그러나만 우리 여기 {말롱에}. 말롱.		김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본명칭				망개	망개	명		그물이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로라의 기능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주로 지그재그식으로 되어 있는 영랑기식으로 되어 있다. 고기가 상하지 않고 잘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행위자인 '망개짜이'와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 뭐야. 그물 뺏기고 이리은 그물 옛날엔 {망개짜} 앞에 걸레 가지고 어어여 노구던 식으로 망개가 있거든. 망개 이물게 나무가 이물게 망쪽으로 뭐 저 그거 해가지고 인제 푸다구라. 망개 사람이 뺏 개나.		김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본명칭				모시	모시	명		배 앞 부분.	요가. {모시}.		김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본명칭				바닥	바닥	명		배 바닥을 가리키는 말.	이개 {바닥}. 아니 요기 요기 아 뜻할만 요기다. 찌지. 요기 바닥이야. 바닥.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본명칭				방짱	방짱	명		선원들이 지는 곳.	요개 인해 {방짱이}고.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본명칭				배와	배와	명		모시를 달리 부르는 말.	양부분, 양부분은 이개 인해 부를 이, 저 목아. {배와이라} 하는데, 그거는 묘사라 하지. 묘사라.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본명칭				뿔수룩하다	뿔수룩하다	형		겉매를 한 뿔종의 색이 뿔다.	뿔수. { 뿔수룩한 } 색이지.		김준래(강릉시)			0		

2 명태 잠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량	발음	종교	통사 장도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대 종교	명대 사지	명대 종교 유형	표준구 어사전 등록 유형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부분명칭			사우도	사우도	명	명	배에서 깊게 나기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 뿔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사우도 또는 뿔만이라고 한다.	뿔마. {사우도가} 뿔사우도가 아이고 고기 중간에 아래 뿔고.		김준래(강릉시)		0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부분명칭			삼	삼	명	명	배의 바닥에 뽕 배의 걸 나무판자를 가리키는 말로, 삼은 나무를 의미한다. 마꾸라에 삼을 대고 갖질을 하면 완성된다.	{삼.} 그 밑에 {삼.}		김준래(강릉시)		0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부분명칭			선장실	선장실	명	명	선장이 마무리는 공간. 배는 고막간-중간만-근간-기판질-선장실-망으로 위치한다.	여기 {선장실.}		김준래(강릉시)		0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부분명칭			수장	수장	명	명	뿔산의 밑에 물이 들어오면 이때 물을 떠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	{수장이러는} 게 나무를 가지고 판때기를 가지고.		김준래(강릉시)		0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부분명칭			스쿠루	스쿠루	명	명	배 뒤에 달린 부분으로 프로펠러처럼 생긴 부분을 가리키는 말.	내 사, 사친에 내 지금 내가 뒤에 걸질, 뿔 때문에 안 나워서 그런데 오 뒤에 {스쿠루가} 있다고, 스쿠루가.		김진호(강릉시)		0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부분명칭			쌓기통	쌓기통	명	명	아기다마를 가리키는 말. 아래, 위로 엔진이 달린 것을 가리킨다.	{쌓기통이지}. 쌓기통.		김진호(강릉시)		0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부분명칭			아도	아도	명	명	바람에 따라 배를 조정하는 줄. 이때 풍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을 '꽃대' 또는 '활대'라고 하고 바람에 따라 배를 조정하는 줄을 '아도' 또는 '아줄'이라고 한다.	이거는 뭐야 이게 안 줄이나, 아. {아도라} 그랬잖아, 아도.		김준래(강릉시)		0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부분명칭			아줄줄	아줄줄	명	명	바람에 따라 배를 조정하는 줄로 아도에 달린 줄을 가리키는 말.	{아줄줄}, 장, 아. 몇다 인제 아줄줄, 아줄줄은 인제 아줄줄 가지고 인제 사공이.		김진호(강릉시)		0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부분명칭			아기다마	아기다마	명	명	배에 다는 엔진을 한 줄을, 쌓기통으로 뽕 엔진을 말한다. 그 당시 배에 장착하는 엔진의 종류에는 양수기 엔진, 디젤엔진, 아기다마 엔진이 있었다.	아기다마 그때 {아기다마도} 그 / 아기다마는 없었지, 아이~ 항 칩 있었지, 아기다마는 인제 일본말인데 거저~ 기계가 뭐 쌓기 마반진이 있었따.		김진호, 김준래(강릉시)		0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부분명칭			양호통	양호통	명	명	작은통의 다른 말.	큰통 하고 {양호통하고}.		김진호(강릉시)		0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부분명칭			양호통대	양호통대	명	명	양호통을 다는 기동.	야 양호통, {양호통대}, 양호통대라 이르러지.		김준래(강릉시)		0			0	

2 명태 잠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종량말	발음정보	형식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대 정보 사건	명대 정보 유형	표준구 어휘 특징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어음		명	높고기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도구. '아근'과 합지기를 붙여 이르는 말이다.	그래 거 백상신발 그래 왔는데 가서 뭐 메다 수가 우리 다 양지. 그때 시범버리는 '아림'이 양지 때문에 그 백상신 백음심. 그저 뭐 이 정도로 했지. 가메 들어오면.	감준래(강릉시)		0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옆상		명	양쪽 옆에 위치한 상을 가리키는 말.	이. 이거는 {옆상}.		감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오대기		명	배의 뒷부분. 다른 부분에 비해 높게 나온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땀이. 이 {오대기도} 낮고.		감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오모까지	오모까지	명	도도의 오른쪽 합판을 가리키는 말.	이쪽은 {오모까지고}, 이쪽은 도로까지고 그렇잖아. / 돌아가고. 앞으로 땀기는 저~ {오모까지로} 돌고.	감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왜늘		명	일반물을 달리 부르는 말.	이 노 자제도 우리 조진노가 있고 일반노가 있어. 왜노. {왜늘이라고}. 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조진노는 참나무로 만들었어. 참나무로. 참나무 꺾어가지고 인제 그 노를 만들었고. 일반사람들이 쓰는 것은 거 일반노는 이 나랑. 그 대박 나무로서 해가지고 그 만든 노고. 노가 좀 틀리지.	감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외기통		명	양수기 엔진 디젤 엔진은 외기통, 야캐다마는 쌍기통으로(따부류) 되어 있다.	그렇지. 양쪽은 양쪽으로 인제 움직이니 까. 그 저 {외기통보통} 따부류가 더 빨리 가지.	감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외돛		명	배 도면에 있는 높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머리부분은 굵어있고 길고 배쪽은 모양을 지닌다.	배. {외돛}. 그거 가지고 막아가지고 거다 매가지고.	감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용진대		명	용출물이 달려있는 기둥.	어. {용진대고} 그건 용진대고.		감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용출물		명	돛대의 맨 위쪽인 용출에 매어진 줄. 사공이 이 바람의 방향을 보고 이 줄을 잡고 돛대를 조절한다.	작은돛대가 이거. 작은돛대가 있고. 그 밑에 큰돛대 있던 여기 {용출물} 있어. 용출물이.	감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우리나라노		명	조선물을 달리 이르는 말.	그래서 {우리나라노는} 잘 안 뿌리지만 일반노는 뿌리지는 수도 없지.	감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은두		명	배의 뒷부분이나 배 주변 돛레나 돛레의 높이를 이.	그게는 시범바리 못해. 그거 안죽 뭐 {은두} 시전상 의미 확장이 필요함. 가) 낮아가지고 되나.	감준래(강릉시)		0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이개수칸		명	살아있는 고기를 담은 칸. 고기를 넣고 보관하는 용기로. 열통과 이개수칸이 있다. 이 둘. 열통과 이개수칸은 모두 배 밑바닥에 고기를 저장하는 용수를 말한다. 이때 살아있는 고기를 담은 칸을 '이개수칸'이라 하지. 이 말이. 살아있는 고기를 담은 칸이므로 누 시바리 배에만 이 공간이 있고 시범바리 배에는 없다.	감진호(강릉시)		0				

2 명태 잠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1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종량명	발음정보	형식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대	명대	명대	표준국어
어업	도구	망송도구배	소분류배	소분류배	상세분류2	상세분류2	원표제어	이름	이문	명	명	배 앞을 가리키는 말.	망 {이문}. / 망에 {이물}. 이를 이려고 이 런니만. 망은 이물이고 뒤엔 도문 절로 장구 했고.		망 송속, 부루나 (강릉시)		0	0	0	
어업	도구	망송도구배	소분류배	소분류배	상세분류2	상세분류2	원표제어	망 송	망 송노	명	명	망 송에서 온 노를 가리키는 말. 노는 크게 소송노와 망 송노로 구분되는데 이때 노가 배고 평평하게 생긴 것을 망 송노라 한다. 망 송은 많이 들지만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한다.	{망 송}이 있고 저 조 섯 북이 있고, 차이는 망 송 북은 이, 이게 강각이 그게 가지고 이 쪽이 우애가 평편하기 때문에. 평편하기 때 문에 사람이 망 송고 매는 힘이 많. 더 많지 (이 노 자체도 우리 조 섯 노고 있고 {망 송노 }가 있어. 왜노. 왜 북이라 하고. 이 우리나라에 서 만든 조 섯 북은 참나무로 만들었어. 참나 무로. 참나무 꺾어 가지고 인제 그 노를 만들 었고. 망 송사람들이 쓰는 것은 거 일 본 노는 이 나왕. 그 때 북 나무로서 해 가지고 그 한 은 노고. 노가 좀 들리지.		망 송래, 김진호 (강릉시)		0	0		
어업	도구	망송도구배	소분류배	소분류배	상세분류2	상세분류2	원표제어	망 송	망 송	명	명	망 송에 틀음에 의지해 다는 작은 크기의 물. 다른 말로 양복틀이라 한다.	망 송에 {작은 물}.		망 송래(강릉시)		0			
어업	도구	망송도구배	소분류배	소분류배	상세분류2	상세분류2	원표제어	작은 물대	작은 물대	명	명	작은 물에 다는 기동. '물대'도 이러한 물의 크기에 따라 '큰물대'와 '작은 물대'로 구 분되었고, '물대' 역시도 '큰물'과 '작은 물'로 구 분되었다.	그러이 배 앞 불고 이럴 쪽엔 앞에서는 시렁 이 하나 나가 가지고 큰 물대를 내려오고 바 람 불 적에는 이~ {작은 물대만} 들고 들어 올 때가 있거든. 바람 심하면.		망 송래(강릉시)		0			
어업	도구	망송도구배	소분류배	소분류배	상세분류2	상세분류2	원표제어	작은 물	작은 물	명	명	작은 물 위에는 물, 기동에 다는 권운 물. 작은 물이라고 하고 있었다. 작은 크기의 물 인. 작은 물은 배 앞에, 큰 크기의 용인. 큰 물은 배 중앙에 단다.	명태바라 하는 사람은 마카 작은, {작은 물 }이 있고 큰 물이 있다고.		망 송래(강릉시)		0			
어업	도구	망송도구배	소분류배	소분류배	상세분류2	상세분류2	원표제어	조개	조개	명	명	배 뒤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으로 스쿠름을 올라 주고 내려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위험한 곳에서 사용드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들어 올라 주고, 내려 주는 역할을 한다. 항구에 들 어오던 물고기와 바다도 갈 때는 나뉜다.	조개이란, 거 지름 {조개이라} 해 가지고, 조 개/위험한 데는 들어 있고, 이럼 데 가섬 올라. 조개이 식으로 해가 올란 단 말이야.		망 송래, 김진호 (강릉시)		0			
어업	도구	망송도구배	소분류배	소분류배	상세분류2	상세분류2	원표제어	조 섯 북	조 섯 북	명	명	조 섯 북에서 만든 노를 가리키는 말. 일 본 노에 비해 좁고 가벼다. 용은 작게 들지만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조 섯 북}은 용이 좁 들지, 덜 지고 좀 빠 속도가 좀 늦. 늦지.		망 송래(강릉시)		0			
어업	도구	망송도구배	소분류배	소분류배	상세분류2	상세분류2	원표제어	물대	물대	명	명	물대의 뒷부분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	물대 위에 이, 이기 {물대}.		망 송래(강릉시)		0			
어업	도구	망송도구배	소분류배	소분류배	상세분류2	상세분류2	원표제어	중간 칸	중간 칸	명	명	중간 크기의 칸. 주로 그물에 줄을 연결하거 나 물을 던다. 이러한 공간은 '고닥칸-중간 칸-큰칸-기린살-선장살-망 송'으로 위치하 다.	그냥 막 부루나 부루나 {중간 칸이라} 그러지.		망 송래(강릉시)		0			

2 명태 잠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량 및 종류	발음 정보	통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사 성지	명사 정보	명사 정보	표준구 어사건 문제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포우래기	명		조금 튀어나온 나무를 가리키는 말.	여기 여기 나무가 요만큼 나가는. {포우래기}. 요거 요거로 하면 돼. 요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여 나무를 꼬아지만 얇다갔다 땡기.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포인트	명		수쿠루 중간부분에 위치한 부분으로 조아추는 역할을 하는 부분.	{썸인트가} 있어가지고.		김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창손	명		배를 조정하는 것.	물속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인제 {창손} 같아가지고.		김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창손대	명		키를 조정하는 창손의 나무 부분.	{창손대}, 대가 요렇게 가운대 도 있지.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치2	명		키를 가리키는 다른 말.	그렇지, 그려가지고 인제 그 우리 나날 선정 이 인제 {치} 잡고 할 적에는 선장 기관장만 안 잡고는 선원들은 다 지지.		김준래(강릉시)			0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큰뿔	명	큰도구	배 중앙 부분에 다는 크기가 큰 뿔. 영태바리를 하는 배는 뿔을 두개 달았다고 한다.	{큰뿔하고} 양호뿔하고, /그렇지, {큰도구}는 내려오고.		김진호,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큰뿔대	명		큰뿔을 다는 기둥.	그러이 바람 불고 이뿔 적엔 앞에서는 사람이 하나 나가가지고 {큰뿔대들} 내려오고 배랑 뿔 적에는 아~ 작은뿔대만 달고 들어 올 때가 있거든 바람 심하면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큰모에	명		배 중앙을 잡아주는 큰 나무.	뒤에는 {큰모에}, 큰모에는 아주 나무 줄은 기, 흑 배, 배 지.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큰칸	명		가장 큰 크기의 칸. 배 위에 있는 가장 넓고 큰 공간을 가리킨다. 뿔을 묶는 용위를 한다.	{큰칸은} 요 앞에 있지. 여게 큰 칸이지.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큰뿔	명		큰뿔 위에 다는 뿔. 큰 크기의 뿔으로 배 중앙 양에 달다.	면태바리 하는 사람은 마카 작은, 작은뿔이 있고 {큰뿔이} 있다고.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토시	명		그물을 걷는 도구.	인제 올라면은 그 노구에다 이래 매웠으니 꺼내, 밑에 그 저 안까, 저 뭐야, 안까 줄이지, 그물 낚는 줄이 있으니까, 가서 인제 끌러가지고 깡발 있는 데로 같이 영에 갔다 세워놓고, 세워놓고는 그 줄을 당겼다 올래 가지고, 인제 걷는 거지, 토, {토시다가}, 로 단, 로리로 인제 걷는 거야.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뿔은이	명		시우도 뿔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	이 간, 시우도가 이래 돼가 이래 뿔대, {뿔은이}.		김준래(강릉시)			0				

2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종량명	발음정보	조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대 정보 사건	명대 정보 유형	표준어 어시진 유형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뿔뿔이	명		배 앞 부분을 가리키는 말.	아. 아. 가라 아니고 저 뭐야 {뿔뿔이}.		김진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뿔사우도	명		사우도 중 뿔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	뿔이, 사우도가 {뿔사우도} 아이고 고기 중간에 이래 뿔고.		김진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뿔	명		뿔뿔을 가리키는 말.	그때는 그 저 뿔선 가지고 이 {뿔} 달고 인사전에 등재된 의미와는 차이가 있음.		김진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뿔선뿔	명		뿔선에 달린 뿔을 가리키는 말.	{뿔선뿔} 달고, 시암바리.		김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허도모	명		도모 뒤에 있던 부분을 가리키는 말. 허위로 도모 뒤에 허나를 더 두었다는 말이다.	{허도모}, 이기 허도모지.		김진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활가지	명		뿔대를 세우는 도모의 양쪽에 있는 것. 뿔대 뿔새우는 뿔장대를 역할한다.	그럼 뿔대를 원나가 세울 때에는 앞에는 줄을 뿔고 뒷에는 어그진 밑고 인제. 사람이 밧고 풀라간다. 밑. 내수만 앞에는 세게 밧게 가지고 저 뿔대 양쪽 가서 밧에 가서 밧시 있는데 고뿔에 가면 고뿔에 가면 오래 이 하는 게 있거든. 그럼 다 올라가면 인제 가서 오라기 하잖아. 막 뿔이 놓으면. 뿔이 놓으면 저 인제 뿔이 놓으면 어서 인제 다 인제 뿔대를 올리는 거고. 또 여 기 들어와서 뿔대 놓을 때에는 거기가다 서라기를 서라기를 막막 해준다고. 줄을. 그래 사람이 인제를 밧가지고 이렇게 밧. 받아줘야 돼. 그냥 뿔 노는 뒤에 거쳐 이 그 뭐야. 거기 서는 거. 뿔대 서는 {활가지} 있거든. 그래 요 세 들어가. 들어가야지.		김진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부분명칭					후미	명		배 뒷부분을 가리키는 말.	여게 저름 이기 내가 배를 그려보는데. 저~ 잘 봐요. 음 이 공부해가지고 봐야 돼. 이기 밧가 하면은 아게 배 앞쪽이야. 이 앞. 묘시 뿔인데. 묘란 지름 {후미단} 말이요.		김진호(강릉시)		0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재료					광목	명		도풍의 재료 또는 뿔뿔 자체를 가리키는 말. 그래서 뿔뿔 '광목뿔'이라고 하기도 한다.	{광목뿔}.	사전상에 의미 확장이 필요함.	김진래(강릉시)		0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재료					나랑	명		원뿔노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나무.	이 노 자체도 우리 조선노가 있고 일본노가 있어. 왜노. 왜노이랑고. 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조선노는 참나무도 만들었어. 참나무도. 참나무 썩어가지고 인제 그 노를 만들었고. 일본사람들이 쓰는 것은 거 일본노는 이 {나랑}. 그 때부터 나무로서 해가지고 그 만든 노고. 노가 좀 틀리지.		김진호(강릉시)		0	0	
어업	도구	원송도구배	재료					누렁순	명		뿔대를 만드는 나무. 배와 달리 뿔대는 누렁순으로 주로 만들었다. 일본인 참나무를 만들었다.	뿔대는 주로 여 {누렁순}.		김진래(강릉시)		0	0	

2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대 상지	명대 정교 음성	표준구 어사전 음성 특제어
어업	도구	망송도구	배	채로			대북나무	이 노 자제도 우리 조선노가 있고 일본노가 있어. 왜노, 왜놀이라고. 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조선노는 참나무로 만들었어. 참나무로, 참나무 꺾이까지고 이때 그 노를 만들었고. 일본사람들이 쓰는 것은 거 일본노는 이 모양. 그 {대북나무로써} 해가지고 그 만든 노고. 노가 좀 틀리지.		김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망송도구	배	채로			소나무	{소나무로} 마이 했지, 소나무.		김준래(강릉시)		0	0	
어업	도구	망송도구	배	채로			진나무	{진나무로}, 전조대식으로 아래 아래 굵은 게 세워가지고.		김진호(강릉시)		0	0	
어업	도구	망송도구	배	채로			참나무	이 노 자제도 우리 조선노가 있고 일본노가 있어. 왜노, 왜놀이라고. 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조선노는 {참나무로} 만들었어. 참나무로, 참나무 꺾이까지고 이제 그 노를 만들었고. 일본사람들이 쓰는 것은 거 일본노는 이 모양. 그 {대북 나무로써} 해가지고 그 만든 노고. 노가 좀 틀리지.		김진호(강릉시)		0	0	
어업	도구	망송도구	배	줄류			기렛배	{기렛배도} 저 자제 그 전에 주박바리 많이 했거든. 많이 했는데 거기도 한 가지. 선장이 있고 이제 거 낚시감.		박일현(강릉시)		0		
어업	도구	망송도구	배	줄류			나뭇배	이. 그 {나뭇배도} 목선이고.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망송도구	배	줄류			노젓는배	어디 있을 거예요. 그 사진이. 지금 저 목선을 볼 지금 재현해서 볼 수 있는 목수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보림수산 시흥부에서, 원래 해양수산청 그 쪽에서. 그 걸 이제 옛날 목선을 {노젓는배를}.		김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망송도구	배	줄류			대구리	{대구리가} 많이, 고기 세를 죽였지.		박일현(강릉시)		0		
어업	도구	망송도구	배	줄류			돛단배	돛단의 다른 말. 예전에 백오십에서 이백미터까지 나가서 작업을 했다고 한다.		박종덕(강릉시)		0	0	
어업	도구	망송도구	배	줄류			따브류	돛선에 양수가 예전 따브류를 단 배를 가리켜. {따브류도} 있고 뭐, 백팩이도 있고 그 낚는 양, 북총에서 경유기 예전으로 많이 사용하지. 양하는 예전을 양수가 예전이라고 한다.		김준래(강릉시)		0		

2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단어	종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대 정보	명대 사건	명대 정보	표준어 어휘 특징			
어업	어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그게 우리 그 전에 이, 장수미라고 있어. 인제 머구릿배, 옛날에도 그 {머구릿배도} 인제 그 평포로서 완전 피스들이 달려 있는 거에 여가지고 갈 때, 그때도 노를 대가지고 인제 나가서 하는 거야. 근데 작업하기 힘들면 강제로 다 잡아 당기고, 뿌린다고 그렇지. 저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파도에 뛰어들어는, 그래, 그게 용케도 해서 노, 노가 뿌려져 들어가지.		김진호(강릉시)	0	0						
어업	어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옛날에는 지금은 차나 있지.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는 리카로 끌고 주운진까지 가서 주운진서 한 오륙 년 시흥~ 이렇게 되면 {명태배가} 돌아오나, 내 시 다섯 시 때 돌아오면 인제 영마들이, 아버지랑 새벽에 배 나가니깐 영마들이 인제 리카가 끌고 고개까지 가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물을 다 손질해서 인제 싣고 또 짐으로 나옴.		임영숙(강릉시)	0	0						
어업	어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여 {목선} 여섯명.		박일현(강릉시)	0	0	0					
어업	어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이 배가 인제 그 옛날 우리가 타고 다녔던 목선이에요. {목조선}, 지금 목선이 다 없어졌잖음. 기억나죠? 도근이 아무지.		김진호(강릉시)	0	0	0					
어업	어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그때 밑에서는 기계로 해가지고 기계가 돌아가면서 피대도 갈아가지고 피대도 갈면은 왜 피대도 갈면 그 안에 이 앞에 도랑과 양쪽에 있는데, 그래 이 인제 {시양배는} 한쪽만 있는데 로리를 차려 놓지, 시양, 그걸 두 군데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한 쪽만 인제 올라 타시, 그게 심쫄로 저지 그러니까 배가 심쫄로 하는 거지, 심쫄로 이렇게하고 이만~하게 나팔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김준래(강릉시)	0							
어업	어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연진배}는 다 왔잖아.		김준래(강릉시)	0							
어업	어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피도 같은데, 우, 우리가 다 노를 칠을 잡지, 그 막 주운 뿌려질 수도 있으니까 인제, 그게 우리 그 전에 이, {장수미라고}, 있어. 인제 머구릿배, 옛날에도 그 머구릿배도 인제 그 평포로서 완전 피스들이 달려 있는 거에 여가지고 갈 때, 그때도 노를 대가지고 인제 나가서 하는 거야. 근데 작업하기 힘들면 강제로 다 잡아 당기고, 뿌린다고 그렇지. 저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파도에 뛰어들어는, 그래, 그게 용케도 해서 노, 노가 뿌려져 들어가지.		김진호(강릉시)	0							
어업	어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이건 {택배}구먼, 목선메다가 연진을 노니까네.		김준래(강릉시)	0							

2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대	명대	명대	표준어
어업	도구	원송도구	배	종류				명	뿔신의 다른 말. 그러나 거의 사용하지는 않는다.							
어업	도구	원송도구	배	종류	배도			명	배 안에서 또는 배에 관해서는의 의미를 지니는 말.							
어업	도구	원송도구	수레	종류	리아카			명	명태를 뒤장으로 운반하는 도구 또는 그물을 싣고 옮기는 데 필요한 운반 도구.							
어업	도구	원송도구	지게	종류	물지게			명	명태를 뒤장으로 운반하는 도구. 리아카가 나오기 전에 사용한 것이다. 물을 끌어 나르는 데 쓰는 지게이나 동태를 실어나르는데 사용했다.							
어업	도구	원송도구	지게	종류	지게			명	명태를 운반하는 도구. 배에서 명태를 수형으로 옮길 때 사용했다.							
어업	도구	원송도구	모자	종류	뿔모자			명	배에서 쓰는 모자. 뿔뿔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뿔모습과 유사하다는 의미이다.							
어업	도구	원송도구	모자	종류	뿔모			명	뿔모자의 형태를 지닌 것으로 속에 털이 있어 그레 속에 태래기 있는 거. 시장서 사가 되고 지는 거지. {탈모라} 이라지.							
어업	도구	원송도구	신발	종류	긴장화			명	뿔모리가 작업할 때 신는 장화.							
어업	도구	원송도구	신발	종류	뿔오리장화			명	뿔모리가 아바메에서 작업을 할 때 신는 장화. 다른 말로 '긴장화'라고도 한다.							
어업	도구	원송도구	신발	종류	물화			명	뿔에서 신는 신발. 장화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말이다.							
어업	도구	원송도구	신발	종류	장화			명	배 안에서 신는 신발. 목이 길게 올라오는 신스로 가죽이나 고무로 만드는데 배 안에서 사용용 도구로 주로 신는다.							
어업	도구	원송도구	양말	종류	코버선			명	사람의 코처럼 나온 바선. 주로 어자들이 신어들이고 다리는 바선을 말한다. 안에 양말을 신고 바선을 신은 후 장화를 신었다.							

2 명태 잠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량	발음	종교	동사	형태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대	명대	명대	표준어	
어업	도구	착용도구	옷						감빠	명	명	명	명	옷 위에 덧입는 것으로 방수용으로 된 것을 가리키는 말.	상월 초까지 그냥 내뒀요. 상월 초까지 노렸다가 어느 정도 몇 프로 말렸다. 그러면 노렸다가 우에 비 왔. 비 맞지 않게 {감빠로} 덮어뒀어요. 덮어. 덮었다. 덮어놓고는 예전에는 그냥 벗겼는데 옛날에 그냥 뺏기고 온 한 번 더 덮어뒀다가 나중에 연탄 해방장고 / 덮는 게 용이했어요. {감빠로} 비 안 맞게 덮는 거밖에. {감빠} 가지고 마이.		이상옥(명항군),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착용도구	옷						덧저고리	명	명	명	명	베일을 할 때 입는 옷. 덧입는 옷이라는 의미에서 솜우이개를 덧저고리라고, 또 겹에 입는 옷이라는 의미에서 물저고리라고도 한다.			조규철(강릉시)		0				
어업	도구	착용도구	옷						물저고리	명	명	명	명	맨 위에 물이 직접 닿을 수 있는 옷을 가리키는 말. 덧저고리, 솜이개와 같은 의미이다. 주로 겨울에 많이 입는다.	{물저고리라} 하지. 밖에 있기 때문에 물저고리라고.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착용도구	옷						반모	명	명	명	명	군인들이 쓰는 모자. 어부들이 쓰는 모자도 의미와 유사하다고 한다.	{반모} 한 가지여. 반모.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착용도구	옷						버선	명	명	명	명	숨을 북아서 만든 것으로 배 안에서 장화나 뿔뿔 대신에 신고 다닌 착용 도구.	옛날에는 다 저런 거 신고 {버선을} 저저 뭐야. 솜 넣고 해가지고 신음. 버선 신고 이러고 명기고.		김준래(강릉시)		0			0	
어업	도구	착용도구	옷						사수	명	명	명	명	솜저고리 안에 입는 옷. 속옷이라는 의미이다. 여름에는 목이 없는 사수를 겨울에는 목이 있는 도쿠리사수를 입었다.	안에는 {사수} 같은 다 입고 거기 입어요.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착용도구	옷						솜바지	명	명	명	명	바다에 나갈 때 입고 나가는 아랫도리로 안에 솜을 두어 만든 바지.	옛날에는 바지도 {솜~바지} 해가지고.		조규철(강릉시)		0				0
어업	도구	착용도구	옷						솜우이개	명	명	명	명	바다에 나갈 때 입고 나가는 헛도리. 솜을 붙여서 누벼서 입는 옷이다.	그래 입고 또 이제 {솜~ 우이까루} 이래 저더한 거 해가지고 우에다 덧입지. 추우이.		조규철(강릉시)		0				
어업	도구	착용도구	옷						솜웃저고리	명	명	명	명	솜저고리와 같은 말.	그기 이제 {솜웃저고리} 거기야.		김준래(강릉시)		0				
어업	도구	착용도구	옷						앞추마	명	명	명	명	초마라배를 달리 부르는 말.	요기서 이렇게 고리게 달이가지고 요기 요렇게 해가 요기 이렇게 붙들어 매고 그려 의미의 의미가 다름. {앞추머라} 이래지. 이래도.		조규철(강릉시)		0				
어업	도구	착용도구	옷						우의	명	명	명	명	물오리가 입는 옷을 가리키는 말. 우바, 우의라고도 한다.	{우의를} 입고 작업을 했어요. 우의.		이상옥(명항군)		0				0

2 명태 잠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량	발음	조사 장모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대 정보 사지	명대 정보 음성 문법	표준구 어사지 문제	
어엄	도구	채집도구	그물	단위명사			그물을 세는 길이의 단위. 한 벌은 두 팔을 양쪽으로 퍼서 발갸울 때 한쪽 손끝에서 다른 한쪽 손끝까지의 길이이다.	벌	명		그물	그래 그려되든 풀심밭 내지 한 구심 풀심던 {부겨진}, 구심밭 이만으로 나온다고. 밭수 큰 사람은 뒤 밭심엿 밧나오고.		김준래(강릉시)			0	0	
어엄	도구	채집도구	그물	단위명사			그물의 코의 크기를 가리키는 단위. 길이의 단위로 한 지는 한 자의 10분의 1 또는 약 3.03cm에 해당한다.	치1	명		그물	우라도 볼 죽면 두 {치}. 너 뿐.		박일현(강릉시)			0	0	
어엄	도구	채집도구	그물	단위명사			그물을 세는 단위. 출항을 할 때 한 사람에게 퍼벌 세 벌을 가주고 단다.	벌	명		그물	그 한 이삼. 이삼일씩 육하가지고 가지. 그 기 그물들 두 {물씩} 세 물씩 막지 않는가. 그래이 한 벌에 인제 삭 닷, 삭 닷이 들어가 면은 또 인제 하루 가지고 두 물씩 노. 두 물 불고는 첫날에 가서 두 물 노면은 고개 인제 하루만 지면은 인제 그날 불고 온 날 하고 이를 목잡는가. 그럼 어는 거든지 그걸 가지 고.		김준래(강릉시)		0			
어엄	도구	채집도구	그물	단위명사			그물의 코를 세는 단위. 치보다 작은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분	명		그물	보롱 두치. 두 {분}. 두 치 두. 두 룬 오리.		박종석(강릉시)			0		
어엄	도구	채집도구	그물	단위명사			그물을 세는 단위. 한 벌은 보롱 밖에서 벌 오십미터를 말한다.	벌	명		그물	그기 주물이 들어가고 이리개 때문에 그걸 지. 삼로 펼치면 한 벌에 오십메다 되지. 한 {벌이}.		김준래(강릉시)			0		
어엄	도구	채집도구	그물	부분명칭			그물에 있는 줄. 주로 망성바리에 사용한다.	간노	명		그물	{간노}. 우리가 망성바리 하는 기 요진. 요 줄 보고 간노래 한다.		박종석(강릉시)			0		
어엄	도구	채집도구	그물	부분명칭			산마이그물과 같이 속그물 바깥에 들어가는 그물. 상중 앙의 줄에 죄운 그물포 실의 줄기 는 속그물의 1.5~2배, 코의 크기는 3~7배 이다.	겉그물	명		산마이	산마이 그물은 속그물이 너 지면은 {겉그물 이} 이기 아주 이레 큰 기 있어. 이 개는 그물을 보충. 부충해 주는 그래 산마이 그물이 인제 속에서 눈베리가 많으니까 아 무 고기래도 기다가 그하면은 주머니처럼 줄 내려간다고.		김준래(강릉시)			0	0	
어엄	도구	채집도구	그물	부분명칭			그물의 눈을 가리키는 말. 이것을 크기로 점 을 수 있는 줄고기를 할 수 있다.	그물코	명		그물	그래 {그물코가} 어느 정도 앞게끔. 이제 죽 수로 앞게. 앞게끔 해가지고 멍기기 때문에 뺏은 건 덩구지.		김준래(강릉시)			0	0	
어엄	도구	채집도구	그물	부분명칭			그물 밑에 다는 도구. 그물 위에는 다마를 밑에는 돌을 받아 그물이 물 속에서 있도록 한다.	돌	명		그물	물 밑에 여 {돌} 에는 가는. 물 밑에 여 가라. 가라장기는. 가라 비치 마치는 땅 밑에 줄 깔단단 말이야. 이기 때문에 그물이 떠 따있는 단 말이야.		박일현(강릉시)			0	0	
어엄	도구	채집도구	그물	부분명칭			그물의 중간 부분을 가리키는 말.	밴대이	명		그물	중간은 {밴대이}.		김준래(강릉시)			0		

2 명태 잠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종류 장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대 정보 사건	명대 정보 요소	표준구 어휘 특징	
어엄	도구	채집도구	그물	부분명칭	부분명칭	부분명칭		명	선채와 후채에 깃발을 단 후 그 뒷에 반짝거리는 등을 달아 놓은 것을 가리키는 말. 여기가~ 그니까네이 하. 이 그리는 이삼사간간에 자신의 그물의 위치를 알기 위해 단 것이다. 뱀때기는 작음을 하는 조기가 아니라 후기에 개발된 것이다.	어, 가기를 또 어떡하나, 같으면 그 전에는 아간에 저저 하~이 엇가지 것발 밑에다가 뱀때기라고 있어. {뱀때기}, 그 그때는 좀 발, 발명 돼가지고 뱀때기 풀이 인쇄고 여기~ 그니까네이 하. 이 그리는 이삼사간간이든 뭐 나간단 하지만은 요런 가끔 인쇄 뱀때기 반짝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가더라고. 그래서 고개 또 시는 데를 가다 가부고 우리 깃발에 아이면 으리 개 아이고, 아이다. 이라고 대개 뱀. 뱀때기는 인쇄 많이 팔아놓는다고.		김준래(강릉시)		0			
어엄	도구	채집도구	그물	부분명칭			명	그물의 양쪽 부분을 가리키는 말.	{섬살아리} 그러지. 이러면 양쪽 그러면.		영명숙(강릉시)		0				
어엄	도구	채집도구	그물	부분명칭			명	그물 가장 아래쪽에 남아 들어가는 줄.	{아랫발} / {아랫발이라고} 그래. 발.		박옥녀, 영명숙(강릉시)		0	0	0		
어엄	도구	채집도구	그물	부분명칭			명	그물의 위쪽 부분을 가리키는 말, '시망'을 넓게 펼치면 위 아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물의 가장 위쪽 부분을 위쪽이라는 의미에서 '우구새'라고 하고 아래쪽 부분에 남아 들어가는 줄을 '아랫발'이라고 하고, 그물의 중간 부분은 '뱀대이'라고 한다. 이 중 '아랫발'은 그물에 밑받이 들어가는 곳을 말한다.	지금 인쇄 위에 가는 {우구새}, 위에 {우구새},		박옥녀(강릉시)		0				
어엄	도구	채집도구	그물	부분명칭			명	그물 위쪽 부분 줄을 밟는 부분, 그물이 물 속에서 서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다마를 밟아 평면을 유지한다.	고기 한꺼번에 탁 걸리는 그물이 서지 안 돼 뿌리지 않는가, 위에 웃기가 약하면은, 그래 웃기 인쇄 {웃기를} 시게 하더라고. 그물 웃기 좀 시게 하더라고 단어를 말아.		김준래(강릉시)		0				
어엄	도구	채집도구	그물	부분명칭			명	시망그물에 다는 다마 줄 작은 크기의 다마.	뽀다마가 있고 작은다마가 있는데 그래 뽀다마가 큰 다마 하나 없고, 다마를 세가지고, 세 칸내지네 칸 해서 인쇄 하나 없다고. 다마 매는 거는.		김준래(강릉시)		0				
어엄	도구	채집도구	그물	부분명칭			명	그물의 눈을 가리키는 말, 이것을 크기로 정할 수 있는 물고기를 알 수 있다.	꾸러는 건 두 마리씩 해서 인쇄 이기 한국 가 뒤거든은, 거기에서 이간 몇 코 아래 이 '개' 인쇄 딱 걸기 좋게 아래 놓은, 그러면 거기 왜냐하면 수모마리 한꺼번에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 마리 머리 물고기가 서 놓고 물리가 좋게 해주는.		이상옥(평창군)		0	0	0		
어엄	도구	채집도구	그물	부분명칭			명	그물의 밑부분의 줄을 가리키는 말, 바다에 가라앉게 하기 위해 남아 뜬 부분이 있는 부분을 이다.	그럼 또 새로 매야 돼. 또 새 인쇄 새 그물 사가지고 와서, 밑에 인쇄 {피어줄은}, 피어다라 그러거든, 밑에 줄 부고, 피어줄이라 그러는데, 그게 남아 뜬어, 그 안에 남아 뜬에서, 무가인나만 가라 앉으라고, 그 줄만 이다. 따서 인쇄 시는 버리고 그 줄에다 다시 매지. 또, 새 그물을 쓴으로.		영명숙(강릉시)		0				

2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량명	발음정보	동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대 정보	표준국 어사전 음성 문제
어업	도구	채집도구	그물	종류				올랑망	명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대 정보	표준국 어사전 음성 문제
어업	도구	채집도구	그물	종류				산마이그물	명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대 정보	표준국 어사전 음성 문제
어업	도구	채집도구	그물	종류				상종망	명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대 정보	표준국 어사전 음성 문제
어업	도구	채집도구	그물	종류				세치짜리	명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대 정보	표준국 어사전 음성 문제
어업	도구	채집도구	그물	종류				속그물	명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대 정보	표준국 어사전 음성 문제
어업	도구	채집도구	그물	종류				시양명태그물	명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대 정보	표준국 어사전 음성 문제
어업	도구	채집도구	그물	종류				오산마이	명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대 정보	표준국 어사전 음성 문제
어업	도구	채집도구	그물	종류				이찌마이	명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대 정보	표준국 어사전 음성 문제
어업	도구	채집도구	그물	종류				장지방	명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대 정보	표준국 어사전 음성 문제
어업	도구	채집도구	그물	종류				코솔이	명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대 정보	표준국 어사전 음성 문제
어업	도구	채집도구	그물	종류				팔폰짜리	명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대 정보	표준국 어사전 음성 문제
어업	도구	채집도구	그물	종류				올그물	명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대 정보	표준국 어사전 음성 문제
어업	도구	채집도구	그물	종류				후채	명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대 정보	표준국 어사전 음성 문제
어업	도구	채집도구	그물	종류				그물	명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대 정보	표준국 어사전 음성 문제

2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출처	종류	발음	형태 장모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처정보1	출처정보2	명태 정보 사진	명태 정보 음성	표준어 어휘 정보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단위명사			원표제어 표준어	출기		초리	명	초레기와 같은 말.	대나무가 있으면 설대. 요 인제 대가 서 있으면 설대. 인제 어기는 데, 그릴 때 요인데 이렇게 반을 딱 쪼개. 그 막간 공간들은 단 말이어. 그럼 어 부시 여러 줄은 여기다. 사리고 여 여 여기를 끈는 거야.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계속 끈으면 이게 오 신계가 돼. 오신자락을 한 {출기에}. / 한 초리가 이백오십 자루.		김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부분명칭				말기		명	부시바늘을 정리한 초레기의 밑 부분을 가리키는 말. 일반적으로 오신센지의 길이를 지닌다.	부시에 매는 줄이. 오거는 {말기}.		김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종류				문어부수		명	대나무에 갈고리로 된 철을 단 부시 도구. 해안에 어어들은 이를 이용해 지게 숙이나 배수거라 앞에 있는 영터를 빼내어 엮이나 간헐적으로 바꾸어 먹었다고 한다.	앞에 놓거든. 옆에 놓고 {문어부수} 요래만 들어가 주고 / 가. 기계. 문어 지금은 그하지만 옛날에 {문어부수}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에다가 갈고리 세 번씩 만든단 말이야. 아 ~ 그 양반들도 참 몰론지. 무거운 데 걸어지고 가는데 알겠는가. 그 뭐 한 두 마리 빼가지고 가는 거.	김준래, 김진호 (강릉시)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종류				주나끼		명	주낙, 즉 주낙을 달리 부르는 말.	내가 따라 영거도. 선원을 따라 영거도 우리 그물에 부수나 {주나끼} 하나. 이 그물 빠른 나 배 통에선 이기란 말이요. 내 따라 오지 못 해.	박원원(강릉시)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종류				주낙		명	부시바리의 다른 이름. 물고기를 잡는 기구의 하나로 긴 부시줄에 여러 개의 부시를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다.	{주낙을} 보고 부시바리란 그러는 거야.	김진호(강릉시)		0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줄				원줄		명	부시줄. 부시줄을 퍼붓을 때 원줄을 말기라고 한다. 부시대 끝에서 부시를 직접 다는 곳까지의 부시줄을 말한다.	주낙이 지금 여기 인제 이 {원줄이야}. 인제 줄이면서 여기애 간격이 한. 반. 발. 때 요? 보채기?	김진호(강릉시)		0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부수		명	부시와 같은 말. 주낙바리 전에 사용했던 도구이다.	부시공인데. {부수} 놓는 그레 돌이 있어. 볼 요런 거를 얹아 가세라. 얹아 가세라 있으면 요타가 {부세가} 말이어. 부수가 지고 인제. 볼 재기 전에 매지거든. 그레 인제 거를 따라서 부수를 한다고. / 그레 캐놓고 영 어 {부수줄} 이제 모두가 찌는단. 찌. 찌는 거 매게 해서 놓는 걸 찌는단 하고. / {부수 줄} 가. 요렇게. 그 부수 맨들기도 힘들 아.	박원원 김진호 박동녀(강릉시)		0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말가서		명	말가. 말가서. 여기다 {말가서} 엮어가지 그레 가지가서 문애 줄 받고 어렇시.	요새도 문어 짐는 것도 인제 부시대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말가서} 엮어가지 그레 가지가서 문애 줄 받고 어렇시.	박동녀(강릉시)		0				

2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량	발음	종성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대 정보 사전	명대 정보 음성 음성	표준구 어사전 음성 음성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선타		대나무 대를 가리키는 말. 보통 육지에서 칠성재의 나무대에 반을 후 그 사이에 부시를 꼽는다. 그것을 찍기대라고 한다. 굵기가 아무에서 삼부정도이다.		명			{선타}, 선타 있었다. 선타. 이 우리 대나무. 선타가 지금 우리 말 속하신 선타가 권이가 거의 한 육성재라 칠성재라 일 부시를 꼽는다. 그 사이에 부시를 꼽고 일해 그 풀이 뜨지 않고 그 사이다 부시를 꼽는 걸. 그러니깐 한 조리라고. 그.		박종덕(강릉시)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찍개		부시 이백오십자리를 찍기대에 꽂아 둔 것을 가리키는 말.		명		부시 이백오십자리를 찍기대에 꽂아 둔 것	오십자리 한 돈. 그거 인자 다섯 돈이라 그런데 이십오자리고. 고기 인제 득 말하자면 한 {찍개}. 고릴 인제 하루에 부리는 우리가 마서 부리는 숫자가 예~ 여섯줄리까지. 줄 리기로 여섯줄리라고 한다고. 한.		김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찍기대		부시를 꼽는 대나무. 부시 이백오십자리가 섞이지 않도록 꽂아 두는 나무대이다. 부시를 꼽는 도구이다.		명			이백오십자리를 이 {찍기대}가 꽂아 노면은. 그걸 보고 한 찍개라 하는데 그걸 여섯 개 등거리를 잴다가 한 대다 찍다가 나간다고.		김진호(강릉시)		0			
어업	도구	채집도구	부시		항지		부시항지의 다름 말. 나무를 네모지게 해서 만든 그릇으로 운수가 조금 깊으며 밑은 좁고 위는 넓다.		명			항 {항지} 몇 초래기 들어가요? 사전상의 의미 차이 있음.		김진호(강릉시)		0		0	
어업	민속	제의			풍어제		어촌에서, 물고기가 많이 풍하기를 비는 제사.		명			{풍어제}는 그거는 동네서. 그 주민들이 죽 민들이 한 번 내서 거 서낭당에다 풍어제를 올린다고.		김준래(강릉시)		0		0	
어업	시기	기타			질다		같다		명			거울 받이 {질지} 없은가.		조규환(강릉시)		0		0	
어업	시기	미세기			보름조금		보름마다 오는 조금을 가리키는 말. 재부자는 잘 안 싣고 말하면서 명칭을 알고 있었다.		명			조금이란 말을 마이 쓰지. 초조금. 초조금 초조금 {보름조금} 이런 걸 안 쓰는데. 허허. 초조금. 초조금 초조금 보름조금 이런 걸 안 쓰는데. 허허허.		박종석(강릉시)		0		0	
어업	시기	철			동지받이		명태가 잘 나는 시기를 가리키는 말. 동지철이 나타낸다. 동지철 보름께에 황경도 바다로 물러드는 명태의 때를 말한다. 물이 붉고 동이 붉으며 암배기가 많다.		명			명태가 잘 나는 어항반이. 명태가 은하반이라고 여 그 가세 돌매기 여계. 가세 돌매기 나는 은하반 사전상에 황경도가 아니라 강원도도 하반이라고 고기 명태가 더 잘 나고 {동지받이}도 있고 그. 그렇지.		박일면(강릉시)		0		0	
어업	시기	철			은하받이		명태가 잘 나는 시기를 가리키는 말. 응력 시월 보름 전후로 황경도 연안에 물리는 명태의 때를 용이 크고 양척이 많다. 은어가 많이 나는 철을 나타내기도 한다. 은하반이 보다는 은하반이 또 더 많이 나타난다.		명			명태가 잘 나는 어항반이. 명태가 은하반이라고 여 그 가세 돌매기 여계. 가세 돌매기 나는 은하반 사전상에 황경도가 아니라 강원도도 하반이라고 고기 명태가 더 잘 나고 동지받이도 있고 그. 그렇지.		박일면(강릉시)		0		0	

2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량	발음	형태	동사 장도	품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대 정교 사지	명대 정교 음성	표준구 어사전 음성 문자에	
어업	어획물	기타류	성게		종류				굵은명태			명	명	명태를 달리 부르는 말.	{굵은명태라} 하고 편명태하고 이렇지 뭐. 명태.		박옥녀(강릉시)		0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상태				잘다			형	형	크기가 작다.	요즘 오징어가 이렇게 {잘아요}. 이게 수은 이 맞잖아 양아서 크지를 못하니까.		김진호(강릉시)		0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오징어			명	명	명태 마개로 사용되는 고기.	{오징어} 오징, 오징어 가지고도 매끼도 찢 고 거 저 영미리 주로, 영미리 가지고 매끼 명이 찢지 간 해가지고, 영미리 간해지고 포를 찢가지고, 그러가지고 인제.		박종덕(강릉시)		0	0		
어업	어획물	기타류	오징어						이깨			명	명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오징어보다 이깨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이깨}. 오징인데 이깨. 지금은 뭐 감 오징어 지. 그 전엔 마카 이까라.	#2 적리되는 또 오징어 부고 수름매 라. 그러. 수름매. 그것도 일본말이 아. 전만도 그쪽은 수름매란 하더 라고. 오징어 수름매.		박옥녀(강릉시)		0		
어업	어획물	상태							간			명	명	명태 안에 있는 소금끼.	그래서 저 적리한다. 양이 좋으니까 그 당시 깨음에다 이렇게 저 물 먹어놓고 인제 깨음 에다 명태를 등에 바다에서 그냥 실어다 어 다 당겨 왔다가 {간이} 빠지면 인제 물어를 타가지고서 겨울이니까 뭐 얼음하고 그 당 시 좀 습긴 얼음나게 추웠죠.		이상욱(평창군)		0	0		
어업	어획물	상태							간당하게			부	부	짙막하게	혹 마냥구 요래 {간당하게} 해가지고 머리 인제 요렇게 끼고.		박옥녀(강릉시)		0			
어업	어획물	어	명태		상태				질퍽하게			부	부	겉고 가늘게.	가 인제 제사 고기는 조금 작아도 쓰지만은 잔지고 이렇 작은 큰상 기를 때는 더 큰 겉 써야 돼. 이렇게 {질퍽하게} 크게, 마이.		박옥녀(강릉시)	0	0	0		
어업	어획물	어모	상태						새고기			명	명	아주 상한 명태를 가리키는 말.	아주 {새고기} 이기지. 뭐.		김준래(강릉시)		0			
어업	어획물	어류	가자미		종류				아까가리			명	명	가자미의 일종.	가자미도 뭐 {아까가리니}.		박옥녀(강릉시)		0			
어업	어획물	어류	기타						먹이대			명	명	먹이사슬을 가리키는 말.	지금 드셔, 드셔졌어요. 우에 염도가. 해송 의 온도는 심사도 심사도면은 오징어가 설 기 좋으데고 밑에 내려가면서 찢니, 차니깐 이 놓이 들어갔다 올라왔다. 하면서 툭툭 이 놓이 먹고 가 먹이사슬 있을 때 먹이관 가 오징어 먹는 게 먹이관인가 이런 {먹이 대} 놓아가는 것을 들어와야 되는데. 같 이 공부하는. 층층에 있는 어군들이 가에 오 오는 거야. 가에, 자기가 들어와서 가에 오 려가 들어와서 가에 뭐이 먹어야 클 거 아니 요.		김진호(강릉시)		0			

2 명태 잠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종량말	발음정보	동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태 정보 상징	명태 정보 음성 특징	표준국 어사전 음성 특징
어업	어획물	어류	단위명사				금		금	명	두름, 두름을 가리키는 말.	두름이나 {크이나} 똑같은으로 겹 칠에는 나중에 나중에는 예나 그 쟁엔 일어박장이 나중에 하도 상. 올린 무거우니까 이래 들고 스무갈씩. 그림. 건두.		이상옥(평창군)		0		
어업	어획물	어류	도루묵				돌매기		명	명	도루묵을 달리 부르는 말.	{돌매기} 그거. 아. 도루묵. 도루묵 모고. 큰 해라. 그러라고.		박윤원(강릉시)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기타			명태채		명	명	명태를 말린 후 손으로 가늘게 찢은 상태.	{명태채} 하듯이 해가지고.		김준래(강릉시)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단위명사			두루미		명	명	두름을 달리 부르는 말.	옛날에 {두루미라} 이랬지. 한 두루미 이랬 지.		인사선(평창군)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단위명사			두름		명	명	명태 스무 마리를 묶어놓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니까 백오십 {두름} / 두. {두름으로}, 스 무 밖에 한 두름이거든. 그니까내 삼백오십 두름까지 잡아봐. 한 사랑 / 한 사랑이 백 두름씩이면 {두름} 안 이렇게 장안인데. 사정에는 "두름이[니]"의 밖이(경 관준래, 박윤녀 기타) 전에 / 아가미를 끼워. 아가미를. 그래 가 한 {두름씩} 이래가지고 아가미도 끼워 가지고 뒤어서 던져. 그 똥을 금소가 나오잖 아. 췌만.		강원수(평창군) 김준래, 박윤녀, 박윤녀(강릉시)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단위명사			바리		명	명	명태를 세는 단위. 백 두름을 한 바리라고 한다.	두 {바리씩} 세 바리씩 이래 잡아가지고 올 때는 고개가 아주 많지.		조규철(강릉시)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단위명사			짝		명	명	명태 스무 마리를 짝 지은 것을 가리키는 말. 출항을 하기 위해 예전에는 서로 마리를 들. 요즘은 스무 마리를 묶는다. 저에 상기 반하고 보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진상 의미 확장이 필요함.		이상옥(평창군)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단위명사			통수		명	명	명태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예를 들어 칠 통, 팔통, 구통으로 나타낸다. 이때 통수가 를수록 크기가 작고 통수가 작을수록 크 가 크다.	예. 그 {통수가} 지금 그리니까 배에서 조을 꼭에 산지. 어느 정도 못 건지는 맛. 통. 못 건 지는 맛. 통. 이렇게 해서 거기서 편양. 저 지 쪽에서 표준. 적당한 할 적에 그렇게 하는 모양 이더나구요.		이상옥(평창군)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부분명칭			꿈대기		명	명	꿈대를 가리키는 말.	짜서 {꿈대기} 꿈어내고. 마라도 오렇게 꿈 어내고. 또 반도막만 오렇게 내서. 짜서.		박윤녀(강릉시)		0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부분명칭			꿈지		명	명	꿈지를 가리키는 말.	이건 {꿈지}.		박중석(강릉시)		0	0	

2 명태 잠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량	발음 장소	음차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태 정보 상지	명태 정보 음성	표준어 조사어 음성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부분명칭				창질	명	명	창자를 달리 가리키는 말.	다르지. {창질이} 지디한 거. 사람 창질이 같잖아.		박옥녀(강릉시)	0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상태				고독하다	형	형	물기 있는 물건이 마르거나 열어서 굳어진 것이다.	이북 사람들은 그 인제 명태 속에다가 만두 누 하듯이 만들어가지고 배를 채고 막 먹던 말리더라고. 약간. 이걸 채 먹더라고. 그게 인제 명태수대라 그러더라고. 그럴 모고.		임영숙(강릉시)	0	0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상태				고덕고덕하다	형	형	명태속을 만들 때 명태의 건조 상태가 울렁울렁 떨랑하다.	살로, 대갈 아올러 머리 아올러, 이 때까지 마카 써서 넣어봐. {고덕고덕하임} 요렇게 울렁울렁 끓어서 양념 고다 마카 놓아서 쪄 김치 한 쪽 넣고 거기 우애도 한 점서 고고 또 그거 넣고 이래 해서 볶 식은 말 거 은 명태가 잘 있었어.		박옥녀(강릉시)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상태				넵덕하다	형	형	생선의 모양이 넓고 두껍다.	또, 채, 채가 죽 끓이는 거거든. 또는 인제 {넵덕함} 거고.		강현수(평창군)	0	0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상태				몸량 울렁	부	부	인따라 작게 찢리거나 끊어지는 모양. 명태 속을 만들 때 명태의 지른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살은, 대갈 아올러 머리 아올러, 이 때까지 마카 써서 넣어봐. {고덕고덕하임} 요렇게 {몸량 울렁} 끓어서 양념 고다 마카 놓아서 배추 김치 한 쪽 넣고 거기 우애도 한 점서 넣고 또 그거 넣고 이래 해서 볶 식은 말 거 맞은 명태가 잘 있었어.		박옥녀(강릉시)	0	0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상태				울 좋다	관	관	상상하다.	부수태는 아주 더 더 상상하고 고기가 {물 도 좋고}. 이 요 그물에 잡는 거는 뭐 한 이 플씩 서늘씩 묵우께네 아무래도 상상해도 좀 더 지거 낚시태만을 지적하지 못 하지.		박일현(강릉시)	0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상태				반부디	명	명	창자를 뺀 후 덜 말린 상태. 뼈쪽 말리지 않 는 것을 말한다. 생태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팔기도 하고 팔려서 먹기도 한다.	그래 인제 요러 거 갖다가 짐에다가 생태 안 삼은 낚 있어. 그릴 쪽에는 짐에다가 마카 때리보다가 {반부디} 되름. 고덕고덕한 거. 그런 걸 빼놓으면 더 맛있지.		박옥녀(강릉시)	0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상태				버글버글하다	형	형	고기가 많이 나는 모양세를 말한다.	우리를 구녕 땀 고기 다 {버글버글했다}.		박일현(강릉시)	0	0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상태				부드부드하다	부	부	덜 말린 상태를 가리킨다.	괜찮아. {부드부드함} 거 때까지 어 노민 것 있어. 고 김장 할 적에 인제 날 할란은 우 지 밖에 아러가지고 우애다 지 그기로 스금 있고 써서 인제 저낙 가 약간 넣고 해서 우애에 들어보다가 널 아침에 짐장할 채./ 그래 식히는 말러가지고, 그것도 바짝 마리 지 않고 부드하게 말려가지고 그걸 썬어가 지고, 이 식해를 해먹는다고. 여자, 여자는 들이. 근데 뭐 그거 남자들이 어떻게 해 아떻게 해다. 뭐 어떻게 표현하는음.		박옥녀, 박중석 (강릉시)	0			0

2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량	발음장모	동사 장모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태 정보 사지	명태 정보 음성 분석	표준국어 어휘 집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상태				상태		명	살아있는 명태.	어. 고기 {생태로} 인제, 고기 인자 장사 아 주머니들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런 아줌마 들 인제 가마이 팔지.		조규환(강릉시)		0	0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상태				채다	빠다	명	죽다.	노가리는 아작 재. {재는} 기고. / 굵은 명태 라 하고 {편명태하고} 이렇지 뭐.		김준래(강릉시)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상태				경글다		형	명태의 크기가 작다.	양노. 영노가리는 영노가리 대로 그런 아주 활. 쥘 등 쥘 기고 {영활고} 영노가리란 하고 그래 영노가리 다음에 소태 중태 뒤 대태 이 렇게 나가지.		박일현(강릉시)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상태				편명태		명	작은 크기의 명태 가리키는 말.	굵은 명태라 하고 {편명태하고} 이렇지 뭐. 명태.		박옥녀(강릉시)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상태				홀태		명	엷지 않고 말린 명태. 엷지 않고 물이 쪽 빠 진 것을 가리킨다.	{홀태는} 그냥 엷지 않고. 엷지 않고 그냥. {홀태는} 그냥 엷지 않고. 엷지 않고 그냥.		이상욱(평창군)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상태				핀태		명	명태를 손질할 참뚱하거나 참뚱 밀러 쪼그 린데고 피가 용어불의 것을 가리키는 말. 용 어 불의. 용어 불의. 용어 불의. 용어 불의. 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 갖고 참. 주은 목부분이 명태 대가리 부 분 밑에서 이래 오른 그 {핀태가} 되면 쪼그 라들고 이렇게 되고 그게 겁이 없어.		이상욱(평창군)	0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상태				코다리		명	뺏쪽 마른 명태를 가리키는 말.	가 {코다리는} 싸도 경태는 없지. 코다리 빼 쪽 마른 거 코다리러지.		박종석(강릉시)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상태				코다리2		명	그물에서 떨어진 명태. 상상하고 큰 명태가 모종 그물에서 떨어지는데 이를 말한다. 모 종 이는 모아서 선주가 매매해 배 경태로 사 용한다. 때에 따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두 통칭해 붙여먹을 만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거는 뭐지. 단지 우리 명태를 거 코다 리라 붙여졌는 거. 떨어졌는 거 가지고 선주도 이제 그 하나까네 고린 불도모 그냥 매매 용한다. {코다리란} 거 뭐이나 그러면 상상 한데 양개서. 양. 양개 밑에 내려와가지고 떨어지니까 코다리라 이러지.		김준래(강릉시)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상태				파치		명	그물 속에 오래 있게 삭한 명태. 명태 위에 다른 고기를 통칭해 부르기도 한다. '파치' 는 명태의 상태보다 좋은 명태를 가 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그물 속에 오래 있어 삭한 명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니지~ 바닷물에 오래 있으니까네 목은니 까네 그 명태가 저 {파지도} 되고 뭐 저저저 뭐야 바다에 그 팔레가 뭐야 새우 같은 물레사 신에는 물리에만 한장작으로 스 김준래(강릉시)		0				
어업	어획물	어류	명태	상태				파태		명	적임 도중에 머리가 부러진 명태.	근데 머리 부러진 거는 {파태고}. 거 저 어 기서는 그 명태를 잘 안 하는데 광태라고 있 어요. 그런 바닷가에서 그냥 말린 거. 그 냥 윗리 엷지 않고 그냥 말린 거.		이상욱(평창군)	0	0		

2 명태 잠이에서 덕장까지 조사어휘(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량	발음정보	동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대 정보 사지	명대 정보 음성	표준어 어휘 특징			
어1	어휘	어휘	명태	종류				명상태		명	그물로 잡은 명태. 그물태와 같은 말이다.	가 그물태를 보고 {명상태} 하는데.		박종석(강릉시)			0				
어2	어휘	어휘	명태	종류				막태		명	명린 과정에서 시꺼멓게 된 명태.	{막태는} 시꺼멓게 된 거 그걸 막태라 그래요.		이상욱(평창군)			0				
어3	어휘	어휘	명태	종류				묵태		명	배 안의 그물에서 떨어져 나온 고기를 선종으로 사용하는데 이를 가리키는 명태. 배 안의 그물물리다 보면 누구의 그물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는 명태가 있다. 이때 그물고 양개 넘어서 인제 지출내가지고 떨어져서 떨어져 나온 고기는 배 안에서 사용하는 부대비용 즉 선종으로 사용하는데 이를 '묵태'라고 한다.	{묵태는} 그가 고기가 인제 줄어서 떨어져 양개 넘어서 인제 지출내가지고 떨어져는 거 보고 묵태라.		김준래(강릉시)		0					
어4	어휘	어휘	명태	종류				무두태		명	잡아올 때 머리가 떨어져 나간 명태를 가리키는 말. 머리는 없고 몸통만 있어 주로 명태채로 이용한다.	{무두태는} 대가리, 대가리를 딱 잘라요. 잘라서 인제 무두태는 그 뭐냐 인제 이 명태채를 들어서 파는 거요. 오뎅개.		이상욱(평창군)		0	0				
어5	어휘	어휘	명태	종류				묵태		명	그물 속에서 오래된 명태. 그물 속에서 오래된 명태는 의미에서 '묵태'로 표현했다. 이는 '묵태'로 발음되기도 했다.	그게는 저 명태가 이게 뭐야. 날이 몇가지지 잘못된 발음의 형태로 '그 묵, 무태'라고 사람이 오래 끓이면 시원이 오래 끓으면 묵태라 그러지. [묵태].		김준래(강릉시)		0					

찾 아 보 기

ㄱ

가90
 가라99
 가마니120
 가새90
 가시오118
 간물92
 간주 본다134
 갑빠108
 갓바120
 갓바다90
 거는사람89
 거는사람에게주는사람89
 건노111
 걸어오다131
 곁그물111
 결산 보다133
 경운기119
 고기 잡으면 오늘 기쁘재이 된다82
 고기가 잘 붙다82
 고기견지는사람89
 고닥99
 고닥칸103
 고랑 엮다133
 고랑대118
 고물99
 관리자89
 관태134
 구멍가리134
 구통126
 구통배기126
 구통수126

끓은거122, 123
 끓은명태123
 그물 추린다130
 그물바리87, 109
 그물태124
 그물태122, 128
 기켓배97
 기관실103
 기관장87
 기둥도리118
 긴장화119
 까풀멸기91
 깡태126, 127
 끄덕그덕한거123, 124

ㄴ

나뭇배97
 나바리109
 나왕나무97
 나이롱그물110
 나이롱줄120
 낙엽송96
 낙태 정리한다134
 낙태129
 낚사공86, 87
 낚수114
 낚수놓는사람87
 낚수사공87
 낚수태124
 낚수합지114
 낚시바리87
 낚시사공87

뉘시대122, 128
 날물93
 날이 들렀다94
 날이 뻥하다94
 낫120
 낫잡이86, 88, 89
 내불거나 날이 반한 날94
 냇물96
 너울91
 너울성91
 너치그물112
 노가리 깎다84
 노가리122
 노꾸라재이87
 노랑태126
 노젓는배97
 놀102
 놀구멍102
 놀끈102
 놀망치102
 놀쫓102
 놀쫓다이102
 낫부102
 눈도 답답하다83
 니마이111

C

다섯치112
 다섯치반112
 닥113
 닥사개111
 대구리98
 대나무114
 대태122, 126
 댛멀기91
 덕118
 덕결이86, 88
 덕대118
 덕보는사람86, 88, 89

덕장 한다133
 덕장96
 덕장목96
 덕주86, 88
 데끼99, 103
 도꾸99
 도꾸리사수(속에입는사수)108
 도루매기93
 도리118
 도모다수99
 도모마쭈라99
 돌 그린다131
 동북간92
 동삼93
 동지 때 명태를 잡으면 통마리로 말려가지고
 잡수면 좋다84
 동지받이93
 동짓날에 명태 잡는 날이다82
 동짓날에 명태 잡는 날이라 했어82
 동태123
 돛99, 100
 돛단배97
 돛대100
 된바다90
 두치112
 두치오부110
 두치짜리110
 두치팔푼110
 등글멀기91
 뒷도모99
 뒷멀기91
 들물93
 덩박그물110
 따브류97
 딸101
 딸구멍101
 딸쭙는구멍101
 딸딸이119
 때꼭지92

뗏국지92

ㄹ

로라104

로라마끼87

리아카119

ㅁ

마발물93

마안들물93

마이 잡았으니까 기꼬재이 된다82

막고닥103

막내이86, 87

말기114

말룽다134

말통103

망개104

망개재이87

망성태129

맞쪽92

맹태122

머구릿배98

먹태126, 127

먼바다90

멀기91

명태122, 123

명태거는사람86, 88

명태그물109

명태배98

명태속135

명태식해136

명태채135

명태하고 마누라는 두드려 패야 맛있다85

모릿줄114

목선97

목조선97

목태125

무두태126, 127

묵태122, 125

물린다131

물밀에92

물오리89

물오리입는옷119

물오리장화119

물웅덩이(물댕크)96

물저고리(덧저고리)108

물지게119

물통103

물화119

ㅂ

바그물110, 112

바닥99

바닷그물110, 112

바닷날이 뻥하다94

바람이 솔솔 부는 날94

바탕덜기91

반모108

반부디122, 123, 124

발113

방간87

방짱103

방한복108

배96

배앞99

배임재86, 87, 88

배질131

백태126, 127

밴대이110

뱃님86

뱃사람86

보망130

보조대118

보채114

부정굿137

북바다91
 바다132
 빵모자108
 뺏기다131
 뿌득뿌득한거123, 124

人

사리깡이120
 사리꼬쟁이120
 사매122, 125
 사우도99
 사잇줄110, 114
 사통126
 산마이111
 산쪽92
 삼99
 삼중망111
 샅120
 상덕118
 상덕꾼86, 88, 89
 상도리118
 상바리86
 상층118
 새고기122, 123, 124
 새끼줄120
 새바다91
 새발물93
 새안들물93
 새쪽92
 셋바람 불면 오늘 작업 틀렸구나82
 셋바람 불면 작업 틀렸다82
 셋바람이 안 부는 날94
 생태123
 서남간92
 서낭당고사137
 석닥이 다 맞았다83
 선원86, 87
 선장86

선장실103
 선주86, 87, 88
 선주풀이137
 선채113
 설대114
 섭살110
 세치(짜리)110
 세치짜리110, 112
 소나무96
 소태122, 126
 속그물111
 숨바지108
 숨우아끼108
 수장104
 수쿠루104
 스푸루104
 시망109
 시망다마111
 시망명태그물109
 시망바리109
 시망배98
 식물123, 124
 식해136
 신봉사놀이137
 신고가는사람89
 신다132
 십일통126
 십통126
 십통수126

○

아가미각두기젓136
 아도101
 아똥줄101
 아랫빌110
 아릿줄114
 아바119
 아주 되게 나갔다90

안그물111
 알기110
 양까110
 앞떨기91
 앞바다90
 앵노가리122
 앵태122, 126
 양호돛100
 양호돛대100
 어구점95
 어구집95
 어부86
 어시장95
 어창103
 어탐104
 어판장95
 엔진배97
 영자86, 87
 영하 십오도 이하면 백태가 지나까
 고기 안 건다84
 옆삼99
 오대기99
 오모까지99
 오삼마이111
 오통126
 왕태126
 왜늘102
 용천대99
 용총줄101
 우꾸새110
 우리나라노102
 우비119
 운두99
 운반책89
 원양태124
 원양태90, 122, 128
 육통126
 은어발이93
 은허93

이깨수칸103
 이깨스통103
 이바다90
 이찌마이111
 일본노96
 일본늘102

ㄱ

자망109
 작대기119
 작은돛100
 작은돛대100
 작은풍100
 잘 사린다130
 잠수미98
 장화109
 재는거123
 전나무96
 정개한다130
 조금 고기가 많이 난다83
 조금에 고기가 많이 나지83
 조까이104
 조선노96
 조선늘102
 종로104
 중간사람86
 중간치123
 중간칸103
 중급92
 중덕118
 중도리118
 중매인88
 중층118
 중태122, 126
 지방태122, 124, 128
 진태가 먹태졌다128
 짓다131
 짚은바다92

짜굽다92
 짝 묶는다134
 잔거123
 잔물92
 쨌거122, 123
 쨌명태123
 찍기대114
 쫄태127
 찍는다131
 쨌태126, 127

大

참나무96
 창손104
 창손대104
 채135
 채린다130
 초리114
 초마갑빠108
 초망110
 좃기110
 출하134
 층118
 치104, 113
 칠통126
 칠통배기126

ㄱ

코 떠다134
 코다리122, 123, 125
 코버선109
 코솔이112
 코잡이86, 88, 89
 큰110
 큰돛100
 큰돛대100
 큰칸103

큰풍100

ㅅ

택택이97
 털모108
 통126
 통마리128
 통배기126
 통황태135
 투망110

ㅈ

파치125
 파태127
 판장95
 팔통126
 팔통배기126
 팔푼짜리112
 패철109
 포135
 푼113
 풍100
 풍대101
 풍선98
 풍어제137
 필113

ㅎ

하늘이 새파래면 바람이 마이 분다83
 하덕118
 하도리118
 하층118
 핫바리86
 헛도모99
 호수 같다94
 흘그물111
 화덕109

화장86, 87
화주86, 88
활가지99
활대101
황태123, 127
후례110
후채113

■ 연구책임자: 강정희(한남대학교)

■ 연구원: 김지숙(영남대학교)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2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쇄일 2011년 11월 20일

발행일 2011년 11월 22일

인쇄 크리홍보(주) (02-737-5377)
